

제59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의 신연구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주최: 구결학회

제59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의 신연구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주최: 구결학회

■ 제59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

2021년 2월 17일(수)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안내 및 개회	10:00-10:30	온라인 대기 및 학술대회 진행 관련 안내	사회: 안대현 (한국기술교육대)
	10:30-10:40	개회사: 장윤희(구결학회 회장)	
[제1부]	개인 연구 발표		사회: 조운성 (성균관대)
	10:40-11:10	한국 한자음의 음절 대응을 통해 본 고대 한국어 'ㄴ'의 음가 발표: 장준익(남경대)	
	11:10-11:40	'ㄴ'의 형태론적 지위에 대하여 발표: LIU ZEYUAN(한림대)	
	11:40-11:50	휴식	
	11:50-12:20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IV)—環興撰 《無量壽經連義述文贊》의 音注를 중심으로— 발표: 권인한(성균관대)	
	12:20-12:50	옛 한문 문헌 속 句讀點의 기능에 대한 일고찰 발표: 최준호(서울대)	
	12:50-13:50	점심 식사	
[제2부]	기획 주제 발표: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의 신연구		사회: 문현수 (고려대)
	13:50-14:20	원각사본 『능엄경』의 음독구결과 연해 기반 석독 표기 발표: 안대현(한국기술교육대)	
	14:20-14:50	『법화경』의 연해 기반 토 표기와 부호의 사용—법응스님 소장본 권1과 영천역사박물관 소장본 권4를 중심으로— 발표: 장경준(고려대)	
	14:50-15:00	휴식	
	15:00-15:30	『南明泉和尚頌證道歌』 구결 연구—종진스님 구장본과 대성암 소장본의 구결을 중심으로— 발표: 김성주(동국대)	
	15:30-16:00	『선종영가집』 구결 자료에 대한 고찰 발표: 하정수(동국대)	
	16:00-16:10	휴식	
	16:10-17:10	[종합토론] 황선엽(서울대), 박부자(성신여대), 김지오(동국대)	좌장: 남경란 (대구가톨릭대)
	17:10-17:20	휴식	
	17:20-17:30	연구윤리 교육	사회: 안대현 (전남대)
교육 및 폐회	17:30-17:40	구결학회 학술논문상 시상	
	17:40-17:50	정기 총회	사회: 안대현 (한국기술교육대)
	17:50-18:00	폐회사: 장윤희(구결학회 회장)	

■ 목 차

<개인 연구 발표>

한국 한자음의 음절 대응을 통해 본 고대 한국어 ‘ㅈ’의 음가.....	장준익 ◆001
‘不-’의 형태론적 지위에 대하여.....	LIU ZEYUAN ◆017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Ⅳ)-璟興撰《无量壽經連義述文贊》의 音注를 중심으로...	권인한 ◆035
옛 한문 문헌 속 句讀點의 기능에 대한 일고찰.....	최준호 ◆057

<기획 주제 발표>

원각사본 『능엄경』의 음독구결과 언해 기반 석독 표기.....	안대현 ◆075
『법화경』의 언해 기반 토 표기와 부호의 사용.....	장경준 ◆089
『南明泉和尚頌證道歌』 구결 연구-종진스님 구장본과 대성암 소장본의 구결을 중심으로...	김성주 ◆113
『선종영가집』 구결 자료에 대한 고찰.....	하정수 ◆127

<개인 연구 발표>

한국 한자음의 음절 대응을 통해 본 고대 한국어 ‘ㅅ’의 음가

張俊翼*

要 約

‘*ɛ’, ‘*e’와 같은 중고음 전설 모음의 한국 한자음 모음은 주로 /ㅅ/였기 때문에 기존 학자들은 고대 한국어 /ㅅ/의 음가를 /e/ 같은 전설 모음으로 봤다.

그러나 중고음에서 ‘*ɔ’나 ‘*o’로 재구되는 3등 魚운자의 한국 한자음 핵모음도 일반적으로 /ㅅ/며, 개음 ‘i’가 없는 전설 모음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은 /ㅅ/, /ㅈ/, /ㅊ/로 혼란스럽게 나타난다. 즉, 개음 ‘i’가 있는 3등운의 경우에는 중고음 핵모음이 전설 모음이 아니더라도 한국어 /ㅅ/와 대응될 수 있으며, 개음이 없거나 개음이 ‘i’가 아닌 경우에는 중고음 핵모음이 전설 모음이더라도 한국어 /ㅅ/와 대응되지 않는 것이다.

중고음 3, 4등운의 한국 한자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어의 /ㅈ/는 중고음 ‘*ia’, ‘*ia’에 대응됐고, /ㅊ/는 주로 ‘*ie’, ‘*ie’, ‘*ie’, ‘*io’와 대응돼 중고음 모음 조음 위치의 전후가 아닌 고저 차이를 반영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개음 ‘i’가 없는 중고음 ‘*æ’와 ‘*a’의 한국 한자음 모음은 /ㅅ/가 아닌 /ㅈ/다. 또 /ㅈ/와 /ㅅ/로 夫(*ai)운과 皆(*æi)운을 억지로 구분한 점, 耕(*æn), 庚(*an)의 한국 한자음 모음이 이중 모음인 /ㅅ/로 나타난 점을 볼 때 고대 한국어 모음 /ㅅ/는 전설 모음이 아니었다.

*핵심어: 중고음, 전설 모음, 한국 한자음, 음절 대응, /ㅅ/

1. 序論

15세기 이전에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한자음의 음운 분석 및 고대 한국어의 한문(漢文)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河野六郎(1968)은 한국 한자음의 음운 구조를 분석한 후 한국 한자음이 비록 여러 층위의 중국 한자음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주로 중국어¹⁾ 후기 중고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伊藤智ゆき(2007), 위국봉(2015) 등 후속 학자들도 河野六郎(1968)의 이 같은 주장을 대체적으로 수용했다.²⁾ 따라서 한국 한자음의 음운 체계를 통해 후기 중고음 시기의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河野六郎(1968)은 한국 한자음의 모음 /ㅅ/가 주로 중고음의 전설 모음과 대응되는 것을 보고 고대 한국어³⁾ 모음 /ㅅ/의 음가가 전설 모음 [*ä]⁴⁾이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仙’과 ‘先’은 중고음 3, 4등자로 전기 중고음(『切韻』 601)의 재구음은 각각 [*siɛn], [*se

* 남경대학교(南京大學) 문학원(文學院) 박사 졸업

1)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시기 구분법에 따라 상고음, 중고음, 근대음으로 나뉘게 된다. 한국어는 고대 한국어, 중세 한국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에 혼돈될 일이 없다. 따라서 이후 상고음, 중고음, 근대음은 곧 중국어를 가리킨다.

2) 다만 중고음 체계에서 蟹攝운의 한국 한자음은 重韻(重韻)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박병채(1971)는 한국 한자음이 주로 중국어 전기 중고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본고에서 “고대 한국어”는 15세기 “중세 한국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중고음 시기 한국어를 가리킨다.

4) 河野六郎(1968)은 주로 Kargren(1926)의 재구음을 따른다.

n)5) 인데 후기 중고음 시기(『慧琳音義』 806) 3, 4등이 합류하며 4등운에 개음 [i]가 더해진다. 따라서 河野六郎(1968)은 ‘仙’과 ‘先’의 15세기 한국 한자음 ‘션’은 후기 중고음을 반영했다는 보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음운 대응 현상을 통해 볼 때 고대 한국어 모음 /ɨ/의 음가는 전설 모음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한 것이다.

게다가 河野六郎(1968)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⁶⁾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표 1> 15세기 한국어 모음과 알타이어 공통조어⁷⁾ 모음의 비교

알타이어 공통조어 모음	i (음)	y/i (양)	ü (음)	u (양)	ö (음)	o (양)	e/ä (음)	a (양)
15세기 한국어 모음	ㅣ		ㅓ	ㅜ	ㅡ	ㅗ	ㅑ	ㅓ

알타이어계 언어의 모음 체계에는 모음조화 현상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데 Ramstedt(1957)에 따르면 알타이어 공통조어의 양성 모음은 후설 모음이며 음성 모음은 전설 모음이 된다. (구개적 조화) 다만 15세기 한국어의 모음조화는 알타이어 공통 조어의 모음조화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조음 위치가 전후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河野六郎(1968) 한국어가 알타이어 공통조어에서 분화된 언어라면 고대 한국어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조음 위치도 전후의 차이로 나타났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봤다. 한국어의 양성 모음 /ㅓ/[a]에 대응하는 음성 모음 /ㅑ/의 [*ä]나 [*e]가 점차 [*ə]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중국 학계에서 중국어 중고음의 전설 모음 재구음이 Kargren(1926)의 [*ä]에서 邵榮芬(1982), 潘悟雲(2000), 鄭張尚芳(2003) 등의 [*æ], [*ɛ], [*e]로 변했고, 이에 따라 고대 한국어 /ㅑ/의 재구음 역시 河野六郎(1968)의 [*ä]에서 伊藤智ゆき(2007), 위국봉(2015) 등의 [*e]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른 시기부터 한국어가 알타이어계 언어와의 관련성이 깊지 않다는 지적은 있었고⁸⁾ 심지어 오늘날에는 알타이어족 가설 자체를 부정하는 학계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⁹⁾ 만약 고대 한국어의 기원을 알타이어 공통조어로부터 찾을 수 없다면 고대 한국어의 /ㅑ/ 역시 반드시 전설 모음으로 재구될 필연성은 없는 것이다.

<표 2> 중고음 [*a], [*ɐ], [*ɔ]와 한국 한자음 /ㅑ/의 대응

운(韻)	庚 *i(u)an	廢 *i(u)ei	嚴凡 *i(u)em	元 *i(u)en	魚 *io
대응례	京 *kian 경	肺 *piuei 폐	劍 *kiem 검 ¹⁰⁾	建 *kien 건	居 *kio 거

5) 본문의 중고음 재구음은 잠시 潘悟雲(2000)을 따르며 필요시 조금의 수정을 가한다. 4등운에 대해 尉遲治平(2002), 劉廣和(2002) 등은 전기 중고음 시기에도 개음 [i]가 있다고 본다. 다만 핵모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6) 초기 알타이어족설을 연구한 Ramstedt(1949, 1953)는 한국어와 알타이어와의 관계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7) Ramstedt(1957),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 MSFOu 104-1, p. 136.

8) Poppe(1965)는 원시 한국어가 알타이어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분화된 언어라고 했다.

9) Benzing(1953), Doefler(1963, 1965) 등은 기초적인 수사 등의 불일치를 근거로 알타이어족 가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10) 일부 한국 한자음이 중고음의 개음 [i]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한국 한자음만의 독특한 특징이며, 분명 고대

<표2>에서 보듯이 한국 한자음에서 고대 한국어의 /ㅣ/는 중고음 [*ɛ], [*e] 뿐만 아니라 [*a], [*ɐ], [*ɔ]와도 대응하고 있다.

물론 邵榮芬(1982)에 따르면 수대(隋代)의 운문(韻文)에서 庚[*ian]운이 淸(*ien), 靑(*en)운과 압운(押韻)되는 경우가 淸(*ien), 靑(*en)운이 서로 압운되는 경우보다 많다고 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庚[*ian]운의 핵모음은 [a] 와 [æ]의 중간쯤에 있었을 것이라 봐야 한다. 그렇다면 庚[*ian]운과 고대 한국어 /ㅣ/와의 대응을 기존 학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廢[*iei], 嚴凡[*iem], 元[*ien]운의 경우 후기 중고음 시기(『慧琳音義』 807)에 각각 祭[*iei], 鹽[*iem], 仙[*ien]운과 합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 한자음이 주로 후기 중고음을 반영한 것이라면 고대 한국어의 /ㅣ/는 일관적으로 중국어 모음 [*ɛ]에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魚[*io]¹¹⁾운은 『慧琳音義』(807)에서도 아직 虞[*iu]운과 합류하지 않았고, 『中原音韻』(1324)에서 虞[*iu]운과 합류한다.¹²⁾ 통시적인 관점에서 “*ɔ > *u”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만약 고대 한국어의 /ㅣ/의 음가가 [*e]였다고 한다면 魚[*io]운은 이론적으로는 고대 한국어의 /ㅟ/ 혹은 /ㅢ/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魚[*io]운의 한국 한자음 모음은 /ㅢ/였는데,¹³⁾ 대부분의 魚[*io]운의 한국 한자음 모음은 /ㅣ/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申祐先(2017)은 李基文(1977)의 연구를 토대로 고대 한국어에는 원래 [*ie]와 [*iə]가 공존하고 있었고, 한국 한자음의 /ㅣ/ 표기는 [*ie]와 [*iə]가 합류한 이후의 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대 한국어에서 /ㅣ/가 [*ie]와 [*iə]를 포함한 표기였다는 근거가 빈약하다.¹⁴⁾ 게다가 애초에 /ㅣ/의 음가가 [*ə]에서 변동이 없었다고 하면, 魚[*io]운과의 대응도 이상할 게 없다.¹⁵⁾ 또 고대 한국어에서는 아직 /ㅟ/와 /ㅢ/가 단모음이 되기 전이기에 [*ie]와 [*iə]가 어쩔 수 없이 /ㅣ/[iə]와 대응될 수밖에 없었을 수 있다.

한경호(2015)는 陳忠敏(2003)의 연구를 토대로 중국의 중남부 방언에서 魚운이 “*i > *ie”형의 음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한국 한자음이 바로 이 방언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당오대(唐五代) 서북 방음(763-857)¹⁶⁾의 “일부” 魚운이 止攝[*i]운에 합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동자료의 “다른 일부” 魚운은 虞[*iu]운에 합류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魚운의 운모(韻母)가 /ㅣ/나 /ㅣ/로 나타나는 한국 한자음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11) 張玉來(2009)에서는 이른 시기 운도(韻圖)의 내전(內轉)과 외전(外轉)의 체계성을 고려하면 魚운은 [*io]로 재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상고음부터 시작해 “*a > *ɔ > *o > u”의 음운 변화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12) 『中原音韻』(1324)의 재구음은 寧繼福(1985)를 따른다.

13) 예를 들어 “所”[*sio] 역시 魚운자지만 한국 한자음은 “소”다. 이에 대해 有坂秀世(1944)는 송대(宋代) 개봉음(開封音)의 권설음을 반영해 개음도 없고 핵모음도 다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위국봉(2015)은 만약 한국 한자음이 송대 개봉음을 반영한 것이라면, 章조 성모 역시 莊조 성모에 합류해 개음이 탈락하고 핵모음도 바뀌어야 마땅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書”[*cio]의 한국 한자음은 [셔]이다. 이렇듯 한국 한자음이 莊조와 章조 성모를 구분하는 것은 중고음의 특징이라 본 것이다.

14) 李基文(1968, 1969)은 주로 『鷄林類事』, 『朝鮮館譯語』 자료에 의거해 옛 한국어를 재구했는데 중고음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15) “Coffee”[kɔfi]의 현대 한국어 외래어 발음이 [커피]인 것으로 볼 때 고대 한국어 /ㅣ/의 음가가 현대 한국어와 같았다면 [ɔ]와의 대응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16) 羅常培(1933)의 한장대음(漢藏對音) 자료를 말한다.

게다가 “*i > *ie” 형의 음운 변화는 중국 중남부 “방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국 한자음이 주로 『切韻』(601)이나 『慧琳音義』(807) 같은 운서의 음운 체계를 반영한 반면 유독 魚운만은 “방언”의 운모 [ie]를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까지 볼 때, 문제는 魚[*iɔ]운만이였다. 기존의 학자들은 예외인 魚[*iɔ]운과 고대 한국어 /ㅟ/와의 대응 문제만 해결하면 됐다. 그러나 문제는 魚[*iɔ]운만이 아니다. 중국 학계에서 중고음의 2등운은 江[*ʌŋ]¹⁷⁾운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전설 모음이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3등운과 비교해서 개음이 없거나,¹⁸⁾ 개음이 [i]가 아닌 것이다.¹⁹⁾

<표 3> 중국어 저모음의 역사 변화

운(韻)	전설 저모음		후설 저모음	
『切韻』 (601)	佳皆耕咸山 *æ	麻夫庚衡刪肴 *a	歌泰唐談寒豪 *ɑ	哈江覃 ²⁰⁾ *ʌ
『慧琳音義』 (807)	*a(*æ)		*ɑ ²¹⁾	
『中原音韻』 (1324)	*a(일부 후아음 제외) ²²⁾			

<표 3>에서 보듯이 『切韻』(601)은 물론이거니와 『慧琳音義』(807) 음운 체계에서도 후설 저모음과 전설 저모음은 확고하게 구분되어 있다.²³⁾ 중고음에서 재구음 [*a]는 한국어의 /ㅏ/와 달리 후설 모음 [*ɑ]와 변별되는 음소 지위가 있어 조음 위치 면에서는 [*æ]와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 만약 고대 한국어의 /ㅟ/도 후설 모음 /ㅏ/와 구별되는 음소적 지위가 있는 전설 모음이었고, (알타이어족설) 한국 한자음이 『切韻』(601) 혹은 『慧琳音義』(807)와 같은 중고음을 주로 반영했다면 한국 한자음에서도 후설 모음(/ㅏ/)과 전설 모음(/ㅟ/)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음 [i]가 없는 전설 모음의 경우 한국 한자음 모음의 대응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咸”[*ɣæm]의 한국 한자음 “함”, “間”[*kæŋ]의 한국 한자음 “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ㅏ/와 대응되며 결코 /ㅟ/로 대응돼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皆”[*kæi]의 한국 한자음 “ ”와 같이 /ㅜ/와 대응될 때도 있고, 심지어 “幸”[*ɣæŋ]의 한국 한자음 “ ”에서 보듯

17) 潘悟雲(2000)은 중고음 江운의 핵모음을 [*ɔ]로 재구했으나 『切韻』(601)에서 江운은 개구(開口)운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鄭張尚芳(2003)의 재구음인 [*ʌ]를 참고한다.

18) Kargren(1926), 陸志韋(1947), 李榮(1956), 董同龢(1968), 邵榮芬(1982)은 중고음 2등운에 개음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19) 黃笑山(2002)은 중고음 시기에도 상고음처럼 이등운에 개음 [r]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鄭張尚芳(2003)은 상고 개음 [r]이 변화한 [ɣ]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潘悟雲(2000)은 개음 [w]가 있었다고 본다. 다만 한국어는 [i]가 아닌 개음을 반영하기 극히 어렵고 본문은 모음의 대응을 주로 문제 삼기 때문에 편의상 2등운에 개음이 없었다고 본다.

20) 潘悟雲(2000)은 상고음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哈, 覃운의 모음을 [*ə]로 재구했으나 상고음과 중고음은 시기적으로 너무 멀다. 『切韻』(601)의 중운(重韻)은 『慧琳音義』(807) 시기 모두 합류되는 것으로 봐서는 중운 모음의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고에서는 鄭張尚芳(2003)의 재구음 [*ʌ]를 따른다.

21) 『慧琳音義』(807)에서 江운[*ʌŋ]과 唐운[*ɑŋ]을 구분하나 咍[*ɬi], 覃운[*ʌm]은 이미 泰[*ai], 談운[*am]에 합류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미 합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2) 일부 후아음자의 핵모음은 [*ɛ]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23) 『慧琳音義』(807) 음운 체계에 대해서는 黃淬伯(1993, 1998), 儲泰松(2005), 金雪萊(2005), 趙翠陽(2009)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黃淬伯(2002)를 제외하고는 『慧琳音義』(807) 음운 체계의 후설 저모음과 전설 저모음이 매우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단 黃淬伯(1998)은 關中 방언의 연구 관점에서 『慧琳音義』(807)를 참고한 것이다. 즉, 『慧琳音義』(807)만을 분석했을 때는 후설 저모음과 전설 저모음이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중 모음 /ㅅ/와 대응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ㅅ/와 대응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階”[*kæi]의 한국 한자음 “계”, “耕”[*kæŋ]의 한국 한자음 “경”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후아음자이며, 이들 한국 한자음은 근대음에서 후아음에 개음 [i]가 덧붙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고음 개음 [i]의 유무가 한국 한자음의 대응 모음을 결정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중고음이든 근대음이든 중국어의 전설 모음에 개음 [i]가 있으면 한국어 이중 모음 /ㅅ/와 대응되고 개음 [i]가 없으면 다른 한국어 모음과 대응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중국어의 전설 모음에 개음 [i]가 있을 때는 왜 유독 한국어 이중 모음 /ㅅ/와만 대응되는지에 대해서 한국 한자음 음절 대응 및 한국어 음절 제약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중국어의 전설 모음에 개음이 없거나 개음이 [i]가 아닌 경우에는 왜 한국 한자음 모음이 다양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중국어 음운의 통시적 변화 및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접촉 관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중고음 3, 4등운과 한국 한자음의 대응 문제

한국 한자음의 구체적인 실례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했다. 특히 伊藤智ゆき(2007), 權仁瀚(2009)에서는 여러 운서 및 사전류 서적에서 15세기 및 16세기 한국 한자음을 조사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이들의 자료를 주로 참고했다. 또한 현대 한국어의 상용한자 3,500개를 주요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상용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음이 실제 구어 중에 발화됐는지 의심스럽고, 구어 중에 발화되지 않았던 한자음은 운서에 의해 규정된 음으로 나타나거나 성부(聲符)에 의해 유추된 한자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15, 16세기 문헌에서 3회 이상 출현한 한자음²⁴⁾의 경우에는 상용한자 3500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보편적인 사용을 근거로 주요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4> 중고음 3, 4등운 한국 한자음의 실례²⁵⁾

모음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성모	ia, ia	io, ie, (w)ie, ie	i, (w)i	
幫p		蔽/餅/貶/變 페/병/펼/변	稟 품	比/氷/賓 비/빙/빈
並b		弊/竝/便 페/병/변	鼻/憑/頻 비/빙/빈	
滂p ^h		篇 편	品 품	丕 비
明m		袂/名/棉 메/명/면	美/民 미/민	
端t		堤/丁/點/典 데/딩/뎡/뎡	地 디	
定d		題/停/甜/田 데/딩/뎡/뎡		
知t	張 당	貯/貞/沾/展 더/딩/뎡/뎡	致/徵/砧/珍 티/딩/뎡/뎡	

24) 伊藤智ゆき(2007)의 자료를 참고해 3회 이상 출현의 기준을 정한다.

25) 중복되는 한자음 음절은 구태여 반복해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蔽”와 “閉”의 성모는 모두 幫모(*p)고 한자음은 모두 “페”인데 3등과 4등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3등운 “蔽”만 제시했다.

제59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澄d	長 당	箊/滯/모/塵 더/테/명/던		遲/澄/朕/陳 디/딩/딤/딘	
透 ^h		體/聽/添/天 테/팅/텀/턴			
徹 ^h	暢 탕	攄/偵 티/명		恥 티	
泥n		寧/念/年 녕/념/년			
娘n	娘 냥	女 녀		尼/賃 니/님	
來l	良 량	呂/勵/令/廉/連 려/래/령/럼/런		陵 릉	利/林/肅 리/림/린
精ts	借/將 차/장	祭/精/尖/煎 제/정/첨/전		姿 자	浸/津 침/진
從dz	藉/牆 자/장	沮/齊/情/錢 저/제/정/전		瓷 차	秦 진
章tɕ	者/章 자/장	制/正/占/戰 제/정/점/전		蒸 증	脂/斟/眞 지/짐/진
清ts ^h	且/槍 차/창	睢/淸/籤/遷 저/청/첨/천		次 차	稱/侵/親 칭/침/친
昌tɕ ^h	車/昌 차/창	處/闡 처/천		鷗/審/噴 치/심/진	
心s	寫/相 샤/상	胥/洗/性/纖/仙 셔/세/성/섬/션		私 사	心/新 심/신
邪z	邪/詳 샤/상	徐/羨 셔/션		辭 사	尋/燼 심/신
書ɕ	奢/商 샤/상	書/世/聲/閃/扇 셔/세/성/섬/션		升 승	屍/深/申 시/심/신
船dz	蛇 샤	抒 셔		乘 승	神 신
禪z	社/常 샤/상	誓/禪 세/션		承 승	視/甚/辰 시/심/신
日nɕ	惹/讓 /	如/染/然 / /		二/任/仁 / /	
見k	迦 가	居/揭/劍/ 建 거/게/검/ 건	雞/勁/兼/ 甄 계/경/검/ 건	己/莛/金/ 斤 기/금/금/ 근	緊 긴
羣g	伽 가	巨/偈/儉/ 健 거/게/검/ 건	頸/謙 경/검	期/琴/勤 기/금/근	伎 기
溪k ^h		去/憩 거/게	啓/輕/遣 계/경/건	器/欽 기/흠	棄 이
曉x		虛/險/軒 허/험/현	醺/馨/顯 헤/형/현	喜/興/歆/ 欣 히/흥/흠/ 흔	
匣ɣ		系/形/嫌/賢 계/형/협/현			
疑ŋ		魚/嚴/言 어/엄/언	藝/迎/硯 예/영/연	疑/凝/吟/ 銀 의/응/음/ 은	
影(?)		於/掩/堰 어/엄/언	嬰/厭/煙 영/염/연	懿/應/音/ 殷 의/응/음/ 은	伊/因 이/인
云ɣj		炎 염			
以ji	也 야	余/裔/盈/鹽/演 여/예/영/염/연		淫 음	夷/孕/寅 이/잉/인

<표4>에서는 합구호 개음이 있는 한국 한자음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고음과 한국 한자음의 비원순 모음 대응을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다. 위 표에서 역사 층위가 다른 한자음도 고려하지 않았는데²⁶⁾ 중고음 차용 시기의 한국 한자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운미가 ‘-u’인 중고음의 한국 한자음도 다루지 않았는데 한국어에 본래 운미 ‘-u’가 없어서 한국 한자음의 모음이 변형되기 때문이다.²⁷⁾ 입성자도 굳이 다루지 않았는데 한국 한자음에서 입성은 운미의 차이로만 나타나기 때문에²⁸⁾ 모음 대응을 살펴보는 데에는 잉여적인 요인일 뿐이다. 또 莊 조 성모(莊 *tʃ, 初 *tʃʰ, 崇 *dʒ, 生 *ʃ, 俟 *ʒ)도 다루지 않았는데 莊 조 성모를 다른 성모와 구분하기 위해 한국 한자음의 모음이 변형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²⁹⁾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한자음은 중고음 3, 4등의 복잡한 모음을 전부 반영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고음의 저모음군(*ia, *ia)의 대응 이중 모음은 “ㅏ”나 단모음 /ㅏ/고³⁰⁾, 중모음군(*io, *ie, *ie, *ie)의 대응 이중 모음은 “ㅓ”나 단모음 /ㅓ/고, 고모음군(i, i)은 대응 모음이 /ㅣ/나 /ㅡ/인 것을 알 수 있다.³¹⁾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한국어의 “ㅏ”와 “ㅓ”가 중고음 모음 음가의 전후가 아닌 고저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고대 한국어 /ㅏ/와 /ㅓ/가 알타이어계 공통 조어 모음과 마찬가지로 후설 모음과 전설 모음이었다면 “ㅏ”는 중고음의 후설 모음과 대응됐을 것이고, “ㅓ”는 중고음의 전설 모음과 대응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표 5> 중고음 3, 4등 [*ia], [*ia]의 공백

운미 개음절	저모음		중모음			
	a	a	ɔ	e	ε	e
	戈	麻	魚		支 ³²⁾	
ㄴ/k	陽				庚 ^{33)/} 清	青
n/t				元	仙	先
m/p				嚴/凡	鹽	添
i			廢		祭	齊

물론 <표5>에서 보듯이 저모음군(*ia, *ia)에 해당하는 중고음 3, 4등운이 적기는 하다. 즉, 戈(*ia), 麻³³⁾(*ia), 陽(*ian)³⁴⁾운의 한국 한자음 이중 모음 “ㅏ”와 변별되기 위해서 다른 중모음군에 해당하는 3, 4등운자의 한국 한자음의 이중 모음이 “ㅓ”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26) 예를 들어 “米”의 한국 한자음 “미”는 근대음 *mi 『中原音韻』(1324)를 반영한 것이다.

27) 예를 들어 “喬” *kwieu의 한국 한자음은 “교”다.

28) 예를 들어 “餅” *pieŋ과 “璧” *piek의 한국 한자음은 각각 “병”과 “벽”이다.

29) 앞서 설명했듯이 “書” *ɕio의 한국 한자음이 “서”인 반면에 “所” *ʃio의 한국 한자음은 “소”다.

30) 일부 한국 한자음 후아음에서 개음 [i]가 탈락되는데 이는 중국어의 중뉴 B류 개음 [w]를 반영한 것이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중뉴 B류가 아닌 경우에도 자주 탈락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1) 위 표에서 보듯이 止섭운 精 조 성모(精 *ts, 淸 *tʃʰ, 從 *dz, 心 *s, 邪 *z)의 경우 대응 모음이 /ㅏ/인 데, 이는 莊 조 성모와 마찬가지로 다른 역사 층위를 반영하고 있거나, (河野六郎 1968) 서로 다른 성모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모음을 쓴 것일 수도 있다. (위국봉 2015)

32) 支운[*ie]의 경우 한국 한자음의 대응 모음은 /ㅓ/가 아니다. 이미 다른 止섭운과 합류한 상태로 『慧琳音義』(807) 음운 체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張玉來(2009)의 견해대로 본래 재구음이 [*ia]였을 수 있다.

33) 앞서 언급했듯이 庚³³⁾운의 중국 학자들의 재구음은 일반적으로 [*ian]이지만 핵모음의 조음 위치는 실질적으로 [*a]와 [*æ]의 중간이다.

34) 潘悟雲(2000)은 陽운이 경순음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ien]으로 재구하지만 본고에서는 한국 한자음의 실례 및 중국어 모음의 역사 변화 양상을 근거로 기존의 견해대로 [*ian]으로 재구한다.

들어, “奢”[*cia]의 한국 한자음 “샤”와 구분하기 위해서 “書”[*cio]의 한국 한자음이 “셔”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미가 ‘n/t’, ‘m/p’, ‘i’ 인 경우 고대 한국어에 만약 /e/와 같은 전설 모음이 없었다면 3, 4등운의 한국 한자음 운모가 반드시 “븘/븘”, “븨/븨”, “븨”일 필요는 없고, 일부는 “븘/븘”, “ /븘”, “븨”여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즉, 논리적으로 “扇”[*cien]의 한국 한자음은 “션”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는데 왜 반드시 “션”이어야 하냐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한국 한자음의 대응 문제가 한국어의 음절 제약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본다. 중고음 차용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한국어 음절 제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5세기 한국어 고유어 음절을 통해 고대 한국어의 음절 제약을 추정할 수 있다. 15세기 한국어 고유어 음절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종 기혁」 역사 말뭉치에서 1,089,350 개의 한국어 음절을 사용했다. 이 말뭉치에는 모두 21종의 15세기 한글 문헌이 담겨 있다. 그리고 15세기 한국어 문헌 32종을 포함해 조사한 『李朝語辭典』(1964)의 수록자도 함께 참조했다.

<표 6> 15세기 한국어 이중 모음 “ㅑ”, “ㅓ” 음절 유형 분석³⁵⁾

운미 자음	∅	-i	-ŋ	-k	-m	-p	-n	-l
ㅂ	버	베	뵤	벽		뵵	뵶	뵷
ㅍ	퍼	페	뵹		뵼		편	뵽
ㅁ	머	메	명				면	뵼
ㄷ	다	데	당	덕	뎡	뎡	뎡	뎡
ㅌ	터	테	탕	탁			턴	털
ㄴ	냐		냥					
	녀	네	녕	넉	넴	넵	넶	넷
ㄹ	랴		량	략				
	려	레	령	럭	렴	렵	려	렷
ㅈ	자	재	장	작				잘
	저	제	정	적	점	접	전	절
ㅊ	차		창	착				
	쳐		청	척		첩	천	철
ㅅ	사		상		삼		산	살
	셔	세	성	석	섬		션	설
ㅅ			□	□				
							□	□
ㄱ	가	개						
	겨	계	경	격	검	겅	견	결

35) 한국어의 구체적 음절 특징을 아래와 같이 표시해 나타내었다.

벽: 진하게 표시되어 있다. 한자처럼 한 음절로 한 단어를 이룰 수 있다.

뵶: 밑줄이 그어져 있다. 이 음절은 어중에서만 출현한다는 의미다.

뵽: 점선이 그어져 있다. 이 음절은 어미 변화형으로써만 출현한다.

벼: 밑줄이 없다. 이 음절은 어두에도 출현하나 한 단어를 이룰 순 없다.

뵹: 원래 한자음 음절이지만 고유어처럼 사용된다. 귀화된 한자음 음절.

ㄱ	켜							
	하		향					
ㅎ	혀	혜	형	혁	협	협	현	혈
	야	애	양	약	얌	얌	얀	
ㅇ	여	예	영	역	염	염	연	열

<표6>에서 보듯이 15세기 한국어 문헌에서 한국어 이중 모음 /ㅅ/이 있는 음절 유형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ㅅ/이 있는 음절 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꺄/꺄”, “/꺄”, “꺄” 유형의 음절 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모음 /ㅅ/의 음가가 /e/가 아니라 해도 중고음의 운미가 ‘n/t’, ‘m/p’, ‘i’ 인 경우 한국 한자음 운모는 “꺄/꺄”, “꺄/꺄”, “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해보면 현실적으로 한국어의 비원순 모음 중에서 성운학식 표현으로 개음 [i]와 결합 가능한 것은 /ㅅ/와 /ㅅ/밖에 없는데 한국어 음절에서 “ㅅ”의 음절 유형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ㅅ”가 중고음 3, 4등운과 더 많이 대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ㅅ”와 “ㅅ”가 조음 위치의 고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고대 한국어 /ㅅ/와 /ㅅ/의 차이가 조음 위치의 전후가 아닌 고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

3. 중고음 2등운 한국 한자음 모음의 혼란

중고음 2등운의 상황은 3, 4등운과는 사뭇 다르다. 중고음 2등운에는 개음이 없거나 개음이 [i]가 아닌데 이 경우 한국어 모음 /ㅅ/가 앞서서와 같이 대응상의 우위가 전혀 없는 것이다.

<표 7> 山, 刪, 咸, 銜운 한국 한자음의 실례

운모 성모	山 *æn	刪 *an	咸 *æm	銜 *am
幫p		班반		
並b	辦판	阪판		
滂p ^h		攀반		
明m		慢만		
知t			站참	
澄d	綻탄			
徹t ^h				
娘ŋ				
來l				
莊tʃ	齰잔		斬참	
崇dʒ	棧잔		讎참	
初tʃ ^h				饑참
生ʃ	山산	刪산		
見k	間간	諫간	減감	監감
溪k ^h	慳간			
曉x			陷함	
匣ɣ	閑한		咸함	銜함
疑ŋ	眼안	雁안		巖암
影(?)		晏안		

비록 『慧琳音義』(807) 같은 운서음에서 1등운과 2등운의 구별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당오대(唐五代) 서북 방음(763-857) 자료에서 1등운과 2등운은 대체적으로 합류한다. 예를 들어 “山”의 근대음은 [*ʂan]으로 중고음 [*ʃæn]과 비교해 모음 음가가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이미 당오대(唐五代) 서북 방음(763-857)에서는 나타나고 있었다. 河野六郎(1968)은 한국 한자음이 바로 이런 중국어의 현실적인 음성을 반영한 것이라 보고 있다.

<표 8> 山, 咸운 후아음의 역사 변화

성모 \ 운모	山 *æ̃n > *ĩɛ̃n		咸 *æ̃m > *ĩɛ̃m	
	중고음	현대음	중고음	현대음
見k	間 *kæ̃n	間 *tɕĩɛ̃n	減 *kæ̃m	減 *tɕĩɛ̃m
溪k ^h	慳 *k ^h æ̃n	慳 *tɕ ^h ĩɛ̃n		
曉x			陷 *xæ̃m	陷 *ɕĩɛ̃m
匣ɣ	閑 *ɣæ̃n	閑 *ɕĩɛ̃n	咸 *ɣæ̃m	咸 *ɕĩɛ̃m
疑ŋ	眼 *ŋæ̃n	眼 *ĩɛ̃n		

그러나 한국 한자음이 주로 당오대(唐五代) 서북 방음(763-857)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³⁶⁾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2등운 후아음(喉牙音)의 경우 순설치음(脣舌齒音)과 달리 1등운에 합류하지 않는다. 개음 [i]가 덧나며 도리어 점차 3, 4등운 후아음에 합류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8>에서 보듯이 중고음 2등운자 “間”은 현대 보통화에서 3등운자 “建”, 4등운자 “見”과 발음이 같은데 이는 중국어의 “間”이 중고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전설 모음의 음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2등운 중에 咸[*æ̃m], 山[*æ̃n]운은 각각 3등운 鹽[*ĩɛ̃m], 仙[*ĩɛ̃n]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潘悟雲(2000)은 『切韻』(601) 시기의 핵모음을 [*æ]로 재구했다. 따라서 咸[*æ̃m], 山[*æ̃n]운은 역사적으로 [*æ̃]>[*ĩɛ̃]로 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æ̃]>[*ã]>[*ĩɛ̃]로 변했다고 보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河野六郎(1968)의 주장대로 만약 고대 한국어 /ɨ/가 /e/와 같은 전설 모음이었다면 “間”[*kæ̃n]의 전기 중고음 한국 한자음은 개음이 없는 “견”이어야 마땅했고, 그 이후 역사 층위의 한자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개음이 있는 “견”이거나 구개음화를 겪은 “전”이어야 하지 중간에 “간”과 같은 한국 한자음이 나타난다는 건 수용할 수 없다.

<표 9> 皆, 夬, 泰, 哈운 한국 한자음의 실례

성모 \ 운모	皆 *æ̃i ³⁷⁾	夬 *ai	泰 *ai	哈 *ʌi ³⁸⁾
幫p	拜	敗패	貝패	
並b	僊빅 排	唄패	沛패	倍
滂p ^h	滂			
明m	埋	邁매		
端知tt			帶	戴
定澄dd			大대	臺
透徹t ^h th			太태	態
泥娘nn			奈내	耐내 乃
來l			賴뢰	來

36) 여러 가지 음운 특징을 통해 한국 한자음에 당오대 서북 방음(763-857)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한자음에서는 탈비음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知, 莊, 章조 성모의 통합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通섭운이 모두 통합되지도 않았다.

精莊tstʃ	齋지			災
從崇dzdʒ	豺치	寨채		才
淸初tsʰtʃʰ			蔡채	猜치 彩
心生sʃ				塞
見k	階계 介개 皆		蓋개	漑개 改
溪kʰ			愜개	凱개 開
曉x				海
匣ɣ	械계 諧口		害해	咳
疑ŋ			艾애	礙애
影(?)			曖애	哀

蟹攝운의 경우 한국 한자음이 중운(重韻)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표9>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저모음군(*ai, *ai)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은 /ㅏ/고 중모음군(*æi, *ai)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은 /ㅓ/다. 한국 한자음 이중 모음 “ㅑ”와 “ㅓ”가 중고음 3, 4등 모음의 고저 차이를 반영했듯이 한국 한자음 모음 /ㅏ/와 /ㅓ/는 중고음 1, 2등 모음의 고저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皆운(*æi)의 한국 한자음 모음이 /ㅓ/인 것은 매우 억지스럽다. 고대 한국어 모음 /ㅓ/의 음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설 모음이 아닌 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대 한국어 모음 /ㅓ/의 음가가 /e/였다면 皆운(*æi)의 한국 한자음 모음이 /ㅓ/인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도리어 고대 한국어 모음 /ㅓ/가 전설 모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 한국인은 /ㅏ/와 /ㅓ/를 활용해서 중고음 ㅑ운(*ai)과 皆운(*æi) 모음의 고저 차이만을 반영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한국 한자음이 蟹攝운의 한국 한자음이 중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는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伊藤智ゆき 2009, 위국봉 2015)³⁹⁾ 특기할 만한 점은 중운은 전기 중고음(『切韻』 601)의 특징이라는 점이다.

후기 중고음(『慧琳音義』 807) 시기에는 혹여나 현실적으로는 1등운과 2등운이 거의 합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기 중고음 시기에는 1등운과 2등운이 분명 엄격하게 구분돼 있었을 텐데 한국 한자음은 1, 2등운 모음 조음 위치의 전후 차이는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1, 2등운 모음의 고저 차이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대 한국어가 모음 조음 위치의 전후 차이를 반영하는 데 불리했고, 고저 차이를 반영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렇듯 皆운(*æi)의 한국 한자음 모음 /ㅓ/는 실제 중국어 음운을 반영했다기보다는 한자음을 구별하기 위한 인위적인 음역이었다고 봐야 한다. (/ㅏ/와 /ㅓ/를 이용한 음역) 자연스럽게 皆운(*æi)의 한국 한자음에는 중국어의 실제 음성을 반영한 다른 한자음이 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

<표9>에서 보듯이 “ㅑ”의 한국 한자음 모음은 /ㅏ/인데 『慧琳音義』(807) 시기 중운의 합류

37) 일부 중국학자들이 皆운을 [*ei]로 재구하나(邵榮芬 1982 등) 이는 佳운과의 변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皆운은 祭[*iei], 齊운[*iei]과 가깝고, 潘悟雲(2000)은 佳운[*æ]이 운미가 없었다고 보고 皆운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 학계의 동향을 통해 볼 때 皆운은 [*æi]로 재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8) 潘悟雲(2000)은 상고음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咍운의 모음을 ə 로 재구했으나 상고음과 중고음은 시기적으로 너무 멀다. 『切韻』(601)의 중운(重韻)은 『慧琳音義』(807) 시기 모두 합류되는 것으로 봐서는 중운 모음의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고에서는 鄭張尙芳(2003)의 재구음 *ai를 따른다.

39) 물론 왜 蟹攝에서만 중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야 할 문제다.

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고대 한국어에서 [a]와 [æ]의 실제 음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階”의 한국 한자음 “계”는 『中原音韻』(1324) 시기 후아음자에 개음 [i]가 덧난 것을 반영한 것인데, 역시나 개음 [i]가 있자마자 이중 모음 /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0> 耕, 庚운 한국 한자음의 실례

성모 \ 운모	耕 *æŋ	庚 *aŋ	
幫p			
並b		彭	
滂p ^h		澎	
明m	萌	盲	
知t			
澄d			
徹t ^h		撐	
娘ŋ			
來l		冷	
莊tʃ	爭		
崇dʒ			
初tʃ ^h			
生ʃ		生	
見k	耕 경	庚 경	羹
溪k ^h		坑	
曉x			
匣ɣ	幸	衡 형	行
疑ŋ			
影(?)	鶯		

耕(*æŋ), 庚(*aŋ)운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은 매우 독특하다. 한국 한자음의 이중 모음 “ɨ”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잠시 소개해 보고자 한다.

河野六郎(1968)은 중고음에 ŋ 운미가 있었다고 봤고, 耕(*æŋ), 庚(*aŋ)운의 이중 모음 “ɨ” 중의 /ɨ/가 운미 ŋ 과 함께 ŋ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봤다. 모음 /·/는 /ɨ/가 약화⁴⁰⁾된 것이거나 登운[*əŋ]과의 혼란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위국봉(2015)은 중고음에 ŋ 운미가 있었다는 일본 학계의 학설에 회의적이며 “ɨ”는 전설 모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봤다. 본고에서도 위국봉(2015)의 견해에 동의한다. 다만 위국봉(2015)은 왜 유독 耕(*æŋ), 庚(*aŋ)운의 한국 한자음에서만 전설 모음을 표현하기 위해 /ɨ/가 아닌 이중 모음 “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중고음 음운 체계에서 2등운 耕(*æŋ), 庚(*aŋ)운은 앞서 살펴봤던 다른 2등운 皆(*æi), 夬(*ai), 山(*æŋ), 刪(*an), 咸(*æm), 銜(*am)운과 평행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耕(*æŋ), 庚(*aŋ)운의 모음이 다른 운들의 모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해 갔다.

皆(*æi), 夬(*ai), 山(*æŋ), 刪(*an), 咸(*æm), 銜(*am)운의 모음이 점차 a (순설치음) 나 ie (일부 후아음)로 변해 가는 것과 다르게 耕(*æŋ), 庚(*aŋ)운의 모음은 登(*əŋ)에 합류해 /ə/로 변해 간다. 실제로 현대 보통화에서 “耕”과 “庚”의 발음은 모두 [kəŋ]이다.

40) 河野六郎(1968)은 한국어 모음 /·/가 /ɨ/의 약화된 모음이라는 사고방식을 일관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 蟹攝운의 중운 차이를 /ɨ/와 /·/로 구분한 것도 장단음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Karlgren(1926)의 학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중운의 차이를 장단음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고대 한국어에는 /e/와 같은 전설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중고음 耕(*æŋ), 庚(*an)운의 모음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옛 한국인이 듣기에 중고음 耕(*æŋ), 庚(*an)운의 모음은 중국어 모음 ə 와 비슷하지만 (통시적으로 점차 ə 로 변해가기 때문에) 중국어 모음 ə 보다는 전설 모음이었다. 한국 한자음에서 중국어 모음 ə 는 /ㅡ/나 /ㆍ/로 대응되는데,⁴¹⁾ “ㅣ”가 바로 중국어 모음 ə 보다 전설 모음을 표현한 것이다.

마치 皆운(*æi)의 모음 /ㆍ/가 실제 중국어 음운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중고음 모음 조음 위치의 고저 차이를 반영한 것이듯이 (/ㅏ/와 /ㆍ/의 차이를 통해) 耕(*æŋ), 庚(*an)운의 이중 모음 “ㅣ”도 실제 중국어 음운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중고음 모음 조음 위치의 전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ㆍ/와 “ㅣ”의 차이를 통해) 따라서 皆운의 한국 한자음과 마찬가지로 耕(*æŋ), 庚(*an)운의 한국 한자음에도 실제 중국어 음운을 반영한 다른 한자음이 쉽게 침투했다. 예를 들어 “庚”과 “耕”의 한자음 “경”은 근대음 *kiəŋ (『中原音韻』 1324)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듯 개음 [i]가 없는 중고음 [*a]나 [*æ]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은 (/ㅏ/, /ㆍ/, “ㅣ”) 고대 한국어 /ㅣ/의 음가가 전설 모음이 아니라는 근거 중의 하나다. 만약 고대 한국어 /ㅣ/의 음가가 전설 모음이었다면 중고음 [*a]나 [*æ]의 한국 한자음 대응 모음은 /ㅣ/로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타당하다.

4. 結論

한국어와 중국어는 본디 동원 관계에 있는 언어가 아니다.⁴²⁾ 한국 한자음은 중국어를 반영함과 동시에 한국어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한자음과 중고음의 대응 관계를 검토할 때 주의를 요하게 된다.

특히 모음의 조음 위치는 각 언어마다 미묘하게 달라서 대응이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에는 현대 영어의 모음 [ɔ]와 완전히 일치하는 모음이 없다. 현대 영어의 [ɔ]는 현대 한국어에서 /ㅓ/로 대응되기도 하고, (“Audio”[ɔːdiu]의 현대 한국어 외래어 발음은 [오디오]다.) /ㅣ/로 대응되기도 하며, (“Coffee”[kɒfi]의 현대 한국어 외래어 발음은 [커피]다.) 심지어 /ㅏ/와 대응되기도 한다. (“Balsamic”[bɔːlsamik]의 현대 한국어 외래어 발음은 [발사믹]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와 고대 한국어 모음 역시 세계 보편적인 기본 모음 /ㅏ/, /ㅣ/, /ㅓ/를 제외하고는 대응이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한국 한자음 모음 /ㅣ/는 주로 중고음 모음 ɛ 나 e 같은 전설 모음에 대응된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 모음 /ㅣ/는 거의 대부분 중고음 3, 4등운에만 나타난다. 즉, 한국 한자음 모음 /ㅣ/가 ɛ 나 e 같은 전설 모음에 대응된 게 아니라 한국 한자음 이중 모음 “ㅣ”가 io, ie, iɛ, ie 같은 중고음 이중 모음에 대응됐던 것이다.

개음 [i]가 없는 2등운의 경우 한국 한자음의 모음은 매우 혼란스럽게 나타나며 일부에서는 인위적인 음역(/ㆍ/, “ㅣ”)의 흔적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한자음의 모음 /ㅣ/가 거의 대부분 중고음 3, 4등운, 즉 개음 [i]가 있는 경우에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고음 차용 시기의 한국어 모음 /ㅣ/의 음가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41) 중국어 모음 [*ə]는 실질적으로는 [ə] 와 [ɤ] 의 중간음이다. 허웅(1985)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 /ㅣ/는 [ə] 또는 [ɪ] 로 발음되는데 고대 한국어에서도 이와 같았다면 중국어의 [ə]와는 조음 위치가 약간 다르다. 따라서 중국어 모음 [*ə]는 한국 한자음에서는 주로 /ㅡ/나 /ㆍ/와 대응된다.

42) 李方桂(1973)는 중국어가 漢藏語系에 속한 언어라고 했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중고음 2등운에 한국 한자음 모음 /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고대 한국어 /ɨ/의 음가가 /e/와 같은 전설 모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국 한자음의 이중 모음 /ɨ/가 주로 중고음 [*ia, *ia]와 대응되고, 이중 모음 /ɨ/가 주로 중고음 [*ie, *ie, *ie, *io]와 대응된다는 점을 통해 고대 한국어에서도 /ɨ/와 /ɨ/의 조음 위치 차이가 전후 대비가 아닌 고저 대비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대 한국어에서도 /ɨ/의 음가는 현대 한국어처럼 [ə(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權仁翰(2009), 『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研究』, 박문사.
- 박병채(1971), 『古代 國語의 研究』, 고려대출판부.
-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위국봉(2015),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한국 한자음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李基文(1968ㄱ), 「雞林類事의 재검토」, 『東亞文化』8, 205-248.
- 李基文(1968ㄴ), 「朝鮮館譯語의 綜合的 檢討」, 『서울대학교 論文集』14, 43-80.
- 李基文(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32, 127-146.
- 李基文(1977),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 한경호(2015), 「한국한자음 중의 魚韻 반영형에 대하여 -‘-ɨ/-ɨ’를 중심으로-」, 『口訣研究』 35, 구결학회, 155-189.
- 허웅(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金雪萊(2005), 『慧琳<一切經音義>語音研究』,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 羅常培(1933), 『唐五代西北方音』,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單刊甲種之十二.
- 董同龢(1968), 『漢語音韻學.台灣』, 學生書局.
- 潘悟雲(2000), 『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教育出版社.
- 邵榮芬(1982), 『切韻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申祐先(2017), 『韓國漢字音歷史層次探析』, 元華文創.
- 寧繼福(1985), 『中原音韻表稿』, 吉林文史出版社.
- 尉遲治平(2002), 「論中古四等韻」, 『語言研究』 2002(4), 39-47.
- 劉廣和(2002), 「介音問題的梵漢對音研究」, 『古漢語研究』 2002(2), 2-7.
- 陸志韋(1947), 『古音說略』, 哈佛燕京學社出版.
- 李方桂(1973), 「中國的語言和方言」, 『中國語言學報』 1973(1), 1-14.
- 李榮(1956), 『切韻音系』, 科學出版社.
- 張玉來(2009), 「再釋內外轉並論及早期韻圖的性質」, 『語言研究』 2009(03), 27-45.
- 儲泰松(2005), 『唐五代關中方音研究』, 安徽大學出版社.
- 趙翠陽(2009), 『慧琳《一切經音義》韻類研究』, 中國社會科學研究生院博士學位論文.
- 陳忠敏(2003), 「吳語及隣近方言魚虞的讀音層次-兼論‘金陵切韻’魚韻的音值」, 『語言學論叢』27, 11-55.

鄭張尚芳(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有坂秀世(1944), 『國語音韻史の研究』, 明世堂書店.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汲古書院. (이진호 역(2011), 『한국 한자음 연구: 본문편, 자료편』, 역락)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이진호 역(2010), 『한국 한자음의 연구』, 역락)

黃笑山(2002), 「中古二等韻介音和《切韻》元音數量」, 『浙江大學學報』 2002(1), 30-38.

黃淬伯(1993), 『慧琳一切經音義反切考』, 臺灣常務印書館.

黃淬伯(1998), 『唐代關中方言音系』, 江蘇古籍出版社.

Benjing. J. (1953), *Einführung in das studium der altaischen philologie und der Turkologie*, Wiesbaden.

Bernhard Karlgren(1926), E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Archives d'études orientales publiées par J.A. Lundell*, Vol. 15, (趙元任 譯(1940), 『中國音韻學研究』, 常務印書館.

Doerfer. G. (1963),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n Neupersischen I*, Wiesbaden.

Doerfer. G. (1965),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n Neupersischen II*, Wiesbaden.

Ramstedt G. J. (1949, 1953),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SFOu.

Ramstedt G. J. (1957),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 MSFOu.

Poppe. N. (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The phonetic value of ancient Korean vowel ‘ㅏ’ analyzed by the syllable system of the sound of Sino-Korean characters

Jang, Jun-ik

‘*ɛ’ or ‘*e’, the front vowels of ancient Chinese are usually matching with Korean vowel ‘ㅏ’. Therefore, it was very easily accepted that the value of ancient Korean vowel ‘ㅏ’ was also front vowel.

However, The Korean vowel of Eo(魚) rhyme, reconstructed as ‘*ɔ’ or ‘*o’ in the ancient Chinese sound system, is also ‘ㅏ’. On the other hand, Korean vowels matching with the front vowel in ancient Chinese which has no head vowel, are very confused, they are ‘ㅏ’, ‘ㅑ’, and ‘ㅓ’. That is, although the vowel of ancient Chinese is not the front vowel, if there is a head vowel [i], the vowel of Sino-Korean characters is ‘ㅏ’. Otherwise, although the vowel of ancient Chinese is the front vowel, if there is no a head vowel ‘i’, the vowel of Sino-Korean characters is not ‘ㅏ’.

Specifically speaking, Korean diphthong “ㅑ” in the sound of Sino-Korean characters matches with ‘*ia’ and ‘*ia’ of Ancient Chinese diphthong, “ㅑ” matches with ‘*ie’, ‘*ie’, ‘*ie’ and ‘*io’ of Ancient Chinese diphthong. Therefore, the diphthong of Korean didn’t reflect the difference of front and back vowel of Ancient Chinese, but reflect the difference of high and low vowel.

However, generally speaking, Korean vowel matching with ‘*æ’ and ‘*a’, which has no head vowel ‘i’ in ancient Chinese is not ‘ㅏ’, but ‘ㅓ’. Moreover, ‘ㅓ’ and ‘ㅏ’ in the sound of Sino-Korean characters divided Kwae(夬) rhyme(*ai) with Gae(皆) rhyme(*æi) by force. The Korean diphthong ‘ㅓ’ was used for expressing the front vowel of Gieong(耕) and Gieong(庚) rhyme in ancient Chinese. Judging from this, the phonetic value of ancient Korean vowel ‘ㅏ’ was not the front vowel.

Key words: Ancient Sound, the front vowel, sound of Sino-Korean characters, syllable matching, ‘ㅏ’

‘不-’의 형태론적 지위에 대하여

LIU ZEYUAN (한림대)

1. 서론

본고는 부정 접두한자어인 ‘不’의 접두사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不, 無, 非, 沒’ 등은 일반적으로 모두 접두사로 파악되고 있지만 본고는 ‘不’이 다른 부정접두한자어 ‘無’와 다름을 증명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가치(價値), 권리(權利), 감정(感情)’ 등의 한자어 어기는 ‘-하다’와 결합이 가능하지 않고 ‘無’와 결합하여 서술성을 획득한 후 ‘무가치, 무권리, 무감정’처럼 새로운 어기를 형성하여 ‘-하다’와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 ‘無’가 후행 어기의 범주를 바꿨다고 보고 접두사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선행연구에서 ‘규칙(規則), 균형(均衡), 도덕(道德)’ 등과 같은 일부 한자어 어기는 ‘-하다’와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부정 접두어 ‘不’과 결합하면 ‘不規則하다, 不均衡하다, 不道德하다’ 등 ‘不OO하다’의 구조로 된 어휘를 형성한다.¹⁾ 그러므로 ‘불(不)’도 ‘무(無)’와 같이 후행어기 범주를 바꿨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不-’과 ‘無-’는 후행 어기에 ‘-하다’와 결합 관계에 혹은 어기의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현상이다. ‘無’는 ‘없음’의 의미이므로 서술성이 있어 후행어기와 결합한 후 어기가 서술을 획득하여 ‘-하다’와 결합이 가능하게 된 반면에 ‘불’은 의미상으로 서술성이 있다고 보기 모호하고 후행어기가 ‘-하다’와 결합하는 결과가 ‘不’ 때문에 형성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본고는 ‘不’의 후행 한자어 어기 자체가 다의성을 띠고 있어 ‘不’이 부정의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라고 보고 이러한 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입증하겠다.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전에 등재된 ‘不’계 어휘를 수집하여 각 사전에 제시된 형태분석 정보의 불일치를 통하여 ‘不’이 접두사로서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어기 범주를 바꾸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서술성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 접두한자어인 ‘無’와의 비교·대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不’은 접사정보보다 어근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자어 어기의 다의성을 논의할 것이다. 본고는 주로 不과 결합하는 2음절 어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수집한 어휘는 모두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어휘를 기준으로 하였다. 사전과의 비교는 온라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온라인 우리말샘을 참고하였다.²⁾

1)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규칙하다, 균형하다’와 같이 모국어 조어방식대로 만드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는 원인은 현대 중국어에서 ‘規則, 均衡’ 등 단어가 명사일 뿐만 아니라 형용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규칙, 균형’ 등 한자어를 어기 ‘-하다’와 결합시키고 ‘규칙하다, 균형하다’라는 잘못된 어휘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쓰인 ‘규칙, 균형’ 등 한자어 명사가 의미상으로 서술성이 과연 없을까 짐작할 만한 문제이다.

2)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사전』 두 사전 상의 어휘 형태 분석과 표제어로서의 등재 기준 등이 다르고, 모국어 화자가 실제 사용하는 어휘와 사전 상의 어휘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문제제기

지금까지 국어학계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한자어 접두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주로 이익섭(1969)과 노명희(1998/2005)등이 있다. 반면에 서병국(1975), 정민영(1994)등 처럼 한자어 접두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 중간 범주에 속해 있는 준접두사(準接頭辭)로 여기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규철(1997)은 한자어가 문법 면에서 아직 한국어와 완전히 융합하지 못하고 한자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부정접두사는 고유어 접두사와 달리 어근에 의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완전한 접사로 여기거나 접두사임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접사화가 진행 중인 중간단계로, 準接頭辭(준접두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³⁾

본고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 접두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또한 한자어 접두사의 판별기준은 노명희(1998/2005)⁴⁾의 기준을 따랐고, 이를 통해 부정 접두 한자어 ‘不-’과 후행 어기의 관계를 검토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다른 부정 접두한자어의 차이를 밝힐 것이다.

2.1. 한자어 어기의 분류 문제

부정접두 한자어의 후행어기 분류에 관한 연구로는 조현숙(1989), 박석문(1999), 김혜령(2009) 등이 있다. 조현숙(1989)은 ‘부정접두어’라는 명칭으로 ‘불, 무, 미, 비’ 결합체의 일반적인 특성과 결합하는 어간의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불, 무, 미, 비’가 어간의 내적인 특성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최초의 한자 전치부정요소 ‘불, 무, 미, 비’의 특성과 결합양상에 관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접두어의 후행어기를 상태성과 동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를 했다. 박석문(1999)도 위와 비슷하게 어기를 일반 보통명사, 상태성 명사, 동작성 명사, 3가지로 분류하였다. 김혜령(2009)은 ‘물-, 무-, 미-, 불-, 비-’계의 파생어는 접두사에 의해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되지만, 접두사와 어기에 대하여 반드시 반의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기가 상태성과 동작성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상태성과 동작성을 모두 갖지 않는 [-상태성, -동작성]명사의 경우와, 동작성은 없이 상태성만을 갖는 [+상태성, -동작성]명사의 경우, 상태성은 없이 동작성만을 갖는 [-상태성, +동작성]명사의 경우 등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다.

위와 같이 한자어 어기 혹은 명사의 의미자질에 따라 분류한 방법은 서로 비슷하고 한자어 어기의 동작성 혹은 상태성이 있는지 여부를 ‘-하다’와 결합하는지에 따라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기가 갖는 본래 의미를 다소 간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자어는 한국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오랜 기간 존재해 왔고 한국어 문법과 융합되었지만, 일부분 본래의 특성이 남아 있다. 한자가 한반도에 유입된 후로 흔히 한자의 음(音)과 훈(訓)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음과 훈은 그리 간단한 발음과 의미의 문제가 아니다. 한자어의 조어방식도 고유어와 달리 한문 자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 중국어학계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접두사에 존재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접두사가 존재한다는 견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그리고 김규철(1997)와 비슷하게 類前綴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절충적 견해도 있다.

4) 노명희(1998/2005)에서는 ‘생, 왕, 양, 친, 외, 시, 초, 범, 최, 준’을 접두사로 보고, ‘무, 불 등’은 어근성보다 접사성이 강한 약활성어근으로 본다. 또한 한자어 접두사의 판별기준이 학자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편의상으로 노명희(1998/2005)의 기준을 따라 하겠다.

한편 조현숙(1989), 노명희(1998/2005), 박석문(1999)등 선행연구들이 ‘어기의 통사범주를 바꾸는 기능’을 접두사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어기의 통사범주’의 개념이 무엇인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학자에 따라 쓰는 용어도 약간씩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2.2. 사전적 처리 문제

김규철(1997)은 한자어가 문법 면에서 아직 한국어와 완전히 융합하지 못하고 한자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정접두한자어를 완전한 접사로 여기거나 접두사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접사화가 되고 있는 중간단계로 보고 ‘准接頭辭’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자어 접두사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일부 한자어는 아직 접사화가 되고 있는 중간단계에 처하고 있는 주장을 찬성한다. 아래에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 부정접두한자어 ‘不’의 접두사로서의 불안정성을 논의하겠다.

본고는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사전에 등재된 ‘不’을 포함한 어휘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不’ 어휘를 형태분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2.2.1. 不을 포함한 2음절어기
- 2.2.2. 不을 포함한 3음절어기
 - 2.2.2.1. 不+OO
 - 2.2.2.2. 不O+O
 - 2.2.2.3. 不OO
- 2.2.3. 不을 포함한 4음절어기

우선 어기의 음절수에 따라 ‘不’을 포함한 어기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는 ‘불쾌(不快), 불가(不可), 불각(不覺)’ 등처럼 ‘不’을 포함한 2음절 어기이다. (3)은 ‘불감일언(不敢一言), 불가부득(不可不得)’, 등과 같은 不을 포함한 4음절 어기이다. (2)는 不을 포함한 3음절 어기인데 형태구조에 따라 (가), (나), (다)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는 2음절어기 ‘不’과 결합하는 어휘이다. ‘불가능(不+可能), 불경기(不+景氣), 부도덕(不+道德)’ 등이 있다. (나)는 ‘不’를 포함한 2음절 어기가 다른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불개항(不開+港), 불건유(不乾+油), 불경심(不敬+心)’ 등이 있다. (다)는 ‘不’을 포함한 3음절을 전체 하나의 어기로 처리되는 경우이다. ‘불가불(不可不), 불수빈(不須嚙)⁵⁾, 불여취(不與取)⁶⁾’ 등이 있다. 예문(1), (3)은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어근으로서 인정을 받아 더 이상 형태분석을 하지 않는 어휘들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1),(3) 구조를 일단 제외하며, (2)-(가), (나), (다)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아래 <표1>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2)유형의 어휘들의 통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5) 불수빈(不須嚙) 「명사」 『음악』 판소리를 부르기에 앞서 목을 풀려고 부르는 단가(短歌)의 하나.

6) 불여취(不與取) 「명사」 『불교』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는 뜻으로, 도둑질을 달리 이르는 말.

	不(불)	不(부)	총
(2-가) 不+OO	118	20	138
(2-나) 不O+O	135	78	213
(2-다) 不OO	27	17	44
총	280	115	395

<표 1>

후행 어기의 첫 음절에 따라 ‘不’을 ‘불’과 ‘부’를 나누어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주로 분석할 대상은 (2가)구조이지만, 필요에 따라 (2-다) 구조의 예시도 살펴볼 것이다.

2.2.4.

2.2.4.1. 不+OO: 不+可能, 不+結實, 不+景氣, 不+經濟, 不+公正, 不+公平

2.2.4.2. 不O+O: 不覺+時, 不竭+音, 不感+症, 不開+港, 不乾+油, 不敬+心

2.2.4.3. 不OO: 不健實, 不健全, 不見識, 不堅實, 不更衣, 不過是,

(4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不’을 접두사로 처리하는 전형적인 어휘이고, (4다)는 ‘不’을 포함한 3음절을 전체 하나의 어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이지만, (2다) 어휘 중에 일부 부사와 불교용어 등 다른 전용명사(不可不, 不然則, 不如歸, 不與取, 不還果, 不憂軒 등)를 제외하고 不健全, 不明瞭, 不分明 등처럼 형태분석 없이 하나의 어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健全, 明瞭, 分明’ 등 여기는 충분히 독립성이 있는 것이며 어근으로서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어휘들이다. (4다) 중 일부 어휘는 다르게 분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품사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불건전-하다(不健全하다) 「형용사」 건전하지 아니하다.	불건전하다 [不健全--] (대상이)건실하고 온전하지 아니하다 형태분석 [=不+健全-하_다]
불명료-하다(不明瞭하다) 「형용사」 분명하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다.	불명료하다 [不明瞭--] 분명하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다 형태분석 [=不±明瞭-하_다]
불분명-하다(不分明하다) 「형용사」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못하다.	불분명하다 [不分明--] 명백하고 확실하지 않다 형태분석 [=不+分明-하_다]

<표 2>

<표2>과 같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불건전(不健全), 불명료(不明瞭), 불분명(不分明)’ 등의 형태분석 정보를 ‘不 + 健全, 明瞭, 分明...-하다’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不健全, 不明瞭, 不分明 등 어기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3음절 어기로 처리했다. 두 사전에서 접두사와 어근에 대한 개념과 표준이 다른데, 이를 통하여 ‘不’의 접두사로서의 지위가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不’이 접두사로서 불안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다.

2.2.5. 不可避, 不可能, 不可無, 不可得, 不可決, 不可近, 不可分
不可說, 不可逆, 不可測, 不可侵, 不敢當, 不敢請

예문(5)은 모두 한자 '不可, 不敢'을 포함한 어휘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같은 어휘의 형태 분석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준	고려
不可能	不+OO	不+OO
不可分	不+OO	不OO
不敢當	不OO	不+OO
不可無	不O+O	不O+O
不可得	不O+O	不OO
不可缺	不O+O	不OO
不可近	不O+O	不OO
不可說	不O+O	不O+O
不可逆	不O+O	不+OO
不可測	不O+O	不O+O
不可侵	不O+O	不OO
不可避	不OO	不OO

<표 3>

<표3>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준>, <고려> 두 사전에 같은 어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형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유보하고 위에 제시된 예와 같이 '不'을 포함한 3음절 어기에 대해 각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학습에게 혼란을 가져올뿐더러 '不'이 불안정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不健全, 不明瞭, 不分明, 不可逆’등과 같은 어휘를 충분히 '不+OO' 구조로 볼 여지가 있지만, 편의상 우선 분석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2-가)어휘를 위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3. 不과 無의 비교

한자어 접두사 판별하는 기준이 학자마다 서로 다르다.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 수식범위의 한정, 의미변화 등 일반적으로 접두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본다. 조현숙(1989), 박석문(1999), 노명희(1998/2005) 등은 어기의 범주 변화도 한자어 접두사의 판별기준에 추가하였다. 한자어 접두사의 판별기준은 학계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여기서 자세히 논의하지 않고 노명희(1998/2005)의 판별기준에 기준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노명희(1998/2005)는 접두 한자어에 대한 견해가 불일치하는 원인을 접두한자들이 접사로서의 분명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고, 관형어나 어근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리고 접두사의 판별기준과 적용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1.1. 노명희(1998/2005)한자어 접두사 판별 기준⁷⁾

㉠ 관형사와 비관형사의 구분

형태적 분리성, 분포상의 제약, 수식범위 한정, 대치불가능성

㉡ 접두사와 어근의 구분 기준

의미 변화, 생산성,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 어기의 범주변화 등

노명희(1998/2005)는 (6)의 기준에 따라 한자어 접두사의 목록을 '생(生)-, 왕(王)-, 양(洋)-, 시(嫗)-, 외(外)-, 친(親)-, 초(超)-, 범(汎)-, 최(最)-, 준(準)-'과 같이 확정하였다. 부정접두한 자어 '무(無), 불(不), 몰(沒), 미(未)'는 모두 어근성보다 접두사성이 더 강한 약활성 어근으로 봤다. 이 중에 어기의 범주변화 기준은 접두사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기의 범주가 무엇인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어기의 범주'에 대해 논하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각기 다른 명칭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현숙(1989)는 '어기의 통사론적 특질' 혹은 '어기의 내적 의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박석문(1999)은 어기의 '통사 범주'라고 칭했으며, 노명희(1998/2005)는 '어기의 범주 자질' 혹은 '어기의 범주적 특성'이라 칭했다.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대로 어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기의 범주는 어기의 의미상의 동작성 혹은 상태성 있는지 여부인지 아니면 '-하다'와의 결합 가능성 혹은 '-하다'와 파생형의 품사가 형용사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형태적 특성, 통사적 특성, 혹은 의미적 특성 중 명확히 어느 것이 바뀐 것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3.1.2.

기력(氣力)	*기력하다	/	무기력(無氣力)	무기력하다
질서(秩序)	*질서하다	/	무질서(無秩序)	무질서하다

위의 (7)에서 볼 수 있듯이, '氣力, 秩序' 등의 어휘는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 파생을 겪지 않으면서, 접두어 無와 결합하여 형용사 어근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것이다. 조현숙

7) 적용 순위

분리불가능			
+ /	\-		
수식범위한정	관형사		
+ /	\-		
의미변화	관형사		
+ /	\-		
접두사	어기의 범주변화		
+ /	\-		
접두사	고유어와 결합가능성		
	+ /	\-	
	접두사	어근	

노명희(1998/2005), 현대국어 한자어 형태론연구, p79-p88

(1989)은 [-상태성][-동작성]의 의미 자질을 가진 명사 氣力에, 부정 접두어 無가 상태성을 부여하여 형용사의 어근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접미사 ‘-하다’는 서술어화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어기의 통사적 특질 혹은 어기 내적 의미를 바꾸는 과정으로 봤다. 노명희(1998/2005)는 위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분석하였다.

3.1.3. N->AN: [[무+(×)N]AN+하-]A

노명희(1998/2005)는 (8)과 같이 일반명사에 ‘無’가 결합함으로써 상태성 명사가 되고 여기에 ‘하다’가 결합하여 상태동사로 쓰일 수 있게 된다고 봤다. 이러한 과정을 통사적 성격이든 의미적 성격이든 구분 없이 모두 어기 범주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봤다.

조현숙(1989)의 ‘어기의 내적인 특성’, 박석문(1999)의 ‘어기의 통사범주’, 노명희(1998/2005)의 ‘어기의 범주 자질’ 모두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사용한 통일되지 않은 몇 가지 용어를 간단히 ‘어기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통사적 범주인지 아니면 의미적 범주인지 혹은 형태적 범주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하다’와의 결합에 영향을 주는 면에서 보면 형태론 혹은 통사론적 특성으로 볼 수가 있고, 어기의 내적 의미가 동작성이 있거나 혹은 상태성이 있거나 의미론적 측면에서 다를 수가 있다. ‘-하다’와 결합하여 파생된 어휘의 품사가 무엇인지는 통사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위의 명칭을 통일하여 ‘어기의 범주’라고 부르기로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부정 접두한자어에 후행하는 어기를 범주 자질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했다. 박석문(1999)은 명사 어기를 일반 보통명사, 동작성 명사, 상태성 명사 3가지로 나누었다. 김혜령(2004)도 마찬가지로 [-동작성, -상태성]명사, [+동작성, -상태성]명사, [+상태성, -동작성]명사 3가지를 분류하였다.

위에서 보듯, 각각의 연구에서 분류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하다’와 결합 후 파생된 결과를 분석하는 기준⁸⁾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Lyons(1977)의 영향을 받아 그의 분류 방식을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8) 어떤 어기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판별하는 기준을 ‘-하다’와 결합하고 그 파생된 결과가 어떤 품사 인지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均衡(균형)’이라는 어기는 ‘-하다’와 직접 결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일반 보통명사, 혹은 [-동작성, -상태성]명사로 봐야 한다. ‘計劃’은 ‘-하다’와 결합하여 ‘계획하다’라는 동사가 파생되므로 동작성 명사, 혹은 [+동작성, -상태성]명사로 봐야 한다. 그러나 ‘-하다’와 결합하는지 여부가 어기의 의미 자질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다.

3.2. 분포 양상 비교

노명희(1998/2005)는 ‘無’를 후행 어기의 범주를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고 있다. 다음은 ‘不’과 ‘無’의 성격이 다를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우선 不+OO의 문법지위, 2음절 어기(OO)의 문법지위, ‘-하다’와 결합 가능 여부, ‘不’ 없이 ‘어기+하다’의 품사 정보, ‘불+어기+하다’의 품사 정보 등 내용을 포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어휘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 ‘불/부(不)’를 포함한 3음절 어기 자료 예시 정리(표준국어대사전 중심으로)

어기	IC분석	不+X문법지위	不+X[하다?]	품사	X문법지위	X[하다]	품사	비고
불가능	不+OO	N	O	AD	N	O	AD	불가능성
불가당	不+OO	N	O	AD	R	O	AD	
불가분	不+OO	N	X	X	N	O	AD	불가분적, 불가분권, 불가분성 등
불간섭	不+OO	N	O	V	N	O	V	
불감당	不+OO	N	O	V	N	O	V	
불감당	不+OO	R	O	AD	X	X	X	
불개입	不+OO	N	O	V	N	O	V	
불결실	不+OO	N	O	V	N	O	V	
불경기	不+OO	N	X	X	N	X	X	
불경제	不+OO	N	X	X	N	O	V	

필터 분석한 결과는 ‘不’의 후행 어기가 ‘不’의 영향을 받아 어기 범주가 바뀌지 않은 것, 바뀐 것 두 가지를 <표4>과 <표5>와 같이 제시하겠다.

	불	부	총	예
[OO하](A) : 不+[OO하] --> [不+OO+하]A ⁹⁾	27	4	31	不可能, 不可當, 不公正
[OO하](V) : 不+[OO하] --> [不+OO+하]V	49	1	50	不干涉, 不堪當, 不介入
[OO하](X) : 不+[OO하] --> [不+OO+하]X	14	8	22	不景氣, 不品行, 不行爲
	90	13	103	

<표 4> ‘不’의 후행 어기 범주가 바뀌지 않은 것

9) 본고에서는 ‘-하’와의 결합을 어기 범주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지 않지만 더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OO](A)하- : 不+[OO] --> [[不OO](A)하-’와 같이 도식화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불-	부-	총	예
[OO하](A) : 不+[OO하] --> [不+OO+하]×	1	0	1	可分
[OO하](A) : 不+[OO하] --> [不+OO+하]V	0	0	0	
[OO하](V) : 不+[OO하] --> [不+OO+하]×	13	1	14	經濟 ¹⁰⁾ , 規律, 起訴, 變更, 成文
[OO하](V) : 不+[OO하] --> [不+OO+하]A	2	2	4	安定, 平均, 調和, 注意
[OO하](×) : 不+[OO하] --> [不+OO+하]A	8	3	11	規則, 均衡, 名譽, 相能, 相同
[OO하](×) : 不+[OO하] --> [不+OO+하]V	2	0	2	信用, 遇時
[OO하](특) : 不+[OO하] --> [不+OO+하]특	2	1	3	特定, 滿足, 節制
	28	7	35	

<표 5> ‘不’의 후행 어기 범주가 바뀐 것

위의 표를 보면, ‘不’과 결합한 후 어기 범주가 변하지 않은 어휘가 103개로 전체 어휘의 75%를 차지한다. 반면에 ‘不’과 결합한 후 어기 범주가 변한 경우는 35개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표4, 5>를 보면 ‘不’에 후행하는 어기가 ‘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기의 범주 자체가 변하지 않은 어휘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접두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 ‘無’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無(무)	예:
無+OO	191	無歌詞, 無價值, 無葛藤, 無感覺, 無感動
無O+O	330	無價寶, 無價紙, 無角牛, 無蓋車,
無OO	26	無經界, 無涇渭, 無關係, 無內容, 無道德, 無道理,
총	547	

<표 6> ‘무(無)’를 포함한 3음절 구조 어기 예시(표준국어대사전 중심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無’에 대한 형태분석 정보도 ‘不’과 마찬가지로 각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다르게 분석하는 여지도 있는 듯하다¹¹⁾. 그러나 일단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無+OO 구조의 어휘가 총 191개 있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삼아 ‘無’어휘는 191개로, ‘不’어휘 138개보다 많은 결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無’가 ‘不’보다 신조어 창조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무(無)’와 결합한 어휘 중에서도 ‘무’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후행 어기의 범주가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표7, 8>과 같다.

11) 본고에서는 우선 ‘不’을 중심으로 살피고 다른 부정접두한자의 경우를 추후에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편의상 <표준>에서 제공된 정보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無	예
[OO하](A) : 無+[OO하] --> [無+OO+하]A	1	無慈悲
[OO하](V) : 無+[OO하] --> [無+OO+하]V	4	無擔保, 無批判, 無抵抗, 無着陸
[OO하](X) : 無+[OO하] --> [無+OO+하]X	63	無歌詞, 無個性, 無階級, 無功德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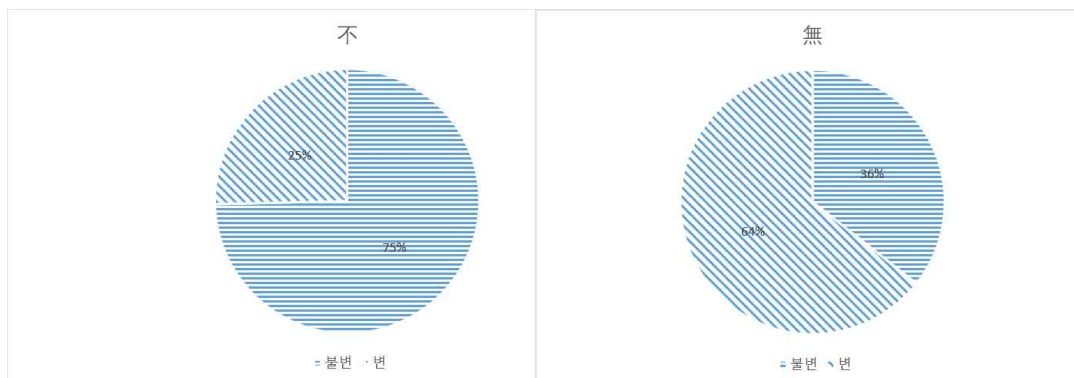
<표 7> ‘무(無)’의 후행 어기 범주가 바뀌지 않은 것

	無	예
[OO하](A) : 無+[OO하] --> [無+OO+하]X	1	無技巧
[OO하](A) : 無+[OO하] --> [無+OO+하]V	0	
[OO하](V) : 無+[OO하] --> [無+OO+하]X	45	無葛藤, 無感謝, 無缺席, 無缺勤
[OO하](V) : 無+[OO하] --> [無+OO+하]A	28	無感覺, 無感動, 無經驗, 無計劃
[OO하](X) : 無+[OO하] --> [無+OO+하]A	49	無價值, 無感情, 無權利, 無軌道
[OO하](X) : 無+[OO하] --> [無+OO+하]V	0	
	123	

<표 8> ‘무(無)’의 후행 어기 범주가 바뀐 경우

‘불/부(不)’어휘의 필터 분석 방식과 동일하게 ‘무(無)’어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무’와 결합하고 어기 범주가 변한 어휘가 64%, 변하지 않은 어휘가 36%로, 이는 ‘不’어휘의 상황과 서로 반대임을 알 수 있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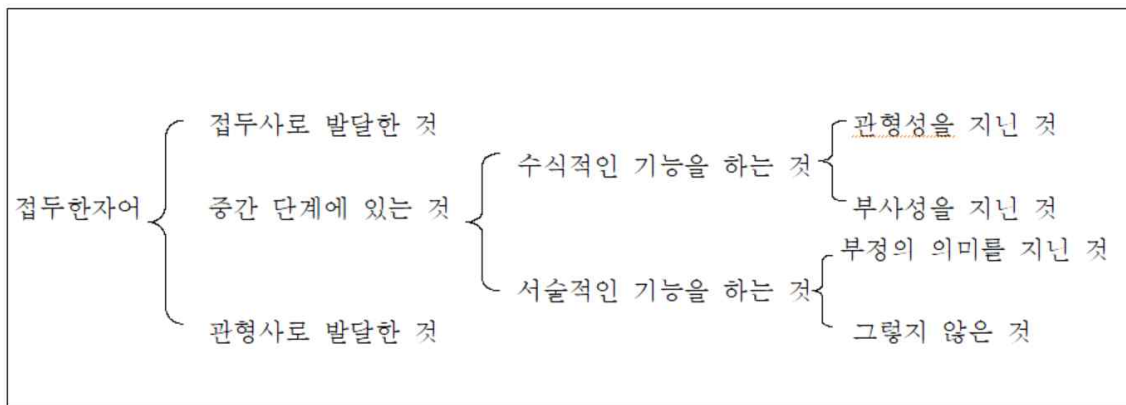


<그림2>를 보면 ‘不’은 어기 범주 자질을 바꾸는 전형적인 접두사인 ‘無’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더 나아가 ‘불’이 ‘무’보다 접사성이 약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不’과 결합하여 어기범주가 변한 경우도 다소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논의를 하겠다.

3.3. 후행 어기와의 관계 비교

노명희(1998/2005)는 접두한자어를 ‘접두사로 발달한 접두한자어’와 ‘관형사로 발달한 접두한자어’로 분류를 하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예들은 접두한자어의 기능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수식적인 기능을 하느냐 서술적인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수식성 접두한자어’와 ‘서술성 접두한자어’로 구분된다. 이 중 수식 기능을 하는 접두한자어는 다시 관형성을 지닌 것과 부사성을 지닌 것으로 나누었다. 서술성을 지닌 접두한자어는 여기에 대해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不, 無, 沒, 非’ 등 접두한자어는 여기에 대해 부정의 의미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노명희(1998/2005)는 서술성을 지닌 것으로 여겼다. 不愉快, 無感情, 沒個性, 非效率 등과 같이 ‘不, 無, 沒, 非’ 등은 여기에 부정 의미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들은 한국어 어순과 다르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류로, 한문의 어순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어휘로 자리 잡은 예이다. 그러나 모든 부정의 의미를 지닌 것을 서술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모두 부정 접두한자어가 과연 ‘無’와 똑같이 여기에 서술성을 부여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無感情’은 ‘감정의 움직임이 없음’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뜻 풀이처럼 ‘無’의 기본 의미는 ‘존재하지 않음이나 없음’이다. 이를 볼 때, ‘무’는 서술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不愉快’와 같은 경우는 접두어 ‘不-’이 여기에 부정의 의미를 추가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서술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조현숙(1989)에 의하면 한국어 부정법은 文否定과 語彙否定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文否定法은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으로 나뉜다. ‘不愉快’는 어휘부정에 속하지만 한자어이기 때문에 ‘즐겁지 않다’와 ‘아니 즐겁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不愉快’를 ‘아니 즐겁다’로 보면 ‘不’과 ‘愉快’는 서로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한문의 해석 방식과 같다. 한자어는 한국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신조어의 생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어휘 생성할 때도 단순한 의미 조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고유한 방식이 따로 있다. ‘신조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讀書, 登山’등의 한자어가 바로 한문의 전형적인 어순대로 쓰인 예들이다. 이들의 내부를 분석해 보면 모두 ‘V+O’, 즉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이다. 따라서 한문의 해석방식대로 하면 ‘不’과 여기와의 관계는 부사와 동사의 수식 관계로 볼 수도 있다. 반면에 ‘無’의 경우는 전혀 달라 후행 어기와의 관계는 서술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할 때도 ‘不’이 어기범주를 바꾸는 기능상으로 보면 ‘無’와 다르다.

4. ‘不’의 후행 어기의 다의성¹²⁾

모든 언어에는 다의어가 존재한다. 한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의미만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문맥에서 실현되는 다의어의 의미는 자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리적인 관계가 있다. 차준경(2004)은 이것을 체계적 다의성(systematic polysemy)이라 했다. 그리고 한국어 명사에 체계적 다의성이 있다고 봤다.¹³⁾ 물론 명사의 체계적 다의적 현상은 한국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언어적 현상이다. 한자는 表意문자이므로 하나의 어휘 형태가 여러 문법기능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獨立語로서의 특성이다. 한자어는 한문 문법에서 동사나 형용사로 사용되던 것이 한국어에서는 명사로 차용되었고 술어적인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다’를 붙이게 되었다. 차준경(2004)은 많은 한자어 명사들이 실체성을 지닌 동시에 사건성이나 상태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不’에 후행하는 어기는 대부분이 명사로서, 아래에서 그들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앞장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不+2음절어기’를 2가지로 분류했다. ‘不’과 결합하고 어기 범주가 변하지 않은 것과, ‘不’과 결합한 후 어기범주가 변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후자인 ‘어기범주가 변한 것’ 위주로 분석하겠다. <표5>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不’과 결합하여 파생된 결과에 따라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다.

4.1.1.

4.1.1.1. [OO하](A) : 不+[OO하] --> [不+OO+하]×

4.1.1.2. [OO하](V) : 不+[OO하] --> [不+OO+하]×

4.1.1.3. [OO하](V) : 不+[OO하] --> [不+OO+하]A

4.1.1.4. *[OO하](X) : 不+[OO하] --> [不+OO+하]A

4.1.1.5. *[OO하](X) : 不+[OO하] --> [不+OO+하]V

4.1.1.6. [OO하](특) : 不+[OO하] --> [不+OO+하]특

앞에 선행연구들의 ‘-하다’와 결합여부에 따라 어기 범주가 변화하는 기준으로 하면(9-가, 나)는 ‘不’과 결합한 후, 서술성이 상실된 어기이다. (9-다)는 ‘不’과 결합한 후, 동작성이 상태성으로 바뀐 경우이다. (9-라, 마)는 ‘不’과 결합한 후, 동작성나 상태성이 생긴 경우이다. (10바)는 2개의 품사 혹은 어기범주가 있던 어기가 ‘不’과 결합한 후 하나만 남긴 특기한 경우이다. 과연 그러한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4.2. ‘不’과 결합하여 상태성 혹은 동작성을 상실한 경우

이 부류는 ‘不’과 결합하여 상태성 혹은 동작성을 상실한 경우이다. (10가, 10나)가 이에 속한다. (10가)는 상태성을 잃은 어기로 ‘가분(可分)’이 유일하다. (10나)는 동작성을 상실한 어

12) 다의성, 일반적으로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현상이나, 여기서 말하는 다의성은 두 개 이상의 품사도 포함한다.

13) Lyons(1977)에서는 존재론적 분류 방식에 의해 세계를 1차 실체, 2차 실체, 3차 실체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1차 실체는 대체로 구체물이 포함된다. 2차 실체는 1차 실체의 존재 양식에 관한 것으로 사건과 상태로 구분된다. 그리고 3차 실체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 개념들이 포함된다. 차준경(2004)은 이에 따라 한국어 명사를 실체성 명사, 사건성 명사, 상태성 명사 3가지로 분류했으나 각 부류의 명사들 중에 다의성을 지닌 바가 있다고 본다.

기로 ‘경제(經濟), 기소(起訴)¹⁴⁾, 변경(變更), 비례(備禮), 성문(成文), 연속(連續), 왕법(枉法), 천노(遷怒), 침략(侵略), 평판(評判), 협화(協和), 정합(整合)’ 등 12개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위와 같은 2음절 어기는 ‘不-’과 결합하고 ‘-하다’와 결합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는 ‘不-’이 어기의 서술성을 박탈하거나 혹은 ‘不-’이 후행 어기의 범주를 바꿨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다소 일방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기가 ‘不’과 결합하고, 간접적으로 ‘-하다’결합이 불가능한 결과가 이루게 되지만 어기 범주 변화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2장에서 언급했 듯이 ‘不’과 결합한 후 어기 범주가 변한 경우는 전체의 작은 비중을 차지할 뿐더러 이 부류의 13개 어휘 중 일부 어휘가 사전마다 제공된 정보도 다르다¹⁵⁾. 예를 들어 ‘불가분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고려대사전에서 형용사로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해석이 등재되어 있다. 또한 ‘불기소하다, 불기소되다’등 전문 용어들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 영역에서 쓰이고 있으며, 온라인 우리말샘에서 찾을 수도 있다.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사전마다 등재된 어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을 통해 국어 화자마다 일부 ‘不+어기+하다’ 형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간섭(干涉)’과 ‘침략(侵略)’ 두 개의 한자어 어기를 비교해보면 ‘간섭’과 ‘침략’ 모두 동작성이 있는 어기로, 의미 차이만 존재하고 ‘불+어기+하-’형식이 실현하는 양상이 다르다. ‘불간섭하다’가능하지만, ‘불침략하다’불가능한 어휘이다. 이 때 두 개의 어휘의 어기 범주가 다르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하여 ‘불침략하다’ 등 어휘는 잘 쓰이지 않지만 ‘불침략’이 동작성 혹은 상태성이 없는 어기로 볼 수 없다. ‘不+가분, 변경, 침략 등’파생어기 ‘-하다’와 결합이 불가능한 것도 필연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어기’와 ‘불’의 결합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받아 조어(造語)상으로 일정한 우연적(偶然的)인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4.3. 동작성을 상태성으로 바꾸는 경우

이 분류는 안정(安定), 평균(平均), 조화(調和), 주의(注意) 네 개의 어휘만 있다. 선행 연구에 따라 ‘안정, 평균, 조화, 주의’가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가 파생되므로 동작성만 있는 어기로 보고, ‘不’과 결합한 후 상태성을 획득하고 ‘不OO하다’와 같은 형용사가 파생된다고 본다. 우선 이 부분 한자 원의미를 찾아보면 이들이 잠재적인 상태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14) ‘불기소하다, 불기소되다’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온라인 우리말샘에서 찾을 수 있는 어휘들이다. (우리말샘, 동사【…을】 법률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다. 예: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해부터 모두 38척의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미 입건된 26척은 불기소하고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는 검사 지휘에 따라 내사 종결하는 등 최근 사건을 마무리했다. 出處 <<연합뉴스 1997년 2월>>)

15) ‘불가분(不可分)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고려대사전에서 형용사,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해석이 등재되어 있다. (예: 그는 우리의 삶과 시가 불가분한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했다.)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준으로 하겠지만 두 사전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통해 국어 화자마다 일부 ‘불+어기+하다’ 형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준	고려
안정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함.	1.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함
평균	여러 사물의 질이나 양 따위를 통일적으로 고르게 한 것	(기본의미) 여러 사물의 각각 다른 질이나 양을 고르게 한 것.
조화	서로 잘 어울림	1. 어긋나거나 부딪침이 없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림 2. 모순되거나 어긋남이 없이 서로 잘 어울리는 상태에 있다.
주의	「1」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1) (기본의미)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표 9>

뿐만 아니라 접미사 ‘-적, -스럽, -롭’ 등과의 결합을 통해서도 이 부류의 어기가 상태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 ‘不’과 결합한 후, 상태성나 동작성이 생긴 경우

‘不’과 결합한 후 상태성이 생긴 어휘는 규칙(規則), 균형(均衡), 명예(名譽), 상동(相同), 도덕(道德), 상동(相同), 이익(利益), 감당(敢當), 상능(相能), 조리(條理), 적임(適任) 11개 어휘가 있다. ‘감당, 상능, 적임, 상동’ 등 어휘가 의미상으로 상태성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칙, 균형, 조리 등’ 어휘가 현대 중국어에서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에서 쓰인 ‘규칙, 균형, 조리’도 중국어와 같이 상태성이 있다고 말하기가 다소 무리하다. 그러나 한자가 표의문자로서 형태변화 없이 여러 문법 기능으로 쓰인 특성은 한자어에서도 계승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규칙, 균형’ 등 어휘의 상태성은 근대 영어 번역했을 때 생긴 가능성도 없지 않다. ‘不’이 접두사로 보는 원인도 영어 ‘un-’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不’과 결합한 후 동작성이 생긴 경우는 ‘신용(信用) 우시(遇時)’ 2개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신용, 우시’ 모두 직접 ‘-하다’와 결합이 불가능하고 ‘不-’과 결합한 후 ‘불신용하다, 불우시하다’라는 동사가 파생된다. 이 때도 ‘不-’이 ‘신용’과 ‘우시’에 동작성을 부여하고 볼 수 없다. ‘신용’은 ‘믿을 신(信)과 쓸 용(用)’ 두 개 동사로 조합하여 형성된 어휘이다. 일반적으로 명사로 쓰이고 ‘신용하다’ 쓰이지 않지만 ‘신용’이라는 어기가 동작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신용하다’는 고려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¹⁶⁾.

‘우시’라는 어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좋은 때를 만나다’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어간 자체가 동작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신용과 우시’는 모두 잠재적(潛在的) 동작성이 있다고 보며 ‘不-’과 결합하여 서술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한편, 특기한 어기는 ‘특정(特定), 만족(滿足), 절제(節制)’ 3개가 있다. ‘특정(特定)’은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 동사 두 개의 품사를 동시에 갖고 있다. ‘불’과 결합하여 ‘불특정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고려대사전에는 형용사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우리말샘에서는 동사로 등재되었다¹⁷⁾.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준으로 하면, ‘특정’이

16) 표준에서 신용하다 없음. 고려, 우리말샘, 신용하다 있음.

17) 고려대사전: 형용사 1.(무엇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예:그 안건은 과반수가 넘는 불특정한 다수

라는 어기가 ‘不-’과 결합한 후 어기범주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보다 ‘불특정하다’라는 단어가 아직은 일부 국어화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겠다.

‘만족(滿足)’은 ‘-하다’와 결합하여 ‘특정’과 마찬가지로 형용사, 동사 두 개의 품사로 활용된다. 반면, ‘不-’과 결합한 후 ‘불만족하다’는 형용사이다. 이 때도 ‘不-’이 형용사인 ‘만족하다’와 결합한 것이지 ‘不-’ 때문에 ‘만족’의 어기범주가 바뀐 것이 아니다.

‘절제(節制)’는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가 파생되고, ‘不’과 결합한 ‘불절제’는 형용사와 동사 두 개의 품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우선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 ‘不계 어휘’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는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不’이 접두사로서 안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접두어로 쓰인 ‘不’과 ‘無’를 어기범주를 바꾸는 기능을 중심으로 자료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로 ‘무’와 결합한 후 어기 범주가 바뀐 경우가 대다수 이고, 어기범주가 변하지 않은 경우는 소수이다. 반면 ‘不’과 결합한 후 어기범주가 변한 어휘가 35개가 있고 전체 어휘에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자어 어기의 다의성을 통하여 이 35개 어기가 ‘불(不)’ 때문에 어기범주가 바뀐다고 보다는 자체가 다원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不’이 ‘無’와 달리 서술성이 없어 후행 어기 범주를 바꾸는 기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노명희(1998/2005)의 판별기준을 적용되면 ‘不’이 ‘無’보다 접사성이 약하고 어근성이 더 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또한 한자어 어기의 범주 혹은 의미 자질은 동작성인지 혹은 상태성인지 ‘-하다’와의 결합관계로 판단하는 것은 일방적인 면이 있어, 한자어 자체의 의미해석도 필요하다. 본고는 ‘不’과 ‘無’를 위주로 분석하였지만 다른 부정 접두한자어 ‘미(未), 비(非), 몰(沒)’ 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추후에 다른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에 의해 가결되지 못했다.); 우리말샘: 1.동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다. (일례로 공영 방송인 OO가 지난해 10월 8일부터 방영해 온 환경 캠페인 26건 가운데 의식 개혁과 가정 단위의 생활 환경 캠페인이 절반이 넘는 14건에 이르고 있으며 또 그 밖의 것들도 다수가 불특정한 다수를 환경 파괴, 오염의 원인 제공자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주장이다. 出处 <<연합뉴스 1991년 5월>>)

어기 목록

‘不-’과 결합한 후 어기범주 변하지 않은 경우

[OO하](X) : 不+[OO하] -->[不+OO+하]X

불경기,	불면목,	불수년,	불신심,	불품행,
불공업,	불본의,	불수의,	불요인,	불행위
불과절,	불성설,	불수일,	불인망,	

[OO하](A) : 不+[OO하] -->[不+OO+하]A

불가능	불명확	불신실	불철저	불투명	불확실
불가당	불상당	불안전	불총명	불편리	불확정
불공정	불상득	불여의	불충분	불평등	
불공평	불선명	불온당	불충실	불필요	
불균등	불성실	불완전	불친절	불합리	

[OO하](V) : 不+[OO하] -->[不+OO+하]V

불간섭	불분할	불섭생	불용착	불채용	불포화
불감당	불비례	불성공	불육식	불출마	불합격
불개입	불살생	불성립	불융통	불출석	불합의
불결실	불상견	불소급	불음주	불출세	불허가
불구속	불상용	불수리	불이행	불친화	
불근신	불상응	불순종	불인가	불통과	
불매매	불상정	불승인	불찬성	불통일	
불복일	불상합	불신앙	불참가	불퇴전	
불복종	불상화	불신임	불참석	불투도	

‘不-’과 결합한 후 어기범주 변환 경우

[OO하](A) : 不+[OO하] -->[不+OO+하]×
가분(可分)

[OO하](V) : 不+[OO하] -->[不+OO+하]×

경제(經濟)	비례(備禮)	왕법(枉法)	협화(協和)
규율(規律)	성문(成文)	천노(遷怒)	
기소(起訴)	소화(消化)	침략(侵略)	
변경(變更)	연속(連續)	평판(評判)	

[OO하](V) : 不+[OO하] -->[不+OO+하]A

안정(安定)	평균(平均)	조화(調和)	주의(注意)
--------	--------	--------	--------

[OO하](×) : 不+[OO하] -->[不+OO+하]A

감당(勘當)	명예(名譽)	세출(世出)	적임(適任)
규칙(規則)	상능(相能)	이익(利益)	조리(條理)
균형(均衡)	상동(相同)	도덕(道德)	

[OO하](×) : 不+[OO하] -->[不+OO+하]V

신용(信用)
*우시(遇時)

[OO하](특) : 不+[OO하] -->[不+OO+하]특

특정(特定)
만족(滿足)
절제(節制)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온라인(주소), 우리말샘(주소)
김규철(1997), 「한자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쪽수『국어학』, 29.
김규철(1980), 「漢字語 單語 形成에 관한 研究」, <國語研究> 41, 57-63.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145-161.
김혜령(2009), 「몰(沒), 무(無), 미(未), 불(不), 비(非)계 접두 파생어와 어기의 의미 관계」, <한국사전학>(14), 111-139
노명희(1998/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서병국(1975), 「현대국어의 어구성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현숙(1989), 「부정접두어 ‘무, 불, 미, 비’의 성격과 용법」, <관악어문연구>14, 231-252.
박석문(1999), 「한자어 부정접두사의 결합 관계에 대하여」, 『泮橋語文研究』 10, 3-38.
차준경(2004), 「국어 명사 다의 현상의 체계성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김창섭 (2013), 「-적(的)의 두음 경음화와 2자어 3자어론」, <국어학>68, 167-188
현영희 (2012), 「한자어 부정 접두사의 결합 양상」, <한국사전학>(20), 259-281
정민영(1994), 「국어 한자어의 단어 형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J. Lyons(1977), *Semantics I,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IV)*

-璟興撰 <无量壽經連義述文贊>의 音注를 중심으로-

권인한**

- | | |
|----------------------|--------|
| 1. 머리말 | 4. 논의 |
| 2. <술문찬> 자료의 신뢰성 검증 | 5. 맺음말 |
| 3. 憬興師 音注 자료의 수집과 정리 | |

1. 머리말

본고는 大谷大學 소장 憬興師撰 <无量壽經連義述文贊>에 나타난 음주(반절 또는 직음주)들을 자료로 7세기 중·후반의 백제한자음을 논의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술문찬> 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親鸞師 친필의 <顯淨土眞實教行證文類>에 인용된 부분들에 대한 비교·검토를 행할 것이다. 그 결과 <술문찬> 자료는 신뢰할 만한 것이지만, 특히 음주들에서는 매 글자마다 원전 비판적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3장에서는 권별 전수 조사를 통하여 음주 자료의 수집하고 정리할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들에 비해 5자를 새로 추가시켜 총 60자 63개의 음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에서 기존 논의들에서 교정된 음주들에 대한 검토 결과 「倚」→「從」(④), 「曄」→「曜」(⑩), 「戾」→「盼」(④⑩)의 교정은 보류하여 최종 음주 목록으로 총 57자 60개 음주로 확정할 것이다.

4장에서는 최종 음주 목록을 중계음계 일치 음주 45례와 중계음계 불일치 음주 15례로 구분하고서 경흥사의 음주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7세기 중·후반의 백제한자음의 특징들을 정리할 것이다.

2. <술문찬> 자료의 신뢰성 검증

백제 熊川州 출신으로 신문왕 즉위 후 통일신라의 國師로 모셔진¹⁾ 釋憬興撰 <无量壽經連

* 본고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9S1A5A2A01034883)임.”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神文王代 大德憬興 姓水氏 熊川州人也…文武王將昇遐 顧命於神文曰 憬興法師可爲國師 不忘朕命 神文即位 曲爲國老 住三郎寺”<三國遺事5-感通7-憬興遇聖>

義述文贊》²⁾(이하 <술문찬>으로 줄임)은 1699년 정토종의 학승 義山良照(1648~1717)³⁾에 의해 간행된 귀중서이다. <술문찬> 말미의 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 이 經에 대한 몇 가지 疏가 있는데 마치 부처님[佛陀]의 말씀에 미묘한 장엄을 두른 것과 같구나. 그것들은 기이하고 진귀하며 미묘하고 공교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장엄하였으며, 온갖 다양한 생각을 밖으로 펼쳐 벌여 놓았으니, 부처님의 덕은 더욱 추앙할 만한 것이 되고, 중생[群萌]의 믿음은 다시 그 뿌리가 견고해졌다. -중략- 疏는 진실로 경을 장엄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한번 크게 볼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淨影이 지었고, 嘉祥도 지었으며, 義寂·法位 등의 여러 이름난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지어 세상에 내어놓았다. 대사(=憬興師)도 이것을 궁구하고 공부하였는데, 누구보다 빼어나고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할 만하다. 나는 일찍이 이 책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유행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왔다. 이제 찾아서 校讎하고 가래나무에 새겨서 세상에 내어놓으니, 세상에서 법을 보는 안목을 갖춘 이가 이 책을 보고 의지하기 바란다. 元祿 己卯(1699년) 臘月 朔日 華頂 義山이 삼가 쓰다.”⁴⁾

위에서 보면, 義山이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憬興師의 <술문찬>을 어렵게 찾아내어 중국에서 나온 慧遠·吉藏 등의 무량수경에 관한 기존 주석서들과의 교감을 거쳐 목판으로 간행한 후 타 주석서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秀作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憬興師가 찬한 지 천년이나 지난⁵⁾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온 <술문찬>은 무량수경의 이해에 필요한 漢字의 形音義에 관한 많은 주석을 싣고 있어서 고대 한국한자음, 특히 백제한자음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이승재(2008), 伊藤貴祥(2014), 張莉莉(2018) 등). 그러나 <술문찬> 원본의 행방이나 발굴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현재로서는 이를 한국한자음의 연구 자료로 이용하기에 앞서 그 자료적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는 듯하거니와, 필자는 <술문찬>의 본문 일부가 인용되어 있는 일본 眞宗大谷派(東本願寺)의 宗祖 親鸞師(1173~1262) 친필의 《顯淨土眞實教行證文類》⁶⁾(1224년 초고~1247년 완성(추정)⁷⁾; 이하 <교행신증>으로 줄임)과의 비교를 통해 현전본 <술문찬>의 자료적 가치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술문찬> 中12b~16a:

①經曰 唯然大聖至奇特之法者.⁸⁾ 述云 此第二彰己所念也. (中略) 依神通輪 所現之相 非唯異常 亦无等者 故云

2) 본고에서 저본으로 이용한 <술문찬>은 大谷大學藏本으로 2007년 8월에 이승재, 강인선 교수와 함께한 조사에서 입수된 복사본이다.

3) 義山(1648~1717): 에도시대 중기 정토종의 학승. 字는 良照. 《円光大師行狀畫図翼贊》(60卷)의 重修를 비롯하여 《無量壽經隨聞記》, 《觀無量壽經隨聞記》 등 다수의 저술을 남겼다. 《WEB版 新纂淨土宗大辭典》 참조.

4) “嗟乎此經而有幾疏，猶如佛陀而帶妙莊嚴乎。彼異珍妙工綺飾莊嚴，百千錯落張羅于外，則佛陀之德逾可仰，而群萌之信更固其根矣。-중략- 疏也實是經之莊嚴，而世之一大觀者也。以故淨影作焉嘉祥作焉。義寂法位等諸名流皆作焉而興。大師窮工于茲，可謂殊勤矣。予曾憂此書流行之不遠。今採而校讎繡之于梓以張于世，世之擇法眼乞觀而仰焉。時元祿己卯臘月朔日。華頂義山謹書”

5) 憬興師의 <술문찬> 찬술 시기에 대해서는 이승재(2008: 129)에서 7세기 후반 또는 말엽, 특히 측천무후자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694년 이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6) 본고에서 이용한 <교행신증>은 ①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자 파일로 제공하는 1936년 영인본(청구 기호: 古古1-75-110)과 ②2012년 眞宗大谷派(東本願寺)에서 발행한 번각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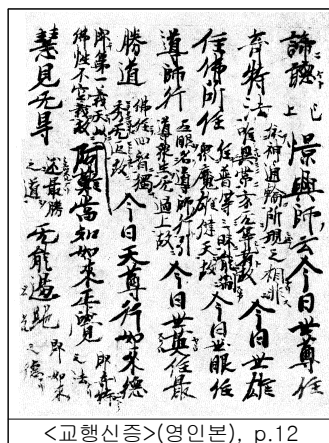
7) <https://ja.wikipedia.org/wiki/親鸞> 참조.

8) 무량수경 원문: 唯然大聖 我心念言 今日世尊 住奇特之法者. 한명숙(2014), p.287에서 재인용. ※“A

奇特. 卽立世尊名之所以也.

- ㉠經曰 今日世雄 住諸佛所住者. 述云 此第二念也. (中略) 今卽如來 住諸佛平等三昧 能制衆魔雄健之天 故住佛住. 爲世雄名之因也.
- ㉡經曰 今日世眼 住導師之行者. 述云 此第三念也. (中略) 今卽五眼 名導師行. 佛住五眼 引導衆生 更無過者故. 以導師行以釋世眼之義也.
- ㉢經曰 今日世英 住最勝道者. <述云>⁹⁾ 此第四念也. 最勝道者 卽大菩提四智心品. 佛住四智 獨秀無匹故 從最勝道立世英之名也.
- ㉣經曰 ^{14a}今日天尊 行如來德者. 述云 此第五念也. 天尊者 卽第一義天 以解佛性不空義故.
- ㉤經曰 阿難當知^{16a}至無能過絕者.¹⁰⁾ 述云 第二舉德勅許有二. (中略) 如來正覺者 卽奇特之法 (中略) 今卽慧見無礙者 述最勝之道. 無能過絕者 卽如來德.

(1') <교행신증> 1-13~14(=권1 13~14면, 이하 같음):



<교행신증>(영인본), p.12

憬興師云:

- ㉠今日世尊 住奇特之法[依神通輪 所現之相 非唯異常 亦無等者故]
- ㉡今日世雄 住佛所住[住諸佛平等三昧 能制衆魔 雄健天故]
- ㉢今日世眼 住導師行[五眼 名導師行 引導衆生 更無過上故]
- ㉣今日世英 住最勝道[佛住四智 獨秀無匹故]
- ㉤今日天尊 行如來德[卽第一義天 以解佛性不空義故].
- ㉥阿難當知 如來正覺[卽奇特之法], 慧見無碍[述最勝之道], 無能過絕[卽如來之德 已上].

(1)은 問答廣說分の 일부분으로서 양 텍스트를 비교해보면, <교행신증>이 <술문찬>에서의 “經曰”과 “述云” 부분에서의 핵심 내용을 각각 본문 大字와 2행 小字 협주 형식으로 요약한 것인바, 양자간의 異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첨가: (1㉠)→(1'㉠)에서 <술문찬>에 없는 “今日世尊”이 <교행신증>에 나타난 것은 <교행신증>이 <술문찬>에서 생략된 《무량수경》의 원문을 참조한 결과로 판단된다. (1㉡)→(1'㉡)에서의 “如來正覺”도 이와 같다(각주 9), 11) 참조).
- 2)생략: (1㉠)→(1'㉠)에서 “住奇特之法”의 “之”가 생략된 것은 <교행신증> 본문에서의 4·4 조 자수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에서 “諸佛”의 생략, (1㉣)→(1'㉣)에서 “更”의 생략도 이와 비슷한 예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1㉤)→(1'㉤)에서 “以解佛性不空義故”(불성이 불공인 뜻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부분에서 생략된 “解”는 이와 다르다. 이 글자가 생략되면서 문장의 뜻이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인바, <교행신증> 속의 실수례의 하나로 여겨진다.
- 3)교체: (1㉢)→(1'㉢)에서 “平等(三昧)→普等”의 교체는 동의 관계에 있는 두 용어간의 교체여서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려운 듯하나, “普等三昧”¹¹⁾가 法藏比丘(아미타불의 성불 전 이름)의 48대원 중의 제45대원 “住定見佛願”¹²⁾에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의 잘못

至B者”(A에서 B까지)의 형식에서 생략된 부분 보충.

- 9) <술문찬> 원문에서 문맥상 실수로 빠진 부분을 < > 속에 보충한 것이다. 이하 같음.
- 10) 무량수경 원문: 阿難當知 如來正覺 其智難量 多所導御 慧見無碍 無能過絕者. 한명숙(2014), p.302에서 재인용.
- 11) ㉠ Samantānugata 三曼多伽多로 음역. 平等三昧·普遍三昧라고도 함.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한 때에 뵈옵는 禪定. <『불교사전』, p.296>

내지 실수로 보자면 현전 <술문찬> 쪽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왜냐하면, <교행신증>의 원문을 검색해볼 때, “平等”이 대다수로 보이는 어휘인 반면, “普等”은 (1'㉔)의 딱 한 군데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親鸞師가 <술문찬>의 원문을 인용해 “普等三昧”를 그대로 살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1㉔)→(1'㉔)에서 “更无過者故”(다시 넘어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분에서의 “者→上”의 교체는 문맥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교행신증>의 또다른 실수레이기는 하나, 자형상 親鸞師가 본 <술문찬> 원본에 모종의 훼손이 있었다는 가정하에서 「者」자의 상부가 「上」자로 誤認되었을 수도 있기에 수용 가능한 실수로 보고자 한다. 기타 이체자의 교체례(예: 礙→碍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술문찬> 中17a~17b/下43b:

- ①經_{17b}曰 佛告阿難至无央數劫者. 述云 第六如來廣說有二. 初廣說如來淨土因果 卽所行所成也. 後廣顯衆生往生因果 卽所攝所益也. /
- ②經曰 四十億菩薩至當成正覺者. 述云 此後菩薩利也. 聞彌陀佛 威德廣大 故得不退轉. 聞此土多惡 誓欲濟度 故以弘誓德 而自莊嚴.

(2') <교행신증> 1-85/89:

憬興師云: ①如來廣說有二. 初廣說如來淨土因果, 卽所行·所成也. 後廣顯衆生往生因果, 卽所攝所益也. (中略) / 又云: ①聞佛 威德廣大 故得不退轉也[已上]

(2)에서는 ①부분에 생략과 교체가 보인다. “彌陀佛→佛”의 생략은 문맥상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만, “威德→威德”의 교체는 이와 다르다. 문맥상 “威德”이 좀더 어울리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불경류에서 “威德廣大”가 《大般若波羅蜜多經》 등에서 19회 정도 검색되는 다용구절이기 때문이다.¹³⁾ 이는 현전본 <술문찬>보다 <교행신증> 쪽이 원본 텍스트에 가까울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¹⁴⁾

(3) <술문찬> 中43b~44b:

經曰 是故无量壽佛至超日月光佛者.¹⁵⁾ 述云 此後結歎顯勝也. (中略) 今卽佛光①非算數故无量. ②无缘不照故无边. ③无有人法而能障者故无礙. ④非諸菩薩之所及故无對. ⑤光明自在更无爲上故焰王. ⑥從佛无貪善根而現亦除衆生貪濁之心故清淨. ⑦從佛无瞋善根而生能除衆生瞋恚惑心故歡喜. ⑧光從佛无癡善根心起復除衆生无明品心故智慧. ⑨佛之常光恒爲照益故不斷. ⑩光非諸二乘等所測度故難思. ⑪亦非餘乘等所堪說故无稱. ⑫日夜恒照不同娑婆二曜之輝故超日月. 總而_{44b}言之. 卽身莊嚴故. 論云相好光一尋色像超群生故.

12) 第四十五 住定見佛願: “設我得佛, 他方國土諸菩薩衆, 聞我名字, 皆悉逮得普等三昧. 住是三昧, 至於成佛, 常見無量不可思議一切諸佛, 若不爾者, 不取正覺.”(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아미타불)을 들으면, 그들은 모든 부처님을 두루 뵈올 수 있는 삼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 이 삼매에 머물러 성불하기까지 언제나 불가사의한 일체 모든 부처님을 뵈올 수 있으오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https://blog.naver.com/winyohu/221115269113>>

13) 검색은 SAT DB(<https://21dzk.l.u-tokyo.ac.jp/SAT/satdb2015.php>)를 이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14) 三木彰圓(2016), p.104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다.

15) 무량수경 원문: 是故 無量壽佛 號無量光佛 無邊光佛 無礙光佛 無對光佛 炎王光佛 清淨光佛 歡喜光佛 智慧光佛 不斷光佛 難思光佛 無稱光佛 超日月光佛者. 한명숙(2014), p.457에서 재인용.

(3') <교행신증> 4-70~71:

憬興師云: ①无量光佛[非竿數故], ②无边光佛[无緣不照故], ③无导光佛[无有人法而能障故], ④无對光佛[非諸菩薩之所及故], ⑤光炎王佛[光明自在更无爲上故], ⑥清淨光佛[從佛无貪善根而現故, 亦除衆生貪濁之心也, 无貪濁之心故云清淨], ⑦歡喜光佛[從无瞋善根而生故, 能除衆生瞋患盛心故], ⑧智慧光佛[從无癡善根心起, 復除衆生无明品心故], ⑨不斷光佛[佛之常光恒爲照益故], ⑩難思光佛[非諸二乘所惻度故], ⑪无稱光佛[亦非餘乘等所堪說故], ⑫超日光佛[日夜恒照, 不周娑婆一曜之光故], 皆是蒙光觸身者, 身心柔軟願之所致也.

(3)은 無量壽佛의 이칭들을 나열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앞선 (1)과 같은 형식으로 <교행신증>에서 <술문찬>의 설명을 인용 정리하고 있다. 양자간 異同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첨가: (3㉔)→(3'㉔)과 (3㉕)→(3'㉕)에서 구절 끝 ‘-故, -也’의 첨가가 보이나, 이는 문맥의 연결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려는 親鸞師의 자의적 수정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3㉕)→(3'㉕)에서 <술문찬>에 없는 “无貪濁之心故云清淨” 부분의 첨가는 <교행신증> 외에 이와 동일한 텍스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SAT DB 의거), 현재로서는 이 예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2)생략: (3㉔)→(3'㉔)에서 “從佛无貪善根…”의 생략이 보이는 바, 문맥상 <교행신증>의 실수례로 추가될 수 있다.

3)교체: (3㉕)→(3'㉕)에서의 “測→惻”, (3㉔)→(3'㉔)에서의 “同→周”, “二→一”의 교체는 자형 상사(相似)로 인해, (3㉔)→(3'㉔)에서의 “輝→光”의 교체는 의미 상사로 인해 나타난 <교행신증>의 실수례들인바, 모두 문맥상 <술문찬>의 텍스트가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4)기타: (3㉔)→(3'㉔)에 보이는 “炎王光佛→光炎王佛”의 착오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행신증>의 명백한 실수례이다.

(4) <술문찬> 下39a~41a:

經曰 佛告慈氏至謂之胎生者. <述云> 唯總別遠理過同前解. (中略) 由此疑佛智 雖生彼國 而在邊地 不被聖化 事若胎生 宜之應捨.

(4') <교행신증> 5-13:

憬興師云: 由此疑佛智 雖生彼國 而在邊地 不被聖化 事若胎生 宜之重捨[已上]

(4)에서는 “應→重”의 교체레만 보이는데, 문맥상 <술문찬> 쪽이 올바른 것인데, 이 교체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나, 필자는 「應」자의 초서체(초서체 應) 등에서 「重」자로 오인된 실수가 아닌가 한다.

이상 <교행신증>에서 “憬興師云”으로 시작되는 일부 인용문들을 중심으로¹⁶⁾ <술문찬>과의 異同을 살펴본 것인데, 이를 통해서 본 <술문찬>의 자료적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6) <교행신증>에서 憬興師의 <술문찬>을 인용한 예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논의되어 있다. 渡辺顯正(1978) 및 三木彰圓(2016) 참조.

첫째, 전반적으로 현전본 <술문찬>과 <교행신증> 인용문 사이에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양자간 차이는 몇몇 글자나 구절 사이에 보이는 첨가, 생략, 교체 등인바, 이들은 대부분 설명 가능한 차이라는 점에서 현전본 <술문찬>의 자료적 신뢰성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려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그림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차이 중 현전본 <술문찬> 쪽에 문제가 큰 예도 없지 않으니, (1㉔)에서의 “平等” vs. “普等”, (2㉔)에서의 “成德” vs. “威德”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는 현전본 <술문찬>을 자료로 이용함에 있어서 무비판적으로 임해서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살펴볼 音注들에서는 조금의 차이나 실수라도 상당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매 글자마다 현전본 <술문찬>에 대한 원전 비판적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¹⁷⁾

3. 憬興師 音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이 장에서는 大谷大本 《无量壽經連義述文贊》을 저본으로 하면서, 한명숙(2014)의 번역본도 참조하여 그 속에 나타난 憬興師의 음주를 권별로 전수 조사하여 제시한 후, 이들을 유형별로 정리할 것이다.

3.1. 음주 자료 수집

3.1.1. 상권

- 經曰 示現算計 (文藝射御 博綜道術)¹⁸⁾ 至貫練羣籍者.

述云 此第四伎備解寬也. … ①綜子送反 習也, 陸法言 《切韻》云機縷也, 音並同也, 非此中義.<上18b:3~7/[한]122~123>¹⁹⁾

- ①《述贊》 綜: 子送反_去送精²⁰⁾

《廣韻》 綜: 子宋切_去宋精

- 徵瑞也. … 故云 表章功祚. ②祚之阿反 福也 助也. 章亦顯也.

<上28b:8~9/[한]159~160>

17) 실제 《한국불교전서》 및 한명숙(역)(2014)에서 행한, 현전본 <술문찬>에 대한 수많은 교감주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18) 본문 중에 괄호를 친 부분은 大谷大本과 《한국불교전서》 수록본 사이에 차이나는 부분(주로 “經曰” 이하 생략된 곳)임을 밝혀둔다(각주 8) 참조).

또한 원문에 대한 번역문은 분량 관계상 생략한 것임을 밝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대신 원문에 대응되는 한명숙(2014)의 장차를 일일이 밝혀 놓았으므로 번역문은 해당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19) 출전은 <大谷大本 장차:행차/한명숙(2014)의 장차>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20) 被音注字의 음계 제시는 《漢語大詞典》 또는 小學堂 韻書集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중고음(《廣韻》 또는 《集韻》)의 “反切·聲調·韻母·聲母” 형식으로 간략히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攝·開合·等號” 정보도 추가할 것이다

- ②《述贊》 祚: 之阿反_平歌章
《廣韻》 祚: 昨誤切_去暮從

• 而今言梵釋祈請者 略舉 不盡之言也. ③祈[巨衣反] 作蕲求福也.
<上35a:2~3/[한]182>

- ③《述贊》 祈: 巨衣反_平微羣
《廣韻》 祈: 渠希切_平微羣

• 由震動故, 動魔宮殿, 无非懼怖. ④懼[倚葉反] 畏也, 攝身之貌也.
<上40b:4~5/[한]205>

- ④《述贊》 懼: 從葉反_入葉從²¹⁾
※한명숙(2014: 205) 역주: 倚→從, 이승재(2008: 163): 倚→徒?
《廣韻》 懼: 之涉切_入葉章

• 經曰 擗裂邪網, 消滅諸見者.

述云 第二 …… 皆破之. ⑤擗[古惡反] 亦裂也, ~~是踰口裂也~~²²⁾ 亦折也. ⑥裂[呂藥反] 陸法言
《切韻》云 破也.

<上40b:5~9/[한]205~206>

- ⑤《述贊》 擗: 古惡反_(宕開一)入鐸見
<玄應> 擗: 俱縛反_(宕屑三)入藥見²³⁾ ※<玄應>=《一切經音義》

cf)《廣韻》·《集韻》 古獲切_(宕合一)入麥見

- ⑥《述贊》 裂: 呂藥反_入薛來
《廣韻》 裂: 良薛切_入薛來

• 貯德示田者, 卽生福也. ⑦貯[竹與反]. 盛受曰貯. 貯亦積也.
<上41b:8~9/[한]209~210>

- ⑦《述贊》 貯: 竹與反_上語知
《廣韻》 貯: 丁呂切_上語知

3.1.2. 중권

• 无能遏絕者 卽如來德. ⑧遏[阿達反] 壅也 絕也.

- ⑧《述贊》 遏: 阿達反_入曷影
《廣韻》 遏: 烏葛切_入曷影

• 經曰 功祚成滿足. (威曜朗十方. 日月戢重暉.) 至一切隱不現者.

述云 此第二歎自德也. ⑨祚[之河反] 助也 福也. ⑩戢[墮六反] 集也 攝也, 陸法言《切韻》

21) 한명숙(2014)에서의 원주(《속장경》에 의거한 《한국불교전서》(1979)에서의 교감주)나 역주의 교감주 및 이승재(2008)에서의 교정 내용을 일단 받아들여 음계를 제시하되, 해당 번호 및 피교정자에는 밑줄로 표시함. 이하 같음.

22) 大谷大本 8~9행 난상 “足踰口/裂也有/脫誤乎?”

23) 「擗」자의 음의에 대해서는 伊藤貴祥(2014: 367~368)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云止也.<中37a:10~37b:2/[한]419~420>

②<述贊> 祚: 之河反_平歌章

<廣韻> 祚: 昨誤切_去暮從

⑨<述贊> 戢: 墮立反_入緝定

※ 이승재(2008: 163): 六→立=한명숙(2014: 420) 역주

<廣韻> 戢: 阻立切_入緝莊

• 述云 此後彰果也. 恢廓廣大者 卽无量德成故. … ⑩廓[古惡反] <爾雅> 大也.<中38b: 1~2/[한]427>

⑩<述贊> 廓: 古惡反_(宕開一)入鐸見

<廣韻> 廓: 苦郭切_(宕合一)入鐸溪

• 經曰 其佛國土. (自然七寶 金銀琉璃珊瑚琥珀磤磤瑪瑙 合成爲地. 恢廓曠蕩 不可限極 悉相雜廁 轉相入間 光赫焜曜 微妙奇麗 清淨莊嚴. 超踰十方一切世界 衆寶中精) 至(其寶)猶如第六天寶者.

述云 … ⑪恢[苦灰反] 大也. ⑫赫[呼格反] <切韻>云 赤也 <毛詩>云 赫赫師尹, 註云 赫赫盛兒也. ⑬焜[胡本反] <切韻>云火光也 又作⑭焜[由鞠反] 盛也曜也.<中42a:4~10/[한]448~449>

⑪<述贊> 恢: 苦灰反_平灰溪

<廣韻> 恢: 苦回切_平灰溪

⑫<述贊> 赫: 呼格反_入陌曉

<廣韻> 赫: 呼格切_入陌曉

⑬<述贊> 焜: 胡本反_上混匣

<廣韻> 焜: 胡本切_上混匣

⑭<述贊> 焜: 由鞠反_入屋以

<廣韻> 焜: 余六切_入屋以

• 經曰 又其國土 (無須彌山及金剛圍一切諸山 亦無大海小海溪渠井谷. …) 至常和調適者

述云 此後/嚴土無穢. … ⑮溪亦作谿字 苦奚反 <爾雅> 水注川曰 谿, 谿注谿曰 谷, 谷注谷曰 溝也. ⑯渠[呂(→巨²⁴)居反] 溝也.

<中42b:6~9/[한]450~452>

⑮<述贊> 溪=谿: 苦奚反_平齊溪

<廣韻> 谿: 苦奚切_平齊溪

⑯<述贊> 渠: 巨居反_平魚羣

<廣韻> 渠: 强魚切_平魚羣

• 經曰 阿難白佛. (… 貧窮乞人 底極廝下 衣不蔽形 食趣支命 飢寒困苦 人理殆盡. … 無善可怙 無德可恃. …) 至因能致此者.

述云 此阿難答勝也. … ⑰殆[徒改反] 近也幾也. … ⑱怙[胡古反] 福也.<中50b:5~8/[한]500~

24) 이승재(2008: 149): “(音15) 渠[呂居反]의 ‘呂’는 ‘巨’의 오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渠[巨居反]으로 교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502>

①⑦<述贊> 殆: 徒改反_上海定

<廣韻> 殆: 徒亥切_上海定

①⑧<述贊> 怙: 胡古反_上姥匣

<廣韻> 怙: 侯古切_上姥匣

●經曰 又衆寶蓮華 (… 皑皑煥爛 …) 至(出三六)十百千億光者

述云 此第六寶化充滿. … ①⑨皑[于鬼反] <說文>盛明貌也. ②⑩皑(→曜)[爲韶反]²⁵⁾ 華光盛也. 又②⑪皑[王輒反] 艸木華貌.

<中51b:3~6/[한]508~509>

①⑨<述贊> 皑: 于鬼反_上尾雲

<廣韻> 皑: 於鬼切_上尾雲

②⑩<述贊> 曜: 爲韶反_平宵雲

<廣韻> 曜: 弋照切_去笑以

②⑪<述贊> 皑: 王輒反_入葉雲

<廣韻> 皑: 筠輒切_入葉雲

3.1.3. 하권

●經曰 橫爲非常 (… 憂毒忪忪 無有解時 …) 至適无縱事者

述云 此後散失故. … ②⑫忪[止容·衆從二反] 懼心亂動也.

<下22b:2~4/[한]642>

②⑫<述贊> 忪: 止容反_平鍾章

②⑬<述贊> 忪: 衆從反_平鍾章

<廣韻> 忪: 職容切_平鍾章

●經曰 何不棄衆事. (各曼强健時. …) 至欲何樂乎者.

述云 此後勸令脩捨也. ②⑭曼音萬 及也. 亦作②⑮蔓[馬安反] 延長貌也. 非此中義.<下23b:5~7/[한]649~650>

②⑭<述贊> 曼: =萬_去願微

<廣韻> 曼: 無販切_去願微

②⑮<述贊> 蔓: 馬安反_(山開一)平寒明

<廣韻> 蔓: 母官切_(山合一)平桓明~無販切_去願微

●經曰 生死常道 (… 如此之人 朦(→蒙)冥抵突 …) 至甚可傷者.

述云 此後正申癡過有二. … ②⑯蒙又作矇皆[莫公反] 蒙覆不明也. ②⑰冥[鳴央反] 暗昧無知也. 矇有眸子而無見也. 又矇②⑱矇[下牛對反] 生聾. 又蒙②⑲籠盧江反 蒙籠謂不明了也. ②⑳抵[都禮反] 拒也 摧也. ㉑突[徒骨反] 觸冒也.<下24a:5~24b:4/[한]653~655>

②⑯<述贊> 蒙=矇: 莫公反_平東明

25) 伊藤貴祥(2014: 370) 皑→曜(通假 관계). cf)한명숙(2014: 509) 역주: 皑→燁, 韶→獵. ※“韶→獵”의 교감은 자형 相似 등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보아 일단 전자의 교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廣韻》 蒙: 莫紅切_平東明

《集韻》 蒙: 謨蓬切_平東明 cf)《廣韻》 莫孔切_上董明

②6《述贊》 冥: 鳴央反_平庚明

※ 央: 《集韻》 平庚影, cf)《廣韻》 平陽影

《廣韻》 冥: 莫經切_平青明

②7《述贊》 贖: 牛對反_(蟹合一)去隊疑

《廣韻》 贖: 五怪切_(蟹合二)去怪疑

②8《述贊》 籠: 盧江反_平江來

《廣韻》 籠: 盧紅切_平東來

②9《述贊》 抵: 都禮反_上齊端

《廣韻》 抵: 都禮切_上齊端

③0《述贊》 突: 徒骨反_入沒定

《廣韻》 突: 陀骨切_入沒定

● 經曰 總猥憤擾 (… 世間忿忿 無可聊賴 …) 至勤苦忿務者.

述云 此後造惡受苦報. … ③1猥[烏罪反] 惡也 《字林》 衆也 《廣雅》 頓也 … 忿又作忼
古文③2忼[之容反] 《方言》 忼忼遑遽. ③3賴[洛代反] 《孝經》曰 一人有慶兆民賴之. 註云
賴蒙也 聊者甘也.<下24b:8~25a:2/[한]657~658>

③1《述贊》 猥: 烏罪反_上賄影

《廣韻》 猥: 烏賄切_上賄影

③2《述贊》 忼: 之容反_平鍾章

《廣韻》 忼: 職容切_平鍾章

③3《述贊》 賴: 洛代反_去代來

《廣韻》 賴: 落蓋切_去泰來

● 經曰 今我衆等 (所以蒙得度脫 皆佛前世求道之時 謙苦所致 恩德普覆 …) 至皆令得道者.

述云 此第四重領佛恩也. 謙苦者因也. 恩德者果也. 苦(→謙)²⁶⁾又作恪古文③4窻[若各反] 《字
林》 恪恭敬也.

<下26a:1~4/[한]665~666>

③4《述贊》 窻: 苦各反_入鐸溪

※ 한명숙(2014: 666) 원주: 若→苦

《廣韻》 窻: 苦各切_入鐸溪

● 經曰 佛言其一惡者. (…故有貧窮·下賤·乞匄·孤獨·聾盲·瘡啞·愚癡·慙惡, 至有尫狂不逮之
屬. …) 至積德所致者.

述云 第二釋有五. …… 孤者無父母獨者無子女. ③5尫[烏皇反] 羸也弱也. 《(通)俗文》 短小
目(→曰)²⁷⁾尫. ③6狂[其亡反] 變性意也又亂也.<下29b:8~30a:6/[한]684~687>

③5《述贊》 尫: 烏皇反_平唐影

《廣韻》 尫: 烏光切_平唐影

26) 한명숙(2014: 666) 역주: “전후 문맥상 ‘苦’는 ‘謙’인 것 같다.”

27) 한명숙(2014: 687) 역주: “‘目’은 ‘曰’인 것 같다. 《一切經音義》 권16(T54, 405b2)에서 “通俗文云 短小曰尫”, …이라고 한 것 등을 참조.”

- ③⑥《述贊》 狂: 其亡反_平陽羣
《廣韻》 狂: 巨王切_平陽羣

• 經曰 世間有此(目前現事 … 轉質其身 改形易道 所受壽命 或長或短 …) 至會當歸之者.
述云 此後釋燒也. ③⑦質[莫候反] 《三倉》 換易.

<下30a:7~8/[한]687~689>

- ③⑦《述贊》 質: 莫候反_去候明
《廣韻》 質: 莫候切_去候明

• 經曰 佛言其三惡(者. … 但念姪姪, 煩滿胸中, 愛欲交亂, 坐起不安. 貪意守惜, 但欲唐得. 眊眊細色, 邪態外逸, 自妻厭憎, 私妄出入, 費損家財. 事爲非法, 交結聚會, 興師相伐…) 至患而苦之者.

述云 此第三釋邪姪有二. … 又③⑧姪[與一反] 樂也. … ③⑨眊者[眠見反] 《說文》 邪視也. 又下④⑩戾五戾反(→盼[奚詣反])²⁸⁾ 《說文》 恨視也. ④⑪眊[力代反] 《說文》 瞳子不正也. 《蒼頡篇》 內視也 傍視也. … 態古文④⑫態[他代反] 意恣(→姿)²⁹⁾也. 謂能度人情狀也. … ④⑬師[所飢反] 四千人爲軍. 二千五百人爲師. 師十二匹馬也. 五百人爲旅也.<下31b:1~8/[한]698~699>

- ③⑧《述贊》 姪: 與一反_入質以
《集韻》 姪: 弋質切_入質以 cf)《廣韻》 直一切
③⑨《述贊》 眊: 眠見反_去霞明
《廣韻》 眊: 莫甸切_去霞明~彌殄切_上銑明
④⑩《述贊》 盼: 奚詣反_去霽匣
《廣韻》 盼: 胡計切_去霽匣~五計切_去霽疑
④⑪《述贊》 眊: 力代反_去代來
《廣韻》 眊: 洛代切_去代來
④⑫《述贊》 態=能: 他代反_去代透
《廣韻》 態: 他代切_去代透
④⑬《述贊》 師: 所飢反_平脂生
《廣韻》 師: 疏夷切_平脂生

• 經曰 佛言其四惡(者. … 尊貴自大 謂己有道, 橫行威勢 侵易於人. … 自用偃蹇 謂可常爾 無所憂懼) 至常懷憍者.

述云 此第四釋妄語有二. … ④⑭易神(→移)³⁰⁾致反 輕侮也. ④⑮蹇[居免反] 《左傳》 偃蹇驕傲也. 《廣雅》 大嬌也. 謂自高大貌也.

<下32a:8~32b:1/[한]703~705>

- ④⑭《述贊》 易: 移致反_去至以

28) 한명숙(2014: 700) 역주: “又下戾五戾反’은 착간·오식·탈문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一切經音義》 권26(T54, 473a20)에서 “顧盼[奚詣反 說文恨視 如係同音也]”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이하였다.” 이 교감주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한 고민을 한 바 있으나, 연결되는 義註 “說文恨視”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29) 한명숙(2014: 700) 역주: “恣’는 ‘姿’의 오자인 것 같다. 《一切經音義》 권26(T54, 473a20)에서 “姿態[下他代反 意恣也. …]”라고 한 것을 참조.”

30) 한명숙(2014: 705) 역주: 반절법에 의거할 때 ‘神’은 ‘移’의 오자로 보인다.

《廣韻》 易: 以豉切_去寘以~羊益切_入昔以

④5《述贊》 蹇: 居免反_上獮見

《廣韻》 蹇: 九輦切_上獮見~居偃切_上阮見

• 經曰 壽命終盡(諸惡所歸 自然迫促 共趣頓之. …天道自然 不得蹉跌. …) 至痛不可言者.
述云 此後釋燒也. …④6蹉[千阿反]④7跌[徒結反] 《通俗文》 失躡曰跌. 《廣雅》 差也 亦偃也.<下32b:4~33a:3/[한]706~708>

④6《述贊》 蹉: 千阿反_平歌清

《廣韻》 蹉: 七何切_平歌清

④7《述贊》 跌: 徒結反_入屑定

《廣韻》 跌: 徒結切_入屑定

• 經曰 佛言其五惡(者. …辜較縱奪 放恣遊散 串數唐得 用自振給. 耽酒嗜美) 至飲食無度者.
述云 … 徙倚者 猶徘徊也 … ④8倚依音④9辜[古胡反] 《爾雅》 罪也. ⑤0較葛(→苟)³¹⁾學反粗略也.<下33a:5~10/[한]710~712>

④8《述贊》 倚: =依: 《集韻》 隱豈切_上尾影

《廣韻》 倚: 於綺切_上紙影

④9《述贊》 辜: 古胡反_平模見

《廣韻》 辜: 古胡切_平模見

⑤0《述贊》 較: 苟學反_入覺見

《廣韻》 較: 古嶽切_入覺見~古孝切_去效見

• 述云 … 有說魯扈是強直自用之志. 抵突是觸誤侵陵之懷. 未知從何. ⑤1魯[力古反] 孔安國云 鈍也… ⑤2扈[胡古反] 《漢書音義》曰 跋扈自縱恣也. 薛綜曰勇健貌. 又作虜扈.
<下33b:4~8/[한]713~714>

⑤1《述贊》 魯: 力古反_上姥來

《廣韻》 魯: 郎古切_上姥來

⑤2《述贊》 扈: 胡古反_上姥匣

《廣韻》 扈: 侯古切_上姥匣

• 經曰 如是世人(心意俱然. …而於其中 悵望僥倖 欲求長生 會當歸死. …) 至意不開解者.
述云 此次釋痛也. ⑤3僥[五彫·古遼二反] 微遇也. 謂求親遇也. ⑤4倖[胡耿反] 非其所得而謂得也.<下34a:2~4/[한]715~716>

⑤3《述贊》 僥: 五彫反_平蕭疑

《廣韻》 僥: 五聊切_平蕭疑

⑤3《述贊》 僥: 古遼反_上小見

《廣韻》 僥: 吉了切_上篠見

⑤4《述贊》 倖: 胡耿反_上耿匣

《廣韻》 倖: 胡耿切_上耿匣

31) 한명숙(2014: 705) 역주: ‘苞’는 ‘苟’인 것 같다.

- 經曰 身坐勞苦 (… 天道施張 自然糾舉 … 熒熒忪忪 當入其中. …) ~ 至痛哉可傷者.
述云 此後從惡生痛也. … ⑤⑤糾亦糾(→糾)³²⁾[唐由反] 《決疑》云 三合繩也. 非此中意. 今約也 限也. 糾是古體也. … ⑤⑥熒古文傑·惛同臣(→巨)³³⁾營反 獨也單也. <下34b:8~35a:4/[한]722~724>

- ⑤⑤《述贊》 糾: 唐由反_平尤定
《集韻》 糾: 他口切_上厚透
⑤⑥《述贊》 熒: 巨營反_平清羣
《廣韻》 熒: 渠營切_平清羣

- 經曰 吾哀汝等(天人之類 苦心誨喻 教令脩善 … 災厲不起 國豐民安 兵戈無用 崇德興仁) ~ 至務修禮讓者.
述云 … ⑤⑦厲[力制反] 疫厲也. 人病相注也. … ⑤⑧戈[居和反] 平頭戟長十尺六寸或六尺六寸也. <下35b:10~36a:5/[한]729~731>

- ⑤⑦《述贊》 厲: 力制反_去祭來
《廣韻》 厲: 力制切_去祭來
⑤⑧《述贊》 戈: 居和反_平戈見
《廣韻》 戈: 古禾切_平戈見

- 經曰 說是語已 (… 譬如劫水 彌滿世界 其中萬物 沈沒不現 滉漾浩汗 唯見大水 …) ~ 至唯見佛光者.
述云 此第三彼佛放光應請令見. … ⑤⑨汗者 熱氣所蒸液也[下旦反]. 又 ⑥⑩汗[烏臥反] 泥著物也. 《說文》 穢也. 宜從初也. 今言浩汗者布水貌. <下36b:8~37a:1/[한]736~738>

- ⑤⑨《述贊》 汗: 下旦反_去翰匣
《廣韻》 汗: 侯吁切_去翰匣
⑥⑩《述贊》 汗: 烏臥反_去過影
<玄應> 汗: 於故·紆莖二反_去過影 cf)《廣韻》 烏路切_去暮影

3.2. 교정 음주 검토 및 자료 정리

이상 필자가 수집하여 보인 음주 자료는 총 60자 63개 반절(또는 직음주)로 집계된다. 이는 기존 논의들에서 집계된 53자보다 7자 늘어난 것인데,³⁴⁾ 그 주요한 차이는 협주 형식이 아니어서 본문과의 구분이 쉽지 않은 ③(祈), ④(盼), ④(易), ④(倚), ⑤(較)의 5자와 기존 논의들에서 통합되었던 ⑩, ⑪(曜↔曄)와 ⑫, ⑬(曼↔蔓)의 2자가 추가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는

32) 이승재(2008: 143, 146)의 판독에 의함. “糾亦糾”가 정격이나, 반절주로 보아 경흥사가 「糾」자와 「糾」자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3) 이승재(2008: 151)=한명숙(2014: 705) 원주: “臣”은 ‘巨’인 것 같다.”

34) 張莉莉(2018: 13, 34)에서 (音54)로 제시된 烈[於六反]은 필자가 재확인한 결과 “裂者 宜作烈 光也 美也 裂非字體. 帛謙皆云 如是四反[積地四寸也] 卽供聖之華故 於六反 無復妨也.(裂은 烈로 써야 하니, 풍부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裂은 (바른) 자체가 아니다. 백연본과 지검본에서 모두 “이와 같이 네 차례 반복하여 [땅에 쌓여 네 치의 두께로 덮는다]”라고 했지만, 곧 성인에게 공양하기 위한 꽃이기 때문에 여섯 차례 반복한다고 해도 다시 방해되지 않는다)”에서 보듯이 반절이 아닌 본문의 일부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승재(2008)과 동일하게 기존 논의들에서는 53자 음주로 본 셈이 된다.

전자의 5자 음주가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이들을 그대로 최종 음주 목록으로 확정하기에는 선행 논의들에서 원문과 다르게 교정된 글자들이 상당함으로써 이들 교정 음주들에 대한 검토 후에 최종 목록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교정의 근거 제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음주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논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총 9개의 교정된 음주들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④《述贊》 慴: 從(←倚)葉反_入葉從
 ⑨《述贊》 戢: 墮立(←六)反_入緝定
 ⑩《述贊》 渠: 巨(←呂)居反_平魚羣
 ⑳《述贊》 曜(←曄): 爲韶反_平宵雲
 ㉔《述贊》 窻: 苦(←若)各反_入鐸溪
 ㉙《述贊》 盼: 奚詣反(←戾五戾反)_去霽匣
 ㉛《述贊》 易: 移(←神)致反_去至以
 ㉝《述贊》 較: 苟(←苞)學反_入覺見
 ㉞《述贊》 熒: 巨(←臣)營反_平清羣

이들은 자형 상사의 기준으로 기존 논의들에서의 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양분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예들로는 ⑨(立←六), ㉔(苦←若), ㉝(苟←苞), ㉞(巨←臣), ⑩(巨←呂)을 들 수 있을 것인바, 이들은 해서체를 기준으로 보아도 한두 획의 차이에 불과하기에 이들을 인정함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㉞, ⑩의 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巨」자의 행서나 초서 자형들에서 “巨↔臣”, “巨↔呂”의 誤認 가능성 및 “臣→巨”, “呂→巨”의 교정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㉛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移」의 초서 자형을 「神」자로 誤認할 만한 자료가 보인다는 점에서 “神→移”의 교정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④의 반절상자는 「徙」나 「從」자로 교정되고 있으나, 두 글자 모두 「倚」자로 오인될 만한 자형상의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㉙, ㉛의 예도 “曄→曜”, “戾→盼”라는 被注音字의 교체를 전제로 한 교정일 뿐만 아니라, 교체된 글자들 상호간에 자형상의 공통점도 잘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최종 음주 목록에서 보류하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57자 60개 음주를 최종 목록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바, 이들은 중고음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분될 수 있다.

먼저 중고음과 일치되는 음주들은 45개로서 총 60개 대비 75%를 차지하는바, 이들은 다시 반절자까지 완전 일치하는 것들과 음계만 일치하는 것들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5) 반절자 및 음계 일치: 11개

- ⑫《述贊》 赫: 呼格反_入陌曉 ⑬《述贊》 焜: 胡本反_上混匣
 ⑮《述贊》 溪: 苦奚反_平齊溪 ㉚《述贊》 抵: 都禮反_上薺端

- ③④《述贊》 窓: 苦各反_入鐸溪 ③⑦《述贊》 質: 莫候反_去候明
 ④②《述贊》 態=能: 他代反_去代透 ④⑦《述贊》 跣: 徒結反_入屑定
 ④⑨《述贊》 辜: 古胡反_平模見 ⑤④《述贊》 倅: 胡耿反_上耿匣
 ⑤⑦《述贊》 厲: 力制反_去祭來

(5) 음계만 일치: 34개

- ③《述贊》 祈: 巨衣反_平微羣 ⑥《述贊》 裂: 呂藥反_入薛來
 ⑦《述贊》 貯: 竹與反_上語知 ⑧《述贊》 遏: 阿達反_入曷影
 ⑪《述贊》 恢: 苦灰反_平灰溪 ⑭《述贊》 煜: 由鞠反_入屋以
 ⑮《述贊》 渠: 巨居反_平魚羣 ⑰《述贊》 殆: 徒改反_上海定
 ⑮《述贊》 怙: 胡古反_上姥匣 ⑰《述贊》 嘒: 于鬼反_上尾雲
 ⑲《述贊》 曄: 王輒反_入葉雲 ⑲《述贊》 忪: 止容反_平鍾章
 ⑲《述贊》 忪: 衆從反_平鍾章 ⑲《述贊》 曼: 萬去願微
 ⑲《述贊》 蒙=蒙: 莫公反_平東明 ⑲《述贊》 突: 徒骨反_入沒定
 ⑲《述贊》 猥: 烏罪反_上賄影 ⑲《述贊》 佗: 之容反_平鍾章
 ⑲《述贊》 庀: 烏皇反_平唐影 ⑲《述贊》 狂: 其亡反_平陽羣
 ⑲《述贊》 舛: 與一反_入質以 ⑲《述贊》 眈: 眠見反_去霰明
 ⑲《述贊》 睞: 力代反_去代來 ⑲《述贊》 師: 所飢反_平脂生
 ⑲《述贊》 蹇: 居免反_上獮見 ⑲《述贊》 蹉: 千阿反_平歌清
 ⑲《述贊》 較: 苟學反_入覺見 ⑲《述贊》 魯: 力古反_上姥來
 ⑲《述贊》 扈: 胡古反_上姥匣 ⑲《述贊》 僂: 五彫反_平蕭疑
 ⑲《述贊》 營: 巨營反_平清羣 ⑲《述贊》 戈: 居和反_平戈見
 ⑲《述贊》 汗: 下旦反_去翰匣 ⑲《述贊》 汙: 烏臥反_去過影
 ⑲《述贊》 盼: 奚詣反_去霽匣<보류>

다음으로 중고음 음계와 일치되지 않는 음주들은 15개로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도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

(6) 성모 불일치: 1례

- ⑨《述贊》 戢: 墮立反_入緝定
 ④《述贊》 悟: 從葉反_入葉從<보류>

(7) 운모 불일치: 11례

- ①《述贊》 綜: 子送反_去送精
 ⑤《述贊》 摑: 古惡反_(宕開一)入鐸見
 ⑩《述贊》 廓: 古惡反_(宕開一)入鐸見
 ⑲《述贊》 蔓: 馬安反_(山開一)平寒明
 ⑲《述贊》 冥: 鳴央反_平庚明
 ⑲《述贊》 贖: 牛對反_(蟹合一)去隊疑
 ⑲《述贊》 籠: 盧江反_平江來
 ⑲《述贊》 賴: 洛代反_去代來

- ④④《述贊》 易: 移致反_去至以
 ④⑤《述贊》 倚: =依: 隱豈切_上尾影
 ④⑥《述贊》 僂: 古遼反_上小見

(8) 성모·운모(·성조) 불일치: 3례

- ②《述贊》 祚: 之阿反_平歌章
 ②《述贊》 祚: 之河反_平歌章
 ⑤⑤《述贊》 糾: 唐由反_平尤定
 ⑥⑥《述贊》 曜: 爲韶反_平宵雲<보류>

4. 논의

이상에서 수집·정리된 憬興師의 음주 자료를 기초로 이 장에서는 7세기 중·후반기로 추정되는 고대 한국한자음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여기서의 고대 한국한자음이란 경흥사의 생애를 고려할 때 백제한자음임은 물론이다.

4.1. 중고음계 일치 자료

앞 장에서 말한 대로 경흥사의 음주 중에서 중고음계와 일치하는 것들은 위의 (5), (5')의 예들로 전체의 45/60=7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경흥사 음주의 가장 큰 특징으로 봄에 있어서는 아무런 異見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백제한자음의 특징으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흥사 음주들의 7할 이상이 중고음계와 일치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는 <술문찬>의 음주에 중국의 각종 서적들이 인용되고 있음을 들어도 좋을 듯하다.

(9) <술문찬> 인용 서적 목록

- | | |
|------------------------|-----------------|
| ㉮《切韻》(陸德明, 601) | : ①, ⑥, ⑨, ⑫, ⑬ |
| ㉯《爾雅》(미상, 漢初?) | : ⑩, ⑮, ④⑨ |
| ㉺《毛詩》(미상, 前漢?) | : ② |
| ㉻《說文(解字)》(許慎, 100~121) | : ⑮, ③⑨, ④①, ⑥① |
| ㉼《字林》(呂忱, 晉代) | : ③①, ③④ |
| ㉽《廣雅》(張揖, 魏代) | : ③①, ④⑤, ④⑦ |
| ㉾《方言》(揚雄, 前漢末) | : ③② |
| ㊱《孝經》(미상, 미상) | : ③③ |
| ㊲《通俗文》(服虔, 後漢末) | : ③⑤, ④⑦ |
| ㊳《三倉》(미상, 미상) | : ③⑦ |
| ㊴《蒼頡篇》(미상, 秦~前漢代) | : ④① |
| ㊵《左傳》(左丘明?, 魯代) | : ④⑤ |
| ㊶《漢書音義》(顏師古, 641?) | : ⑤② |
| ㊷《決疑》(미상, 미상) | : ⑤⑤ |

이상이 <술문찬>의 음주들에 인용되고 있는 書目 및 해당 음주들인바,³⁵⁾ 이는 경홍사의 저술 과정에서 수많은 중국의 서적들이 직·간접으로 참고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승재(2008: 141~14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비록 위에서 제시된 서적들에서 직접 인용된 음주는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위의 서적들은 예외없이 字形이나 字義에 관한 주석에 인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운 숫자의 音義書(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가 그의 참고 문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字音에 관한 주석 작성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음의서를 비롯한 각종 서적들의 인용 내지 참고만으로는 대다수 음주들의 중고음계 일치 경향이 말끔히 설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운서와 반절자까지 일치하는 (5)의 예들에 비해 반절자는 다르나 중고음계와 일치하는 (5')의 예들이 세 배 가까운 수치(32/11÷2.9) 보임에서 알 수 있듯이 경홍사가 운서나 음의서들과는 독자적인 음주를 달면 서도 높은 중고음계와의 일치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그가 기본적으로 중국어음에 능통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처럼 경홍사가 중국어음에 능통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필자는 우선 그의 俗姓이 水氏라는 데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씨는 중국계 성씨로서³⁶⁾ 중국의 《百家姓》에서 38번째로 배열된 “唐人姓氏”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⁷⁾ 이처럼 수씨가 백제 고유의 성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경홍사가 통일신라의 國老로 봉해질 만큼 신라/신라어와의 거리감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경홍사는 중국에서 백제로 귀화한 가문의 2, 3세 정도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경홍사가 중국에서 백제로 귀화한 가문의 후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가 중국어음에 능통하였을 것이라는 점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문의 특성상 가정 교육을 통한 중국어음 학습에 유리한 조건에 있었을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경홍사가 백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백제의 언어문화에 대한 학습에도 누구보다도 매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홍사의 중국어음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요인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백제 지식인들의 높은 한자문화 수준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周書》나 《北史》에서 백제인의 한문 능력에 대하여 “頗解屬文”(제법 글을 짓고 풀이할 줄 안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니와, 실제로 <彌勒寺 金製舍利奉安記>(639)나 <砂宅智積碑>(654?) 등에 보이는 駢儷文들에서 절묘한 對句法 및 平仄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의 한자어들까지 쓰이고 있음은³⁸⁾ 중국 측의 평가가 빈말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 더

35) 또한 書名 없이 음주 속에 孔安國(?~?, 前漢初)<㉔>과 薛綜(?~243)<㉕>이 거명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술문찬>에는 《禮記》, 《論語》, 《周禮》, 《玉篇》, 《釋名》 등의 서적과 安慧(470~550?; 唯識十大論師), 司馬彪(?~306; 晉人), 遠法師(=淨影寺慧遠; 334~416, 地論宗의 碩德), 應劭(?~204?; 後漢人), 王弼(226~249, 魏代), 王逸(?~?, 後漢人) 등의 중국 문필인들이 인용 내지 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渡辺顯正(1978: 34~39)의 논의를 참조.

36) 水氏는 중국 吳興에서 系出된 성씨로서 본래 共公氏의 후예로 전하며 명나라 때 은현인으로 어사를 지낸 水佳胤이란 사람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水氏의 연원에 대해서는 고증할 문헌이 없어서 상고하지 못하며, 《朝鮮氏族通譜》와 《萬姓譜》 등의 기록에는 수씨의 본관이 雲梯와 金海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30년 국세조사 때에 강원도 김화(金化)에 2가구, 함북 온성(穩城)에 1가구 등 3가구가 나타났고,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한에 총 26가구, 1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족보전문도서관 제공>

37) <https://zh-yue.wikipedia.org/wiki/水氏> 참조.

38) 권인한(2021, 곧 나옴) 및 賴間正之(2015: 32~33, 41~44) 참조. 특히 후자에서는 <사택지적비>에 나타난 평측법에 대하여 중국 六朝 美文들에 버금갈 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백제 지식인들이 성조를 비롯한 한자음에 대한 조예가 상당하였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

해 최근 소개된 <陳法子墓誌銘>에서 진법자의 증조부 陳春이 太學正이라는 관직을 역임하였다는 기록으로부터 백제의 고등 교육기관인 太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거니와, 늦어도 위덕왕대(554~598)에는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太學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태학에서는 유교 경전 교육과 《史記》, 《漢書》 등의 역사서 교육을 담당하였던바, 사비기에 이르러서는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유학 수준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교육 제도도 체계화되고 발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현숙 2014 등).

이러한 백제의 교육 여건/환경으로 미루어볼 때, 사비에서 성장한 경흥사가 고등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술문찬>의 참고 서적으로 《論語》, 《禮記》, 《周禮》, 《孝經》 등의 유교 경전과 함께 역사서인 《漢書音義》가 있고, 이는 태학의 교육 제도와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흥사가 중국어음에 능통하게 된 또 다른 요인으로 고등교육을 통한 백제의 고급 한자문화의 학습/체득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경흥사 음주의 7할 이상이 중고음계와 일치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중국계 귀화 가문의 후손, 집필 과정에서 다양한 서적들의 참조, 고등 교육을 통한 고급 한자문화의 학습/체득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였던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경흥사 음주들에서의 높은 중고음계 일치 경향은 그의 개인어적인 요인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백제 지식인들이 고등교육을 통하여 학습/공유한 백제 사회의 전반적인 한자문화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경흥사의 음주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백제한자음의 큰 특징으로 중고음계와의 높은 일치도를 꼽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4.2. 중고음계 불일치 자료

중고음계 불일치 자료는 앞서 제시한 (6), (7), (8)의 16레인바, 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흥사의 음주들에서 찾을 수 있는 백제한자음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해당 예들을 수정하여 제시하면서 위진남북조음(=WNC.)이나 중세 한국한자음(=MSK.)에서의 성모·운모·성조사의 반영 양상과의 異同을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다.

(6') 성모 불일치례

⑨<述贊> 戢: 墮立反_入緝定 ↔ <廣韻> 阻立切_入緝莊

⑨의 예는 定母(/d-/)↔莊母(/ts-/)간의 상통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통례는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점에서 특이 음주가 된다. 두 성모는 중세 한국한자음에서 각각 /ㄷ/과 /ㄷ/으로 반영되고 있다.³⁹⁾ 양자간 차이에 대해 혹여 당시 백제한자음에 ㄷ-구개음화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국어음운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승재(2008: 163)에서의 논의된 대로 반절상자 「墮」자도 誤字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더 이상의 천착은 보류하고자 한다.

(7') 운모 불일치례(1)

가 될 수 있다.

39) 定母(229): /ㄷ/(181), /ㄷ/(44), /ㄷ~ㄷ/(2), 기타(2)

莊母(65): /ㄷ/(38), /ㄷ/(24), 기타(3)

- ①《述贊》 綜: 子送反_通中一去送精 ↔ 《廣韻》 子宋切_通中一去宋精
 ②《述贊》 籠: 盧江反_江中二平江來 ↔ 《廣韻》 盧紅切_通中一平東來
 ④《述贊》 蔓: 馬安反_山開一平寒明 ↔ 《廣韻》 母官切_山合一平桓明
 ⑥《述贊》 冥: 鳴央反_梗屑三平庚明 ↔ 《廣韻》 莫經切_梗屑四平青明
 ⑦《述贊》 贖: 牛對反_蟹合一去隊疑 ↔ 《廣韻》 五怪切_蟹合二去怪疑
 ③《述贊》 賴: 洛代反_蟹開一去代來 ↔ 《廣韻》 落蓋切_蟹開一去泰來
 ④④《述贊》 易: 移致反_止開㊸去至以 ↔ 《廣韻》 以歧切_止開㊸去寘以
 ④⑧《述贊》 倚: 隱豈切_止開三上尾影 ↔ 《廣韻》 於綺切_止開三上紙影
 ⑤③《述贊》 僂: 古遼反_效中三上小見 ↔ 《廣韻》 吉了切_效中四上篠見

먼저 위의 음주들에서의 상통관계에 대하여 위진남북조음과 중세 한국한자음과의 일치도를 비교·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상통 관계	WNC. 일치도	MSK. 일치도	비고
①	送↔宋	△	○	WNC. 東 ₁ (=送)↔冬(=宋)(8) MSK. 送(/-on/)=宋(/-on/)
②⑧	江↔東 ₁	○	×	WNC. 東 ₁ ↔江(12)
④④	寒↔桓	△	△	WNC. 寒↔桓(2) MSK. 寒(/-an/) : 桓(/-oan(非唇音下)~-an(唇音下)/)
⑥⑥	庚 ₃ ↔青 ₄	△	○	WNC. 青 ₄ ↔庚 ₃ (1), 庚 ₃ ↔清 ₄ (3), 清↔青(12) MSK. 庚 ₃ (/-ien/)=青 ₄ (/-ien/)
⑦⑦	隊 ₁ 合↔怪 ₂ 合	×	○	MSK. 隊 ₁ 合(/-oi/)=怪 ₂ 合(/-oi/)
③③	代↔泰	×	△	MSK. 代(/-ai~-ai/) : 泰(/-ai/)
④④	至↔寘	○	○	WNC. 脂(=至)↔支(=寘)(24) MSK. 至(/-i/)=寘(/-i/)
④⑧	尾 ₃ 開↔紙 ₃ 開	△	○	WNC. 微(=尾)↔脂(9), 支(=紙)↔脂(24) MSK. 尾(/-ii~-i/)=紙(/-ii~-i/) *3등 重紐
⑤③	小 ₃ ↔篠 ₄	○	○	WNC. 宵(=小)↔蕭(=篠)(33) MSK. 小(/-io/)=篠(/-io/)

위의 표에서 보면, 경흥사의 중고음계 불일치 음주레들에서의 상통관계가 보여주는 위진남북조음과의 일치도에 비해 중세 한국한자음과의 일치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7세기 중·후반의 백제한자음이 위진남북조음과 중세 한국한자음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지녔음을 암시한다고 할 것인바, 몇 가지 주목되는 예들을 바탕으로 백제한자음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②⑧의 예는 江↔東₁韻 사이의 상통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⁴⁰⁾ 이러한 상통례가 오로지 위진남북조 자료에서만⁴¹⁾ 찾을 수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백제한자음 특징의 하나로 위진남북조음과 부분적인 공통점을 보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지하듯이 백제가 주로 南朝國들과 교류를 이룬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인바, 위의 예를 비롯한 通攝운들의 상통례에 대하여 坂井健一(1975: 347)에서 시기적으로는 六朝期(=남북조음), 지역적으로는 江東(山東·江蘇), 秦中(山西·河南 일원)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점과 상당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④④의 예에서는 순음 뒤에서의 開합의 중화라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하나 伊藤貴祥

40) 이 예에 대하여 이승재(2008: 159)에서는 盧江反의 「江」자가를 「紅」의 오자일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자형상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1) 東₁↔江韻 상통례(12): 徐邈(3), 劉昌宗(3), 郭璞(3), 郭象(1), 鄭玄(1). 坂井健一(1975: 347) 上同. cf) ①중세 한국한자음: 江韻: /-aŋ/, 東₁韻: /-oŋ/. ②일본 오음: 江韻: -au, 東₁韻: -u/uu~-o/ou. 송재한(2012) 참조.

(2014: 372)에서는 중세 한국한자음의 반영 양상을 의식하여 논의한 반면, 장리리(2018: 39~40)에서는 중국어 상고음의 반영 결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경흥사 당시의 백제한자음에서도 순음 뒤에서 開合의 중화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이 현상의 연원을 상고음에서 찾느냐 한국어의 고유한 음소 연결 제약에서 구하느냐에 있는 것인데, 필자는 한국어에서 [판]과 같은 음소 연결체(=음절)의 존재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 현상은 한국어(=백제어) 고유의 것으로 보고 싶다. 말하자면 순음 뒤에서의 개합 중화 현상을 백제한자음의 또다른 특징으로 내세워도 좋을 것이다.

셋째, ③의 예에서도 백제한자음의 중요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백제한자음과 상고음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것인바, 代↔泰韻의 상통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泰韻이 상고음과 같은 입성 구조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⁴²⁾ 伊藤貴祥(2014)나 장리리(2018)에서의 주요 설명 기제의 하나가 백제한자음이 상고음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에 두고 있으나, 상고음과의 관련성이 가장 큰 泰韻 관련 논의에서는 정작 상고음에 관한 논의가 보이지 않음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백제한자음의 또다른 특징의 하나로 상고음의 반영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7'') 운모(·성모) 불일치례(2)

⑤<述贊> 攔: 古惡反_宕開一入鐸見 ↔ <玄應> 俱縛反_宕屑三入藥見

⑩<述贊> 廓: 古惡反_宕開一入鐸見 ↔ <廣韻> 苦郭切_宕合一入鐸溪

⑤의 예에 대해서는 伊藤貴祥(2014: 368)=장리리(2018: 21)의 논의를 통하여 「攔」자의 백제한자음이 경흥사의 반절을 바탕으로 /*각/으로 재구하면서 백제어가 /과/와 /가/ 같은 음소 연결을 허용하지 언어일 가정하에 중고음의 개음 /ɪw/가 백제한자음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玄應師의 반절도 운모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순음 하의 개합 중화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 음이 /*각/으로 재구될 수 있어서 伊藤貴祥이 내세운 음소 연결제약에 대한 의문을 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⑩의 예에 대하여 伊藤貴祥(2014: 368~369)=장리리(2014: 26~27)에서 말한 대로 비순음 하에서도 개합의 차이가 드러나지 중화되는 현상이 경흥사의 음주에 엄존하므로 백제어에 /과/라는 음소 연결제약에 의한 伊藤貴祥의 가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관련된 또다른 예로는 ⑥“狂: 其亡反”의 예인데, 순음 하의 개합 중화현상을 고려하면 이 음주로 재구될 수 있는 백제한자음은 [광]이 아니라 [*강]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마치 현대 경상 방언에서 “과자→까자”로 되는 현상이 당시 백제어에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예에서는 성모상의 見↔溪母 사이의 상통관계를 보여주는바, 이는 고대국어에서의 아음계 유기음 /ㄱ/의 부재라는 특징을 백제한자음에서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⑤, ⑩의 두 예를 통해서 백제한자음의 다섯 번째 특징으로 일부 介母의 捨象 현상, 아음계 유기음 /ㄱ/의 부재 가능성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8') 성모·운모·성조 불일치례

②<述贊> 祚: 之阿反_果開一平歌章 ↔ <廣韻> 昨誤切_遇中一去暮從

42) 泰韻의 상고음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성운에 준하는 구조로 봄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Karlgren·董同龢: -ad, 王力: -at, 周法高: -ar, 李方桂: -adh.

㉔《述贊》 祚: 之河反_果開一平歌章 ↔ 《廣韻》 昨誤切_遇中一去暮從

㉕《述贊》 糾: 唐由反_流中三平尤定 ↔ 《集韻》 他口切_流中一上厚透

먼저 ㉔, ㉕의 예에 대해서는 伊藤貴祥(2014: 365~367), 장리리(2018: 16~18)에서 「祚」의 상고음 /dza/가 백제 음운체계에 동화되어 /*자/로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㉓의 예에 대한 설명에서 백제한자음과 상고음의 관련성을 부정한 필자로서는 기존 논의들에서의 논의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그대신 필자는 위진남북조 자료에 소수이나마 歌↔模韻 및 이에 근사한 麻↔模韻 상통례가 보임을⁴³⁾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㉕의 예에서 보이는 尤↔厚韻 상통관계도 위진남북조음 자료에 尤↔侯韻 상통례가 많이 보이는 사실과⁴⁴⁾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8')의 예들을 통하여 백제한자음의 특징으로 운모면에서의 위진남북조음과의 관련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이밖에 (8')의 예들에서는 성모면에서의 章↔從母 상통, 성조면에서의 平↔去·上 상통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두 성모가 중세 한국한자음에서 /ㄱ/으로 반영되고 있음과⁴⁵⁾ 평행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백제한자음과 중세 한국한자음의 성모상의 유사성을 말해주는 자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平↔去·上 상통관계는 중국측 자료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예들은 일단 고대한국의 고유명사 자료들에서 보이는 평성자 선호 경향(=상·거성자기피 현상)과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백제어도 신라어와 마찬가지로 애초 성조언어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5. 맺음말

※경흥사 음주 자료를 통해서 본 백제한자음의 특징 정리

- (1)중고음계와의 높은 일치도(45/60=75%),
- (2)위진남북조음과의 부분적인 공통성 또는 관련성,
- (3)순음 하에서의 開合 中和 현상,
- (4)상고음과의 관련성 낮음,
- (5)특정 음소 연결제약의 존재 및 일부 介母의 捨象 현상,
- (6)牙音系 유기음의 부재 가능성,
- (7)일부 평성자 선호 현상의 존재 가능성 등.

43) 歌↔模韻 상통례(1): 郭璞(1), 麻↔模韻 상통례(1): 劉昌宗(1), 坂井健一(1975: 370~371) 참조.

44) 尤↔侯韻 상통례(18): 徐邈(4), 劉昌宗(8), 李軌(1), 郭璞(2), 呂忱(1), 沈重(1), 戚袞(1), 坂井健一(1975: 379) 참조.

45) 章母(159): /ㄱ/(117), /ㄷ/(20), /ㄱ~ㄷ/(5), /ㄴ/(4), 기타(13)
從母(122): /ㄱ/(94), /ㄷ/(23), /ㄱ~ㄷ/(2), /ㄴ/(3)

참고자료

- 《WEB版 新纂淨土宗大辭典》(<http://jodoshuzensho.jp/daijiten/index.php/>)
《大書源》, 東京: 二玄社, 2007.
《무량수경연의술문찬》, 한명숙역,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
《불교사전》, 운허 용하, 동국역경원, 1961/1987.
《三國遺事》(필자 입력·교정본).
《중세 한국한자음의 분석적 연구: 자료편》, 권인한, 박문사, 2009.
《顯淨土眞實教行證文類》, ①京都: 法館, 1936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②大谷大學編, 眞宗大谷派(東本願寺), 2012.
부천족보전문도서관 (<https://www.jokbo.re.kr/book/index.html>)
小學堂韻書集成 (<https://xiaoxue.iis.sinica.edu.tw/yunshu>)
<https://blog.naver.com/winyohu/221115269113>. (아미타불 48대원)
<https://ja.wikipedia.org/wiki/親鸞>.
<https://zh-yue.wikipedia.org/wiki/水氏>.
<https://zh.wikipedia.org/wiki/百家姓>.
SAT DB (<https://21dzk.l.u-tokyo.ac.jp/SAT/satdb2015.php>)

참고문헌

- 권인한(2015), 『광개토왕비문 신연구』, 박문사.
권인한(2021, 곧 나옴), 「삼국시대 금석문의 한자어 조사」.
박현숙(2014), 「백제 大學의 설립과 정비 과정」, 『역사교육』132, 105-129.
송재한(2012), 「日本吳音의 韻類體系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viii+1-339.
이돈주(1995), 『한자음운학의 이해』, 태학사.
伊藤貴祥(이토 다카요시)(2014), 「憬興撰『無量壽經連義述文贊』特異反切 研究-百濟漢字音의 干涉을 中心으로-」, 『구결연구』33, 361-391.
李承宰(2008), 「7세기 말엽의 한국어 자료- 璟興撰『無量壽經連義述文』의 註釋을 중심으로-」, 『구결연구』20, 123-178.
이승재(2013), 『한자음으로 본 백제어 자음체계』, 서울: 태학사.
張莉莉(2018), 「璟興撰『無量壽經連義述文贊』反切 研究」,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iii+1-76.
최영애(2000), 『중국어음운학』, 서울: 통나무.
渡辺顯正(1978), 『新羅·憬興師述文贊の研究』, 京都: 永田文昌堂.
賴問正之(2015), 『記紀の表記と文字表現』, 東京: おうふう.
三木彰圓(2016), 「親鸞の『顯淨土眞實教行證文類』における佛典の受容」, 『韓·日の 佛教典籍』, 동국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특별전 <如是我聞-깨달음의 길> 연계 국제학술회의, 99-105.
沼本克明(1997), 『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 東京: 汲古書院.
坂井健一(1975), 『魏晉南北朝字音研究-經典釋文所引音義攷-』, 東京: 汲古書院.

옛 한문 문헌 속 句讀點의 기능에 대한 일고찰

최준호(서울대)

1. 서론

이 글은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解例本)과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사용된 구두점(句讀點)의 용법을 검토하여 그 기능을 밝히고, 이들 문헌에서 사용된 구점(句點)이 텍스트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지적 특징을 논의할 때는 이 책에서 구점과 두점의 위치가 구별되어 표기¹⁾되었다는 점이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²⁾ 《훈민정음》 해례본과 함께 구두점의 위치가 구별되어 표기된 문헌으로는 《용비어천가》가 있다. 이 두 문헌은 세종 代에 편찬된 것으로서, 구두점 이외에도 사성점(四聲點)의 사용 등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 사용된 구점과 두점은 흔히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와 쉼표(,)에 그 용법이 대응된다고 논의되어 왔다.⁴⁾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 사용된 구점과 두점의 용례를 살펴보면, 두점은 대체적으로 현대 한국어의 쉼표에 대응하는 듯하나, 구점은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에 대응되지 않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ㄱ. ㆁ. 半齒音. 如穰字初發聲 <正音 3ㄱ>⁵⁾

ㄴ. △이다. 반치음이다. 양(穰)자의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다.

ㄷ. △는. 반치음이니. 양(穰)자의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다.

(2) ㄱ. 癸亥冬. 我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正音解例 27ㄴ>

ㄴ. 계해년 겨울이었다.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그것을 보이시고, 이름하여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 1) 이 글에서는 ‘구두점이 사용되었다’와 ‘구점과 두점의 위치가 구별되어 표기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이후에도 논의하겠으나, 옛 한문 문헌에서 구두점이 사용된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간행된 문헌 중에서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표기한 문헌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 그리고 《법화경언해》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문헌 중에서 세종 代에 편찬된 문헌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법화경언해》의 구두점에 대해서는 결론부에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지만,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 2) 구점과 두점의 위치가 구별되어 사용된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요한 서지적 특징이기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낙장을 복원할 때도 구두점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낙장 복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논저가 존재한다. 문화재청(2017)에서 당시까지의 논의와 해석이 정리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백두현(2018), 정우영(2018)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 3) 2017년 한글 맞춤법 개정안에서 ‘.’과 ‘,’를 칭하는 명칭이 ‘온점’과 ‘반점’에서 ‘마침표’와 ‘쉼표’로 바뀌었다. 개정안에서는 ‘온점’과 ‘반점’이라는 용어도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한글 맞춤법 개정안을 따라서 ‘마침표’와 ‘쉼표’로 지칭하기로 한다.
- 4) 현대적 관점에 따르면 구점은 주로 문장이나 절의 경계에, 두점은 주로 절이나 구의 경계에 오게 된다. 달리 말하면 구점은 .[마침표] 위치에 오고 두점은 ,[쉼표] 위치에 온다. 하지만 이 대응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이승재 2001: 29). 이와 같은 기술은 이승재(2001) 외에도 구점과 두점을 설명하는 여러 논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 5) 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이하 인용된 모든 문장에서 동일하다.

ㄷ.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그것을 보 이시고, 이름하여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3) ㄱ. 太祖康獻大王。ㄷ挺上聖之資。ㄷ應千齡之運。〈龍歌 進箋文〉⁶⁾

ㄴ. 태조강헌대왕이다, 빼어난 성인의 바탕으로, 천년의 천운을 얻으셨다.

ㄷ. 태조강헌대왕은, 빼어난 성인의 바탕으로, 천년의 천운을 얻으셨다.

(4) ㄱ. 惟我^ㄷ本朝^ㄴ。ㄷ司空始顯於羅代^ㄷ奕葉相承。^ㄷ穆王初起於朔方^ㄷ景命已兆。〈龍歌 進箋文〉

ㄴ. 우리나라이다, 사공이 처음 신라시대에 명성을 떨친 후로 대대로 위업을 이어오다가, 목 왕이 처음 삭방에서 일어나면서 천명을 받을 조짐이 이미 나타났다.

ㄷ. 우리나라는, 사공이 처음 신라시대에 명성을 떨친 후로 대대로 위업을 이어오다가, 목왕 이 처음 삭방에서 일어나면서 천명을 받을 조짐이 이미 나타났다.

(1), (2)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3), (4)는 《용비어천가》에서 가져온 것이다. (1ㄴ, 2ㄴ, 3ㄴ, 4ㄴ)는 구점을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에 대응해서 현대 한국어로 옮긴 것이고, (1ㄷ, 2ㄷ, 3ㄷ, 4ㄷ)는 현대 한국어의 문맥상 자연스럽도록 옮긴 것이다. 이들 예를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에 사용된 구점이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에 그대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서 구두점의 위치가 구별되어 표기되었다는 특징이 일찍부터 주목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 문헌에 사용된 구두점의 용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던 듯하다. 구두점의 용법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한문 문헌에서 구점과 두점은 대체로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와 쉼표에 대응된다는 정도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 쉼표의 용법에 비추어 당시의 구두점을 해석하는 것은 또 하나의 현대적 편견을 만들어 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두점이 구별되어 표기된 《훈민정음》 해례본, 《용비어천가》를 주된 자료로 하여, 《훈민정음》 언해본과 한국, 중국에서의 구두점에 대한 과거의 기술들을 살펴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지닌 구두점에 대한 언어 의식의 일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서 구두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쓰임새를 파악하는 것은 텍스트언어학의 관점에서 구두점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의 현대어역과 낙장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중국에서 구두점이 사용된 최초의 용례와 구두점의 용법을 중국에서 어떻게 파악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구두점의 사용이 조선으로 어떻게 수입되었는지, 지금까지 구두점이 사용되었다고 논의된 문헌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이후에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를 바탕으로 구두점의 사용 양상에 대해 살피고, 이들 문헌에서 구두점의 용법에 대하여 접근해 볼 것이다.

6) 《용비어천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간본(가람古貴 811.51-G995y)을 활용하였다. 다만, 원간본에는 진전문(進箋文)이 없기에 진전문에 한하여 만력본(奎 1846-v.1-5)을 사용하였다. 만력본에도 진전문 부분은 구점과 두점이 잘 구별되어 사용되어 있다. 《용비어천가》의 서지 사항은 이호권(2019)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2. 중국에서의 구두점 용법 사용사(使用史)와 조선으로의 유입 과정

조선의 한문 문헌에서 구점과 두점을 사용하여 한문 문장을 단구(斷句)한 것은 고려나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며, 중국 문헌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구두점의 용법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두점에 대하여 살펴볼 때도 우선 중국 문헌에서 구두점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중국인은 구두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표기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가 어떠한 서적을 참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에서의 구두점 사용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楊亦鳴(1998: 190, 冧보매 2016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중국에서 구두(句讀)는 구두(句逗)라고도 하며, 구투(句投), 구도(句度)라고 적히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문헌에서 ‘구두(句讀)’라는 단어는 동한(東漢) 하휴(何休)의 《공양전해고자서(公羊傳解詁自序)》의 “援引他經, 失其句讀。”에서 최초로 나타나며, 초기에는 ‘句’와 ‘讀’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었으나, 당대(唐代) 이후로 점진적으로 ‘句’와 ‘讀’가 구별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⁷⁾

이러한 ‘句’와 ‘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기(語氣)나 말의 뜻(語義)의 각도에서 정의한 것은 당나라의 승려인 湛然(711-782)의 《법화문구기(法華文句記)》에서이다(管錫華 1995: 22, 冧보매 2016에서 재인용).

- (5) 무릇 경서에서 문장과 말이 끊어지는 곳을 가리켜 ‘구(句)’라고 하며, 말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 점을 찍어 읊조리는 데 편하게 하는 것을 ‘두(讀)’라 한다. [凡經文語絕處謂之句, 語未絕而點之以便誦詠謂之讀。] (湛然 《法華文句記》 卷1)⁸⁾

한편, 류탁일(1989: 99)에서는 구두점은 명대(明代)의 경창본(經廠本)⁹⁾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술을 종합해 보면,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구점과 두점이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다가, 당대(唐代)에 와서는 구점과 두점이 구별되어 사용되었고, 명대(明代)에 와서 구두점이 특정 문헌에 자주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국에서는 문헌에 구두점을 사용하여 한문 문장을 단구(斷句)하는 용법이 조선 시대 이전에 수립된 것이다.

이제, 조선의 문헌 중에서 구두점이 사용된 문헌을 검토하면서 구두점 용법이 언제부터 조선으로 들어온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편찬되어 간행된 서적 중에서, 구점과 두점의 위치가 구별되어 표기된 문헌으로 대표적인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 《법화경언해》¹⁰⁾이다. 그런데 구두점이 사용된 문헌을 논의할 때는, 이들 서적처럼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사용된 문헌과 권점을 사용하여 단구하기는 했으나 위

7) 冧보매(2016)은 구두점 및 사성점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 성과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 글 또한 冧보매(2016)에서 소개한 중국 연구를 많이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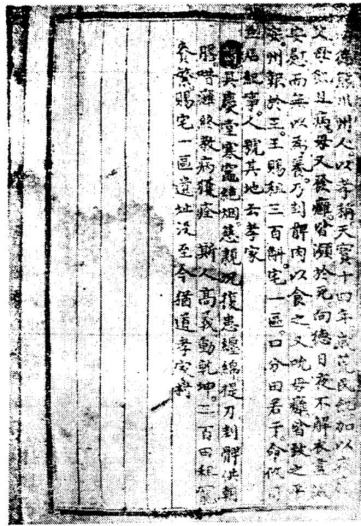
8)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9) 《漢語大詞典》에 따르면 경창본(經廠本)이란 경창(經廠)에서 펴낸 서책을 가리킨다. 경창은 明代에 사례감(司禮監)에 소속되어 있던 서적의 편찬을 담당하던 기구이다. 판본이 크고, 자체도 크지만,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태감(太監)이었으며 교감(校勘)이 정밀하지 못하여 장서가(藏書家)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한다. (經廠刻印的書本。經廠是明代司禮監所屬掌刻印書籍的機構。版本大, 字體大, 但主事者爲太監, 校勘不精, 不爲藏書家所重。《漢語大詞典》)

10) 《법화경언해》에 있는 구두점에 대한 본고의 해석은 결론에 제시되어 있다.

치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된 문헌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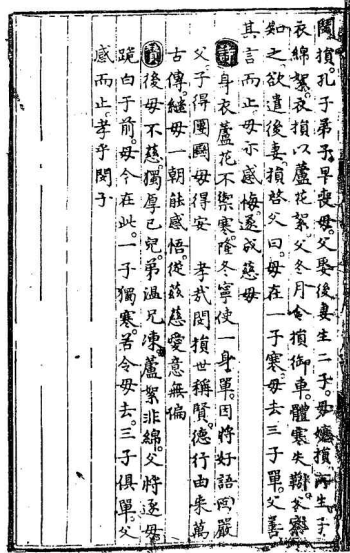
류탁일(1989: 58)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헌으로서 句讀點을 찍은 現存하는 것으로 가장 오랜 문헌은 두말할 것도 없이 《訓民正音》 原本과 《龍飛御天歌》”라고 하면서, 가장 오래된 것은 “世宗 16年(1434)에 간행한 筆者所藏의 漢文本 《三綱行實圖(孝子圖)》”라고 하였다. 그런데, 류탁일(1974: 28)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한문본 《삼강행실도(효자도)》에 권점으로 단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위치, 즉 구점의 위치에만 권점을 표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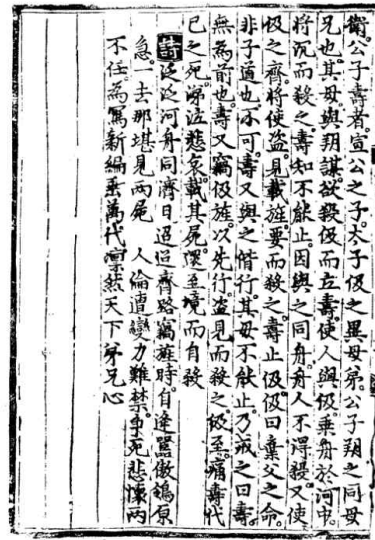
<사진 1> 한문본 초간 《삼강행실도》 효자도 제91장 (류탁일 소장본)

이는 권점을 사용하여 단구한 것이기는 하나,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 《법화경언해》와 같이 구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표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심경호(2012: 294)에서는 조선전기에 간행된 한문 전적 가운데 단구본(斷句本)의 예로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사서집석장도통의대성(四書輯釋章圖通義大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구양론범(歐陽論範)》, 《가례대전서(家禮大全書)》, 《서전대문(書傳大文)》, 《성학십도(聖學十圖)》, 《소학집설(小學輯說)》(계유자본)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1481년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와 1518년에 초간된 옥산서원본 《이륜행실도》를 보면 句와 讀의 곳에 권점이 붙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삼강행실도》나 《이륜행실도》 또한 권점으로 단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구점과 두점이 구별되어 표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삼강행실도》나 《이륜행실도》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처럼 구점과 두점의 위치가 구별되어 표기된 문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진 2> 《삼강행실도》
(런던대본)



<사진 3> 《이륜행실도》
(옥산서원본)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문헌에 표기하는 전통이 고려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었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 이전에는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표기한 문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선에서는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문헌에 표기하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와 같이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두점의 위치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심경호(2012: 295)에서 밝힌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사서집석장도통의대성(四書輯釋章圖通義大成)》은 명판본을 번각하면서 구와 두를 구분한 단구의 권점도 같이 새겼다”라는 기술이 참고된다. 이에 더해, 《훈민정음》 해례본과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의 관계 또한 깊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정우영 2015: 36).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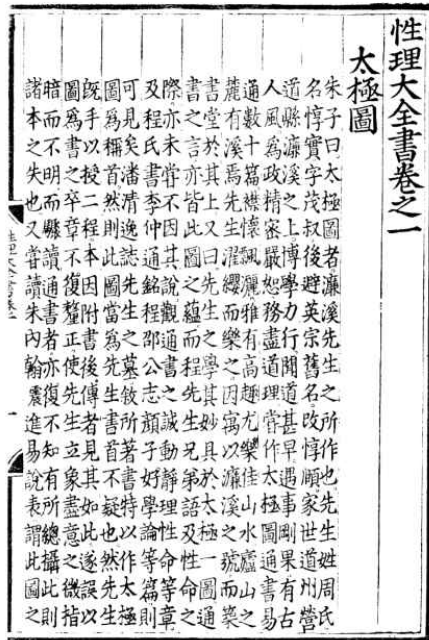
1414년 11월, 명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는 호광(胡廣), 양영(楊榮), 김유민(金幼孜) 등에게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을 편찬하도록 했으며, 이듬해(1415년) 9월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이 동시에 완성된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419년(세종 1)에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이 조선으로 수입된다. 이후 번각본을 제작할 때 사용할 저본이 필요했던 세종은 명나라에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을 추가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이 1425년에 조선으로 다시 수입된다. 그리고 이때 수입된 책들이 번각본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¹²⁾

이때 수입된 명의 영락판 《성리대전》을 저본으로 복각하여 간행된 《성리대전서》(1427)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영락판 《사서오경대전》을 저본으로 복각하여 간행된 《논어집주대전》(1429)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문헌에는 구점과 두점의 위치가 구별되어 표시되어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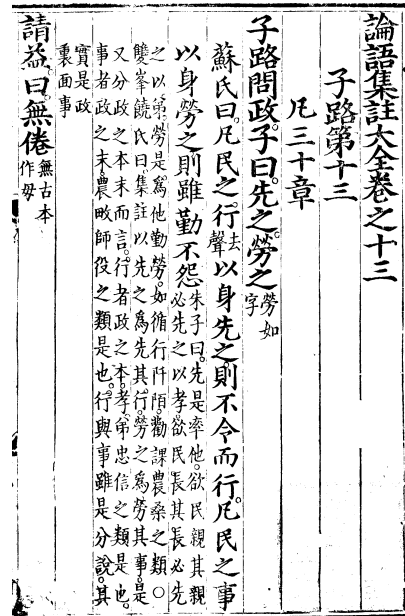
11) 《훈민정음》 해례본이 《성리대전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이에 대해 논저로는 강신항(1963), 이승녕(1972), 이정호(1975), 이성구(1983, 1985), 정우영(2015) 등이 있다.

12)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의 수입에 대해서는 김문식(2006) 참조.

13) 규장각 소장 《성리대전서》의 청구기호는 古貴1343-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논어집주대전》의



<사진 4> 《성리대전서》
 卷1: 1ㄱ



<사진 5> 《논어집주대전》
 卷13: 1ㄱ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 이전에 조선에 유입된 문헌 중에 구점과 두점을 구별하여 표기한 문헌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 사용된 구두점의 용법은 바로 이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¹⁴⁾

한편, 조선에서의 구두점 사용과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하는 문헌 중에는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도 존재한다. 아래는 《고금운회거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두점에 대한 기술이다.

- (6) 무릇 경서에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그 의미(意味)가 끊어지는 곳을 가리켜 ‘구(句)’라 한다. 어의(語意)는 끝나지 않았으나 점을 찍어 문장을 나누어, 영송(誦詠)에 편하게 하는 곳을 ‘두(讀)’라 한다. 지금 비서성(秘書省)의 교서(校書) 방식은, 무릇 ‘구(句)’는 끊어지면 곧 글자의 옆에 점을 찍고, ‘두(讀)’는 나뉘지면 곧 글자의 중간에 점을 찍는다. [凡經書成文語絕處, 謂之句. 語未絕而點分之, 以便誦詠, 謂之讀. 今秘書省校書式, 凡句絕則點於字之旁, 讀分則點於字之中間.] (《고금운회거요》 ‘讀’자 조목.)¹⁵⁾

청구기호는 일산 貴1239-18. 안현주(2007: 205)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논어집주대전》이 조선시대에 간행된 명판본계 《논어집주대전》 중 최고본(最古本)이라 하였다.

- 14) 설사 고려 시대의 문헌 중에 구점과 두점을 구별하여 표기한 것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가 그 문헌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시대를 고려해 보아도,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 구두점이 구별되어 표기된 것은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 15) 원문은 섭보매(2016)에서 재인용하였으며,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고금운회거요》에 구두점에 대한 설명이 있음을 국어학계에 처음 제시한 것은 류탁일(1977: 35)이라고 한다(박지홍 1979: 630, 섭

《고금운회거요》의 구두점에 대한 기술은 (5)에서 제시한 《법화문구기》의 구두점 기술을 따른 것이다(管錫華 1995: 22, 섭보매 2016: 262에서 재인용). 그런데 《고금운회거요》의 기술은 《법화문구기》와는 달리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훈민정음의 창제와 관련하여 《고금운회거요》는 각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그것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 얼마 후에 있었던 아래의 기사 때문이었다.

(7)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최항(崔恒)·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이선로(李善老)·이개(李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東宮)과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瑄)·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瑬)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여 모두 성상의 판단에 품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상(賞)을 거듭 내려 주고 공억(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 [丙申/命集賢殿校理崔恒、副校理朴彭年、副修撰申叔舟·李善老·李塏、敦寧府注簿姜希顔等，詣議事廳，以諺文譯《韻會》，東宮與晉陽大君 瑄、安平大君 瑬監掌其事。皆稟睿斷，賞賜稠重，供億優厚矣] (《세종실록》 26년 2월 16일)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바로 착수한 사업이 《운회》 번역이며, 이때의 《운회》는 《고금운회거요》일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세종 代의 학자들이 구점과 두점의 사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금운회거요》에 나타난 ‘句’와 ‘讀’의 정의와 명나라에서 수입된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에 사용된 구점과 두점의 실제 용법을 통하여 문헌에서의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표기하는 용법을 학습했을 가능성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 이전에 구점과 두점이 구별되어 사용된 한문 문헌이 조선이나 고려에 얼마나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구두점을 문헌에 표기하는 것이 조선 이전 시기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구점과 두점을 구별하여 표시한 한적(漢籍)이 조선에서 얼마나 발견되는지,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 이전에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표시한 문헌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를 통해 본 구두점의 기능

제2장의 (5)와 (6)에서 제시하고 있는 ‘句’와 ‘讀’의 정의와, 구점과 두점이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와 쉼표에 대체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句’와 ‘讀’는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승재(2001: 28)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구점과 두점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할뿐더러, 이 둘의 경계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실제 문헌에 사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당대에 구점과 두점의 용법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는 구점과 두점의 용례를 풍부하게 보여 주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의 예들을 바탕으로 이들 문헌에서의 구두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⁶⁾

보매 2016).

기존의 논저들에서 구점은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 두점은 현대 한국어의 쉼표에 대체로 대응된다고 말한 대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에서 사용된 구점과 두점의 대부분 용례는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 쉼표로 바꾸어 번역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8) ㄱ. 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坤復之間爲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正音解例 1ㄱ〉

[하늘과 땅의 도는, 오직 음양오행일 뿐이다. 곤괘와 복괘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임과 멈춤 이후에 음양이 된다.]

ㄴ.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而後世不能易也。〈正音解例 26ㄴ〉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 그런 까닭에 옛날 사람이 소리를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게 하였고, 삼재의 도를 실었으니, 후세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ㄷ. 今者出師。有四不可。以小逆大。一不可。夏月發兵。二不可。舉國遠征。倭乘其虛。三不可。時方暑雨。弓弩膠解。大軍疾疫。四不可。〈龍歌 卷1: 34ㄱ-ㄴ〉

[지금 병사를 내는 데는, 네 가지 불가함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이, 첫 번째 불가함입니다. 여름에 병사를 일으키는 것이, 두 번째 불가함입니다. 나라가 움직여 멀리 정벌을 가면, 왜군이 그 빈 곳을 업신여기는 것이, 세 번째 불가함입니다. 때가 마침 장마철이기때문에, 활과 쇠뇌의 아교가 풀리고, 대군(大軍)에게 전염병이 있는 것이, 네 번째 불가함입니다.]

ㄹ. 夜禍與宦豎八十餘人。皆擐甲。馳至^(格)太祖及敏修第。以屯軍門外不在家。故不得害而還。〈龍歌 卷1: 49ㄴ〉

[밤에 우왕이 내관(內官) 80여 명과 함께, 모두 갑옷을 입고, 태조와 조민수의 집에 쳐들어갔으나, 문밖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집에 있지 않았으므로, 해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8)은 구점을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로, 두점을 현대 한국어의 쉼표로 대응시켜서 해석할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구점과 두점의 용법은 (8)과 유사하다. 그러나 구점의 경우,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에 대응되기 어려운 예들이 존재한다.

(9) ㄱ. △。半齒音。如穰字初發聲

ㄱ'。△이다. 반치음이다.穰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ㄱ"。△는, 반치음이니,穰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ㄴ. 。。如吞字中聲

ㄴ'。·이다.吞의 중성과 같다.

ㄴ"。·는,吞의 중간 소리와 같다.

ㄷ. 癸亥冬。我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

ㄷ'。계해년 겨울이었다.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히 예의를 들어 그것

16) 이 글에서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구별하여 표기하지 않은 서적의 경우, 서적에서 권점을 사용하여 단구하고 있더라도 이 권점이 구점인지 두점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의 경우에는 구점과 두점의 위치가 구별되어 있기에, 당대에 구점과 두점이 어떠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을 보이시고, 이름을 訓民正音이라 하였다.

ㄷ".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히 예의를 들어 그것을 보이시고, 이름을 訓民正音이라 하였다.

(10) ㄱ. 惟我^(改)本朝^(平)。。司空始顯於羅代^(改)奕葉相承。^(改)穆王初起於朔方^(改)景命已兆。〈龍歌 進箋文〉

ㄱ'. 우리나라입니다. 사공이 처음 신라시대에 명성을 떨친 후로 대대로 위업을 이어오다가, 목왕이 처음 삭방에서 일어나면서 천명을 받을 조짐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ㄱ". 우리나라는, 사공이 처음 신라시대에 명성을 떨친 후로 대대로 위업을 이어오다가, 목왕이 처음 삭방에서 일어나면서 천명을 받을 조짐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ㄴ. 太祖康獻大王。。^(改)挺上聖之資。^(改)應千齡之運。〈龍歌 進箋文〉

ㄴ'. 태조강헌대왕입니다. 빼어난 성인의 바탕으로, 천년의 천운을 얻었습니다.

ㄴ". 태조강헌대왕은, 빼어난 성인의 바탕으로, 천년의 천운을 얻었습니다.

ㄷ. 太宗恭定大王。。^(改)英明邁古。^(改)勇智絕倫。^(改)炳幾^(平)先而建邦家^(改)功高億載。戡禍亂而定^(改)社稷^(改)德冠^(去)百王。〈龍歌 進箋文〉

ㄷ'. 태종공정대왕입니다. 영명하심이 옛사람보다 뛰어나고, 용기와 지혜는 못사람 중에 빼어나, 일의 기틀에 밝아 나라를 창건하시니, 그 공로는 억만년에 드높고, 국난을 다스려 사직을 안정시키니 그 덕은 백대의 왕에 으뜸입니다.

ㄷ". 태종공정대왕은, 영명하심이 옛사람보다 뛰어나고, 용기와 지혜는 못사람 중에 빼어나, 일의 기틀에 밝아 나라를 창건하시니, 그 공로는 억만년에 드높고, 국난을 다스려 사직을 안정시키니 그 덕은 백대의 왕에 으뜸입니다.

ㄹ. 高麗^(平)文宗定官制。中書門下省。尙書省。。有中書令。門下侍中。尙書令。各一人。秩從一品。〈卷1: 33ㄱ〉

ㄹ'. 고려(高麗) 문종(文宗)이 관제(官制)를 정하였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의 다. 중서령(中書令), 문하시중(門下侍中), 상서령(尙書令)을 각 1인씩 두었는데, 관등[秩]은 종1품이었다.

ㄹ". 고려(高麗) 문종(文宗)이 관제(官制)를 정하였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은, 중서령(中書令), 문하시중(門下侍中), 상서령(尙書令)을 각 1인을 두었는데, 관등[秩]은 종1품이었다.

(9), (10)의 예들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9ㄱ)에서는 ‘△’ 뒤, (9ㄴ)에서는 ‘.’ 뒤, (9ㄷ)에서는 ‘癸亥冬’ 뒤에 구점이 표기되어 있고, (10ㄱ)에서는 ‘惟我本朝’, (10ㄴ)에서는 ‘太祖康獻大王’, (10ㄷ)에서는 ‘太宗恭定大王’, (10ㄹ)에서는 ‘中書門下省, 尙書省’ 뒤에 구점이 표기되어 있다. (9ㄱ', ㄴ', ㄷ'), (10ㄱ', ㄴ', ㄷ', ㄹ')은 구점을 마침표로 옮긴 것인데, 이렇게 문장이 종결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의 구점은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에 대응되지 않는 것이다.

2017 개정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침표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1) ㄱ.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ㄴ.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ㄷ.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ㄹ.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이 중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기능은 (11ㄱ)일 텐데, 현대 한국어에서 ‘△’, ‘·’, ‘癸亥冬’이나 ‘惟我本朝’, ‘太祖康獻大王’, ‘太宗恭定大王’, ‘中書門下省, 尙書省’ 등이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고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구점을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로 옮겨서 문장을 종결하면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구점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파악해야 하는가? 또한, 구점의 앞에 위치하는 ‘△’, ‘·’, ‘癸亥冬’이나 ‘惟我本朝’, ‘太祖康獻大王’, ‘太宗恭定大王’, ‘中書門下省, 尙書省’ 등은 문장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⁷⁾

4. ‘화제 제시 기능’으로서의 구점의 용법

우리는 제3장에서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로 옮기기 어려운 구점의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때의 구점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기술해야 할 것인가? 또한, 구점의 앞에 위치하는 성분인 (9), (10)의 ‘△’, ‘·’, ‘癸亥冬’이나 ‘惟我本朝’, ‘太祖康獻大王’, ‘太宗恭定大王’, ‘中書門下省, 尙書省’ 등이 문장에서 지니는 역할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결론부터 제시하면, 이 글에서는 구점의 앞에 오는 ‘△’, ‘·’, ‘癸亥冬’이나 ‘惟我本朝’, ‘太祖康獻大王’, ‘太宗恭定大王’, ‘中書門下省, 尙書省’ 등의 요소를 ‘화제’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점의 용법은 화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것이다.

‘화제’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기는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용어이다. 한국어의 정보구조를 연구한 최윤지(2016: 150)에서는 Kuroda(1972)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화제를 ‘정언판단의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Kuroda (1972)에 따르면, 판단은 정언판단(categorical judgment)과 단언판단(thetic judgment)으로 나뉘는데, 단언판단(thetic judgment)이 사건 자체를 인식하는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언판단(categorical judgment)은 여기에 더해, 논리적 의미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12) ㄱ. Inu ga hasitte iru.

ㄴ. Inu wa hasitte iru.

‘A/the dog is running.’ (Kuroda 1972: 161)

17) 위에서 살펴본 구점의 용법 이외에, 《용비어천가》에서는 ‘曰’ 뒤, 서적의 내용이나 주(註)를 인용하는 경우 ‘서명 曰’, ‘註’ 뒤에도 구점이 사용된다.

ㄱ. 左右曰。左軍及曼殊軍皆敗矣。 <卷1: 46ㄱ>

좌우의 군사들이 말하였다. “좌군과 만수(曼殊)의 군대가 모두 패하였습니다.”

ㄴ. 一矢立斷。乃曰。再甚麼。 <卷1: 46ㄴ>

화살 한 발로 부러뜨렸다. 이내 말하였다. “다시 쏘 필요가 있겠는가.”

ㄷ. 詩曰。造舟爲梁。註。梁。橋也。作船於水。比去之而加版於其上。以通行者。即今之浮橋也。 <卷1: 36ㄱ>

《시경(詩經)》에서 말하였다. “배로 다리를 만든다.” 주(註)이다. 양(梁)은, 다리[橋]이다. 물에 배를 만들고, 그것을 나란하게 하여[比] 그 위에 판을 더하고, 통행하게 한 것이니, 곧 지금의 부교(浮橋)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법은 앞서 제시한 《논어집주대전》이나 《성리대전서》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Kuroda(1972)에 따르면 일본어에서는 ‘ga’가 쓰인 문장(11ㄱ)은 단언판단을, ‘wa’가 쓰인 문장(11ㄴ)은 정언판단을 나타낸다고 한다. 단언판단의 경우 ‘x가 달리고 있고 x가 개다’라는 판단하는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반면, ‘정언판단’의 경우 ‘x가 달리고 있고 x가 개다’라는 판단에 더하여 화자가 관심을 두는 주요 대상으로서의 실체 x를 확립하는(setting up) 복수의 행위가 함께 일어난다.

아래에서 한국어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13) ㄱ. 개가 달리고 있다.
 ㄴ. 개는 달리고 있다.

한국어에서 (13ㄱ)의 ‘개가 달리고 있다’는 단언판단, (13ㄴ)의 ‘개는 달리고 있다’는 정언판단에 해당한다. 즉, (13ㄱ)이 ‘x가 달리고 있고, 그 x가 개’라는 판단만을 나타낸다면, (13ㄴ)은 ‘이 문장에서 화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대상은 x이다’라는 것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때, “화자가 관심을 두는 주요 대상”이 바로 ‘정언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화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본어에서 조사 ‘wa’가 정언판단의 대상을 나타낸다면, 한국어에서는 문두의 ‘-은/는’이 정언판단의 대상, 즉 화제를 나타낸다고 한다(최윤지 2016: 15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9)의 ‘△’, ‘·’이나 (10)의 ‘我本朝’, ‘太祖康獻大王’, ‘太宗恭定大王’, ‘中書門下省, 尙書省’ 등은 ‘화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장은 결국 구점 앞에 오는 요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문장에서 화자가 관심을 주고 두고 있는 주요 대상 역시 이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¹⁸⁾ 또한, 이들 문장을 현대 한국어로 옮겼을 때, 자연스럽게 ‘-은/는’으로 옮겨진다는 점도 이들이 화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문두의 ‘-은/는’은 한국어에서 화제와 관련된 가장 두드러지면서 특별한 형식이기 때문이다(최윤지 2016: 152).

이와 관련하여 《훈민정음》 언해본의 언해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4) ㄱ. △. 半齒音。如穰字初發聲
 ㄱ’ . △. 半齒音。如穰字初發聲
 ㄴ. . . 如吞字中聲
 ㄴ’ . . 如吞字中聲

(14ㄱ, ㄴ)에서 ‘△. 半齒音。如穰字初發聲’이나 ‘·. 如吞字中聲’의 ‘△’나 ‘·’를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는’을 사용하여 언해한 것도, ‘△’나 ‘·’이 바로 이 문장의 ‘화제’이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문장에서 화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대상은 바로 ‘△’와 ‘·’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점을 고려한다면, 아래의 진술은 재고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1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9ㄴ) 癸亥冬。我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의 ‘癸亥冬’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癸亥冬’은 화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는 구두점을 표기하는 사람이 ‘계해년 겨울이었다.’의 하나의 완결된 의미로 파악한 것일 수도 있고, 구점이 가진 또 다른 기능으로 볼 여지도 있다.

19) 다만, ‘△. 半齒音。如穰字初發聲’에서 ‘半齒音’ 뒤에 오는 句點은 화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듯하나, 언해에서는 ‘-은’으로 옮겨졌다. ‘△는, 半齒音은, 穰字 初發聲 소리 ㄱㅌ니라’ 정도와 같이 화제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파악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15) 낙장되지 않은 부분의 처음인 이 부분이 ‘△.’으로 시작한다. 즉, 句點이 ‘△’ 뒤와 ‘半齒音’ 뒤에 있으므로, 그 번역은 원칙적으로 ‘△이다. 반치음(半齒音)이다.’로 되어야 하나 여기에서는 문맥을 고려하여 ‘△는 반치음(半齒音)이니’로 번역하였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이현희 외 2014: 27, 각주 7)

이러한 진술은 구점의 용법이 현대 한국어의 마침표에 대응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구점이 당시에 화제 표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대 한국어로 ‘△는 반치음이니’라고 옮기는 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구점의 기능을 살리는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에서 구점이 화제 제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문헌에서 구점이 일종의 “텍스트 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텍스트 표지란,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및 저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²⁰⁾

우선, 구두점은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한문 텍스트에 구점과 두점을 표시하는 것은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한문 문헌의 내용을 오해 없이, 그리고 더 쉽게 이해하게 해 주려는 저자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문 문장을 단구(斷句)해서 오해 없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하고, 문장의 화제를 구점을 통해 표시하여 쉽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저자는 구두점을 구성하고, 독자는 구두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한문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구두점을 사용하는 것은 저자의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하필 세종 代에 편찬된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만 구점과 두점의 위치를 변별하여 구두점을 사용하였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독자가 한문 텍스트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싶다는 저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 사용된 구두점은 이 문헌을 읽는 독자가 문헌의 의미를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하려는 세종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²¹⁾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의 구점과 두점은 텍스트 표지로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안에서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며, 저자의 태도를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이는 기존에 논의된 담화표지의 정의를 참조한 것이다. 담화표지는 세 가지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의되었다. 응집성(cohesion)을 형성하는 기능을 담화표지의 주된 기능으로 보기도 하고(Schiffrin 1987, 전영옥 2002),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담화표지의 주된 기능으로 보기도 하며(Maschler 2009),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담화표지의 주된 기능으로 보기도 하였다(Schourup 1985, 김향화 2001).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를 담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텍스트로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문헌에 사용된 구점이 텍스트 내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21) 이 두 문헌을 편찬하는 데 참여한 인물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편찬에는 정인지(鄭麟趾)·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최항(崔恒)·강희안(姜希顔)·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가 관여하였고, 《용비어천가》는 정인지(鄭麟趾)·안지(安止)·권제(權躋)가 시문을 지었고, 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강희안(姜希顔)·신숙주(申叔舟)·이현로(李賢老)·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신영손(辛永孫)이 주해를 하였다.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이들 두 문헌의 편찬자는 상당수 중복된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서 구점과 두점을 구별하여 표기하는 것이 편찬에 참여한 저자들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역시 세종의 의도가 깊게 관여된 것이라고 파악되어야 할 듯하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에 사용된 구두점의 용법을 문헌에 나타난 용례를 바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구두(句讀)’라는 용어가 사용된 최초의 용례는 언제인지, ‘句’와 ‘讀’가 나누어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조선의 문헌에서 구점과 두점의 위치가 구별되어 사용된 문헌은 어느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의 구점과 두점의 사용 양상을 검토하면서, 이들 문헌에서 구점이 ‘화제 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법화경언해》의 일여의 주에 사용된 구두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두고자 한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한글 문헌 중에 구점과 두점을 구별하여 표기한 문헌에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 이외에도 《법화경언해》가 있다. 《법화경언해》는 경 본문과 송(宋)의 온릉(溫陵) 계환(戒環)의 요해(要解), 그리고 명(明)의 일여(一如)가 찬집(撰集)한 〈법화경과주(法華經科註)〉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구두점은 일여의 주에만 나타난다. 그러한 이유는 법화경 본문과 계환의 요해 부분은 이미 언해가 이루어져 있어서 구두점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법화경언해》에 구점과 두점이 구별되어 표기된 것 또한 세종과 관련이 깊다고 파악한다. 비록 《법화경언해》가 1463년(세조 9)에 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석보상절》에 법화경 전권의 내용이 언해되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세종 시절에 법화경에 대한 언해는 이미 이루어졌으리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추정에 불과하지만, 법화경의 언해와 관련하여 구두점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은 후고로 미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강신항(1963), 「훈민정음」 해례이론과 《성리대전》과의 관련성,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77-185.
- 김문식(2006), 조선시대 중국 서적의 수입과 간행: 《四書五經大全》을 中心으로, 《규장각》 2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21-140.
- 김향화(2001),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 2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13-140.
- 류탁일(1974), 初刊 三綱行實圖에 對하여: 初判本을 中心으로, 《國語國文學》 11, 釜山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 류탁일(1977), 《韓國文獻批評論 序說》, 부산대학교 교재.
- 柳鐸一(1989),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 문화재청(2017),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정본 제작 연구용역》, 문화재청.
- 박지홍(1979), 한문본 훈민정음의 번역에 대하여, 《한글》 제164호, 한글학회, 629-654.
- 백두현(2018),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의 권두서명과 병서 행 복원 방안 연구, 《어문논총》 75, 한국문헌언어학회, 9-43.
- 섭보매(2016),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점 체계에 대하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59-289.
- 심경호(2012), 《한국 한문기초학사 3》, 태학사.
- 안현주(2007),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구(1983), 훈민정음과 태극사상, 《난대 이응백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보진재, 188-202.
- 이성구(1985), 《훈민정음 연구》, 동문사.
- 이승녕(1972), 성리대전과 이조언어의 연구, 《동양학》 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이승재(2001), 옛 문헌의 각종 부호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 이정호(1975),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그 역학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현희 · 두임림 · 사화 · 스기야마 유타카 · 정혜린 · 김소영 · 김주상 · 백채원 · 가와사키 케이코 · 이상훈 · 김한결 · 김민지 · 왕철(2014), 《《훈민정음》의 한 이해》, 역락.
- 이호권(2019), 《용비어천가》 판본의 변개와 그 해석: 서지학과 국어사 연구의 관점에서, 《국어국문학》 186, 5-27.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113-145.
- 정우영(2015), 훈민정음과 불교경전의 상관관계 연구, 《어문연구》 43.4, 33-63.
- 정우영(2018),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의 ‘병서행’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학》 88, 국어학회, 33-73.
-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管錫華(1995), 古代標點符號理論初探, 《古籍整理研究學刊》 5, 22-28.
- 楊亦鳴(1998), 《文言文學習辭典》, 黃山書社.
- Kuroda, S-Y.(1972), The Categorical and the Thetic Judgment: Evidence from Japanese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9, 153-185.
- Maschler, F.(2009), *Metalanguage in Intera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chiffrin, D.(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urup, L.C.(1985), *Common Discourse Particles in English Conversation*, New York:

Garland.

제59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기획 주제 발표>

원각사본 『능엄경』의 음독구결과 언해 기반 석독 표기

안대현(한국기술교육대)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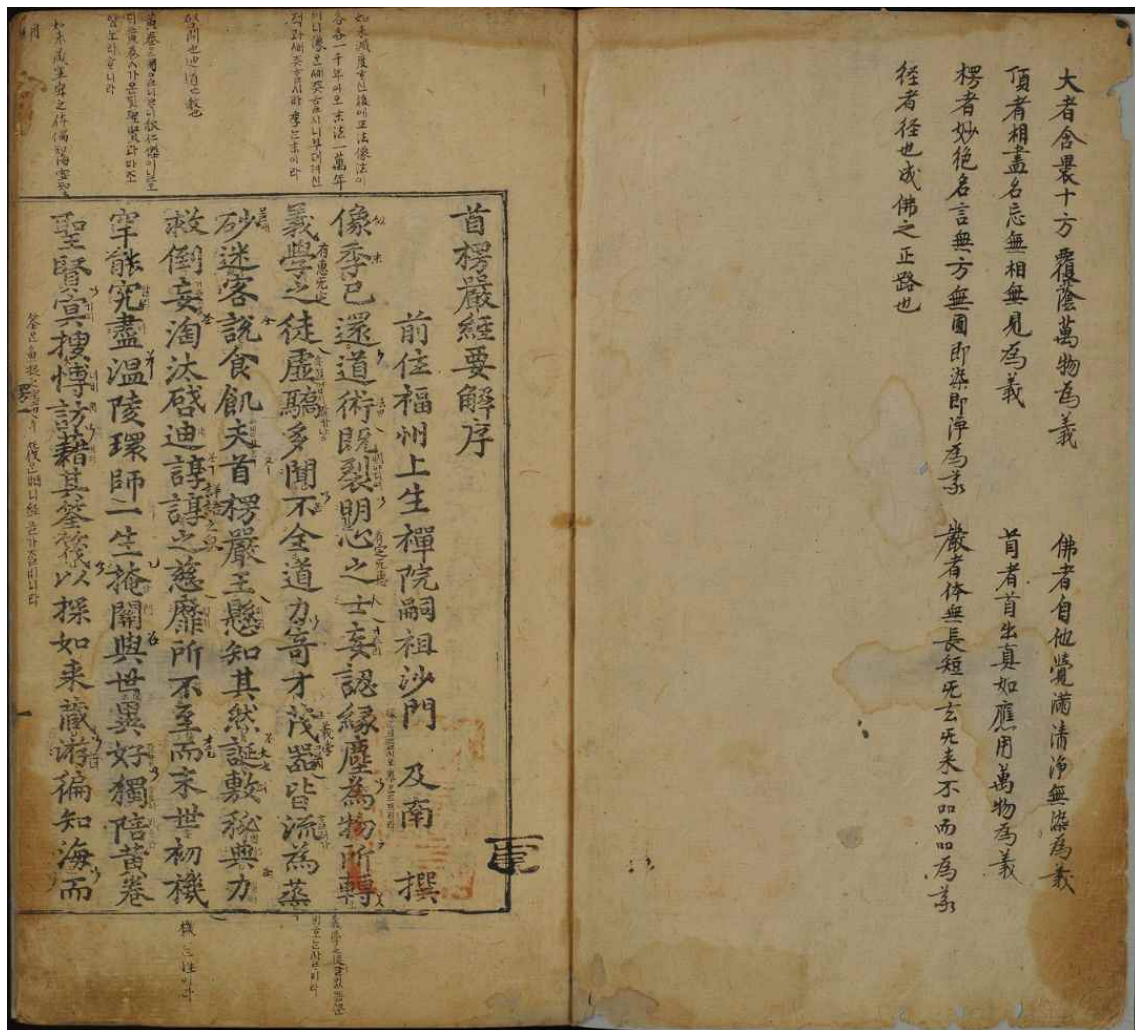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원각사(圓覺寺) 정보박물관에 소장된 『능엄경(楞嚴經)』(이하 원각사본 『능엄경』) 권1,2는 차자로 된 음독구결과 기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 및 차자로 빼곡하게 석독을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더구나 음독구결의 층위가 적어도 세 종류가 있고, 수많은 교정이 행해져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 발표에서는 원각사본 『능엄경』에 차자로 기입된 음독구결과,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능엄경언해』의 언해문을 기반으로 한글 및 차자로 석독을 보충하여 표기한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음미해 보고자 한다.

2. 자료 소개와 서지적 개관

『능엄경』의 갖은 이름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으로서, 당(唐)의 반라밀제(般剌密帝)가 번역했다고 전해진다. 원각사본 『능엄경』은 송(宋)의 계환(戒環)이 경문에 대한 요해(要解)를 지어 붙이고 급남(及南)이 서문을 지은 책을 저본으로 하여 건문(建文) 3년인 1401년(태종 1)에 태상왕이었던 이성계의 명에 따라 간행한 목판본인데, 권1~2만 1책으로 묶여 있다. 국내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10권 5책의 완질본 보물 제759호와 양산 통도사(通度寺)에 소장된 2권(권9~10) 1책의 결본 보물 제1195호가 같은 판으로 인쇄된 책이다. 이처럼 귀중한 판본이어서 원각사본 『능엄경』도 2020년에 보물 제2056호로 지정되었다. 외국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에 소장된 10권 5책의 완질본이 같은 판본이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은 완질본이지만 서문과 권1의 1~4장이 결락되어 있고 권2의 46~52장에는 좌측 상단의 4~5글자씩 훼손되어 있는데, 원각사본과 프랑스 국립도서관본은 이 부분이 온전히 남아 있어 원문을 보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원각사본은 권2의 38~39장이 결락되어 있어 그 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본이나 프랑스 국립도서관본으로 보충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은 음독구결만 기입되어 있으나, 통도사본과 프랑스 국립도서관본은 원각사본처럼 음독구결 외에 한글 및 차자를 기입하여 석독을 표기하고 있다.

원각사본 『능엄경』은 개장된 표지 뒤의 내지(內紙)에 두 개의 수결(手決)이 있고, 급남이 지은 요해서(要解序) 첫 장에도 또 다른 수결이 있으며, 요해서 첫 장에는 주문방인(朱文方印)도 있다. 그러나 수결과 인장은 아직 판독되지 못하고 있다. 각권의 권미제 뒤에는 음석(音釋)이 달려 있는데, 원각사본은 여백에 묵서로 음석이 추가되어 있다. 이 묵서로 추가된 음석은 『능엄경언해』의 음석에 없는 한자에 대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본, 통도사본, 프랑스 국립도서관본의 권10 말미에는 행의(行儀)와 권근(權近)의 발문이 붙어 있고, 그 뒤에 판하(版下)는 당시의 명필이었던 신충(信聰) 대사가 쓰고 판각은 명호(明昊), 선관(善觀), 중오(中悟) 등 11인의 각수가 담당하고 간행 업무의 감독은 윤백안(尹伯顔)이 담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림1] 인장과 수결이 있는 원각사본 『능엄경』의 권수

원각사본 『능엄경』의 책 크기는 세로 38.4cm, 가로 22.7cm이고 지질은 고정지(藁精紙)이다. 글자의 마멸 흔적으로 보아 후쇄본으로 판단된다. 여말선초에 간행된 사간본 『능엄경』은 대부분 책 크기가 작은 소본(小本)이고 글자 크기도 작은 소자본(小字本)으로서 행자수가 많은데,¹⁾ 이 1401년판은 태상왕 이성계의 명으로 간행된 왕실본이어서 책 크기가 큰 대본(大本)이고 글자 크기도 큰 대자본(大字本)으로서 행자수가 반엽 8행 20자이다. 그리고 여말선초의 사간본 『능엄경』에서 발견되는 오자들이 1401년판에서 많이 교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처 교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교정은 간경도감본에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전체에 음독구결과 석독 표기가 기입되어 있고, 음독구결을 교정할 때 사용한 종이가 많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밀하게 교정이 이루어진 것은 다른 구결 자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성점(聲點)을 비롯하여 어순부호, 교정부호 등 다양한 부호가 사용되었으며, 난외(欄外)나 행간(行間) 등 여백에 씌어진 주석들도 적지 않다. 다음 장에서는 음독구결과 석독 표기, 부호, 주석 등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예컨대 가람본 『능엄경』은 책 크기가 세로 26cm, 가로 16cm이고 행자수가 반엽 13행 22자이다(박진호 1996: 73).

3. 음독구결과 석독 표기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여러 층위의 음독구결과 차자 및 한자로 된 석독 표기가 기입되어 있다. 이전의 구결 위에 가필하거나, 종이를 붙이거나, 글자를 물로 지우거나, 칼로 긁어내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정도 베풀어져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음독구결



[그림2] 음독구결의
세 가지 층위

원각사본 『능엄경』의 음독구결은 적어도 세 개의 층위가 있다. 가는 필체로 기입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교정이 가해져 있어서 원래 모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 층위의 음독구결이다. 그 음독구결이 반영하는 언어 형태를 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여말선초 『능엄경』 음독구결 자료 가운데 박진호(1996)에서 14세기 이전의 언어사실을 반영한 자료로 판단한 가람본 『능엄경』의 음독구결과 가장 비슷하고, 일부는 남권희본 『능엄경』과 비슷하다. 다음으로, 첫 번째 층위의 음독구결을 지우고 굵은 필체로 기입한 음독구결이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층위의 음독구결이다. 그 음독구결이 반영하는 언어 형태는 교서관에서 간행한 『능엄경언해』 활자본 및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능엄경언해』 목판본의 한글 구결과 대체로 같으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간간히 발견된다. 그리고 굵은 필체의 음독구결을 지우고 위치나 자형 정도만 바꾸어 다시 기입한 음독구결도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층위의 음독구결이다. 대체로 두 번째 층위의 음독구결과 언어 형태가 일치하나, 일부 구결자를 더 간략한 자형으로 바꾸거나 생략 표기로 바꾸었다. ‘ㄴ(라)’를 ‘ㄴ(라)’로 교정했다거나 ‘ㄴ(과)’를 ‘ㄴ(과)’로 교정한 것, 또는 ‘ㄴ(이)’나 ‘ㄴ(히)’를 생략한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 때문에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음독구결이 최소한 세 번 기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왼쪽의 [그림2]를 보자. ‘盡’의 오른쪽 아래 난하(欄下)에 가는 글씨로 ‘ㄴ 1 1 ㄴ ㄴ ㄴ ㄴ’을 기입했었는데, 이것을 흐리게 하여 지우고 그 왼쪽에 ‘ㄴ ㄴ ㄴ’을 기입했다가, 다시 그 위에 얇은 종이를 붙이고 변란(邊欄) 위쪽에 진하고 굵은 글씨로 ‘ㄴ ㄴ ㄴ’을 기입하였다. 이 세 층위를 편의상 각각 ‘원각사본A층위’, ‘원각사본B층위’, ‘원각사본C층위’라고 하여 기존의 음독구결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而明終不盡 ㄴ 1 1 ㄴ ㄴ ㄴ ㄴ <소곡본 음독구결 1:1a>
- ② 而明、終不盡 ㄴ ㄴ <남권희(가)본 음독구결 1:1b>
- ③ 而明終不盡 ㄴ 1 1 ㄴ ㄴ ㄴ ㄴ <가람본 음독구결 1:1b>
- ④ 而明、終不盡 ㄴ ㄴ ㄴ <일사본 음독구결 1:1b>
- ⑤ 而明、終不盡 ㄴ ㄴ ㄴ <호림본 음독구결 1:1b>
- ⑥ 而明、(?)終不盡 ㄴ 1 1 ㄴ ㄴ ㄴ ㄴ <원각사본A층위 음독구결 1:2a>
- ⑦ 而明、終不盡 ㄴ ㄴ ㄴ <원각사본B층위 음독구결 1:2a>
- ⑧ 而明、終不盡 ㄴ ㄴ ㄴ <원각사본C층위 음독구결 1:2a>

2) 석독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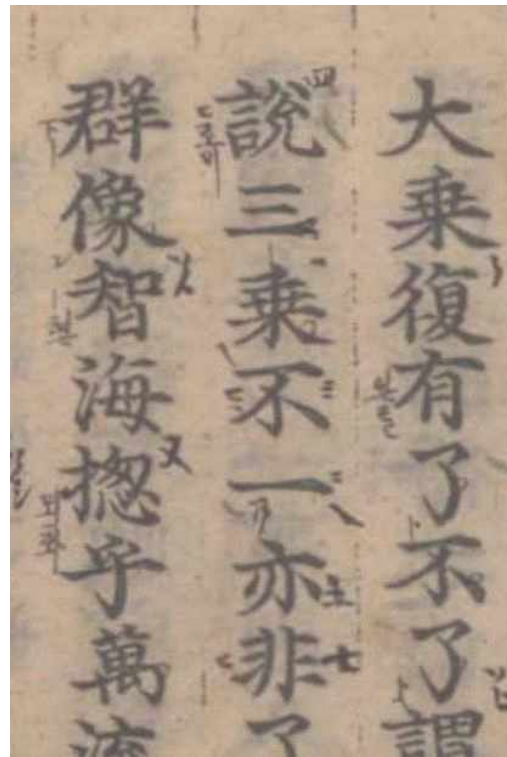
석독구결 연구 초창기에 이미 조선시대의 석독구결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안병희(1976: 157-161)에서 가람문고 소장의 『원각경구결』 권상1-2를, 남풍현(1976: 17-21)에서 본인 소장의 『원각경구결』 권하3-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원각경』 권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소장의 『능엄경』 등을, 심재기(1976: 46-47)에서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상 복장 『법화경(法華經)』²⁾을 소개하고 조선시대에 한문을 한국어로 석독하기 위해 한글이나 차자를 기입하고 한국어 어순을 표시하기 위해 ‘一, 二, 三, 三’ 등의 한자 숫자를 기입한 자료들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자료는 이후에도 계속 발견되었다. 김주원(1997)에서 정리했듯이 남권희(1994)에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권3·4를, 정재영(2006)에서 화암사판(花岩寺版)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1441)을, 남권희(2012)와 민현주(2012·2013)에서 김병구 소장 『증도가(證道歌)』(1239)를, 이진경(2012)에서 팬아시아 종이박물관 소장 보물 제1153호 『법화경』과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능엄경』, 장경준(2019)에서 법음 소장 『법화경』, 하정수(2020)에서 프랑스 국가도서관 소장 『능엄경』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각사본과 같은 판본인 통도사 소장 『능엄경』도 음독구결 외에 차자 및 한글로 기입된 석독 표기와 한자 숫자로 기입된 어순 부호가 있다. 또 박진호(1996)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가람본 『능엄경』에도 한글 및 차자로 석독을 표기하고 어순 부호를 기입한 곳이 일부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체로 언해본을 기반으로 하여 석독 표기를 한 것이다.

한편 법장사(法藏寺) 소장의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와 김주원(1997)에 소개된 『치문경훈(緇門警訓)』은 언해본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한글로 석독 표기가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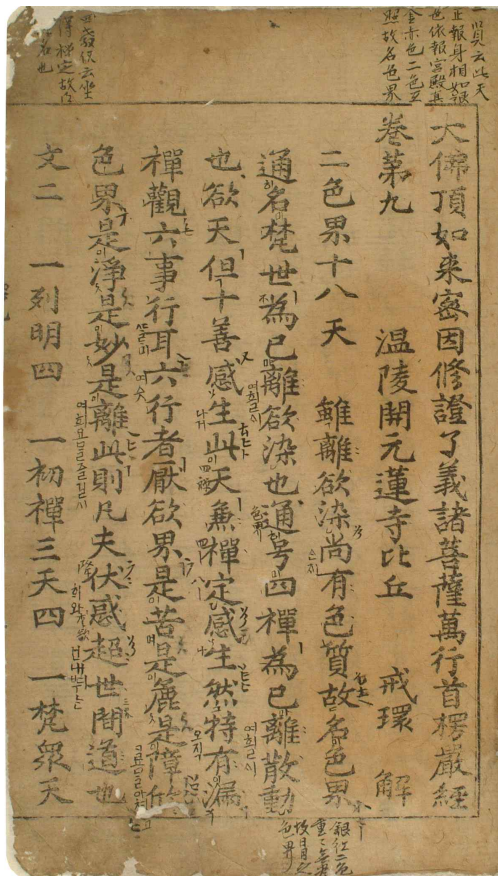


[그림3] 가람본 『원각경구결』 권상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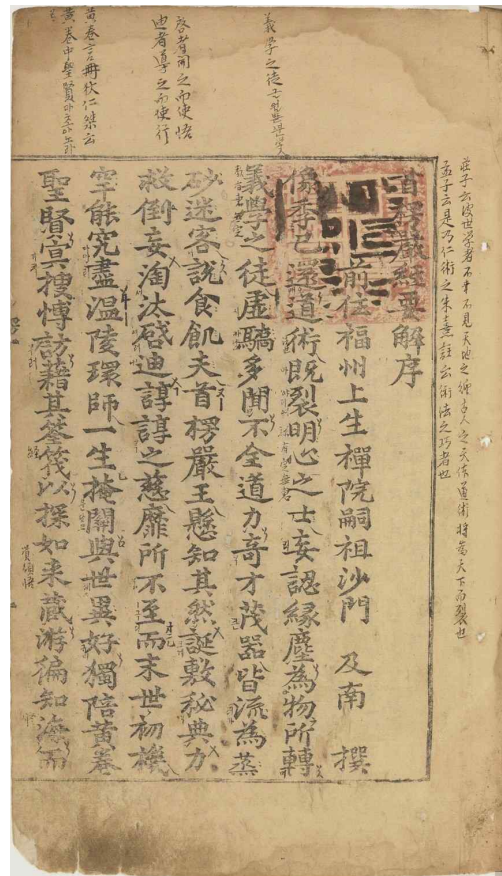


[그림4] 국립중앙도서관본 『원각경』 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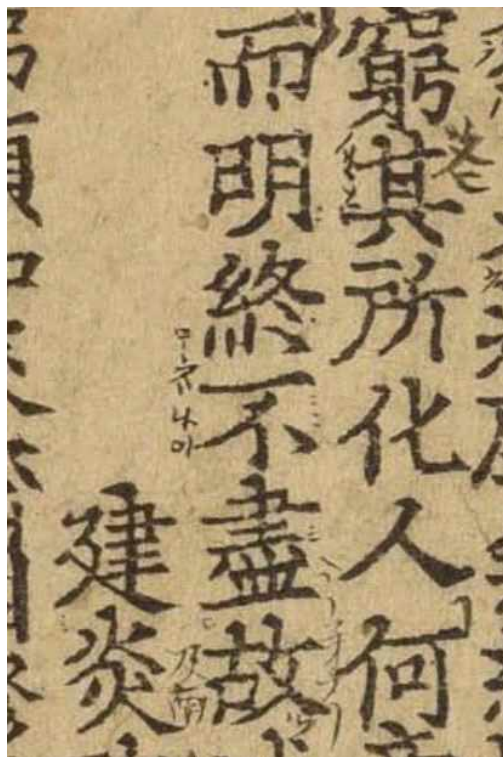
2) 정은우(2015: 18)에 따르면 현재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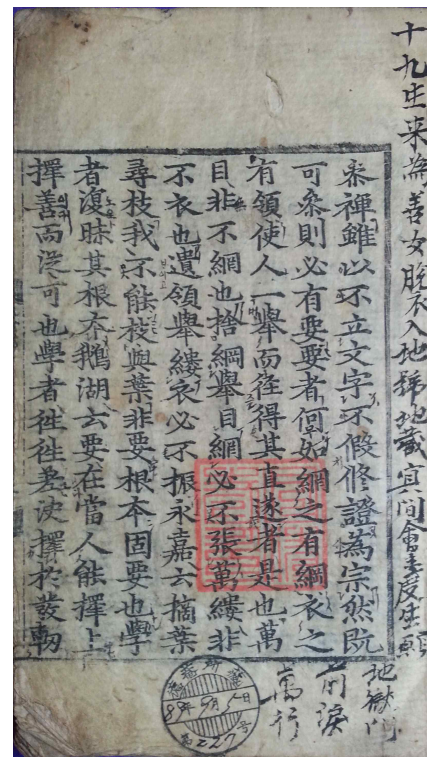
[그림5] 통도사본 『능엄경』



[그림6] 프랑스 국립도서관본 『능엄경』



[그림7] 가람본 『능엄경』



[그림8] 법장사본 『고봉화상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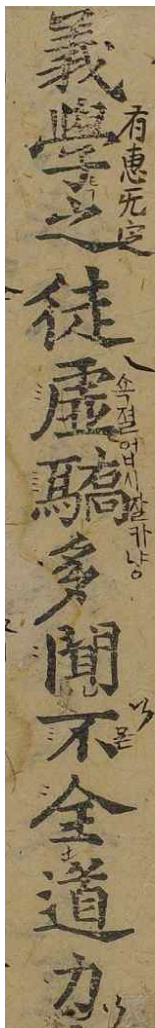
이러한 방식의 표기는 일찍이 안병희(1976)에서 훈독구결로, 남풍현(1976)에서 석독구결과 ‘해석토’로, 심재기(1976)에서 석독구결로, 김주원(1997: 274)에서 ‘해석 구결’로, 이전경(2012)에서 ‘석독표기자’로, 민현주(2012·2013)에서 ‘한글 구결·한글 입결’으로, 장경준(2019)에서 ‘석독 표시’로 불렸다. 이 발표에서는 잠정적으로 ‘석독 표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원각사본 『능엄경』의 석독 표기는 먼저 기입된 음독구결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그 사이에 한글 및 차자로 석독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어떤 경우는 음독구결이 석독 표기의 일부로 보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음독구결과 석독 표기가 중복되기도 한다.

음독구결은 대부분 한국어 조사나 어미 부분만 표시하지만, 석독구결은 한문에 대응되는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의 어순도 나타낸다. 석독을 나타낼 때는 차자로 표시할 때도 있고 한글로 표시할 때도 있다. 그리고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爲’처럼 ‘득’의 첫 음절만 나타내거나 ‘外’처럼 ‘밖’의 마지막 음절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한문의 어순과 다른 우리말의 어순을 나타낼 때는 한자 숫자를 왼쪽에 써서 해석 순서를 표시하였는데, 이것은 藤本幸夫(1992)나 남풍현(2002) 등에서 신라 시대부터 사용된 한국의 석독 전통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부호는 석독을 위한 이러한 부호는 구결문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4장에서 부호를 따로 다룰 것이다.

왼쪽의 [그림9] 예문을 가지고 한문 문장에 어떻게 구결을 달았는지를 음독구결과 석독구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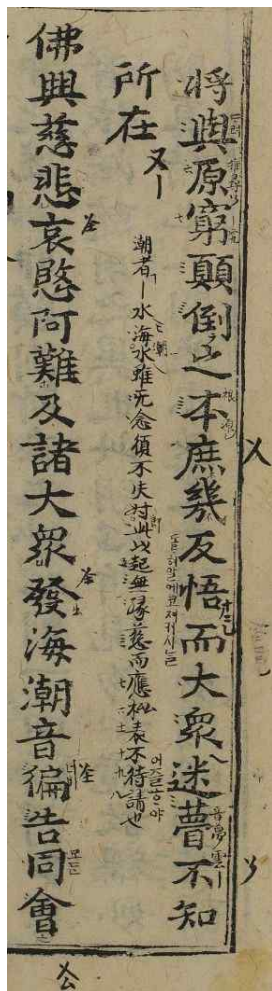
- (가) 義學之徒、虛驕多聞_ㄴ 不_ㄹ全道力_ㄴ <원각사본B층위 음독구결 1:1a>
 (나) 義學之徒 | 虛驕多聞_ㄴ야 不_ㄹ全道力_ㄴ야 <언해본 한글구결 1:1a>
 (다) 義學_ㅅ 1 之徒、虛_[=]속절업시驕_[=]잘카냥多_[=]聞_[=]ㅅ_ㄴ 不_[=]몌全_[=]도力_[=]
 ㅅ_ㄴ <원각사본 석독구결(어순 조정 전) 1:1a>
 (라) 義學_ㅅ 1 {之}徒、多聞_ㅅ{虛}속절업시{驕}잘카냥_ㄴ 도力_ㅅ全_ㅅ{不}몌_ㄴ <원
 각사본 석독구결(어순 조정 후) 1:1a>
 (레) 뜯 비호는 무리 해 드로믈 속절업시 잘카냥_ㄴ야 도力을 올오디 몌_ㄴ야 <언
 해본 언해문 1:3a>
 (려) 뜻 배우는 무리가 많이 들음을 부질없이 자랑하여 도력을 완전히 하지 못하
 여 <현대어 번역문>

㉔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㉔의 음독구결에 추가된 요소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㉔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빼면 ㉔의 음독구결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부호는 대괄호로 묶고 아랫첨자로 표시했는데, 한자 숫자로 표시된 어순부호는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역독점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㉔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부독자나 표기가 중복된 경우에 해당한다. 석독 표기는 수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多’의 오른쪽에 ‘해’라는 한글을 달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聞’의 오른쪽에 ‘드로’, 아래쪽에 ‘ㄷ’ 대신 ‘馬ㄷ’을 달아서 ‘드로 ’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㉔와 ㉔의 유사성 및 ㉔와 ㉔의 유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각사본 『능엄경』의 B층위 또는 C층위의 음독구결은 『능엄경언해』의 한글구결과 거의 일치하고, 어순부호에 따라 어순이 조정된 후의 원각사본 『능엄경』의 석독구결은 『능엄경언해』의 언해문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4. 부호 및 주석의 특징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다양한 부호들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의 어순에 따른 석독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순부호, 한문을 한국어로 석독할 때 읽지 않고 넘어가는 한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부독자(不讀字) 부호, 한자의 성조를 표시하는 성점, 빠진 글자를 보충할 때 사용하는 삽입부호, 주석이 달렸음을 나타내는 부호 등이다. 이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순부호



[그림10] 어순부호

원각사본 『능엄경』에서는 어순부호를 사용하여 한문을 한국어로 석독할 때의 순서를 최대한 정확하게 표시하려고 하였다. 대부분 一부터 三이나 三까지는 점으로 간략화하였고, 四나 五부터는 한자 모양대로 기입하였는데, 五나 六을 다섯 개의 점이나 여섯 개의 점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문장이 길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순서가 一부터 十까지 표시되기도 하였다. 두 글자가 하나의 단위로 쓰일 때는 두 글자 사이에 부호를 써넣었다. 왼쪽의 [그림10]에서 1~2행은 계한의 요해(要解) 부분이어서 경문보다 한 칸을 내려서 썼는데, 어순부호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 ㉔ 將與原窮顛倒之本 ヲニシ而大眾、迷瞢 ヲ 不知所在
又 一 <원각사본B층위 음독구결 2:7a>
- ㉕ 將與原窮顛倒之本 〽샤庶幾反悟 | 어시닐而大眾이迷瞢 〽야不知所
在로다 <언해본 한글구결 2:15a>
- ㉖ 將{一}與{二} 려原{六}推尋 ヲ 窮{七}究顛{三}倒{三} 之本{三}根源 ヲ 〽庶
幾{不}反도 〽悟알에코져커시 오ニシ而大{一}衆{二} 迷瞢{三}어즐
야 ヲ 不知所在 又 一 <원각사본 석독구결(어순 조정 전) 2:7a>
- ㉗ 將{與} 려顛倒 〽{本}根源 〽{原}推尋 ヲ 窮究{之} ヲ 〽{庶幾}{反}도
〽{悟}알에코져커시 {오ニシ}{而}大衆 〽{迷瞢}어즐 야{ ヲ } 不
知所在 又 一 <원각사본 석독구결(어순 조정 후) 2:7a>
- ㉘ 장차 〽려 顛倒의 根源을 推尋 〽야 窮究 〽샤 도르혀 알에 코져
커시닐 大衆이 어즐 〽야 잇는 딜 아디 몬도다 <언해본 언해문
2:15a>
- ㉙ 장차 도리어 알게 하고자 하시거늘, 대중이 잇는 데를 알지 못
하는구나. <현대어 번역문>

이 예문은 어순부호의 기능을 잘 보여 준다. ‘將與原窮顛倒之本’에서 ‘之’를 뺀 각 한자 옆에 기입된 작은 점과 한자는 혼독 순서를 나타낸다. 즉 해당 문장은 ‘1-2-6-7-3-4-5’의 순서로 읽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때 ‘之’는 조사 ‘之(의)’로 실현되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장을 혼독 순서에 따라 한자를 재배열하면 ‘將-與-顛-倒-本-原-窮’으로 되어 언해의 ‘장차 〽려 顛倒의 根源을 推尋 〽야 窮究 〽샤’와 순서가 일치한다. [그림10]에서는 이 밖에도 ‘庶幾’의 두 글자 내부에 있는 부독(不讀)을 지시하는 작은 ‘不’자 부호, 2행 아래 빈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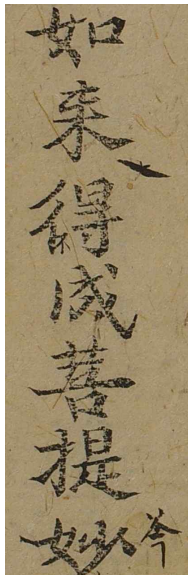
에 쓰인 ‘海潮音’의 내용에 관한 주석, ‘瞿’의 독음이 몽(夢)임을 나타내 주는 한자음에 대한 주석 등을 보여 준다. 또한 2행 아래에 있는 주석은 묵서로 필기된 주석 자체에 대한 훈독순서 지시부호, 주석에서 빠진 글자의 보충 부호 등을 같이 보여 주고 있다. 특히 ‘海潮音’에 대한 한문 주석에도 구결을 달고 어순부호를 표시하여 『능엄경언해』의 주석과 일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㉑ 潮者 1 潮水 〰 〰 海潮水 〰 雖無〔二〕念〔一〕須不失時節此〔一〕以起〔五〕無〔三〕緣〔二〕慈〔三〕而應〔七〕機〔六〕表〔十〕不〔十〕待〔九〕請〔八〕也 <원각사본 주석문>

㉒ 潮는 밀므리니 바룻 밀므리 念 업수디 모로매 時節을 일티 아니흐느니 이는 緣 업스 慈悲로 機를 應하야 니르샤 請 기드리디 아니흐샤물 表하니라 <언해본 주석문>

여기서도 뒷 구절인 “此以起無緣慈而應機表不待請也”에서 석독에 반영되지 않는 ‘以’와 ‘而’와 ‘也’를 제외한 나머지 11자를 ‘1-5-3-2-4-7-6-11-10-9-8’의 순서로 읽는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2) 부독자(不讀字) 부호



[그림11]

부독자 부호

위의 예문에서도 보았듯이, 한자 내부에 작은 글씨로 ‘不’이 기입된 예가 있는데, 권1에 7회, 권2에 11회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서 이 표시가 많이 나타나는 한자는 ‘得’과 ‘爲’이다. 왼쪽의 [그림11]에서도 ‘得’의 ‘彳’와 ‘聿’ 사이 아래쪽에 ‘不’이 작은 글씨로 기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㉑ 得成菩提 〰 〰 1 <원각사본B층위 음독구결 1:15a>

㉒ 得成菩提 산 <언해본 한글구결 1:39b>

㉓ 得〔不〕菩提成 〰 〰 1 <원각사본 석독구결 1:15a>

㉔ 菩提 일우산 <언해본 언해문 1:39b>

지금까지 한자 내부에 작은 글씨로 ‘不’이 기입된 경우를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권1 - 間(12b:5행), 得(15a:7행), 得(21a:5행), 得(23a:5행), 得(24b:1행), 我(35a:6행), 已(37b:8행)

권2 - 見(2b:5행), 得(3b:3행), 夫(6b:4행), 庶(7a:1행), 幾(7a:1행), 爾(9a:2행), 唯(20a:1행), 爲(24a:2행), 爲(25a:6행), 爲(25b:6행), 周(44b:4행)

이 부호는 해당 한자가 언해문에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 즉 부독자(不讀字) 부호로 파악된다. 그러나 언해문에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이 부호가 기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의적으로 기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호는 법응본 『법화경』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경준(2019)를 참고할 수 있다.

3) 성점



[그림12] ‘易’의 성점



[그림13] ‘見’의 성점



[그림14] ‘爲’의 성점

성점(聲點)은 한자의 네 귀퉁이를 이용하여 권점을 달아서 해당 글자의 성조를 표시하는 부호이다. 여말선초에는 좌하의 권점이 평성, 좌상의 권점이 상성, 우상의 권점이 거성, 우하의 권점이 입성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성점이 기입된 것으로 파악된 글자는 ‘易’, ‘見’, ‘爲’ 등이다. ‘易’는 ‘쉬울 이’로 읽히는 경우가 네 번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세 번은 거성(去聲)임을 나타내는 우상의 권점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12]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見’은 거성 성점이 있는 경우가 한 번 발견되며, 이때는 ‘보다’가 아니라 ‘나타나다’의 의미를 갖는다.³⁾ [그림13]이 그 예이다. ‘爲’는 ‘위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14회 중 13회에서 성점이 쓰이고 있으며, 역시 우상에 기입되어 거성임을 나타낸다. [그림14]의 경우 오른쪽 행의 ‘爲’는 ‘위하다’의 의미라서 우상에 권점이 기입된 반면에 왼쪽 행의 ‘爲’는 ‘만들다’의 의미라서 권점이 기입되지 않았다. 성점이 사용된 예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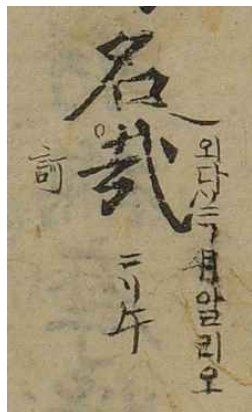
易(권1 - 13a:4행, 45b:8행, 46a:3행),

見(권1 - 18b:5행)

爲(권1 - 7a:1행, 11b:6행, 39b:6행, 42b:2행, 42b:5행)

(권2 - 17a:5행, 23a:4행, 26b:7행, 27a:1행, 32a:6행, 32b:7행, 37a:1행, 52b:5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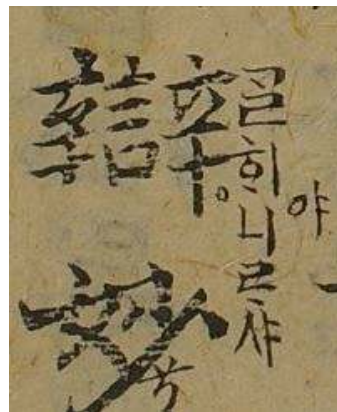
4) 삽입 부호



[그림15] ‘訶’ 삽입



[그림16] ‘此’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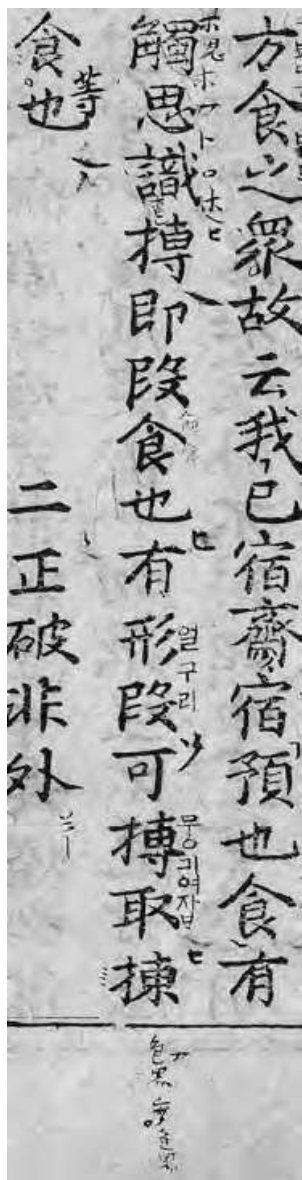


[그림17] ‘야’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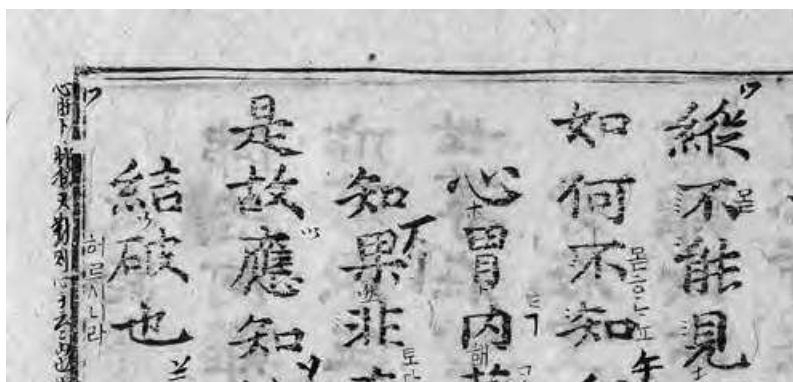
3) 다만 ‘見’의 성조는 중국 중고음과 한국 중세한자음(동국정운식 한자음, 현실 한자음)에서 ‘보다’의 의미일 때도 거성이고 ‘나타나다’의 의미일 때도 거성이다. 따라서 여기의 성점은 파음(破音)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자(闕字), 즉 빠진 글자를 삽입해야 할 때는 그 자리에 권점을 기입하고 그 주변에 보충되어야 할 글자를 써넣었다. 이것은 삽입 부호라고 할 수 있으며,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미처 바로잡히지 않은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인 부분을 위의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15]은 ‘名’과 ‘哉’ 사이에 권점을 기입하고 왼쪽에 ‘訶’를 써넣은 예이고(1권 13a:7행), [그림16]는 변란과 ‘非’ 사이에 권점을 기입하고 변란 위에 ‘此’를 써넣은 예이다(1권 35a:6행). 이러한 1401년판 『능엄경』의 결자는 『능엄경언해』에서는 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능엄경언해』를 보고 삽입 교정을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글로 석독 표기를 할 때 빠뜨린 글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정하였다. [그림17]는 ‘야 니 샤’에서 ‘야’를 빠뜨리고 기입했다가 권점으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야’를 보충한 예이다(1권 7a:7행).

5) 주석 표시 부호



[그림18] 주석 표시 부호 1



[그림19] 주석 표시 부호 2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묵서로 주석의 위치를 나타내는 □ 또는 ㄱ 모양의 부호가 쓰였다. 이 부호는 변란 밖이나 변란 안의 빈 공간에 쓰인 주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준다.

왼쪽의 [그림18] 아래쪽 난하의 주석을 살펴보면 ‘色界’의 오른쪽에 있는 부호와 ‘無色界’의 왼쪽에 있는 부호가 바로 행 글자 ‘思’의 오른쪽과 ‘識’의 오른쪽에 같은 모양의 부호가 기입되어 있다. 또 위쪽의 [그림19]에서 오른쪽 끝의 ‘從’ 자 오른쪽 위에 부호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부호가 맨 왼쪽의 변란 모서리 안쪽에 기입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의 변란 밖으로 주석이 쓰여 있다. 이 부호는 왼쪽 난외에 쓰인 주석이 ‘從’이 있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언해본의 협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난상이나 난외에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작은 권점을 해당 부분에 기입하여 권점이 해당 주석과 관련되는 곳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글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간단히 글자 옆에 해당 부분에서 풀이되는 글자의 뜻을 기입한다. 독음과 관련한 부호로는 글자의 옆에 ‘音’ 또는 ‘ㄱ’이라 쓰고 그 아래에 해당 음에 대한 주석을 기입한 예가 있다. 흔히 쓰는 글자가 아닌 어려운 글자는 난상에 해당 글자를 쓰고 그에 대한 음주(音註)나 훈주(訓註) 등을 기입한다.

이 밖에도 글자를 삭제하고 다른 글자를 써넣은 것을 지시하는 사선 모양의 삭제 부호, 글자의 상하 순서를 바꿀 것을 지시하는 작은 글씨의 ‘上下’ 등이 나타난다.

6) 주석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변란의 바깥 또는 행 사이의 빈 공간에 내용과 관한 주석이 둘 이상의 필체로 기입되어 있다. 권1의 권수제 앞의 표지 뒷에도 ‘대불정수능엄경’의 각 글자에 대하여 그 뜻을 설명해 주는 주석이 기입되어 있다. 본문의 예를 들면 “義者中道第一義 智者照了之心 識者妄想之心 法者實相及助道法 人者五陰生滅”(권1 1a 난상), “無上涅槃萬物通 不離分別世間中 於分別處無分相 長短青黃扇古風”(권1 2a 난상), “敬喜當年色未空 室羅城畔愛花紅 寒山若不傳心呪 應洩于今釋子風”(권1 13b 난상)과 같이 게송, 칠언고시 등의 형식을 가지는 주석이 기입되어 있다. 주석 중에는 “精見者眞性覺塵濁而不雜精也涉萬殊而不異妙也又此見本乎妙精明心精。依用也指體故曰見精依體用故曰精見”(권1 7a 난상)과 같이 『능엄경』의 주석서인 『능엄경찬주(楞嚴經纂註)』 또는 『능엄경요해(楞嚴經要解)』 등에 있는 주석을 가져온 경우도 있고, “自恣 九旬之內 人多迷己 不自見過 僧祇過 內彰無私隱”(권1 11a 난상)의 “自恣”에 대한 주석처럼 불교 용어집 또는 불교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 권4의 내용에서 가져온 경우도 있다. 이들 주석 중에는 목판본 『능엄경언해』의 본문이나 협주 등에 번역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많다. 특이한 주석으로는 ‘莊子云’으로 시작하는 『장자(莊子)』의 일부 내용이 기입된 것(2권 25b 난외)이 있다. 이 밖에도 ‘舊家解云’으로 시작되는 주석(2권 25a 난외)은 당시 참고한 문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물론 어떤 문헌에서 인용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주석들도 있어서 인용의 저본이 일실된 것인지 아니면 기입한 사람이 주석을 나름대로 쓴 것인지 등의 고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5. 결론

참고문헌

- 고영근(1998), 「석독구결의 국어사적 가치」,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28.
- 곽동화·강순애(2008), 「楞嚴經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39, 서지학회, 255-290.
- 김문웅(1982), 「諺解書에 나타난 口訣의 樣相과 表記法: 法華經諺解를 中心으로」, 『어문학』 42, 한국어문학회, 1-19.
- 김문웅(1986), 『十五世紀 諺解書의 口訣 研究』, 형설출판사.
- 김문웅(1993), 「한글 구결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글』 219, 한글학회, 115-153.
- 김상대(1985), 『中世國語 口訣文의 國語學的 研究』, 한신문화사.
- 김상현(1996), 「『錐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 『한국학보』 22-3, 일지사, 28-45.
- 김영옥(2003),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研究」, 『구결연구』 10, 47-78.
- 김영옥(2004), 「判批量論의 國語學的 研究」,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81-97.
- 김주원(1997), 「『緇門警訓』(石崙菴本)의 기입토에 나타난 16세기 경상도 방언」, 『구결연구』 2,

구결학회, 265-289.

남경란(2001), 「『능엄경』의 음독 입결 연구」, 대구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남경란(2010), 「음독 입결과 한글 입결의 상관성」, 『민족문화논총』 4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3-30.

남권희(1994), 「고려말 구결자료 6종 소개」, 『구결연구회 94년 겨울 연구회 발표 요지』.

남권희(2012), 「구결본〈南明泉和尚頌證道歌 ; 증도가〉의 서지적 고찰」,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23-52.

남풍현(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研究(其一)」, 『동양학』 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07-137.

남풍현(1980), 「口訣과 吐」, 『국어학』 9, 151-161.

남풍현(1988),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233-242.

남풍현(1990ㄱ), 「吏讀·口訣」,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594-604.

남풍현(1990ㄴ),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研究」, 『진단학보』 69, 75-101.

남풍현(1995), 「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 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20.

남풍현(1999ㄱ), 『國語史를 위한 口訣 研究』, 태학사.

남풍현(1999ㄴ),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研究』, 태학사.

남풍현(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서지학보』 24, 한국서지학회, 5-45.

남풍현(2001), 「口訣의 種類와 그 發達」, 일본 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논문집, 11-20.

남풍현(2002), 「新羅時代 口訣의 再構를 위하여」, 『구결연구』 8, 구결학회, 77-93.

남풍현(2009), 『古代韓國語研究』, 시간의물레.

남풍현(2010), 「韓國語史 研究에 있어 口訣資料의 寄與에 대하여」, 『구결연구』 25, 구결학회, 5-20.

남풍현(2013), 「東大寺 所藏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釋讀口訣에 대하여」, 『구결연구』 30, 구결학회, 53-79.

남성우·정재영(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95-251.

민현주(2012),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구결 자료에 대하여」, 『한국말글학』 29, 한국말글학회, 31-53.

민현주(2013), 「『證道歌』 이본의 입결(口訣) 연구」, 『한국말글학』 30, 한국말글학회, 49-65.

박성종(1996), 「宋成文本 楞嚴經 解題」, 『口訣資料集 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1.

박진호(1996), 「奎章閣 所藏 口訣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 『구결연구』 1, 구결학회, 73-94.

박진호(2003), 「周本 『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 -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211-248.

심재기(1976), 「長谷寺

안병희(1975), 「口訣의 研究를 위하여」, 『동양학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학교, 133-142.

안병희(1976), 「구결과 한문 훈독에 대하여」, 『진단학보』 76, 진단학회, 143-162.

안병희(1977), 『中世國語 口訣의 研究』, 일지사.

안병희(1987), 「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대하여」, 『국어학』 16, 41-54.

안병희(1997), 「활자본 능엄경언해 해제: 권1·10을 중심으로」, 영인본 『능엄경언해』 별책, 문화재관리국.

여찬영(1988), 「조선조 구결문과 언해문의 성격 연구」, 『국문학연구』 11, 효성여대 국어국문학

- 연구실, 27-65.
- 유탉일(1977), 「鮮初文獻에 쓰여진 佛家口訣」, 『하서 김종우박사 화갑기념논문집』, 韓國文獻學研究』(아세아문화사, 1989)에 재수록, 68-89.
- 유필재(2016), 「활자본 『楞嚴經諺解』 校正에 대한 기초적 연구」, 『규장각』 4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63-386.
- 이승재(1990), 「高麗時代 『梵網經』의 口訣」, 『애산학보』 9, 117-147.
- 이승재(1993),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문학과지성사, 56-76.
- 이승재(1995), 「南權熙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 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35-348.
- 이승재(2000),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135-152.
- 이승재(2001ㄱ),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1-32.
- 이승재(2001ㄴ),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琬鎬先生 回甲紀念論叢), 229-250.
- 이승재(2002), 「옛 文獻의 각종 符號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21-43.
- 이승재·안효경(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115-146.
- 이전경(2012), 「『爲』자에 현토된 석독표기자와 그 해독」, 『구결연구』 28, 구결학회, 165-189.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태학사.
- 장경준(2019), 「법응스님 소장 <법화경> 구결에 표시된 부독자(不讀字)」, 『한국어학』 84, 한국어학회, 91-134.
- 정상훈(1997), 「乙亥字本 『楞嚴經諺解』 卷七·八에 筆寫된 口訣考」, 『한국어문학연구』 32, 동악어문학회, 201-220.
- 정은우(2015),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과 복장유물의 내력과 특징」, 『미술사연구』 29, 미술사연구회, 7-28.
- 정재영(1996ㄱ), 「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 『구결연구』 1, 구결학회, 127-234.
- 정재영(1996ㄴ), 「祇林寺本 楞嚴經 解題」, 『口訣資料集 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5.
- 정재영(1997), 「고려시대 釋讀口訣」, 『문헌과해석』 1, 162-174.
- 정재영(1998), 「舎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13-193.
- 정재영(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33-56.
- 정재영(2003), 「口訣 研究史」, 『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집문당, 101-125.
- 정재영(2006ㄱ), 「불갑사(佛甲寺) 소장의 화암사판(花岩寺版) 『부모은중경』에 대하여 -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과 언해문을 중심으로-」, 『영남학』 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11-244.
- 정재영(2006ㄴ), 「韓國의 口訣」,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125-185.
- 정재영(2007), 「청주고인쇄박물관 所藏 元興社本 『金剛經』에 대한 연구 : 六祖口訣後序에 기입된 口訣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227-257.

- 정재영(2009), 「『華嚴文義要訣問答』에 대한 文獻學的 研究」, 『구결연구』 23, 구결학회, 31-65.
- 정재영(2014), 「新羅 寫經에 대한 研究」,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97-131.
- 정재영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研究 -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 하정수(2016), 「修德寺 槿域聖寶館 所藏 妙法蓮華經卷第七의 角筆口訣」, 『구결연구』 36, 구결학회, 121-158.
- 하정수(2020),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1, 2에 기입된 구결(口訣) 및 한글 연구」, 『국어문학』 74, 국어문학회, 1-37.
- 山本信吉(2006), 「聖語藏 『大方廣佛華嚴經』 -自卷七十二至卷八十-の書誌的考察」, 『正倉院紀要』 26, 143-154.
- 小林芳規(2002ㄱ),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구결연구』 8, 구결학회, 21-76.
- 小林芳規(2002ㄴ),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朝鮮學報』 182, 朝鮮學會, 1-82.
- 小林芳規(2003),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 『大谷學報』 82-2, 大谷大學 大谷學會, 58-88.
- 小林芳規(2008), 「角筆による新羅語加點の華嚴經」, 『南都佛教』 91, 1-18.
- 藤本幸夫(1992), 「李朝訓讀攷(其一)」, 『朝鮮學報』 143, 朝鮮學會, 109-218.

『법화경』의 언해 기반 토 표기와 부호의 사용

-법응스님 소장본 권1과 영천역사박물관 소장본 권4를 중심으로-

장경준(고려대)

1. 머리말

조선시대 구결 자료 중에는 흔히 보이는 음독구결뿐 아니라 원문의 한자에 해석의 순서와 우리말 독법까지 표시한 일종의 석독구결이 같이 기입된 것들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성격의 자료인 법응스님 소장본 『법화경』 권1(이하 ‘법응본’)과 영천역사박물관 소장본 『법화경』 권4(이하 ‘영천본’)의 구결에 대해, 특히 『법화경』 언해본(이하 ‘언해본’)을 참조하여 기입된 부분과 부호의 사용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할 주요 용어에 대해 먼저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구결: 한문을 이해한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한문에 무언가를 덧붙여 한국어의 요소를 표기하는 방식 또는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물.

토: 구결에서 한문에 덧붙여진 것.

음독구결: 한문의 어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음독해 내려오면서 필요한 곳에 토를 달.

석독구결: 한문을 한국어 어휘와 어순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토를 달.

음독토: 음독구결에 달린 토.

석독토: 14세기 이전의 석독구결에 달린 토.

해석토: 15세기 이후의 석독구결에 달린 토.¹⁾

구결자: (넓은 의미) 한문에 토를 달 때 한국어의 소리/형태를 적기 위해 사용한 문자.

(좁은 의미) 한문에 토를 달 때 관용적으로 한자를 시각적으로 단순화하고²⁾

그 한자의 음이나 훈의 한쪽만 이용하여 한국어의 소리/형태를 적은 문자.

(구결)부호: 토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한국어의 소리/형태를 적기 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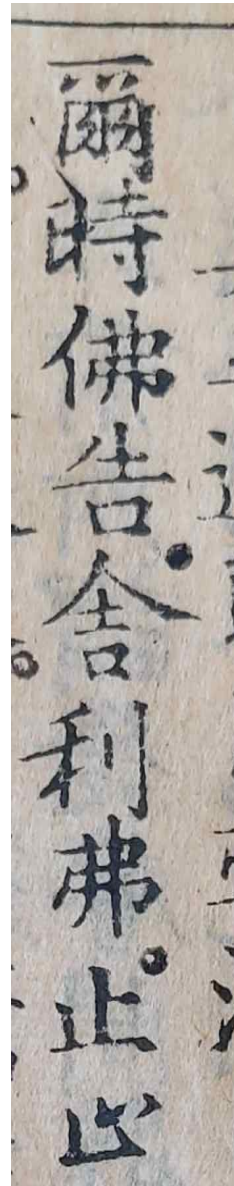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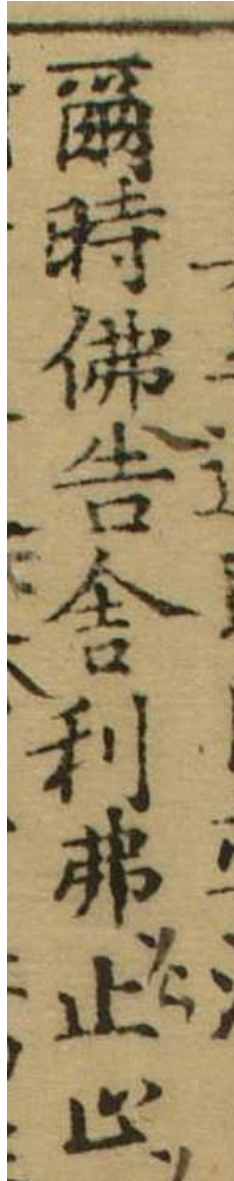
이상의 용어 체계는 조선시대 석독구결이 그 이전 시기의 석독구결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중시한 잠정적인 것이다.

2. 법응본의 구결³⁾

- 1) 14세기 이전의 석독구결(I)과 15세기 이후의 석독구결(II)은 토를 다는 위치, 토에 사용된 문자 체계, 어순 표시 방법, 언해의 영향 등 여러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I)과 (II)에 달린 토를 구분해서 지칭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조선시대 자료에서 음독구결로 달린 토 이외의 것을 가리킬 때 ‘좌토/좌측토, 새김토, 해석토, 석독토, 언해문 전사’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본고에서는 (I)의 ‘석독토’와 구분하는 차원에서 (II)의 토를 ‘해석토’라 불러보기로 한다. 김주원(1997:274)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해석 구결’이라 한 바 있다.
- 2) 한문 원문의 한자에 비해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하고 획이 복잡한 것은 간단하게 하는 등 시각적으로 토가 눈에 쉽게 떨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 책은 2018년 10월에 공개되었다. 영인 자료까지 만들어 학계에 제공해 주신 소장자 법응스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1. 전반적인 소개

범응본은 1405년에 성달생의 글씨로 전라도 안심사에서 새긴 목판으로 찍은 책이다. 같은 판본인 개인 소장본(보물 1306호)이나 고려대본(귀 71T)보다 인출 시기가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⁴⁾



범응스님 소장본(권1:40~5) 개인 소장본(보물 1306호) 고려대본(귀 71T)

범응본은 여러 사람이 토를 달았다. 음독구결은 언해본과 차이가 매우 큰 1차토와 언해본을 주로 반영한 2차토가 섞여 있다. 앞부분에는 1차토가 언해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1차토를 지우거나 그 위에 덧씌워 2차토를 기입하였는데, 뒤로 갈수록 언해본과 일치하지 않는 1차토를 그대로 두고 2차토를 기입하지 않거나 다른 위치에 2차토를 기입한 경향이 점차

4) 이 자료는 권1~권3이 한 책으로 묶여 있다. 낙장이 많고 편철 오류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권1의 경우 총 62장 중 19장(제30, 39, 46~62장)이 없고, 제20장과 제21장이 바뀌었으며, 제35장과 제36장 사이에 권3의 제15장이 잘못 들어가 있다.

강해진다. 따라서 같은 한자에 음독구결 1차토와 2차토가 모두 노출된 예가 빈번하고, 여기에 언해본을 참고한 해석토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여러 층위에 걸친 다양한 구결자들이 일견 혼란스러울 정도로 기입되어 있다.

범응본에서 석독구결의 해석토는 기본적으로 언해본의 언해문을 참고하였으나 현토자의 판단에 따라 언해문과 다르거나 언해문에 없는 내용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언해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에도 현토자의 언어 지식과 표기 습관에 따라 언해본과 달리 표기된 사례가 매우 많다. 해석토는 원문의 한자에 달기도 하고 행간에 달기도 하였는데 음독토와 달리 좁은 의미의 구결자뿐 아니라 한글 자모와 한자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구결자로 사용하였다.

또한 해석토에는 구결자뿐 아니라 어순을 표시하기 위한 부호나 읽지 않는 한자를 표시하기 위한 부호가 포함되어 있고, 음독토와 해석토 모두 교정에 관련된 부호가 쓰였다. 그 밖에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해본이나 기타 주석서에서 인용한 주석이나 한자음 표기가 본문의 행간이나 변란 바깥의 여백에 추가된 곳이 많다.

※ 범응본에서 음독구결 2차토를 기입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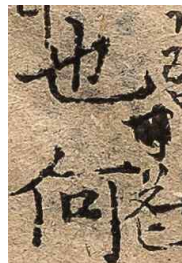
(1) 1차토를 지우고 그 옆에 언해 기반 2차토를 기입함



[그림 1] 序:1ㄴ8



[그림 2] 1:24ㄴ10



[그림 3] 1:3ㄴ8



[그림 4] 1:40ㄴ2

[그림 1] 1차토: ㄴ |

언해본: 是眞能發明秘要之藏也 | 라

[그림 2] 1차토: 미상

언해본: 亦如今衆호니라

[그림 3] 1차토: 可(ㄴㅅㅂ)

언해본: 嘗謂華嚴法華는 蓋一宗也 | 라호노니

[그림 4] 1차토: ㄴㅅㅂㅅㅅㅅ

언해본: 佛이 何故說是신고호며

(2) 1차토를 놔두고 그 자리에 언해 기반 2차토를 기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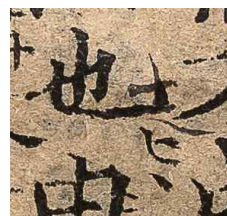
[그림 5] 1:1ㄴ6



[그림 6] 1:5ㄴ10



[그림 7] 1:1ㄴ5



[그림 8] 1:1ㄴ10

[그림 5] 1차토: ㅂ

언해본: 蓋會三而歸一也 | 시니

[그림 6] 1차토: ㅂㅂ

언해본: 最初之唱이니

[그림 7] 1차토: ㅂ

언해본: 蓋卽顯以顯妙也 | 시며

[그림 8] 1차토: ㅂㅂ

언해본: 無非妙法也 글썩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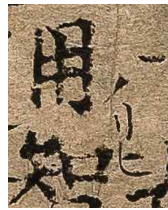
[그림 9] 1:4~4

(3) 1차토를 놔두고 다른 자리에 언해 기반 2차토를 기입함

[그림 9] 1차토: 科判此經ノヒ上ト 二十八品又 分三ッヌヒ

언해본: 科判此經호되 二十八品을 分三호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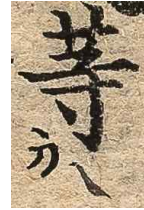
(4) 언해본과 다른 1차토를 놔두고 2차토를 기입하지 않거나, 언해본과 다른 2차토를 추가로 기입하거나, 언해본에 없는 2차토를 추가로 기입함. 즉, 언해본을 따르지 않음.



[그림 10] 1:1~8



[그림 11] 1:3~12



[그림 12] 1:36~8



[그림 13] 1:36~6

[그림 10] 1차토: ノヲヒ

언해본: 妙行으로 爲用이니

[그림 11] 1차토: ヌヌヒ

언해본: 然後에사 命筆호니

[그림 12] 1차토: ヌ

2차토: ヌ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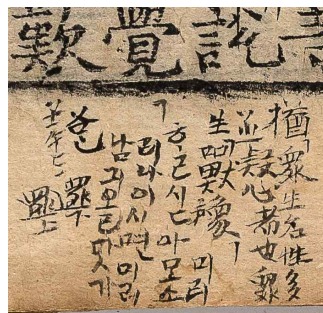
언해본: 一切漏 | 已盡호야 住是最後身호 如是諸人等이 其力所不堪이라(번역: 이 못 後入 모매 住호 이 곧호 모든 사람들히 그 힘의 이기디 못홀떡라)

[그림 13] 1차토: 없음

해석토: ニノ (※해석토이나 편의상 제시함)

언해본: 無有能得解호니라 (번역: 能히 알리 업스니라)

※ 법응본 현토자가 주석을 달 때 언해본 이외의 주석서를 참고한 흔적



[그림 14] 1:40~4-6 난하



[그림 15] 1:40~4



난하

[그림 14] 언해본: 其求緣覺者比丘比丘尼와 諸天龍鬼神과 及乾闥婆等이 相視懷猶豫호야

(번역: 그 緣覺 求호는 比丘 比丘尼와 諸天 龍 鬼神과 또 乾闥婆 等이 서르 보며 猶豫를 머거 [猶는 중심의 일후미니 性이 疑心 하니 山中에 이셔 아모 소리나 드르면 미리 남기 올라 오래 사름 업슨 後에사 느려 아니한 더데 또 오름곰 홀씩

疑心^하야 決^터티 묻^는 사^르물 猶豫^ㅣ라 ^하느니 豫^는 미리 ^하씨라])

[그림 15] 언해본: 具足道^는 卽圓頓^法이라

(번역: ㄴ즌 道^는 곧 圓頓^法이라 [頓은 漸漸 次第 업시 다 니르실씨라])

2.2. 범응본 구결의 음독토

언해본의 한글 구결을 기준으로 범응본에 기입된 음독토(1차토, 2차토 모두 포함)의 대응 구결자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可	리	ㄹ, ㄷ*	어	才, 今
거	去	른	ㄹ	에	ㄴ, 才ㄴ, ㄴ
게	去ㄴ, 去	를	ㄴ	엿	ㄴ ㄷ, 才ㄴ
고	口, 古, 午*	마	ㄱ, ㄷ(내부1획)	엔	ㄴ ㄹ
과	卜, 禾, 果	며	ㅅ	예	ㄴ, ㅅㄴ
긴	去 ㄹ	면	ㅍ, ㅅ ㄹ	옴	ㄴ ㄹ
기	十	미	ㅍ, 未, ㄴ	옴	ㄴ ㄷ, ㄴ
나	乃	믄	勿 ㄹ	오	午, 五
노	又	믈	馬 ㄴ	와	卜, 卜ㄴ
뇨	了	ㅅ	ㅅ	으	ㄹ, ㄴ
는	ㄹ	샤	ㅅ, 舍, 舍	은	ㄹ
니	ㄷ	샐	ㅅ ㄹ	의	ㄴ, ㄴ
닌	ㄷ ㄹ	샷	ㅅ ㄷ, 舍 ㄷ	이(ㅣ)	ㄴ, ㄹ, ㅍ*
늑	ㄷ	셔	一, 西	이	ㄴ, ㄹ
느	ㄹ, ㄷ ㄹ	소	戶(내부ㅅ)	일(ㄴ)	ㄴ ㄴ, ㄴ
늘	ㄴ, ㄷ	쇼	小	잇	ㄴ ㄷ, 刀 ㄷ, ㄷ, ㄷ ㄷ*
다	ㅣ	시	二	은	ㄹ
대	大	실	二乙, 二	자(저)	上
댄	大 ㄹ	씨	二	커	去, 去
더	力, 加	썩	ㅅㄴ, ㅅ	킨	去 ㄹ, 去, ㄹ
도	刀	샤	ㅅ	케	去ㄴ
든	ㅅ ㄹ	스	ㅅ	코	口
디		습	ㅅ ㅍ, ㅅ, 自 ㅍ, ㄹ, ㅅ 午*	툃	ㅅ ㄷ, ㅅ ㄷ*
들	月, 月 ㄴ	아	ㅍ	하	下
딕	ㅅ, 大	안	才 ㄹ*	호	ノ
라	ㄴ, ㅅ	애	ㄴ, ㄴㄴ	훈	ノ ㄹ
란	ㄹ, ㄴ	엿	ㄴ ㄷ	히	ㅎ, ㄴ*
러	尸, 尸	옴	ㄴ ㄹ	헉	ㅍ, ㄹ
려	女	야	ㄴ, 也	흔	ㅍ ㄹ
로	又, ノ(故)	얏	ㄴ ㄹ	홀	ㅍ ㄴ
료	了	옴	ㄴ ㄷ		

(음절 단위, 빈도순, *는 이 자료의 특징 또는 오기로 보임)

위의 표를 반영한 음독토 구결자 목록

可[가], 去[거/커], 口[고/코], 古[고], 禾[과], 果[과], 十[기], ㄹ[ㄴ/은/은/는/느/란/른] 乃[나], 又[노/로], ノ(故)[로], 了[뇨/료], ㄷ[니/리*/이*], ㄷ[늑/늘], ㅣ[다], 大[대/딕], 力[더], 加[더], 刀[도], ㅅ[드], [디/툃], 月[ㄷ/들], ㅅ[딕], ㄴ[ㄴ/늘/를/으/일], ㄴ[라/란],

ㄱ[라], ㄴ[러], ㄷ[러], ㄹ[러], ㄴ[리], ㄷ[마], ㄹ(내부1획)[마], ㄴ[며], ㄷ[면], ㄴ[미], ㄴ[미], ㄴ[미], 馬[ㄴ], ㄴ[入], ㄴ[샤], ㄴ[샤], ㄴ[샤], 一[셔], ㄴ[셔], ㄴ(내부ㄷ)[소], 小[쇼], 二[시/씨], ㄴ[ㄷ/ㄷ*], ㄴ[샤], 白[ㄷ], ㄴ[하], ㄴ[아], ㄴ[아/애/야/어/여], 也[야], ㄴ[어/아*/히*], ㄴ[어], ㄴ[오/고*/하*], 五[오], 卜[와/과], ㄴ[의], ㄴ[이/ㅣ/히/의/미], ㄴ[이], ㄴ[자(저)], ㄴ[커], ㄴ[하], ㄴ[호], ㄴ[히], ㄴ[히/이*/ㅣ*]

(총 67개)

(자형이 같지만 바탕자가 다른 ‘ㄴ’[히]와 ‘ㄴ’[미], ‘ㄴ’[러]와 ‘ㄴ’[소]는 별개의 글자로 보고, 자형이 유사하고 바탕자가 같은 ‘ㄴ’과 ‘ㄴ’, ‘ㄴ’과 ‘ㄴ’은 같은 글자로 보았음.)

(같은 음을 적은 글자 중 나중의 것은 대부분 2차토로 기입된 것들임.)

음독토의 현토 양상

- (1) 1차토와 2차토가 혼재됨. 1차토는 언해본의 구결과 다른 예들이 매우 많음. 다만, 15세기 이전의 어형을 반영하는 고형은 거의 보이지 않고 “ㄴ ㄴ ㄴ ㄴ”의 예가 있음.
- (2) 뒤로 갈수록 1차토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가 많음. 2차토는 대체로 언해본의 구결을 따랐으나 간혹 다른 경우도 있음. 2차토는 기입 위치가 다양하여 해석토와 구분하기 어려운 예들도 있음.
- (3) 언해본의 구결과 비교해 보면 대표음의 전용, ‘ㄴ-’의 생략, ‘ㄴ-’와 ‘ㄴ-’의 대치, ‘ㄴ-’의 생략이나 추가 등 다른 자료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들이 이 자료에서도 관찰됨.

2.3. 법응본 구결의 해석토

2.3.1. 구결자의 사용

해석토 구결자 목록

(한글 자모만으로 된 것과 해당 언해문의 한자와 일치하는 것은 제외함.)

가. 좁은 의미의 구결자

ㄱ[가], ㄴ[거/꺼/커/게], ㄴ[고], ㄴ[과], ㄴ[기/끼], ㄴ[ㄴ/논], ㄴ[노/논/로], ㄴ[뇨], ㄴ[니], ㄴ[느], ㄴ[다], ㄴ[대/덴], ㄴ[더], ㄴ[더], ㄴ[도], ㄴ[든], ㄴ[디/띠/ㄷ], ㄴ[ㄷ/들], ㄴ[ㄷ], ㄴ[ㄴ/을/을/늘/를], ㄴ[라], ㄴ[러], ㄴ[러], ㄴ[리], 言[말], 馬[매], ㄴ[며], ㄴ[ㄴ/물/물], ㄴ[미], ㄴ[入], ㄴ[샤], 一[셔], ㄴ[셔], 二[시/씨], ㄴ[ㄷ/씨], ㄴ[아/야/애/어/에/예/익], ㄴ[아], ㄴ[어/어/아], ㄴ[여/예], ㄴ[오/을/소], ㄴ[호/오], ㄴ[와/과], 果[왜], ㄴ[의/익], ㄴ[이/ㅣ/의], ㄴ[히], ㄴ[히]

(총 47개)

(음독토의 구결자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임.)

(음독토가 달리는 구결말에 해석토를 달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미 달려 있는 음독토와 동일한 해석토를 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구결말 해석토는 이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나. 좁은 의미의 구결자와 한글 자모를 조합하여 음절 단위로 표기한 구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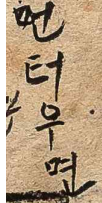


- (1) 발음이 ‘ㄱ’인 것: ㄱ[독]

(2) 발음이 ‘ㄴ’인 것: [턴], [번], [산], [순]

(3) 발음이 ‘ㄹ’인 것: [갈], [관] (가로획 제외)[길], [골], [닐], [놀], [둔]
[둘], [들], [덜], [렐], [롤], [릴], [룰],
[말], [멜], [몰], [문], [블], [설], [슬],
[실], [솔], [썰], [알], [열], [울],
[윌], [일], [질], [줄], [출], [홀], [흘]

(4) 발음이 ‘ㄹ’인 것: [롬], [흠]

※ 혼동할 만한 사례들: [하샤믈], [아니호믈], [닐오믈], [멀터우면]

다. 한자의 석독을 표시하기 위해 한자를 표의성을 유지한 채 구결자로 전용하거나 원문의 한자에 석독 발음표기를 한 경우.

(1) 석독표기 전용 한자:

去([가-]), 指([마르치-]), 如([호-]), 禮([예-]), 又([우-])
[또], 化([화-]), 問([문-]), 見([보-]), 人([사람]), 三([삼-]), 知([알-]), 無([없-]), 成([일우-]), 開([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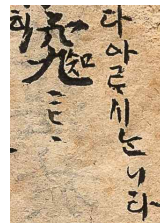
[그림 16] 1:10~10



[그림 17] 1:17~2



[그림 18] 1:29~5



[그림 19] 1:35~1

[그림 16] 언해본: 似人而有角호야 可疑라 (번역: 사람 근호되 썬리 이서 疑心드외니라)

[그림 17] 언해본: 菩薩이 而作比丘호야 (번역: 菩薩이 比丘 드외야)

[그림 18] 언해본: 其次에 當作佛호야 (번역: 그 次第에 받드기 부테 드외야)

[그림 19] 언해본: 唯佛이샤 能_ㄴ | 시니라 (번역: 오직 부테샤 能히 다 아르시느니라)

(2) 석독 말음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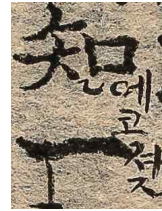
- ① 1: 成1[일운], 大1[큰], 一1[ㅎ]
- ② ㄴ: 珠ㄴ[구슬], 窮ㄴ[다움], 入ㄴ[들-], 知ㄴ[알-], 天ㄴ[하늘]
- ③ ㅅ: 凡ㅅ[물읏]



[그림 20] 1:42ㄴ9



[그림 21] 1:21ㄴ9



[그림 22] 1:20ㄴ9

[그림 20] 언해본: 譬_成德之衆히시니라 (번역: 德 일운 衆을 가질비시니라)

[그림 21] 언해본: 相續無窮히니 (번역: 서르 니서 다움 업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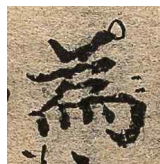
[그림 22] 언해본: 咸得聞知一切世間難信之法게호려히샤

(번역: 一切 世間에서 信호미 어려운 法을 다 드러 알에 코져 히샤)

※ 한자의 석독 표기 사례 중 ‘爲’자의 경우가 주목됨.



[그림 23] 序2ㄴ7



[그림 24] 1:17ㄴ7



[그림 25] 1:23ㄴ5

[그림 23] 언해본: 當以斯解로 爲妙指也 | 니라

(번역: 반드기 이 解로 微妙히 가라글 사물 띠니라)

삼다

[그림 24] 언해본: 以無量喻로 爲衆講法히며

(번역: 無量喻로 衆 爲히야 法 講論히며)

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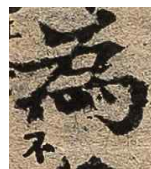
[그림 25] 언해본: 八識之子 | 隨出히야 而爲諸法師히샤미 亦若是矣시니라

(번역: 八識 아드리 조차 나 여러 法師 | 드외샤미 쏘 이 곧히시니라)

드외다



[그림 26] 1:18ㄴ7



[그림 27] 1:16ㄴ9



[그림 28] 1:20ㄴ3



[그림 29] 1:19ㄴ7



[그림 30] 1:20ㄴ1

[그림 26] 언해본: 惡人惡獸 | 爲生忍이오

(번역: 모던 사람과 모던 중생이 生忍이오)

-이다

[그림 27] 언해본: 成就大志히야사 乃命爲子글씨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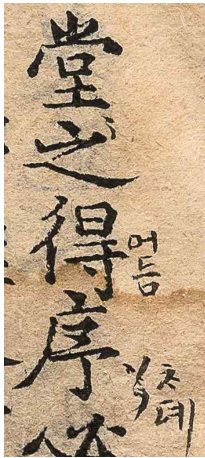
(번역: 큰 뜯 일위사 아드리라 命힐씨니라)

-라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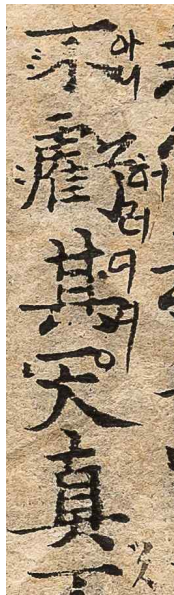
- [그림 28] 언해본: 四衆龍神이 瞻察仁者^{하느니} 爲說何等^하시리잇고 -하다(동사)
 (번역: 四衆龍神이 仁者를 보습^{느니} 었던 말들^을 니르^{시리}잇고)
- [그림 29] 언해본: 天龍恭敬不以爲喜^는 菩薩人 自重也^라 -라고 여기다
 (번역: 天龍이 恭敬^하야도 깃디 아니^하샤몬 菩薩人 즈개 重히 ^하샤미라)
- [그림 30] 언해본: 佛坐道場^하샤 所得妙法을 爲欲說此^라 시니잇가 -고져 하다
 (번역: 부테 道場에 안즈샤 得^하샤 妙法을 이룰 니르 고져 하시느니잇가)

위에 보인 바와 같이 한문의 ‘爲’자가 번역문에서 ‘삼-’, ‘爲^하-’, ‘드외-’로 읽히는 경우 각각 ‘三’, 거성점, ‘匕(化)’로 석독 표기를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예들은 모두 부독자 표시인 ‘不’을 달아 놓았다. 한국어에서 ‘~이다, ~하^다’ 등으로 반영되는 ‘爲’는 한문을 번역해 읽을 때 읽지 않는 글자로 인식한 것이다.

※ 해석토의 현토자는 언해본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17세기 이후 사람으로 추정됨.



[그림 31] 1:5ㄱ1



[그림 32] 1:35ㄴ3



[그림 33] 1:29ㄴ4



[그림 34] 1:40ㄴ1

- [그림 31] 언해본: 猶陞堂之得序^하야 (번역: 堂이 오르리 次第 어들 곧^하야)
 [그림 32] 언해본: 證之者^라 當不虧其天真^하며 (번역: 證^하 씨르미 반드기 天真을 허리디 아니^하며)
 [그림 33] 언해본: 汝等이 勿憂怖^하라 (번역: 너희들히 시름^하야 두리디 말라)
 [그림 34] 언해본: 諸弟子^라 從佛口^하와 生^하며 從法^하야 化生^하느니라
 (번역: 弟子들히 부텃 이블 분즈와 나며 法을 브터 化^하야 나느니라)

현토자는 언해본에 나오는 ‘오르리’, ‘어’, ‘허리디’, ‘두리디’, ‘분즈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인 ‘올라’, ‘어’, ‘허려디디’, ‘두렵’, ‘존츠’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次第를 ‘츠레’로 적지 않고 ‘츠데’로 적은 것도 17세기 이후에 보이는 표기이다.

2.3.2. 부호의 사용

법응본에서는 한문 원문의 해석 순서, 즉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어순을 표시하기 위해

어순점(· : : :), 한자숫자(四五六), ‘上’이나 ‘下’, 어순 동그라미(○ 8), 붙임선 등의 부호를 사용하였다.⁵⁾



[그림 35] 1:32L6



[그림 36] 1:20L10



[그림 37] 1:18L9



[그림 38] 1:374

[그림 35] 언해본: 意在引權入實也 | 시니라 (번역: 쓰디 권을 췌實에 드료매 겨시니라)

1 6 3 2 5 4

[그림 36] 언해본: 咸得聞知一切世間難信之法게호려햐 (번역: 一切世間에서 信호미 어려운 法을 다 드리 알에 코져 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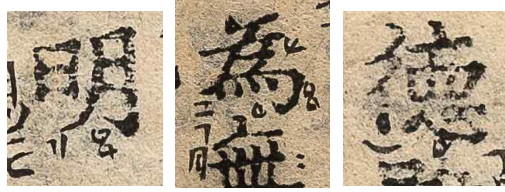
5 1 3 2 4

[그림 37] 언해본: 謂攝善法戒와 攝衆生戒와 攝律儀戒니 (번역: 善法을 디니는 戒와 衆生을 디니는 戒와 律儀를 디니는 戒를 니르니)

上 2 1 3 2 1 3 2 1 3

5) 동그라미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어순 동그라미’라 하고, ‘붙임선’은 그동안 ‘합부’로 불려온 것과 유사하지만 어순 표시 기능을 겸하는 점을 고려하여 달리 불려보았다.

[그림 38] 언해본: 不是古非今^{○ 2 1}하며 以人^{○ 2}廢言이어든 (번역: 네를 올타 코 이제를 외다 하며 사르므로
말썽물 廢^{○ 2 1}티 아니커든)



[그림 39] 3: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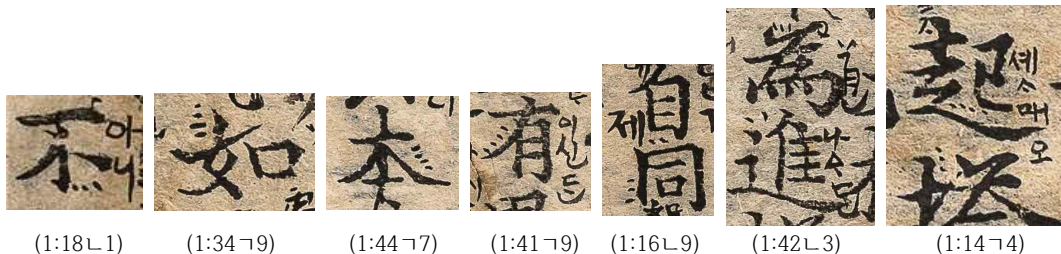
[그림 39] 언해본: 此는 明⁸一音으로 密闡^{○ 2 1}히시며 眞知로 冥化^{○ 2 1}히시는 平等之慈[○] | 尤爲⁸無量功德[○]인 들
히시니 (번역: 이는 ㅎ 소리로 그스기 불기시며 眞知로 그스기 化히시는 平等
히신 慈 | 더욱 그지업스신 功德이 도의신 들 불기시니)

범용본에 표시된 어순은 언해본의 언해문에 반영된 한국어의 어순과 거의 일치한다. 어순 번호 1~3은 ‘· : :’의 점으로, 4는 ‘ : ’나 ‘四’로, 5와 6은 ‘五, 六’으로 표시하고⁶⁾ 7 이상은 표시하지 않았다.⁷⁾ 어순 표시를 할 만한 문장 성분이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 36]의 ‘五’처럼 글자와 글자를 잇는 붙임선을 사용하여⁸⁾ 번호 매기는 단위를 크게 하거나, [그림 37]처럼 점(· : : :)을 반복하는(즉, 번호를 다시 매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그림 37]처럼 동사(‘謂’)가 거느리는 문장 성분(‘攝善法戒와 攝衆生戒와 攝律儀戒’)이 길거나 복잡한 문장에서는 그 동사에 ‘上’을 기입하기도 하였다. 한문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지만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을 때에는 나중에 읽기 때문에, 석독구결의 독자는 동사가 거느리는 문장 성분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읽을 동사를 찾으려면 한참 위로 올라가야 하므로, 위에 있는 동사에 ‘上’이라는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범용본에서 이와 같은 ‘上’의 사례는 지금까지 13개가 관찰되었다. 그런데 제36장부터는 ‘上’이 예상되는 글자에 ‘下’가 기입된 것이 5개가 보인다. 여기서 ‘上’과 ‘下’가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편 동사에 ‘上’이나 ‘下’를 기입할 만한 환경에서 [그림 38]처럼 동사(‘不’)와 그것이 거느리는 문장 성분(‘是古非今하며 以人廢言’) 중 한국어로 읽을 때 마지막에 읽는 글자(‘廢’)에 나란히 어순 동그라미(○)를 그은 예도 있다. 이것은 앞의 동사에만 ‘上’이나 ‘下’를 표시

6) 한자에 어순 표시 번호를 붙이는 자리는 한자의 자형과 현토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결정되었다.



7) 이 자료에서 어순 표시 번호를 ‘六’까지만 사용한 데에는 구결자 ㄷ[디]의 자형이 숫자 ‘七’과 비슷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그림 34] 참조).
8) 붙임선의 모양은 한자들의 자획을 이어주는 짧은 선이 대부분인데 간혹 한자 전체를 관통하는 긴 선이 쓰이기도 하였다.

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한국어의 어순을 표시한다. 한문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어로 읽을 때는 ‘ㅇ’가 달린 글자끼리 바로 이어서 읽게 되는 것이다.⁹⁾

본고에서 다루는 법응본 권1은 이러한 어순 동그라미의 사례가 현재까지 [그림 38]의 예 하나만 관찰되었고 대부분 ‘上’이나 ‘下’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권2와 권3에서는 어순 동그라미의 사용례가 매우 많고, [그림 39]의 예처럼 구조가 복잡한 문장은 ‘ㅇ’로 표시한 부분보다 더 상위의 문장 층위 성분에 겹동그라미(8)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권2와 권3에서 ‘上’이나 ‘下’는 쓰이지 않은 듯하다.

앞서 ‘爲’자에 달린 해석토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응본에는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읽을 때 읽지 않는 글자임을 표시하는 부호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장경준(2019)에서는 부독자 표시 부호로 권1에는 ‘不’을 사용하고 권2, 권3에는 ‘|’을 사용하여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고 하였다.¹⁰⁾ 그런데 본 발표의 준비 과정에서 부독자 표시 부호 사용례 6개를 새로 발견하였는데, 놀랍게도 모두 권1의 앞부분에 부독표시선(|)이 기입된 것들이었다.¹¹⁾



[그림 40] 序:1ㄱ3



[그림 41] 1:2ㄴ6



[그림 42] 1:3ㄴ3



[그림 43] 1:3ㄴ8



[그림 44] 1:4ㄴ9

[그림 40] 언해본: 千經所演이 無^有餘乘호샤 (번역: 千經에 퍼샤미 너나몬 乘이 업스샤)

[그림 41] 언해본: 然이나 有^其志호고 無其才호야 (번역: 그러나 쁘든 잇고 적죄 업서)

[그림 42] 언해본: 而未^敢自許호노니 (번역: 내 許티 몬호노니)

[그림 43] 언해본: 如水 | 有宗호야 以會^{其支}派호니
(번역: 프리 물리 이서 가르를 모도호니)

[그림 44] 언해본: 自^餘廣引은 意皆懸敍一經本末이시니

(번역: 너나몬 너비 혀샤몬 쁘디 다 호 經入 本末을 미리 퍼시니)

위에서 부독자로 표시된 ‘有, 其, 敢, 其, 其, 自’들의 공통점은 해당 언해문에서 그 글자와 대응시킬 만한 마땅한 어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현토자가 원문의 한자와 언해문의 어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면밀히 고찰하면서 토를 달았음을 보여준다.

9) 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석독구결에 이와 비슷한 부호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에는 동사와 그 동사가 거느리는 문장 성분의 마지막 글자의 바깥-왼쪽-위(21위치)에 각필로 찍은 점이 있다(권인한 외 2018:118). 이것은 고려시대의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 보지 못한 것으로서 연구진이 ‘시작표시점’(동사에 찍힌 것)과 ‘끝표시점’(문장 성분에 찍힌 것)이라 불러보았다. 이것과 본고에 소개된 법응본의 어순 동그라미, 그리고 일찍이 안병희(1976:159)에 소개된 가람문고본 『口訣圖覺經』의 어순 동그라미들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어 흥미로운 비교 연구 대상이다.

10) 그리고 부독자 표시 부호 ‘不’와 ‘|’를 구분해서 부를 명칭이 필요한 경우 잠정적으로 ‘부독표시자’, ‘부독표시선’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11) 따라서 장경준(2019)의 기술은 “법응본 권1에서 제4장 이전에는 부독표시선(|)이 사용되고 제7장 이후에는 부독표시자(不)가 사용되었다.”라고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법응본 권1에 어순 동그라미가 제3장에서 유일하게 발견되고 어순 표시의 ‘上’이 제7장에서 처음 관찰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법응본에는 이 밖에 토의 교정, 주석의 지시, 한자의 성조나 한자음 표시 등을 위한 부호들이 사용되었다. 부호의 모양은 특히 동그라미가 애용되었는데, 이 책에 기입된 동그라미 중에는 그 기능을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기능이 분명한 부호의 몇 예를 아래 보인다.

(1) 토의 교정: 교정 동그라미, 교정선



[그림 45] 1:1ㄴ4



[그림 46] 1:2ㄴ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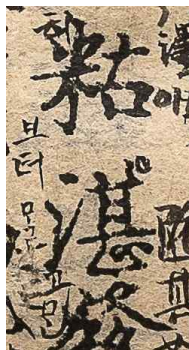


[그림 47] 1:31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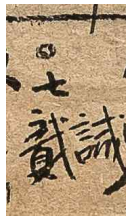


[그림 48] 1:23ㄴ2

(2) 주석의 지시: 주석 동그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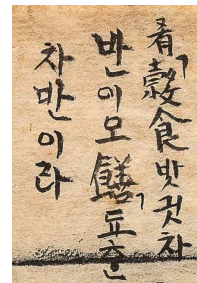
[그림 49] 1:6ㄱ6



난하



[그림 50] 1:18ㄴ9



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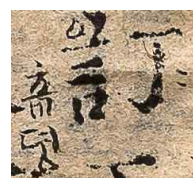
(3) 한자의 성조 및 한자음 표시: 성점 동그라미, ㄱ/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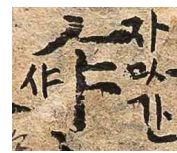
[그림 51] 序:1ㄴ5
(거성점)



[그림 52] 1:2ㄴ8
“고담”



[그림 53] 1:3ㄱ2
“음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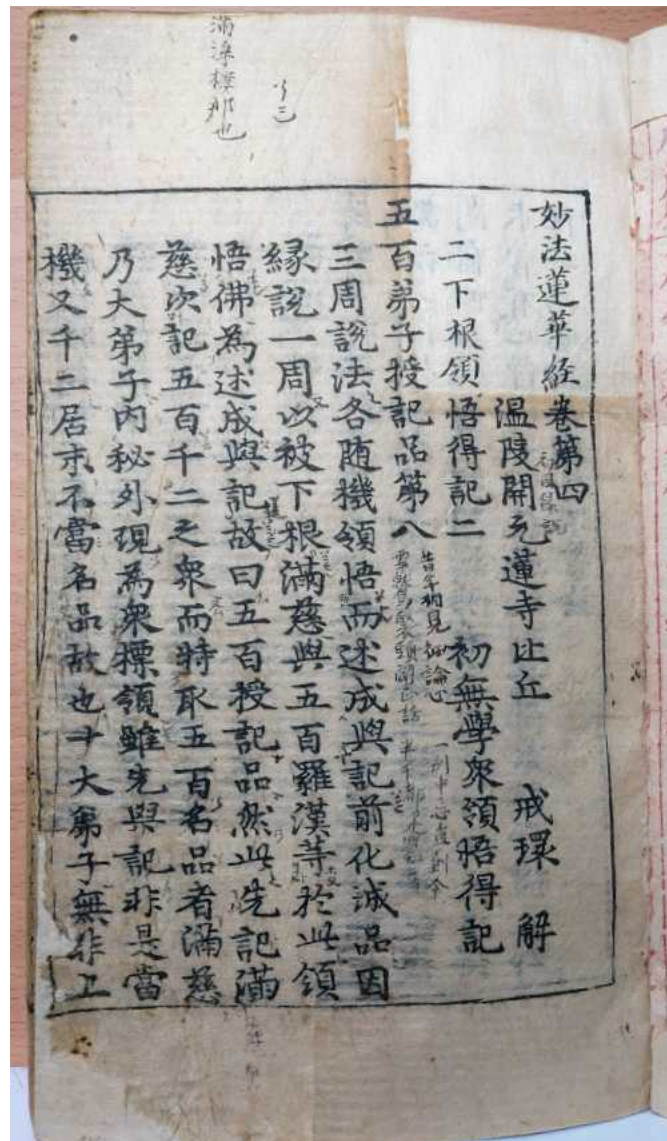


[그림 54] 1:35ㄱ6
“샤”(한자음 표시 부호 없음)

3. 영천본의 구결¹²⁾

3.1. 전반적인 소개

영천본은 1436년에 성달생서 『법화경』을 경상도 동화사에서 복각한 목판으로 찍은 책이다. 인쇄 상태로 보아 판각 후 머지 않은 시기에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¹³⁾



영천역사박물관 소장본 『법화경』 권4 제1장 앞면

12) 영천본은 작년 12월에 필자가 영천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열람하고 관장께 청하여 이번에 학계에 공개하는 책이다. 관장이신 지봉스님과 남애경 학예실장님의 큰 배려로 필자가 직접 학교 연구실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다. 귀중한 자료의 열람과 사진 촬영 및 공개까지 흔쾌히 허락해 주신 지봉스님과 남애경 학예실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3) 권4~권7의 한 책이다. 권4 제1~22장은 송진의 영향으로 훼손된 부분을 오리고 새 종이를 덧대면서 오려낸 자리의 원문과 구결을 모사해 넣었고, 권5 제33장은 동일한 장이 중복되었는데 두 장 모두 구결이 있다. 권6 제5장은 장 전체를 새 종이로 바꾸고 원문과 구결을 모사해 넣었다. 모사한 부분의 구결은 모두 음독구결이다. 책의 보수 과정에서 위아래를 잘라 난외의 주석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영천본도 여러 사람이 구결을 달았다. 음독토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입되었으나 해석토는 특히 계송 부분을 중심으로 달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음독토와 해석토의 필체가 다르고, 해석토 중에서도 굵고 진한 필체와 얇고 가는 필체가 섞여 있다. 이전의 토를 지우고 새로 기입한 경우도 간혹 보인다. 특히 [디], [로]를 적는 구결자로 ‘ㄷ’과 ‘ㄹ’이 우세하고 ‘ㅁ’과 ‘ㅇ’이 가끔 쓰였는데 현토자가 달랐던 듯하다. 새 종이를 덧대어 모사한 부분의 구결자 중에는 다른 부분에서 쓰이지 않은 이질적인 것들(예: 尹, 弋, 五)이 섞여 있다.¹⁴⁾

음독토는 범응본에 비해 언해본의 토를 충실히 따랐고 수정한 부분도 드물다. 해석토도 기본적으로 언해문을 참고하였으나 언해문과 다르거나 언해문에 없는 내용을 반영한 부분도 있다. 범응본처럼 현토자의 언어 지식과 표기 습관에 따라 언해본의 표기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좁은 의미의 구결자, 한글 자모, 한자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였는데 구체적인 모습은 범응본과 차이를 보인다.

그 밖에 기본적으로 어순 표시 부호와 읽지 않는 한자를 표시하는 부호가 사용되고 교정 부호, 주석의 지시, 한자 성조나 한자음 표기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모습은 범응본과 차이를 보인다.

※ 영천본에서 토를 수정하거나 언해본과 다른 내용이 기입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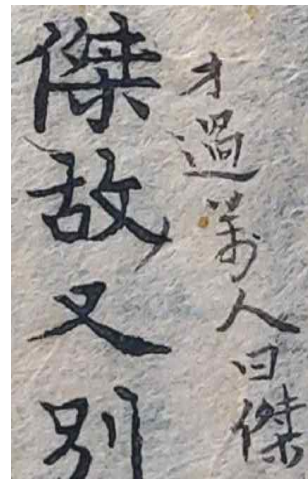
[그림 55] 4:4ㄴ4



[그림 56] 4:22ㄱ9



[그림 57] 4:10ㄴ2



[그림 58] 4:9ㄴ4

[그림 55] 언해본: 至毗舍浮 | 是也 | 시고 (번역: 毗舍浮에 니르리 이시고)

[그림 56] 언해본: 自受持讀誦으로 至舍掌恭敬은 (번역: 受持讀誦부터 舍掌恭敬에 니르린)

[그림 57] 언해본: 安隱天人히시리라 (번역: 天人을 便安케 히시리라)

[그림 58] 언해본 주석: 傑은 지죄 萬人에 더울씨라

[그림 55]는 ‘ㄷ’을 ‘ㄴ’으로 수정한 예이고, [그림 56, 57]은 각각 언해본에 없는 ‘ㄱ’, ‘ㅇ’ 1가ㄹ[한가로]를 추가한 예이고, [그림 58]은 언해문의 주석을 한문으로 적은 예이다.¹⁵⁾

14) 이것들은 본고의 구결자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3.2. 영천본 구결의 음독토

음독토 구결자 목록

ㄱ[가], 𐄀[거/커/게/케], 𐄁[고/코], 𐄂[과], 𐄃[ㄴ/은/논/문*], 𐄄[나], 𐄅[노/로], 𐄆(故)[로], 𐄇[니], 𐄈[ㄴ/ㄷ*], 𐄉[다], 𐄊[대/덴], 𐄋[더], 𐄌[덩], 𐄍[데], 𐄎[도], 𐄏[도], 𐄐[드], 𐄑[디/티], 𐄒[들/드/트/든*], 𐄓[딤], 𐄔[ㄹ/늘/를/으/물*], 𐄕[라], 𐄖[라], 𐄗[러/려], 𐄘[려], 𐄙[리], 𐄚[마/며*], 𐄛[며], 𐄜[면], 𐄝[미], 𐄞[ㄷ], 𐄟[ㄷ], 𐄠[ㄷ], 𐄡[사], 𐄢[셔], 𐄣[소], 𐄤[시], 𐄥[스/스/쓰/습], 𐄦[샤], 𐄧[습], 𐄨[ㄷ], 𐄩[아], 𐄪[아/애/어/에/여/], 𐄫[어/에], 𐄬[여/녀*], 𐄭[의/예*], 𐄮[오/노], 𐄯[오*], 𐄰[와/과], 𐄱[의], 𐄲[이/ㅣ/이/니*], 𐄳[저], 𐄴[저], 𐄵[하], 𐄶[호], 𐄷[히], 𐄸[히]

(총 59개)

(범응본과 같은 방식으로 2020. 2. 7. 현재 권4의 제31장까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임.)

(*는 이 자료의 특징 또는 오기로 보이는 것임.)

(자형이 같지만 바탕자가 다른 ‘ㄷ’[히]와 ‘ㄷ’[미]는 별개의 글자로 보고, 자형이 유사하고 바탕자가 같은 ‘ㄴ’과 ‘ㄷ’, ‘ㄷ’과 ‘ㅌ’는 같은 글자로 보았음.)

음독토의 현토 양상

- (1) 언해본의 구결과 대체로 일치하나 간혹 다른 경우가 있음. 15세기 이전의 어형을 반영하는 고형은 보이지 않음.
- (2) 기입된 토를 지우거나 수정한 곳이 더러 있음. 대체로 해석토의 현토자가 수정한 것으로 보임.
- (3) 언해본의 구결과 비교해 보면 대표음의 전용 현상이 관찰됨. 하지만 ‘ㄴ-’의 생략, ‘ㄷ-’와 ‘ㄴ-’의 대치, ‘ㄴ-’의 생략이나 추가 등은 거의 보이지 않아 언해본의 구결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음.

3.3. 영천본 구결의 해석토

3.3.1. 구결자의 사용

해석토 구결자 목록

(한글 자모만으로 된 것과 해당 언해문의 한자와 일치하는 것은 제외함.)

가. 좁은 의미의 구결자

𐄀[거], 𐄁[기], 𐄃[나], 𐄄[나], 𐄅[녀/려], 𐄆[노/로], 𐄇[ㄴ/논], 𐄉[다], 𐄋[도], 𐄑[디/띠/티/트], 𐄒[들/뜰], 𐄓[딤], 𐄔[ㄹ/을/을/를], 𐄖[라], 𐄗[러], 𐄘[려], 𐄙[로], 𐄚[로], 𐄛[리], 𐄜[마], 𐄞[물/ㅎ], 𐄝[미], 𐄟[미], 𐄟[미], 𐄠[사], 𐄢[샤/쌔/쌔], 𐄢[셔], 𐄤[시], 𐄥[쓰/쑈], 𐄪[아/야/애/에/예/옛*], 𐄬[예], 𐄮[오/노*], 𐄶[호/오/흠], 𐄱[의/의], 𐄲[이/ㅣ], 𐄳[티], 𐄷[히], 𐄸[히]

15) [그림 56]의 경우 원문의 ‘(自/從)~ 至~’ 구문이 언해문에서 ‘~부터 ~에 이르린’으로 번역된 문장은 구결이 ‘~로 ~힌’으로 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현토자가 해석토를 달면서 음독토 ‘ㄱ’에 ‘ㄱ’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38개)

(음독토의 구결자와 같은 방식으로 2020. 2. 7. 현재 권4의 제31장까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임.)

(음독토가 달리는 구결말에 해석토를 달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미 달려 있는 음독토와 동일한 해석토를 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구결말 해석토는 이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나. 좁은 의미의 구결자와 한글 자모를 조합하여 음절 단위로 표기한 구결자

(1) 말음이 ‘ㄱ’인 것: (미발견)

(2) 말음이 ‘ㄴ’인 것: (미발견)

(3) 말음이 ‘ㄷ’인 것:  [굴],  [들],  [믈],  [밀],  [믈],  [울],  [절],  [줄]

(4) 말음이 ‘ㄹ’인 것: (미발견)

※ 혼동할 만한 사례들:  [그러곤],  [오사매],  [다스로],  [너추레서]

다. 한자의 석독을 표시하기 위해 한자를 표의성을 유지한 채 구결자로 전용하거나 원문의 한자에 석독 말음표기를 한 경우.

(1) 석독표기 전용 한자:

如() [곤-], 又() [쏘], 身() [몸], 人() [사름]

(2) 석독 말음표기

- ① 1: 廣 1 [너븐], 高 1 [노푼], 異 1 [다룬], 惡 1 [모딘], 難 1 [어려운], 大 1 [큰]
- ② ㄴ: 今 ㄴ [오늘]
- ③ 女: 尙 女 [오히려], 猶 女 [오히려]
- ④ ㄴ: 況 ㄴ [흐믈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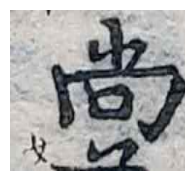
[그림 59] 4:6-78



[그림 60] 4:29-5



[그림 61] 4:18-75



[그림 62] 4:24-75



[그림 63] 4:23-72

[그림 59] 연해본: 報緣法衆이 其德이 皆類_ㄴ니라 (번역: 報緣엿 法衆이 그 德이 다 곶히니라)

[그림 60] 연해본: 必已_ㄴ有所處然後에사 (번역: 모로매 모미 處혼 디 이신 後에사)

[그림 61] 연해본: 如今_ㄴ所聞_ㄴ며 (번역: 오늘 듣즈옴 곶_ㄴ며)

[그림 62] 연해본: 佛尙_女尊之_ㄴ시면 (번역: 부터도 오히려 尊_ㄴ시면)

[그림 63] 연해본: 況_ㄴ於一經에 盡能受持_ㄴ면 (번역: 흐믈며 혼 經에 다 能히 受持_ㄴ면)

※ 영천본의 해석토는 음절의 받침이나 가운데 음절을 표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그림 64] 4:16L1

“업디”(어+ㅌ)



[그림 65] 4:23ㄱ1

“드월뜰”(드+외+ㅌ)



[그림 66] 4:16L2

“다오미”(ㅣ+ㅌ)



[그림 67] 4:8ㄱ9

“느외야”(느+야)



[그림 68] 4:23ㄱ3

“어엿비 너기논”(어+너+ㅌ)

※ 해석토의 어절 내부에서 ‘ㄱ’이나 ‘ㄴ’을 생략한 표기도 자주 쓰임.



[호믈],



[호믈],



[요믈],



[펴믈],



[호미니],



[샤믈],



[모로매],



[이썩녀]

※ 영천본의 ‘爲’자 석독 표기: “-이다”로 해석될 때 평성점까지 기입한 사례가 주목됨.



(1) “삼-”

[그림 69] 4:37ㄱ2



[그림 70] 4:30L5

(2) “爲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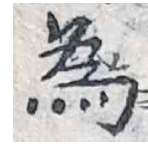


[그림 71] 4:41ㄱ3



(3) “드(외)-”

[그림 72] 4:34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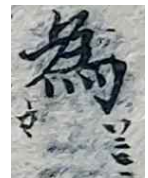


[그림 73] 4:26L9

(4) “땡(글)-”



[그림 74] 4:36ㄱ1



(5) “ㅎ음”

[그림 75] 4:46L8



(6) “-이다”

[그림 76] 4:16ㄱ5

[그림 74] 언해본: 琉璃爲地 ㅎ고 (번역: 琉璃로 짜 땡글오)

[그림 75] 언해본: 君遂無爲 ㅎ시니라 (번역: 님그미 ㅎ음 업스시니라)

[그림 76] 언해본: 爲由法音을 宣流也 라 (번역: 法音을 펴 흘린 다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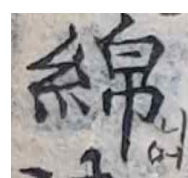
※ 해석토 현토자의 언어 지식과 관련된 단서: 15세기의 어휘와 표기에 서툴렀을 가능성.



[그림 77] 4:15ㄱ10



[그림 78] 4:23L4



[그림 79] 4:16ㄱ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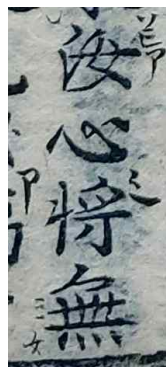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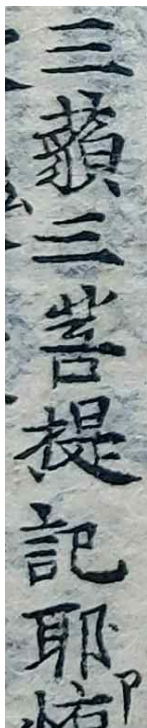
[그림 77] 언해본: 偏袒右肩호고 (번역: 올흔 엇게 **메왔고**)

[그림 78] 언해본: 毀譽在家出家에 讀誦法華經者호면 (번역: 在家 出家에 法華經 讀誦호릴 **혈면**)

[그림 79] 언해본: 由... 因力이 **綿**遠也 | 라 (번역: 因力이 **니** 먼 다시라)

3.3.2. 부호의 사용

영천본은 한국어 어순을 표시하기 위한 부호로 주로 어순점(· : : :)을 사용하고 한자숫자(四五六)나 불임선은 드물게 보인다. 법웅본에서 보았던 ‘上’이나 ‘下’, 어순 동그라미 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下”의 용례만 2번 관찰됨). 어순 번호의 위치도 (여러 글자를 묶어 하나의 번호로 매길 때) 법웅본은 대체로 첫 글자에 어순 번호를 달고 불임선을 사용하였으나, 영천본은 가운데나 마지막 글자에 찍은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불임선의 사용 빈도도 매우 낮다. 지금까지 어순 번호는 최대 6까지 발견되고, 어순점은 5개까지 발견되었다.



[그림 80] 4:56-5-6

[그림 81] 4:27-3-4

[그림 80] 언해본: 汝心에 將無**謂我** | 不說汝名호야 授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耶아

3 2 1

4 2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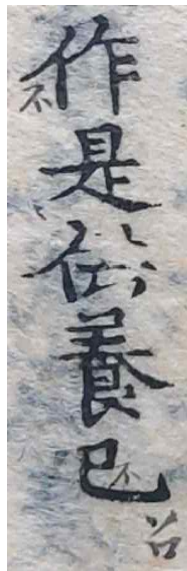
(번역: 네 므스매 내 네 일흔 닐어 阿耨多羅三藐三菩提 記 심기디 아니 흐느 가 너교 미 장 촉 업스 녀)
 1 2 3 4 1 2 3

[그림 81] 언해본: 若不能得見聞讀誦書持供養是法華經者

1 6 2 4 5 3
 (번역: 흐 다 가 能 히 이 法華經을 시러 보며 드러 닐그며 외오며 쓰며 디 니 며 供 養 몬 흐 느 닌)
 1 2 3 4 5 6

복잡한 문장에서는 [그림 80]의 경우처럼 상위문 성분의 2번과 하위문 성분의 1번이 바로 이어져 오해의 여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림 81]의 예처럼 중간에 문장 성분을 건너뛰면서 어순 번호를 이어달아 파악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 영천본의 부독자 표시 부호: 사용된 환경이 범응본과 거의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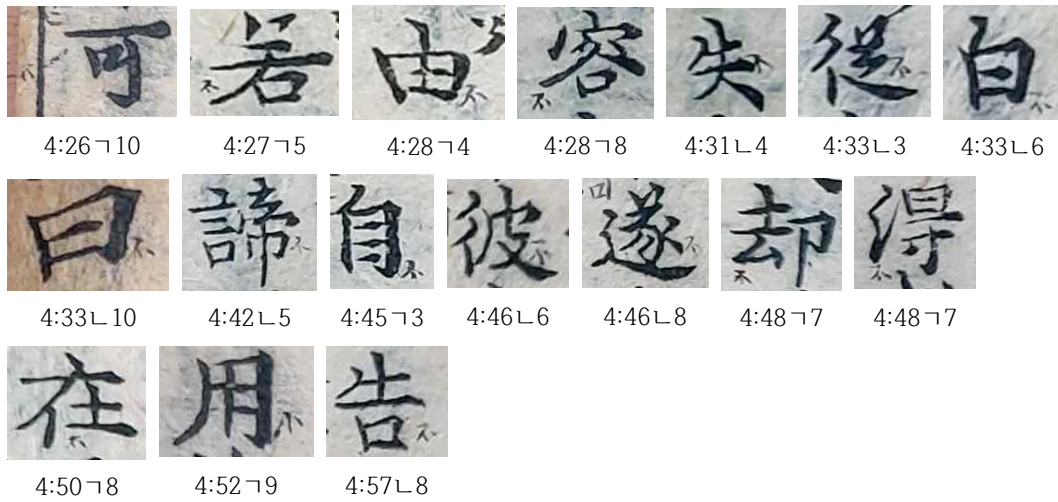


[그림 82] 4:10ㄱ6

[그림 82] 언해본: 作是供養已_하고 (번역: 이 供養_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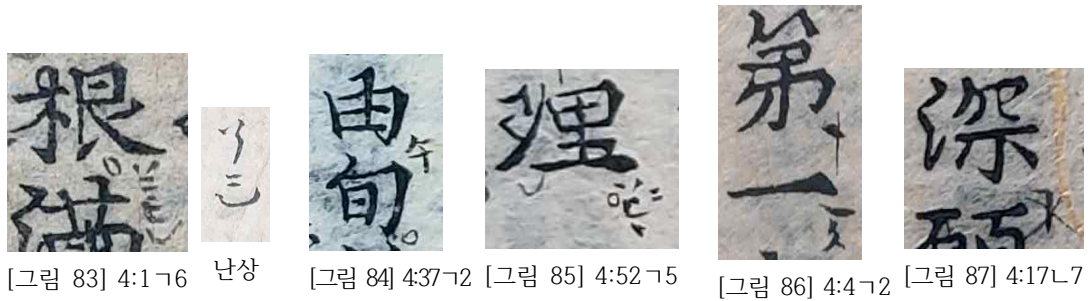
지금까지 관찰한 사례를 출현순으로, 한자별로 한 예씩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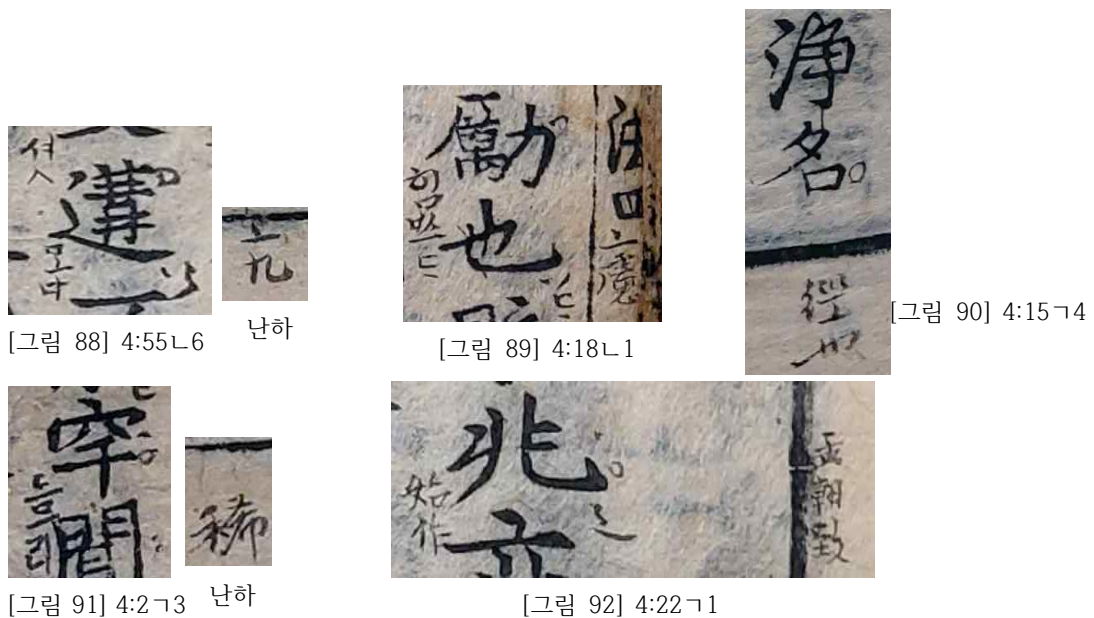


영천본에는 이 밖에 토의 교정, 주석의 지시, 한자의 성조나 한자음 표시 등을 위한 부호들이 사용되었고, 법응본에서 볼 수 없었던 경계선의 예도 보인다.

(1) 토의 교정: 교정 동그라미, 삭제선(|, ×)



(2) 주석의 지시: 주석 동그라미



(3) 한자의 성조 및 한자음 표시: 성점 동그라미, ㄴ/ㄹ/口/音



[그림 93] 4:43ㄱ4
(평성점)_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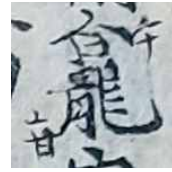
[그림 94] 4:43ㄴ10
(거성점)_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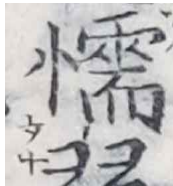
[그림 95] 4:29ㄱ3
(평성점)_이다



[그림 96] 4:34ㄱ2
(거성점)_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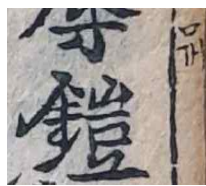
[그림 97] 4:32ㄴ3
“ㄴ 甘”



[그림 98] 4:53ㄱ7
“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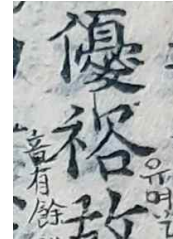
[그림 99] 4:59ㄱ8
“ㄴ 리”



[그림 100] 4:59ㄴ1
“口 개”



[그림 101] 4:59ㄱ9
“口 알”



[그림 102] 4:46ㄴ8
“音有餘”

(4) 경계선



[그림 103] 4:27ㄱ6

[그림 103] 언해본: 不須復安舍利尼
(번역: 구획여 다시 舍利 두디 마를떠니)

4. 맺음말



하나라고야시늘

- * 범응본과 영천본 모두 15세기 간본이나 해석토는 그보다 후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 * 언해본이 범화경의 현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나 전적인 것은 아니었다.
- * 현토자는 구결자와 한글을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개인적인 표기 습관을 많이 반영하였다.
- * 현토자에 따라 어순 표시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 * 현토자가 다름에도 부독자 표시는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 * 그 밖의 부호 사용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범응본 1:29ㄱ5) (언해본 1:121 집자)

참고문헌

- 권인한 외(2018),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 김주원(1997), 『『緇門警訓』(石崙菴本)의 기입토에 나타난 16세기 경상도 방언』, 『구결연구』 2, 구결학회, 265-289.
- 김지오(2005), 「<法華經> 권3 音讀口訣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경란(2002), 「<법화경> 이본의 입결 연구 -영남대학교 소장본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연구』 21, 언어학회, 1-12.
- 남경란(2005), 『麗末鮮初 音讀 입결(口訣)의 綜合的 考察』, 경인문화사.
- 남경란(2009), 『麗末鮮初 音讀 입결(口訣) 字形과 機能의 通時的 研究』, 경인문화사.
- 남권희(1998), 「고려말에서 조선중기까지의 구결자료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도서관학논집) 27,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85-572.
- 남권희(1999), 「조선 중기부터 구한말까지의 구결 자료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연구』 18, 445-519.
- 남풍현(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研究(其一)」, 『동양학』 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07-137.
- 남풍현(1990), 「高麗末 · 朝鮮初期의 口訣 研究」,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75-101.
- 남풍현(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태학사.
- 심재기(1976), 「장곡사 법화경의 구결」, 『미술자료』 19, 국립중앙박물관, 40-50.
- 법응 편(2018), 「묘법연화경」(영인), 구결학회 배포(미간행).
- 안병희(1976), 「구결과 한문 훈독에 대하여」, 『진단학보』 76, 진단학회, 143-162.
- 안병희(1977), 『中世國語口訣의 研究』, 일지사.
- 유탉일(1977), 「선초문헌에 쓰여진 불가구결」, 『荷西金鍾雨博士 華甲記念論叢』.
- 이승재(1993), 「여말선초의 구결 자료」, 『진단학보』 76, 진단학회, 143-162.
- 이전경(2002), 「15세기 불경의 구결 표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전경(2012), 「『爲』자에 현토된 석독표기자와 그 해독」, 『구결연구』 28, 구결학회, 165-189.
- 장경준(2019), 「법응스님 소장 <법화경> 구결에 표시된 부독자(不讀字)」, 『한국어학』 84, 한국어학회, 91-134.
- 홍윤표(1986), 「근대국어 생획토에 대한 연구」, 『東泉趙健相先生 古稀記念論叢』, 형설출판사.
- 藤本幸夫(1993), 「한국의 훈독에 대하여」,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南明泉和尚頌證道歌』 구결 연구

-종진스님 구장본과 대성암 소장본의 구결을 중심으로-

金星周(동국대)

1. 서론

唐의 현각스님(665~713)은 육조 혜능대사를 만나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인가 받고 하룻밤을 머문 뒤 永嘉縣으로 돌아와서 깨달은 내용을 『證道歌』를 지어 노래한다. 『증도가』는 이후 여러 사람에게 脚光을 받으면서 많은 주석서가 나오는데, 그 중 ①淨居註, ②彦琪註, ③南明頌, ④宏德註가 4대 주석서로서 알려져 있다.

宋의 南明泉¹⁾ 화상이 지은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이후 『남명계송』이라 함)는 영가 대사 현각이 지은 『증도가』 269編 가운데 7言은 첫 句로 삼아 7言 세 구를 더 달아 4句 한 編으로 만들고, 6言은 3言으로 쪼개어 3言에 3言을 달아 첫 句를 만들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7言 세 구를 달아 한 편으로 만들어 총 320編을 노래한 것이다.²⁾³⁾

이 글에서 다루는 문헌은 영가 현각대사의 『증도가』의 각 구절에 남명천 화상이 노래를 이어붙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이다. 이 문헌은 최이의 발문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가장 이른 시기의 활자본을 번각한 문헌임을 알 수 있다. 이 활자본의 복각본은 ①종진스님 구장본, ②대성암 소장본, ③삼성출판사 소장본, ④김병구 소장본 등 현재 총 4권이 전한다. 이 중 종진스님 구장본, 대성암 소장본, 김병구 소장본이 구결이 현토되어 있으며, 종진스님 구장본과 대성암 소장본이 좀 더 이른 시기의 구결을 갖고 있다.⁴⁾

이 중에서 이 글은 종진스님 구장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구결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201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直指보다 이른 고려금속활자로서 證道歌字 논의가 활발하며, 또 이 글에서도 간접적으로 다루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대성암 소장본(공인박물관 소장본)이니 활자본의 번각본이 아니라 금속활자 인출본이라는 주장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이 문헌에 대해서는 서지학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헌이라는 점도 밝혀 둔다.

- 1) 南明스님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전’으로 불려왔으나 요즈음은 ‘천’으로 통용되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현재 많이 통용되고 있는 독음인 ‘천’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렇지만 ‘十方’의 독음으로 ‘시방’이 인정되듯이 불교의 전통음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밝혀 둔다.
- 2) 영가 대사 증도가에서 6言은 전체 267句 가운데 52句이며 남명천 선사는 이에 다시 3言을 붙여 1句로 읊은 것이다.
- 3) 연해본인 『남명집연해』를 포함하여 고려시대 목판 복각본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320편이 아니라 319편이다. 이것은 원래 『증도가』의 “法東流” 구절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원이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CBETA의 『남명계송』의 모본인 卍續藏經 65冊의 『證道歌頌』에서도 원래 『남명계송』에서 “法東流”로 시작해야 할 제208편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 4) 김병구 소장본에 기입된 구결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는데, 이 문헌에 기입된 구결은 대체로 『남명집연해』의 한글구결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 문헌은 연해문을 좌초에 기입하여 소위 석독구결식 한글좌초구결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 5) 필자는 대성암 소장본의 구결에 대해서는 2015년 3월에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구두로 발표한 적이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기입된 구결에 대한 논의는 박희숙(1978), 김두찬(1987), 남권희(2012), 민현주(2012, 2013)의 선행 연구가 있다.

2. 서지

현재 전하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의 번각본들이거나 번각본의 복각본들이다. 주요한 문헌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가. 종진스님 구장본(대구 개인사찰 소장본)

나. 대성암 소장본(공인박물관 소장본, 구 안동본, 구 박동섭 소장본)

다.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보물 758-1호)

라. 김병구 소장본(대구 개인 소장본)

마. 기타: 文殊寺 간행본(10행 19자본)(남권희 2012, 민현주 2012, 2013), 龍藏寺 간행본(9행 19자본)(김성주 2015)

필자는 (1나)의 대성암본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에 대해서 실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이 글의 주 대상인 (1가)의 종진스님 구장본을 실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형태 서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가)는 조계종 법계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종진스님이 구장하였던 문헌으로 현재는 대구의 개인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가~라)에 제시한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주자본을 1239년에 번각한 목판본으로서 이 책에는 吳庸 天用의 序文(1077년), 祝況의 後序(1076년), 崔怡의 鑄字本 重彫 기록(1239년) 등이 있다.

이 중 최이의 주자본 중조 기록은 이 글의 주요 대상인 (1가)의 종진스님 구장본에 구결이 현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2) 崔怡의 鑄字本 重彫 기록: 夫南明證道歌者_ㄱ 實禪門之樞要也_ㄴ、故後學參禪之流_ㄷ 莫不由斯而入升堂觀奧矣_ㄹ 然則其可閑塞而不傳通乎_ㅁ 於是募工重彫鑄字本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晉陽公崔 怡 謹誌

종진스님 구장본을 포함하여 (1가~라)에 제시된 번각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 실린 천혜봉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천혜봉 1996 인용).

(3) 가. 글줄이 곧바르지 않고 좌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 빼뿔뿔하다.

나. 글줄에서 글자가 유달리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지거나 쏠린 것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다. 글줄에서 글자의 아래 획과 위 획이 서로 닿거나 엇물린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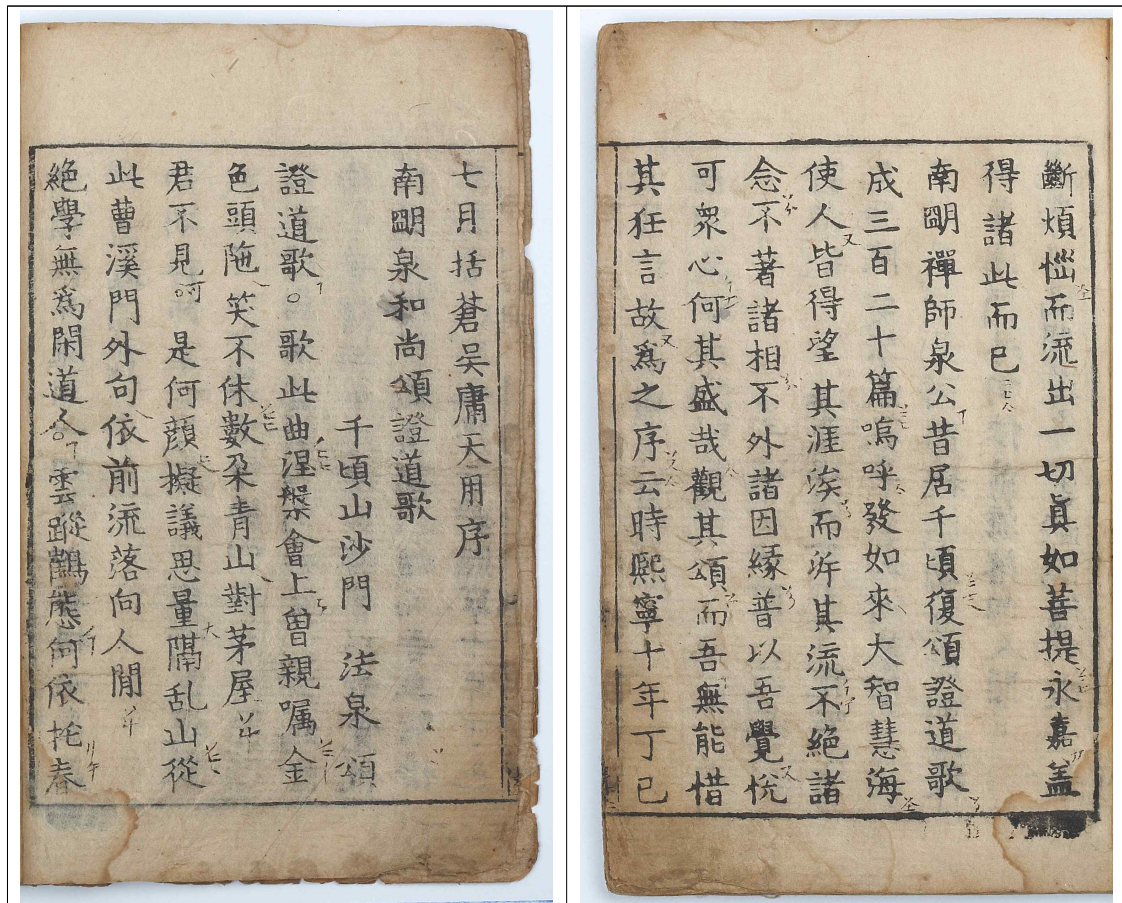
라. 한 판의 동일한 글자에 똑같은 꼴과 크기의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글자모양은 비교적 정연한 편이다.

(3가~다)를 통해서 이 문헌들이 주자본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번각 목판본임은 활자의 나뭇결, 획의 굵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라)를 통해서 이 문헌들의 모본인 고려시대 활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활자는 조선 초기 활자처럼 鑄物沙 주조

방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蜜蠟 주조법에 의한 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마)에 제시된 文殊寺 간행본은 1424년에 간행된 문헌으로 10행 19자본이며(남권희 2012), 龍藏寺 간행본은 1432년에 간행된 문헌으로 9행 19자본이다(김성주 2015).





<그림 1. 종진스님 구장본과 대성암 소장본(2ㄴ, 3ㄱ)>

3. 종진스님 구장본 구결의 특징

남풍현(1990)은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구결자료집의 소곡본 『능엄경』, 남권희본 『능엄경』, 송성문본 『능엄경』을 대상으로 여말선초 음독구결에 논의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4) 가. 비교적 많은 수의 구결자가 있다.
 - 나. 구결자의 자형으로 正字 구결과 略體 구결이 쓰인다.
 - 다. 동일 음상을 나타내는 복수의 구결자가 있다.
 - 라. 구결자를 동일한 한자의 변에서도, 또 방에서도 각각 따오는 경우가 있다.
 - 마. 대체로 구형의 구결자가 쓰인다.(예. ㅅ>ㅆ, ㅈ>ㅊ 등)
 - 바. 借字의 運用에서 생략 표기, 말음의 첨기, 대표음의 전용 현상이 두드러진다.

아래에서는 종진스님 구장본에 기입된 구결의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종진스님 구장본(개인 사찰소장본) 구결자 목록은 아래와 같다.⁶⁾ 필자는 종진스님

6) 구결자의 관독할 때 민현주(2012, 2013)에서 제시한 구결자 목록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구장본에 기입된 구결 중 아직 판독을 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다. 정확한 구결자의 개수는 판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 파악한 구결자 수는 총 67개이다.⁷⁾

(5) 종진스님 구장본 『남명천화상종증도가』의 구결자 목록

가	可	거	去/去	고	口	과	人
기	十	ㄴ	ㄱ	ㄴ	ㄷ	닐	斤
나	乃	노	又	니	ヒ/尼	ㄷ/돌	入/月/木
더	ム	다	一	대	大	더	ㄱ/丁
도	ヲ/刀 ⁸⁾	두	ㄷ	디	矢/土	ㄷ	ㄷ
라	入/レ	로	...	룩	衆	리	ㄷ/牙/禾/里
마	マ/广	며	久/分	면	ㄴ	뵈	火
사	七	스	土	사	ㄷ	샤	入/金/舍
시	二/尸	아	ㄷ	애	厓	어	入
여	ㄷ/ㄷ	오	午/五	와	ト	의	ㄷ
이	ㄷ/ㄷ ⁹⁾	인	印	저	尺	ㅎ	ㄷ/ㄷ ¹⁰⁾
호	ノ/戸	히	ㅎ				

(5)에 제시된 구결자 중 동일한 음상에 대해 복수 구결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로는 [거] 去/去, [니] ヒ/尼, [ㄷ] 入/月/木, [더] ㄱ/丁, [도] ヲ/刀, [디] 矢/土, [리] ㄷ/牙/禾/里, [마] マ/广, [며] 久/分, [샤] 入/金/舍, [여] ㄷ/ㄷ, [오] 午/五, [이] ㄷ/ㄷ 등이 있다. 이 중 [리]에 대해서는 무려 ‘ㄷ, 牙, 禾, 里’ 등 무려 4개의 구결자가 쓰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ㄷ’와 ‘里’는 가끔 쓰였으며 ‘牙’는 전반부에서 많이 쓰이고, ‘禾’는 후반부에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구결자의 자형과 관련해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며’의 음상을 가지고 있는 ‘分’과 ‘久’이다. 고려시대 석독구결이나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음독구결은 ‘分’로 표기되고 상대적으로 후대의 구결은 ‘久’로 표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 중에는 연구대상본인 종진스님 구장본 『남명계송』과 비슷하게 ‘分’과 ‘久’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문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며’를 표현한 구결자가 ‘分’인지 아니면 ‘久’인지 쉽게 판독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바로 종진스님 구장본이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¹¹⁾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주격조사 ‘이’ 표기에 사용되는 ‘ㄷ’과 ‘ㄷ’를 들 수 있다. 이들 구결은 대체로 이른 시기의 구결 자료에서는 ‘ㄷ’가 기입되고 상대적으로 후대의 구결에서는 ‘ㄷ’가 기입되는데, 과도기의 구결 자료에서는 ‘이’의 표기에 ‘ㄷ’와 ‘ㄷ’가 섞여 나오는데, 종진스님 구장본이 바로 이런 구결자료에 속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종진스님 구장본에 현

7) 구결자의 개수는 제시된 구결자의 자형에 기준을 두었다. 주지하다시피 구결자의 개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8) ‘도’를 나타내는 두 개의 구결자 ‘ヲ’와 ‘刀’는 유사한 자형으로 이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로’를 나타내는 두 개의 구결자 ‘...

9) 민현주(2012)의 사찰개인소장본 구결자 문치 목록에서 ‘去ㄷㄱ丁’을 ‘거리혼덩’으로 읽고 있으나 이 구결자 문치는 ‘개혼덩’으로 읽는 것이 맞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구결자로 ‘ㄷ’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10) 실제 자형은 우상에서 좌하로 평형하게 뺀 짧은 쌍선이다.

11) ‘分’의 자형은 “不除妄想ㄷ分(#004<3>)” 등에서 볼 수 있다.

토된 구결 중에서 ‘증도가’ 구절에 사용된 ‘이’는 주로 ‘ㄷ’이 기입되고, ‘남명계송’ 구절에 사용된 ‘이’ 표기에는 ‘ㄴ’이 사용되고, ‘증도가’ 구절의 좌토와 우토가 있을 경우 좌토에는 ‘ㄷ’이 우토에는 ‘ㄴ’이 기입되는 경우가 있다(예. 相誑惑ㄷㅅㅅ/ㄴㅅㅅ(#202<27ㄴ>)).

종진스님 구장본에서 ‘ㄷ/들’의 표기에는 ‘ㄴ, ㅅ, ㅈ’이 쓰인다. ‘ㄴ’이 가장 흔하게 쓰이며, ‘ㅅ’는 간혹 쓰이며, ‘ㅈ’는 ‘ㄷ’의 표기에도 쓰이지만 주로 ‘들’의 표기에 쓰인다(예. 五葉花開ㄴㅅㅅ(#208<28ㄴ>, 須知不易觀ㄴㅅㅅㅅㅅ(#220<30ㄴ>)).

종진스님 구장본에 현토된 구결은 말음첨기 표기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음독구결 자료에서 말음첨기 표기를 볼 수 있다(남풍현 1990). “決定說ㄷㅅㅅ(#036<7ㄴ>), “直截根源ㅅㅅ(#039<7ㄴ>), “佛所印ㅅㅅ(#039<7ㄴ>)” 등에서 ‘ㄷㅅㅅ, ㅅㅅ, ㅅㅅ’ 등은 각각 선행 한자인 ‘說, 源, 印’의 발음을 표기한 것이다. 즉 이들을 발음 첨기하지 않은 한글구결로 표시하면 각각 ‘決定說은, 直截根源은, 佛所印이니’가 될 것이다. 그런데 “摘葉尋枝ㅅㅅ(#040<7ㄴ>)”와 같이 ‘ㅅㅅ’이 기입되었더라도 말음첨기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때의 ‘ㅅㅅ’은 ‘ㄴ’을 선행 한자음과는 관계 없이 ‘ㄴ’을 표기한 것이다.

‘證道歌’ 구절에서는 정상적인 우토와 함께 좌토도 기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증도가’ 구절에 기입된 우토의 특징은 ‘증도가’ 구절을 남명천 화상의 계송과 따로 떼 내어 취급한다는 인상을 준다. 반면에 ‘증도가’ 구절의 좌토는 ‘증도가’와 ‘남명계송’의 구분 없이 하나의 완성된 노래로 다루어 현토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예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6) 가. 證道歌①ㄴㅅㅅ/②ㅅㅅ 12) ○13) 歌此曲ㄴㅅㅅ 涅槃會上ㄴ 曾親囑ㄴㅅㅅ 金色頭陀ㄴ 笑不休ㄴㅅㅅ 數朵青山ㄴ 對茅屋ㄴㅅㅅ 4) (#001<2ㄴ>)14)

나. 幻化空身ㄴ 卽法身①ㄴㅅㅅ/②ㅅㅅ ○ 若了法身ㅅㅅ 無內外ㅅㅅ 疥狗泥猪ㄴ 却共知ㄴㅅㅅㅅㅅ 三世如來ㅅㅅ 曾不會ㄴㅅㅅ(#006<3ㄴ>)

다. 刹那ㄴ 滅却阿鼻業①ㅅㅅㅅㅅ/②ㅅㅅ ○ 休言善惡ㄴ 不同途ㄴㅅㅅ 須知罪性ㄴ 猶霜雪ㄴ 慧日ㄴ 才昇ㄴㅅㅅㅅㅅ 一點ㄴ 無ㄴㅅㅅ(#013<4ㄴ>)

라. 寂滅性中ㅅㅅ 莫問覓①ㅅㅅㅅㅅ/②ㅅㅅㅅㅅ ○ 坐斷千峯ㅅㅅ 過者難15) 莫訝空堂ㄴ 無客到ㄴㅅㅅㅅㅅ 從來ㅅㅅ 不許外人看???(#023<5ㄴ>)

(6가~라)에 제시된 남명계송 구절에서 ‘○’을 기준으로 좌측은 원래 영가 현각스님이 읊었던 ‘증도가’ 구절이고, 우측은 남명천 선사가 이어스 읊은 남명계송 부분인데 종진스님 구장본에는 원래의 증도가 구절에는 좌토와 우토가 기입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입된 좌토는 (6가)의 ‘證道歌ㄴㅅㅅ’, (6나)의 ‘卽法身ㄴㅅㅅ’, (6다)의 ‘滅却阿鼻業ㅅㅅㅅㅅ’, (6라)의 ‘莫問覓ㅅㅅㅅㅅ’와 같이 대부분 이 구절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비해서 우토들은 (6가)의 ‘證道歌ㅅㅅ’, (6나)의 ‘卽法身ㅅㅅ’, (6다)의 ‘滅却阿鼻業ㅅㅅ’, (6라)의 ‘莫問覓ㅅㅅㅅㅅ’와 같이 대부분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남명계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6가)에서 보면 ‘증도가’ 구절을 좌토로 읽은 ‘證道歌ㄴㅅㅅ 歌此曲ㄴㅅㅅ 涅槃會上ㄴ 曾親囑ㄴㅅㅅ 金色頭陀ㄴ 笑不休ㄴㅅㅅ 數朵青山ㄴ 對茅屋ㄴㅅㅅ 4)’보다는 우토로 읽은 ‘證道

12) 종진스님 구장본에서 ‘/’을 기준으로 좌측은 우토, 우측은 좌토를 가리킨다. ‘/’가 없는 것은 우토만 현토된 경우이다.

13) ‘증도가’와 ‘남명계송’을 구분하기 위하여 ‘○’으로 구분하였다. 실제로 대성암 소장본에는 이런 점이 표시되어 있다.

14) 남명계송 구절은 “#일련번호”와 이 구절이 속하는 면수로 표시하였다.

15) 종이가 훼손되어서 보이지 않음

歌 7 歌此曲ノヒヒ 涅槃會上 曾親囑フニ 金色頭陀、笑不休フニ 數朶青山、對茅屋
ノ下ニ'이 훨씬 더 앞 구절과 뒤 구절의 연결이 긴밀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김동소 역주(2002) 『(역주)남명집언해 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두찬(1987)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김성주(2015) 『南明泉和尚頌證道歌』대성암 소장본의 구결 연구- 구결의 기입 시기를 중심으로 -, 보조사상연구원 2015년 3월 월례학술대회 발표문.
- 남경란(2005) 『여말선초 음독 입꺄(口訣)의 종합적 고찰』 경인문화사.
- 남경란(2009) 『여말선초 음독 입꺄(口訣) 자형과 기능의 통시적 고찰』, 경인문화사.
- 南權熙(2010) 證道歌字의 발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연구, 『서지학보』 36, 한국서지학회, 5-84쪽.
- 南權熙(2012) 구결본 <南明泉和尚頌證道歌 ; 증도가>의 서지적 고찰,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남풍현(1990)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研究 : 楞嚴經 記入吐의 表記法을 中心으로, 『震檀學報』 69, 진단학회, 75-101쪽.
- 南豐鉉(2010) 韓國語史 研究에 있어 口訣資料의 寄與에 대하여, 『口訣研究』 25, 구결학회, 5-20쪽.
- 무비(2014) 『(무비 스님의)증도가 강의』 조계종출판사.
- 민현주(2012)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구결 자료에 대하여, 『한국말글학』 29, 한국말글학회, 31-53쪽.
- 민현주(2013) 『證道歌』 이본의 입꺄(口訣) 연구, 『한국말글학』 30, 한국말글학회, 49-65쪽.
- 박부자(2000) 정문연본 『永嘉證道歌』의 구결에 대하여, 『口訣研究』 6, 구결학회, 135-170쪽.
- 박종국(1988) 남명집언해(南明集諺解) 해제(解題), 『세종학연구』 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81-85(5쪽).
- 朴喜淑(1978) 南明泉和尚頌證道歌에 보이는 口訣, 『論文集』 6, pp.53-67.
- 瑞龍 連 저/성재현 역(2018) 『남명친화상송증도각사실』 동국대학교출판부.
- 이유기 역주(2002) 『(역주)남명집언해』 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전경(2002) 15세기 불경의 구결 표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창안(李昌案) (2016) 『증도가(證道歌)』의 선사상(禪思想)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0, 원불교사상연구원, 209-238쪽.
- 정우영(2002) 『南明集諺解』의 음운표기법과 어휘, 『불교어문논집』 7, 한국불교어문학회,

79-109쪽.

조명제(2017) 고려 후기 공안선의 수용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 『불교학연구』 50, 불교학연구회, 119-143쪽.

천혜봉(1988) 高麗鑄字版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重彫本에 대하여, 『圖書館學』 15, 한국도서관학회, 267-280쪽.

<참고 1> 吳庸 天用의 序

<대성암본> 我聞ノ、如來 善護念諸菩薩ノ全ム 以心又ソコス(?) 善付囑諸菩薩ノ全ム 以法又ソ全ヲ入
心之所示ヲ 言所不能該久¹⁶⁾ 法之所傳ヲ 意所不能盡、ヒ 卽言 卽意、カ 皆諸妄想久 離言意者カ 亦
復如是ハ

<김병구본>¹⁷⁾ 我聞(즈)ノヒ 如來 善護念諸菩薩ノヘム 以心ソコス 善付囑諸菩薩ノヘム 以法ソコヒ 心之
所(1)示(시)는 言(리)所不(毛)能該久 法之所(1)傳(히 시는) 意(리)所不(毛)能盡(다)ヒ 卽(스)言(乙) 卽(스)意、 皆
諸妄想(1)久 離(히)言(ト)意(ホ)者カ 亦復如是ソヒ、

<한글구결> 我聞히니 如來 | 善護念諸菩薩히샤디 以心으로히시며 善付囑諸菩薩히샤디 以法으로히시
니 心之所示는 言所不能該히니 法之所傳 意所不能盡 卽言히며 卽意히미 皆諸妄想이며 離言意者라도
亦復如是히니라

<언해문> <南明序1a> 내 듣조오니 如來 | 諸菩薩을 이대 護念히샤디 므스므로 히시며 諸菩薩을 이
대 付囑히샤디 法으로 히시니 므스 빤히는 바는 마리 能히 다오디 못히는니 말 卽히며 뜯 卽히미 다
妄想이며 말와 뜯과 여히여도 또 이 곧히니라 [卽은 가져서 히닷 마리라]

<종진스님 구장본> 낙장

<대성암본> 不卽不離、 種種平等、 不墮於無、 不麗於有、 言意、 兩忘、 而心法 得矣、

<김병구본> 不(아/스)卽(다)不(아)離(다) 種種、 平(1)等(1) 不墮於無(3) 不麗¹⁸⁾於有(3) 言(ト)
意(ホ) 兩(番)忘、 而心(1)法(1) 得矣、

<한글구결> (不卽不離히야 種種平等히야) 不墮於無히며 不麗於有히야 言意를 兩忘히야사 而心法을 得
矣리라

<언해문> <南明序1b> ○ 卽디 아니며 여히디 아니히야 種種이 平等히야 無에 디디 아니히며 有에
블디 아니히야 말와 뜯과 들흘 니저사 心法을 得히리라

<종진스님 구장본> 낙장

<대성암본> 夫法本無爲今、 對境、 而立、 心非有相、 隨物而現、 故又 前際不來、
後際不去、¹⁹⁾ <1> 其於今也、 如轉輪、 如流水、 不流不轉、 而亦不住、 不住則無
在也、 無在而無不在、²⁰⁾ 是真常住者也、

<김병구본> 夫法(1)本無(2)爲(爲)今、 對(3)境(乙) 而立、 心(1)非有相、 隨物(乙)而現、 故又 前際²¹⁾不
來、 後際²²⁾不去、 其於今也、 如轉(우?)輪、 如流(는)水、 不(스)流(다)不轉、 而亦不住、 不
(7?)住則無在(ホ)也、 無在(ホ)而無不(아/ホ)在(?)、 是真(는)常(는)住(는)者(는)也、

<한글구결> 夫法本無爲라 對境而立히며 心非有相이라 隨物而現히는니 故로 前際不來히며 後際不去히
며 其於今에도 如轉輪히며 如流水호디 不流不轉히며 而亦不住히니 不住則無在也 | 니 無在而無不在
| 是真常住者也 | 니라

<언해문> 法이本來 히욘 업손 디라 境을 對히야 셔며 므스미 相 잇는 디 아니라 物을 조차 난는니

16) [며]의 자형이 >久 과도기적 자형으로 보인다.

17) <김병구본>은 한글 세필로 한자의 독법이나 구결이 석독구결의 체계와 유사하게 달려 있다. 이런 유형의 구결 자료는 한글 언해본의 한글 언해문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언해문을 이용하여 석독구결의 독법에 맞게 기입한 것으로 ‘원각사본 능엄경, 보물 제1153호 법화경’ 등 구결 문헌에서 더러 볼 수 있다.

18) ‘麗’에 좌토가 기입되어 있고 ‘、’가 보이는 것 같으나 판독이 불가능하다.

19) 난하의 ‘、’처럼 보이는 구결자 우측에도 묵서가 있다.

20) 원본 확인 요. ‘、?’는 [無在而無不在]를 명사절로 만드는 구결자일 가능성이 있다.

21) 계선 밖에 2글자가 기입되어 있으나 판독이 불가능하다. ‘過去’일 가능성이 있다.

22) 계선 밖에 2글자가 기입되어 있다. ‘未來’로 보인다.

23) 언해문을 참고하면 여기에는 ‘디’가 기입될 자리인데 ‘7’가 기입되어 있다. ‘不’에 기입되는 특정부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럴시 前際에 오디 아니흐며 後際に 가디 아니흐며 그 이제도 그우는 술위 <南明序2a> 곧흐며 흐르는 물 곧호디 흐르디 아니흐며 그우디 아니흐며 또 住티 아니흐니 住티 아니흐면 이슌 업스며 잇디 아니홈 업소미 이 眞實스 상네 住호미니라 [前際は 過去]오 後際は 未來라]

<종진스님 구장본> 낙장

<대성암본> 而昧者₁ 不知₂ 乃以色₃ 見如來₄ 以音聲₅ 求如來₆ 豈不謬哉₇

<김병구본> 而昧_(줄₁)者_(사) 不知₂ 乃以色₃ 見如來₄ 以音聲₅ 求如來₆ 豈不謬_(외디)哉₇

<한글구결> 而昧者₁ 不知₂야 乃以色₃로 見如來₄흐며 以音聲₅로 求如來₆흐느니 豈不謬哉₇리오

<언해문> ○ 아줄흔 사르미 아디 몰흐야 色₃으로 如來₄를 보스오며 音聲₅으로 如來₆를 求₇흐느니 엇데 외디 아니흐리오

<종진스님 구장본> 낙장

<대성암본> 永嘉禪師 證道歌₁ 其深於道矣₂ 然乃 道無所事於證也₃ 而永嘉₄ 方且嘵嘵₅ 而與俗₆ 辯者₇ 彼豈累於言意爲哉₈

<김병구본> ○永嘉₂₄禪師₇ 證道歌₁ 其深於道₍₃₎矣₂ 然乃 道₁ 無所₍₂₎事₍₂₎於證₍₃₎也₄ 而永嘉₅ 方_(보/又)且嘵嘵_(들애사) 而與俗_(터브러 니샤미₂₅) 辯者₇ 彼_(테)豈₍₂₎累_(저쳐 2미 아니시리₇)於言₍₁₎意₍₃₎爲哉₈

<한글구결> 永嘉禪師₁ 證道歌₁ 其深於道₃矣₂로다 然道無所事於證也₄ 而永嘉₅ 方且嘵嘵₅야 而與俗₆과 辯者₇ 彼豈累於言意爲哉₈리오

<언해문> 永嘉禪師₁ 證道歌₁ 그 도에 깊도다 그러나 道는 證에 일홀 배 업거늘 <南明序2b> 永嘉₅ 1 보야호로 들애사 俗 터브러 니샤미 데 엇데 말와 쓰데 저쳐 호미 아니시리오 [永嘉는 7울 일후미니 玄覺大師 나산 디라]

<종진스님 구장본> (不)斷煩惱₁ 而流出一切眞如菩提₂ 永嘉 蓋得諸此而已₃

<대성암본> 惟如來₁ 不厭世間₂ 而入涅槃₃ 不去文字₄ 而住解脫₅ 不斷煩惱₆ 而流出一切眞如菩提₇ 永嘉 蓋得諸此而已₈

<김병구본> 惟_(적)如來₁ 不厭_(디)世間₂ 而入涅槃₍₃₎ 不去₍₄₎文字₅ 而住解脫₍₃₎ 不斷煩惱₆ 而流₍₈₎出_(내)一切眞如菩提₍₂₎ 永嘉 蓋得諸此₍₂₎而已_(데) 8

<한글구결> 惟如來₁ 不厭世間₂흐샤 而入涅槃₃흐시며 不去文字₄흐샤 而住解脫₅흐시며 不斷煩惱₆흐샤 而流出一切眞如菩提₇흐시니 永嘉 蓋得諸此而已₈시니라

<언해문> 오직 如來₁ 世間 아절디 아니흐샤 涅槃애 드르시며 文字 버리디 아니흐샤 解脫애 住₇흐시며 煩惱 긋디 아니흐샤 一切 眞如 菩提를 흘려 내시니 永嘉 1 이를 得₇흐실 쓰르미시니라

<종진스님 구장본> 南明禪師泉公₁ 昔居千頃₂ 復頌證道歌₃ 成三百二十篇₄ 嗚呼 發如來 大智慧海₅ 使人₆ 皆得望其涯涘₇ 而泝其流₈

<대성암본> 南明禪師泉公₁ 昔居千頃₂ 復頌證道歌₃ 成三百二十篇₄ 嗚呼₅ 發如來₆ 大智慧海₇ 使人₈ 皆得望其涯涘₉ 而泝其流₁₀

<김병구본> ○南明₂₈禪師泉公₁ 昔₍₂₎居_(사)千頃₍₂₉₎ 復頌證道歌₍₂₎ 成₍₄₎三百二十篇₍₂₎

24) ‘永’에 권점을 하고 상란에 ‘州名 / 玄覺大師나산디라’라 되어 있다. 양자는 먹색이 달라 기입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25) ‘니샤미’는 ‘辯’에 기입되어야 할 구결이 잘못 기입되어 있다.

26) 상란에 묵서로 책주의 이름이 초서로 쓰여 있다. 3글자 또는 4글자로 보이는데 첫 글자는 ‘主’인 듯하다.

27) ‘流’의 좌토에도 2글자로 보이는 구결자를 기입하였으나 판독은 불가능하다.

28) ‘南’에는 권점을 하였다.

29) ‘泉’에는 권점을 하고 상변에 ‘山名 / (南)明₁千頃₁ 다山名 泉禪師(사)르시던디라’라 되어 있다.

ソニヒ 鳴_(會)呼_へ 發_(베프)如來_七 大智慧海_(乙)ソヘ 使人_レ 皆得望_(ソ; 30)其_(マ)湍_(金)涯_ソ 而_(거스리홀러오르게)泝₍₃₎其_ハソヘム

<한글구결> 南明禪師泉公이 昔居千頃_히실시 復頌證道歌_히샤 成三百二十篇_히시니 鳴呼_ㅣ라 發如來_ハ大智慧海_히샤 使人_이 皆得望其湍涯_히야 而泝其流_케히샤디

<언해문> <南明序3a> ○ 南明禪師 泉公이 네 千頃에 사르실 제 또 證道歌를 頌히샤 三百二十 篇을 일우시니 슬프다 如來_ハ 큰 智慧海를 베프샤 사르미 다 그 _マ솔 바라 그 流에 거스리 홀러 오르게 히샤디[南明과 千頃과는 다 뭣 일후미니 泉禪師 사르시던 디라]

<종진스님 구장본> 不絶諸念_ソ 不著諸相_ソ 不外諸因緣_ソ? 普以吾覺_{...} 悅₃₁₎可衆心_ソ? 何其盛哉? 觀其頌 而吾_ㄱ 無能惜其狂言_ソ 故_{...} 爲之序云

<대성암본> 不絶諸念_ソ 32) 不著諸相_ソ 不外諸因緣_ソ 普以吾覺_又 悅可衆心_ソ ㄱ 何其盛哉_ハ 觀其頌_ソ 而吾_ㄱ 無能惜其狂言 故_又 爲之序云_又 ㄱ

<김병구본> 不絶諸念_(乙)ソニス 不著_(불다)諸相₍₃₎ソニス 不外_(다)諸因緣_(乙)ソヘ 普以吾_(ㄴ)覺_又 悅_(기)可衆_(러)心_ソニヒ 何_(모)其盛_(ㄷ)哉_ハ 觀其_(고)頌_(乙)ソニ士口 而吾_ハ 無_(아)能惜_(앗기?)其狂言_(乙)ソ 故_(고/ㄱ)爲之序云_又 ㄱ

<한글구결> 不絶諸念_히시며 不著諸相_히시며 不外諸因緣_히샤 普以吾覺_{으로} 悅可衆心_히시니 何其盛哉_라 觀其頌_히습고 而吾_ㅣ 無能惜其狂言_히야 故爲之序云_히노라

<언해문> 여러 念을 굿디 아니히시며 여러 相에 붙디 아니히시며 여러 因緣을 뺏디 아니히샤 너비 내 아로모로 여러 ㅁ스물 짓기시니 즈모 盛히시다 그 頌 보습고 내 能히 미친 말 앓기디 아니히야
<南明序3b> 그럴시 序히야 니르노라

時熙寧十年丁巳七月括蒼吳庸天用序

<참고 2> 祝況의 後序

<종진스님 구장본> 夫法不可見聞覺知_ヒ 而見聞覺知₃₃₎亦不外於法_ソヒ、 迷之則凡_ㄱ 了之則聖_ㄱ 故古之得道者_ㄱ 非即非離_ソ 不縛不脫_ソ 應機顯用_ソ 言或不能免_ソ?乃 而其自在 則_ㄱ 雖終日言 而_ハ 未嘗言_ㄱ ㄱ

<대성암본> 夫法不可見聞覺知 而見聞覺知亦不外於法 迷之則凡 了之則聖 故古之得道者 非即非離 不縛不脫 應機顯用 言或不能免 <43>而其自在 則雖終日言 而未嘗言

<김병구본> 夫法_ㄱ 不可見_(ㄱ)聞_(ㄱ)覺_(ㄱ)知_(ㄴ)36)又ム 而見聞覺知_ハ 亦不_(다)外_(다)於法_ハヒ_(ㄷ)37) 迷_(모/ㄱ)38)之則

‘南’과 ‘사’는 잘려 있다.

30) 언해에는 ‘바라’로 되어 있어 언해와 세필 좌토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31) 좌하 부분이 닳아 종이로 덧되는 과정에서 ‘悅, 惜, 已’ 3글자의 일부만 보인다.

32) ‘며’의 자형이 일반적으로 ‘久’로 보이거나 ‘ㄱ’에 가깝게 보이는 자형도 더러 있다. 여기의 ‘며’도 ‘久’보다는 ‘ㄱ’에 가까워 보인다. 일반적으로 ‘ㄱ’가 ‘久’보다는 좀 더 고풍에 속하는데, ‘대성암 소장본’에서 ‘며’의 자형 중에는 ‘ㄱ’에 가까운 자형이 더러 있다는 사실은 이 자료의 구결이 고풍에 속하는 판단할 수 있는 방증이 된다. 앞으로는 ‘며’의 자형에 대한 구분을 더 이상 상세히 하지 않고 ‘久’로 통일하여 표시한다.

33) 우하에 한글의 ‘시’로 보이는 목서가 적혀 있으나 미상이다. 좌하에도 현토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4) ‘言’에 달린 ‘ㄴ’가 잘못 현토된 것으로 보인다.

35) ‘見’과 ‘聞’에는 ‘ㄱ’이 좌하에 기입되어 있고 ‘覺’에는 좌중에 기입되어 있다. 이 차이가 유의미한 것 인지는 미상이다. ‘知’에는 ‘ㄱ’이 기입되어 있지 않다.

36) 우하에 한글로 ‘시’라 적혀 있으나 의미는 미상이다. 좌하에도 현토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7) ‘김병구본’의 음독구결은 적어도 2종류가 있는데 이 중 세필로 된 구결이 더 나중에 기입된 구결임을 알 수 있다.

38) ‘모’와 ‘ㄱ’을 이은 선이 있다.

凡(ㄴ) 了(알)之則聖(ㄹ/일시)故又 古(ㄴ)之得(=/ㄴ)道者(사) 非(ㄴ) 卽(ㄷ)非離(ㄷ)ㄴ 不(ㄷ)縛(얽)不脫(벗)ㄴ 應(ㄴ)機(乙)顯(ㄹ/히)用(매)ㄴ 言(니오)ㄴ³⁹⁾<43>⁴⁰⁾或(ㄹ)⁴¹⁾不⁴²⁾能免(ㄷ)ㄴ 而其(?)自(ㄹ)在(ㄹ/ㄴ)則雖終日(나리)未嘗(간도)言(니/미)ㄴ ㄴ

<한글구결> 夫法은 不可見聞覺知로디 而見聞覺知ㅣ 亦不外於法이니 迷之則凡이오 了之則聖故로 古之得道者ㅣ 非卽非離며 不縛不脫야 應機顯用에 言或不能免호디 而其自在則雖終日言이나 而未嘗言이니

<언해문> <南明下76a> 法은 見聞覺知 아니로디 見聞覺知ㅣ 또 法 맞기 아니니 모르면 凡이오 알면 聖일시 네 道 得흔 사름미 卽디 아니하며 여희디 아니하며 얽디 아니며 벗디 아니야 機를 應야 顯히 卬매 닐오몰 시혹 能히 免디 몬호디 그 自在호면 비록 나리 못도록 니르나 값간도 닐오미 아니니

<종진스님 구장본> 昔永嘉之見六祖니 振錫而立ㄴ 目擊而道存矣ㄴ⁴³⁾ 小駐一宿ㄴ 舍 因爲之證道歌ㄴ 道本無證니 證之以歌ㄴ 雖不免於有言ㄴ 而卒無所累者也ㄴ

<대성암본> <43>昔永嘉之見六祖 振錫而立 目擊而道存矣 小駐一宿 因爲之證道歌 道本無證 證之以歌 雖不免於有言 而卒無所累者也

<김병구본> 昔(ㄴ) 永嘉(ㄴ)之見(ㄴ오매)六(ㄹ)祖(ㄹ) 振錫(막대호늘오서)而立(ㄴ) 目擊(다호매)而道(ㄴ)存矣(ㄴ) 小(ㄹ)駐(머르)一(호롯)宿(ㄷ/사)ㄴ 因(ㄴ)爲(지스시)之證(흔)道歌(乙)ㄴ 道(ㄴ)本無證(ㄹ) 證(호고)之以歌(에)ㄴ 雖不(ㄴ)免於有(乙)言(말슴)ㄴ 而卒(ㄴ)無所累(히를)者也ㄴ

<한글구결> 昔에 永嘉之見六祖에 振錫而立호? 目擊而道存矣어늘 小駐一宿호샤 因爲之證道歌호시니 道本無證커늘 證之以歌호시니 雖不免於有言이나 而卒無所累者也ㅣ시니라

<언해문> 네 永嘉ㅣ 六祖 보스오매 막대 호늘오서 눈 다호매 道ㅣ 잇거늘 저기 머르러 호롯 밤 자샤 因야 道證흔 놀애롤 <南明下76b> 지스시니 道는 本來 證 업거늘 證호고 놀애 호시니 비록 말슴 이 쇼몰 免디 몬호시나 ㄴ츠매 히를 업스시니라

<종진스님 구장본> 則後世由其歌而悟入者 不知其幾何也 又從而爲之註釋者 亦不知其幾何也? 然眞得永嘉之趣者 蓋難其人矣 泉公禪師 穎出其類 千頃領徒之暇 於其歌句句之間 分爲之頌 大抵 隨色而言空 卽定而言慧 不見一相而充滿法界 不離一塵而圓具佛性 其詞灑落 其旨宏遠?? 昭昭然發永嘉之心 於數⁴⁸⁾百年曠絕之後 予竊幸叩師之緒餘 而因以開闢故 覽師之頌⁴⁹⁾ 慕其清風 而不能自己 命之鏤板 用廣其傳 庶使導者通 冥者開 而一超頓以悟 乃師之賜也

<대성암본> <43>則後世 由其歌而悟入者 不知其幾何也 又從而爲之註釋者 亦不知其幾何也 然眞得永嘉之趣者 蓋難其人矣 泉公禪師 穎出其類 千頃領徒之暇 <43>於其歌句句之間 分爲之頌 大抵 隨色而

39) ‘니’는 ‘닐’의 오기이다.

40) 상란에 ‘작은 둥근 朱印’이 있으나 문면은 미상이다.

41) ‘或’의 수평획에 짧은 수직쌍선이 있으나 유의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42) ‘不’의 수평선과 수직획 사이에 묵흔이 있으나 유의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43) ‘ㅂ’은 ‘ㅅ’의 잘못으로 보인다.

44) ‘ㄴ’의 의미는 미상이다. 위의 ‘或’에 기입된 수직쌍선도 같은 기능일 가능성도 있다.

45) ‘ㅣ’는 음독부호로 생각하였으나 ‘宿’은 ‘자샤’로 읽히므로 단순한 음독부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단 ‘ㅣ’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음독일 경우에는 대부분 ‘ㅣ’가 한자의 좌하에 기입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좌중에 기입되어 있다.

46) 하변에 ‘注’라 묵서로 기입되어 있다.

47) ‘김병구’본에서 음독구결에 훈독과 일치하는 구결이 기입되어 있으면 좌토에 동일한 구결을 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음독구결에 ‘ㄴ츠히’가 기입되어 있으나 좌토에 다시 ‘ㄴ츠히’가 기입되어 있다.

48) ‘數’의 우하에 ‘ㄴ’이 있으나 의미는 미상이다.

49) ‘頌’ 우하에 작은 권점이 있다.

言空 卽定而言慧 不見一相而充滿法界 不離一塵而圓具佛性 其詞灑落 其旨宏遠 昭昭然發永嘉之心於數百年曠絕之後 予竊幸叩師之緒餘 而因以開朗故 覽師之頌 慕其清風 而不能自己 命之鏤板 用廣其傳 庶使尋者通 冥者開 而一超 頓以悟 乃師之賜也

<김병구본> 則(그러)後(뒤)世(세)로由(그)其(그)歌(노래)而(을)悟(깨달아)入(들)者(사람)不(못?)⁽⁵⁰⁾/할리로다知(알)其幾(얼마나)何(무엇)也
久(오래)又從(또)而爲之註(해설)釋(풀이)者(사람)亦不(못?)^(?)/할리로다知(알)其幾(얼마나)何(무엇)然(그러나)乃眞(진)得(얻)永嘉(경가)之
趣(흥미)者(사람)蓋難(거의)其(그)人(사람)矣(아니)ヒ、泉公禪師(연공선사)穎出(영출)^(소사나사)其(그)類(종류)少(적)千頃(천경)^(七)領(령)^(조느리신)徒(제자)^(衆? 거느리신)之
暇(여유)於其歌句句(그 노래 구구)之間(사이)分(분)爲(되)爲(되)之頌(송)^(二)乎? 大抵(대체)ト主(주)隨色(수색)^(乙)而言空(언공)^(은공)ソニス 卽(즉)
定(정)^(乙)而言慧(언혜)^(은혜)ソニ스 不(않)見(보이지)一相(일상)(도)而充(차)滿法界(만법계)^(三)ソニ스 不(않)離(멀어)一塵(일진)(토)而圓(둥글)具(갖추)佛性(불성)^(四)ソヒ
其(그)詞(말리)灑落(새록)其(그)旨(뜻)(디)宏(크고)遠(먼)昭(밝)昭(밝)然發(피치나)永嘉(경가)之心(심)^(五)於
數百年(수백년)曠(머리끄는)絶之後(절 이후)予(나)竊(그스기)幸(행복)卽(두드러)師(승려)^(六)^(古55)之緒(줄)餘(남)而因(따라)以
開闢(개척)故又覽(보다)師(승려)之頌(송)慕(모)其淸風(청풍)^(乙)而不(못)能自(내)命(명)之鏤(사
板)用(써)廣(넓히)其傳(전)庶(바라고)使導(하게)者(사람)又通(통)冥(어두운)者(사람)又聞(듣)而一
超(뛰어넘음)頓(바로)以悟(깨닫)未(아직)乃師(승려)之賜(부처님)也(아니).

<한글구결> 則後世에 由其歌而悟入者ㅣ 不知其幾何也ㅣ며 又從而爲之註釋者ㅣ 亦不知其幾何也오 然
이나 眞得永嘉之趣者ㅣ 蓋難其人矣니라 泉公禪師ㅣ 穎出其類호샤 千頃領徒之暇애 於其歌句句之間애
分爲之頌호시니 大抵호디 隨色而言空호시며 卽定而言慧호시며 不見一相而充滿法界호며 不離一塵而圓
具佛性호니 其詞ㅣ 洒落호며 其旨宏遠호야 昭昭然發永嘉之心於數百年曠絶之後호신 予ㅣ 竊幸叩師之緒
餘호야 而因以開明故로 覽師之頌호고 慕其淸風호야 而不能自己호야 命之鏤板호야 用廣其傳호노니
庶使礙者로 通호며 冥者로 明호야 而一超애 頓以悟케호미 乃師之賜也ㅣ니라

<언해문> 그러면 後世에 그 놀애를 브터 아라든 사르미 아디 못흐리로다 귀 언제나 흐며 또 브터 住
 흥야 사긴 사르미 또 아디 못흐리로다 언제나 흐뇨 그러나 眞實로 永嘉人 ㅅ들 得흐닌 사르미 어려우
 니라 <南明下77a> 泉公禪師 | 그 무레 소사나샤 千頃人 徒衆 거느리신 餘暇애 그 놀애 句句人 스시
 에 논호아 頌 지스시니 大抵호디 色을 조차 공 니르시며 定을 卽흥야 慧 니르시며 혼 相도 보디 못호
 디 法界에 ㄱ득흥며 혼 들글도 여히디 아니호디 佛性이 圓滿히 ㄱ즈니 그 마리 洒落흥며 그 ㅅ디 어
 워 크고 머러 물긔물마시 永嘉人 믋스물 數百年 머리 그흔 後에 퍼시니 <南明下77b> 내 그스기 幸
 흥야 師人 緒餘를 두드려 因흥야 여러 불길시 師人 頌을 보습고 淸風을 思慕흥야 能히 내 마디 못흥
 야 命흥야 板애 사겨 ㅅ 傳을 너피노니 브라오몬 마곤 사르미로 通흥며 어드운 사르미로 불겨 혼
 적 견내뼉유매 모로기 알에 호미 師의 주사미니라

熙寧九年七月十日括蒼祝 況後序

50) ‘不’의 좌토로 판독미상인 약체구결이 반복되지만 미상이다. 여기서는 ‘不’이 ‘몰’에 대응된다.

51) 좌변 판심에는 한글묵서 한 글자가 더 씌어져 있으나 판독미상이다.

52) ‘물₁긔시’가 ‘물₂긔시’로 잘못 표기되었다.

53) 난하에 ‘괴’가 기입되어 있으나 미상이다.

54) 여기에 기입된 ‘ㄴ ㅅ’는 기능이 미상이다.

55) 우상의 ‘古’는 ‘叩’의 음을 표기한 것이다.

『선종영가집』 구결 자료에 대한 고찰

하정수(동국대학교)

1. 서론

이 발표는 고려 말 조선 초에 간행된 이른바 청룡사판 『禪宗永嘉集』 5종을 대상으로 각 문헌의 서지 사항을 살피고, 이들 문헌에 목서와 주서 등으로 기입된 구결, 음주 등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종의 문헌은 보물 제641호 (재)아단문고 소장본, 보물 제1470호 영광 불갑사 소장 불복장본, 개인 소장 가본, 개인 소장 나본, 보물 제1297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이다.¹⁾

2장에서는 당나라 현각 스님이 편찬하고 송나라 행정(行靖) 스님과 정원(淨源) 스님에 의해 완성된 『禪宗永嘉集』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유통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당시 선종영가집의 유통 과정을 살펴 고려 말 조선 초 불교계에 이 문헌이 수용되는 과정과 이 문헌이 끼친 교학적 영향 및 간경도감의 諺解 사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청룡사판 『禪宗永嘉集』에 기입된 구결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설을 염두에 둘 수 있다. 하나는 이 문헌 중의 하나에 기입된 구결과 같은 계통의 구결이 언해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가설이다. 이때 선택되지 않은 계통의 구결은 언해 이후 배제되어 전승이 끊기게 된다.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여러 계통의 구결을 종합하여 새로운 구결을 세조가 직접 정한다는 가설이다. 이때는 이전의 고려판에 기입된 계통의 구결은 새로운 언해의 구결로 대체된다. 이 두 가설을 검증하려면 고려판 문헌 전체를 모두 살펴 그 문헌에 기입된 구결의 계통이 밝혀져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선 현전하는 고려 말 조선 초에 간행된 『禪宗永嘉集』 문헌에 기입된 구결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禪宗永嘉集諺解』의 한글 구결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설 검증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 작업이 될 수 있다.

3장은 5종의 문헌의 서지 사항을 살펴 각 문헌에 기입된 구결이 기입된 시기의 상한과 하한을 살펴보고, 기타 기입 목서의 특성을 살펴본다. 4장은 각 문헌에 기입된 구결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를 문헌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을 위한 시범적 작업을 예시한다. 청룡사판 『禪宗永嘉集』 현전 문헌에 기입된 구결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음주와 내용 주석 등을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면 구결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의 불교 교학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자료가 되고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 발표는 문헌별 기입 구결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보다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문헌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지는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2. 『禪宗永嘉集』의 전승과 내용

2.1. 『禪宗永嘉集』의 전승

1) 이 5종의 문헌은 동일한 고려판에서 인출되었거나 고려판의 초기 복각본으로 판단되어 이 문헌에 구결을 기입한 시기가 고려 말 조선 초일 가능성이 있다.

『禪宗永嘉集』은 당나라 현각(玄覺 665-713) 스님이 찬술한 것을 당시 그 지역의 경주 자사(慶州刺史)를 지낸 위정(魏靜)이 모아 편찬한 책이다.²⁾ 현각 스님은 온주 영가현 사람으로 永嘉大師라 불렸다. 8살에 출가하였고 31세에 제6조 혜능을 찾아가 법거량을 하고, 이때 하룻밤 쉬어갔다고 하여 일숙각(一宿覺)이란 별명을 얻었다. 현각 스님의 대표 저서는 證道歌와 禪宗永嘉集이 있다. 『禪宗永嘉集』은 현각이 남겨 놓은 글에 魏靜 편찬하여 그 序를 썼다. 여기에다 송나라 石壁 行靖이 注를 달았다. 중국본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고려 시대로 고려 말 나옹 혜근 때의 이 책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중국본을 1381년 충주 청룡사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되었다고 추정된다. 이후 1472년(조선 성종 3) 청룡사판에 김수온이 발문을 덧붙인 200부가 인수대비 주도로 재간행되었다. 조선 시대에 함허 득통(1376-1433)이 영가집에 서설과 설의를 쓴 기록이 있다.

『禪宗永嘉集』은 송나라 행정(行靖)에 의해 주해가 이루어지고 송나라 晉水 淨源이 문단을 나누고 소제목들을 붙여 간행하였다. 이 정원이 修定科한 것이 『禪宗永嘉集諺解』에 반영되어 있다. 조선시대 함허당 득통은 『禪宗永嘉集』에 설의(說誼)를 붙여 간행한 바 있다.

고려 시대 유통된 중국본이 2종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조선 시대 간경도감에서 이중 하나를 국역하여 간행한 언해본이 현전하고 있다. 고려판 한문본은 우왕 7년(1381)에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간행되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언해본은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를 달고 정원(淨源)이 과문(科文)을 나눈 『선종영가집과주(禪宗永嘉集科註)』를 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禪宗永嘉集諺解』는 여기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신미(信眉) 등이 국역하여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이다(안병희 1979:118). 『禪宗永嘉集諺解』는 간경도감의 간경 사업 중 초기인 1464년에 완성되었다. 信眉와 孝寧大君의 이 문헌의 발문이 1463년에 쓰인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작업은 1463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조 시대에 『禪宗永嘉集說誼』가 세조 시대에 국역되어 성행되는 것은 다른 선 서적과 함께 이 문헌이 승속의 교화와 함께 당시 불교계에서 후진의 학습에도 상당한 중요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전준모 2015:159).

『禪宗永嘉集』의 찬술 이후 간행과 국내 유통 현황을 한자경(2016:24-25)를 참조하고, 각 문헌의 발문 등 간행 기록을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³⁾

1. 禪宗永嘉集 찬술: 唐 玄覺(665-713)
2. 禪宗永嘉集 편찬 및 序: 唐 慶州刺史 魏靜(?-?, 자사 재임 시 현각을 모심)
3. 禪宗永嘉集 注 및 釋音: 宋 石壁 行靖(?-?)
4. 禪宗永嘉集 修定科文: 宋 晉水 淨源(1011-1088)
5. 禪宗永嘉集 국내 유입: 고려말 나옹 혜근(1320-1376)
6. 禪宗永嘉集 고려판 간행: 田禪, 李邦直 覺淵 忠州 靑龍寺 목판 간행(1381)
7. 禪宗永嘉集 序說 및 說誼: 조선 전기 涵虛 得通 己和(1376-1433)
8. 禪宗永嘉集諺解 간행: 世祖 口訣 信眉 等 翻譯 간경도감 목판 간행(1464년, 세조 10년)

2) 이하의 작자, 편자, 찬자 등의 내용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의 보물 제641호, 제1470-1호, 제1297호 『禪宗永嘉集』의 해제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의 『禪宗永嘉集』 해제, 한자경(2016) 등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3) 『禪宗永嘉集』의 판본과 간행에 대한 설명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서로 다르게 기술된 것이 있고,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해제의 내용도 문헌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靑龍寺 留板과 靑龍寺 晉板, 영광 불갑사 선종영가집에 대하여 후대 복각본(문화재청 아단문고본 해제)과 동일본(한국민족문화백과 선종영가집 서지 사항)으로 서술 송나라 진수 사문을 진나라 수사문 정원으로 설명하는 등 편저자뿐만 아니라 '9행20자'를 '6행20자'로 한 형태서지 등의 오류도 있다.]

9. 禪宗永嘉集 청룡사 유판 간행: 김수온 발문 덧붙인 200부 간행(1472)
 10. 禪宗永嘉集 간행: 고려판 복간본 慶尙道陝川土石水庵 목판 간행(弘治12년, 1499)
 11. 禪宗永嘉集 간행: 함허당찬송병서 涵虛堂說義 합본, 홍치14辛酉年(弘治14년, 1501)
 - 11-1 禪宗永嘉集 중국본: 11번 문헌 9행 17자본 越郡沙門法臻重刊(洪武25, 1392년)
 12. 禪宗永嘉集諺解 복간본 간행: 원간본 복간본 경상도 장수사(1520년, 중종 15년)
- 후략--

2.2. 『禪宗永嘉集』의 체제와 내용

『禪宗永嘉集』은 중국 당나라 영가 현각 선사(玄覺禪師, 647~713)가 수행하는 방법을 10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玄覺永嘉集 또는 永嘉集으로 불린다. 육조 혜능대사(六祖 惠能大師)의 법제자인 영가현각 선사가 수행하는 후인들을 위하여 누구나 먼저 입지를 굳게 해야 하고 교만하고 사치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수선(修禪)의 요결(要訣)과 수행하는 자세 등을 말한 것이다. 이 책은 당나라 영가현각(永嘉玄覺) 선사가 언급한 수행인의 자세와 수선(修禪)의 요결에 대한 10현의 내용을 당시 해당 지역 담당 관리를 지낸 위정(魏靜)이 편집한 것이다. 편성 내용은 “慕道志儀” 제1장으로부터 發願文 제10장에 이르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4와 5장에는 지관(止觀)의 행상(行相)을 설명하고, 제9장에는 좌계현량(佐溪玄朗)과 왕복한 서간이 실려 있어 천태의 원지(圓旨)와 남종 조사선과의 교묘한 융화를 보여 주고 있다(한자경 2016).

『禪宗永嘉集』이 책을 편집한 위정의 序가 현각의 글 앞에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선을 닦는 요점과 그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 전부 10장으로 이루어졌다. 언해본의 과문에서는 이를 삼분하여 처음의 3편은 序分, 다음의 5편은 正宗分, 마지막 2편은 流通分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분은 본격적 수행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 과정이고, 정종분은 본격적 수행과 그 수행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으며 유통분은 그 수행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발원하는 내용이다. 10장의 장 전체는 6바라밀과 戒 定 慧 3학과 연관지어 정리할 수 있다(한자경 2016:34-35). 각 장의 제목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

1. 모도지의제일(慕道志儀第一): 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
 - ㄱ. 속세를 싫어하고 스승 섬김에 힘씀
 - ㄴ. 의지가 약하면 수행이 잘못됨
 - ㄷ. 도를 통해서 과위에 오름
2. 계교사의제이(戒橋奢意第二): 교만하고 사치하려는 생각을 경계함
 - ㄱ. 옷과 음식을 들어 징계함
 - ㄴ. 자비를 행하지 않고 지혜로 깨닫지 못함을 탄식함
 - ㄷ. 지혜로운 사람을 인용하여 물리치고 마무리함
3. 정수삼업제삼(淨修三業第三): 삼업을 깨끗하게 닦음
 - ㄱ. 삼업을 나열함
 - ㄴ. 닦아야 하는 까닭을 보여 줌
 - ㄷ. 닦을 내용을 분별함
4. 사마타송제사(奢摩他頌第四): 삼매를 닦음, 止
 - ㄱ. 수행할 경계를 모두 보여 줌

4) 각 장의 내용은 최동호·전경옥·이창희 편역(1996)의 목차와 한자경(2016)의 해제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 ㄴ. 닳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함
- 5. 비파사나송제오(毘婆舍那頌第五): 지혜를 얻음, 觀
 - ㄱ. 닳는 것을 총괄해서 보여 줌
 - ㄴ. 특별히 경계와 지혜를 밝힘
- 6. 우필차송제육(優畢叉頌第六): 중도에 머물
 - ㄱ. 앞 글의 지관(止觀)을 합침
 - ㄴ. 이 편을 바로 풀이함
 - ㄷ. 마음을 관조하는 법을 잘 보여 줌
- 7. 삼승점차제칠(三乘漸次第七) 삼승의 차례
 - ㄱ. 묘한 법은 언어를 초월함
 - ㄴ. 이 편을 빌어 말을 함
- 8. 사리불이제팔(理事不二第八): 사물과 이치는 둘이 아님
 - ㄱ. 미혹과 깨달음은 둘이 아님
 - ㄴ. 말을 빌려 의미를 말함
- 9. 권우인서제구(勸友人書第九): 벗에게 권하는 편지
 - ㄱ. 온 편지
 - ㄴ. 답장
- 10. 발원문제십(發願文第十): 발원문
 - ㄱ. 삼보께 공경한 마음으로 귀의함
 - ㄴ. 육취 중생의 제도를 기도함
 - ㄷ. 많은 서원을 널리 펴

이 『禪宗永嘉集』에 송나라 진수 정원(晉水淨源, 1011~1088)이 과문(科文)을 짓고 행정(行靖)이 주석을 붙인 것이 『禪宗永嘉集科註』이다. 함허 득통 己和가 이 『禪宗永嘉集科註』에 다시 해석을 붙인 것이 『永嘉集說誼』이다.⁵⁾ 함허 기화의 『永嘉集說誼』는 원래 『永嘉集』과 따로 전해지다가 세조(世祖)가 신미(信眉)·홍준(弘濬) 등에게 명하여 『永嘉集』 제본(諸本)의 동이(同異)를 교정하고, 김수온(金守溫)과 함께 그 교정본에 기화의 설의를 편입케 함으로써 『禪宗永嘉集科註』와 합본되었다(이인혜 1989:26). 제본의 同異와 관련하여 청룡사판의 오자가 언해본과 장서각 한문본에 교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가집설의』가 찬술되고,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에서 『禪宗永嘉集諺解』가 간행된 후 선종의 학습서로서 선종영가집이 널리 유통되었다. 『禪宗永嘉集』에는 선·천태·화엄의 사상이 골고루 반영되어 있어 교재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문본은 1책 2권 상하 양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해본은 2책 상하 양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본의 간행 사실에서 이 책은 고려 우왕 때 중대광 낭성군(重大匡琅城君) 이방직(李邦直)이 1375년에 회암사(檜巖寺)에서 나옹 혜근(懶翁惠勤) 화상이 이 책은 선종입도(禪宗入道)의 요결(要訣)이라는 권유를 받고 읽어 본 후에 바로 돌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나옹 혜근(懶翁惠勤)의 입적 후 나옹의 제자인 환선(田禪)의 요청으로 고려 우왕 7년(1381) 봄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하였다. 당시 담여(淡如)·각눌(覺訥)·이인린(李仁隣) 등이 각수(刻手)로 참여한 기록이 고려판 간행 기록에 있다.

3. 5종 『禪宗永嘉集』 형태 서지와 기입 구결의 특징

3.1. 5종 청룡사판 『禪宗永嘉集』

5) ‘永嘉集說誼’의 ‘誼’는 ‘義’로 된 ‘永嘉集說義’로 되어 있는 문헌이 있다.

3.1.1. 보물 제641호 (재)아단문고본

이 책은 1381년에 판각 이후 충주의 청룡사에 보존되고 있던 목판에서 인출한 판본이다. 표지는 근래에 새로 개장한 것으로 표제는 제첨에 ‘禪宗永嘉集’으로 목서로 되어 있고 표제 아래에 통문관 주인인 산기 이겸로 옹의 관식이 있다.⁶⁾ 권하의 釋音 뒤에 바로 중국본의 후기가 그대로 복각되어 있다. 중국본을 저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복각된 판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중국본의 후기에 고려본의 간행 사실이 8행 15자로 2장이 이어져 있다. 이 부분은 중국본 복각 시에 같이 판각하여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문화유산포털 원문검색 캡처	보물 641호 서지 사항
	권수제 禪宗永嘉集卷上 표제 無(표지 추가 裝幀) 서제 禪宗永嘉集序 관심제 永嘉集上 / 永嘉集下 저역자 玄覺(唐) 撰 ; 魏靜(唐) 述 ; 行靖(宋) 注 판종 木板本 발행지 忠州 발행자 靑龍寺 발행년 1381年(우왕 7년) 장정 線裝 권사항 卷上下 장수 57張(禪宗永嘉集序 張次 第1-3張 / 卷上: 張次 第4-25 / 卷下: 張次 第1-29 / 釋音 및 중국본 후기: 張次 第30張 / 고려판 간행 사실: 張次 第1-2張) 광곽형태 上下單邊 左右雙邊 광곽종류 半郭 광곽크기 15.3cm×11.9cm(16.8cm×12.0cm) 계선 有界 행자수 9行20字 주표기 註雙行 / 音釋雙行 어미 上下向黑魚尾 책크기 26.8cm×16.7cm(26.7cm×16.7cm) 서문 禪宗永嘉集序 唐慶州刺史魏靜 述 宋石壁沙門行靖 注 간기 冊末: 蒼龍辛酉(1381)春月 日重大匡琅城君信菴閑閑居士西原李邦直覺演謹誌 / 忠州靑龍寺留板

본문 전체에는 구결이 목서되어 있다. 구결 기입 시기는 후대에 불복에 복장되기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는 목서로 음독 구결이 기입되어 있고 석독으로 보이는 한글과 세필 구결이 경문과 쌍행의 주 좌우 및 난상에 기입되어 있다. 음독 구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필

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원문 검색에서 문헌에 대한 전체적인 서지 사항과 해제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형태 서지의 내용과 해제의 형태 서지 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해제의 내용을 ()에 넣었다.

체로 기입된 것과 이와 필체가 다른 다소 거칠게 기입된 구결이 있다. 이 책에 기입된 구결은 음독을 위한 구결이 최소 2층위의 중층적으로 기입되었고, 석독을 위한 세필의 구결과 한글이 기입되어 있다. 언해에 있는 정원의 과문 내용과 내용주, 음주 등의 목서가 변란 밖과 반곽 내부의 빈 공간에 기입되어 있다. 변란 밖이나 경문에 한글이 기입된 것도 있다. 구결자는 주로 생획이 많은 약체 구결자가 쓰였으며 언해의 구결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3.1.2. 보물 제1470호 영광 불갑사장 불복장본

이 문헌은 보물 제1470-1호인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1. 석가삼존상·16나한상 복장전적(釋迦三尊像·十六羅漢像 腹藏典籍)의 2번 책이다. 불갑사 소장본은 보물 제641호와 동일본으로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전권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불복장 시 전후의 표지와 권말의 간기 부분을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 권하의 釋音 뒤에 바로 중국본의 후기가 그대로 복각되어 있다. 중국본을 저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복각된 판본임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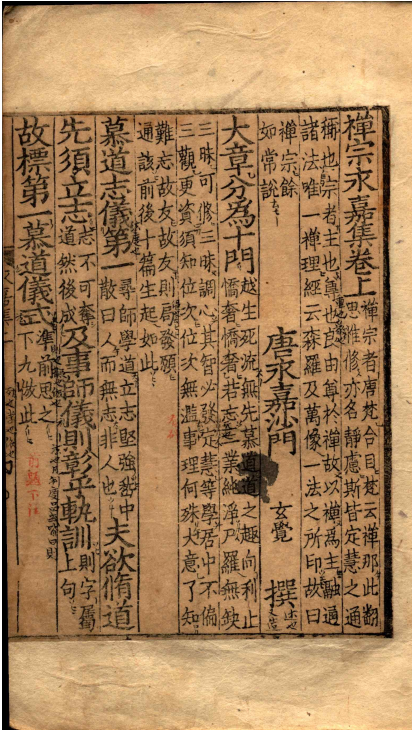
국가문화유산포털 원문검색 캡처	보물 1670-1호 2번 서지 사항
	권수제 禪宗永嘉集卷上 표제 無(불복장 탈거) 서제 禪宗永嘉集序 관심제 永嘉集上 / 永嘉集下 저역자 玄覺(唐) 撰 ; 魏靜(唐) 述 ; 行靖(宋) 注 판종 木板本 발행지 忠州(동일본 참고 추정) 발행자 靑龍寺(동일본 참고 추정) 발행년 1381年(우왕 7년)(동일본 참고 추정) 장정 線裝 권사항 卷上下 장수 55張(禪宗永嘉集序 張次 第1-3張 / 卷上: 張次 第4-25 / 卷下: 張次 第1-29 / 釋音 中國本 후기: 張次 第30張) 광곽형태 上下單邊 左右雙邊 광곽종류 半郭 광곽크기 17.0cm×12.0cm 계선 有界 행자수 9行20字 주표기 註雙行 / 音釋雙行 어미 上下向黑魚尾 책크기 26.7cm×15.6cm 서문 禪宗永嘉集序 唐慶州刺史魏靜 述 宋石壁沙門行靖 注 간기 없음(불복장 시 탈거)

이 문헌은 불복장 문헌으로 다른 복장 전적이 주로 이른 시기의 것은 고려 시대의 것이고 대체로 많은 문헌이 조선 전기에 간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헌에 기입된 구결은 복장 시기

이전에 기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입된 구결은 음독을 위한 구결이고, 구결과 다른 필체와 먹색으로 한글과 내용 주석 등이 기입되어 있다. 기입되는 묵서는 대체로 변란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른 4종의 문헌과 달리 이 문헌에는 과문 내용을 기입한 묵서가 없었다. 구결자는 ‘去, 古, 田, 小, 方, 言’ 등 원자에 가깝거나 생획이 적은 구결자가 사용되고 있다. 기입된 구결은 연해 구결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3.1.3. 개인 소장⁷⁾ 가본

이 문헌은 개인 소장본으로 보물 제641호 및 불갑사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형태 서지가 일치한다. 고려판 개간 사실이 있는 2장의 기록도 동일하다. 단 배접 시에 사주 변란만 남기고 변란 바깥을 잘라 내고 그것을 새로운 종이에 붙이는 방식으로 배접하였다. 이른 시기에 장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변란 밖에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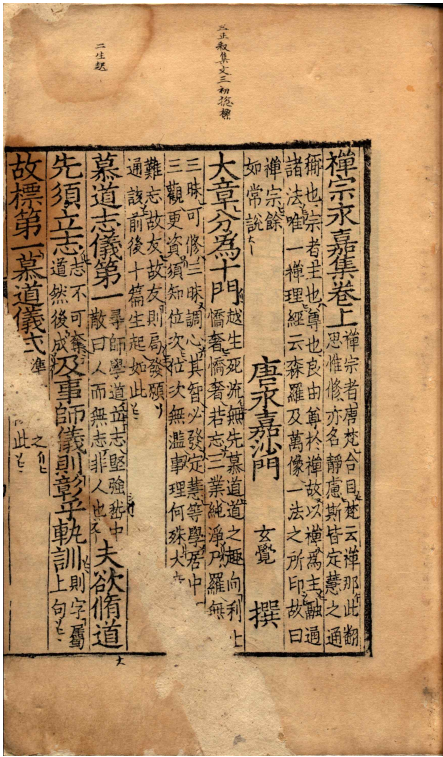
정재영 선생님 제공 이미지	개인 소장 가본(개인 1) 서지 사항
	권수제 禪宗永嘉集卷上 표제 禪宗永嘉集序(묵서) 서제 禪宗永嘉集序 관심제 永嘉集上 / 永嘉集下 저역자 玄覺(唐) 撰 ; 魏靜(唐) 述 ; 行靖(宋) 注 판종 木板本 발행지 忠州 발행자 靑龍寺 발행년 1381年(우왕 7년) 장정 線裝 권사항 卷上下 장수 57張(禪宗永嘉集序 張次 第1-3張 / 卷上: 張次 第4-25 / 卷下: 張次 第1-29 / 釋音 및 중국본 후기: 張次 第30張 / 고려판 간행 사실: 張次 第1-2張) 광곽형태 上下單邊 左右雙邊 광곽종류 半郭 광곽크기 16.8cm×12.0cm 계선 有界 행자수 9行20字 주표기 註雙行 / 音釋雙行 어미 上下向黑魚尾 책크기 23.3cm×14.9cm 서문 禪宗永嘉集序 唐慶州刺史魏靜 述 宋石壁沙門行靖 注 간기 冊末: 蒼龍辛酉(1381)春月 日重大匡琅城君信菴閑居土西原李邦直覺演謹誌 /忠州靑龍寺留板

7) 개인 소장 가본과 개인 소장 나본 두 문헌은 동일한 『禪宗永嘉集』으로 청룡사판과 동일한 책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소장자는 가본은 고려본으로 나본은 조선 초기 판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재영 선생님(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도움으로 실물 조사를 할 수 있었고 정밀한 사진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책에 기입된 구결은 음독을 위한 구결이 세필로 동일한 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입되어 있다. 세필보다 약간 두꺼운 글씨가 음독을 위한 구결로 기입되어 있다. 음주와 내용 주석 등의 목서가 기입되어 있다. 경문에 목서로 한글이 드물게 기입되어 있고, 釋音의 변란 안팎으로 한글로 ‘산눙흠음, 고요할격, 피패’ 등의 字釋과 音을 적은 것도 있다. 구결자는 주로 약체 구결자가 사용되고 음식과 주석에 주목이 쓰인 곳도 있다.

3.1.4. 개인 소장 나본

이 책은 보물 제641호 및 불갑사 소장본과 동일한 충주 청룡사판으로 두 문헌과 형태 서지가 대체로 일치한다. 후반부에 釋音과 중국본 후기 뒤에 고려판 개간 사실이 있는 2장의 기록이 없고 바로 南明泉頌永嘉證道歌序와 永嘉眞覺禪師證道歌가 35장이 합철되어 있다. 앞부분은 하단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배접하여 새로 장정하였다. 합철된 증도가의 간기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간행 사실을 알 수 없다.

정재영 선생님 제공 이미지	개인 소장 나본(개인 2) 서지 사항
	권수제 禪宗永嘉集卷上 표제 (永嘉)集(표지 훼손) 서제 禪宗永嘉集序 판심제 永嘉集上 / 永嘉集下 저역자 玄覺(唐)撰 ; 魏靜(唐)述 ; 行靖(宋)注 판종 木板本 발행지 忠州(동일본 참고 추정) 발행자 靑龍寺(동일본 참고 추정) 발행년 1381年(우왕 7년)(동일본 참고 추정) 장정 線裝 권사항 卷上下 장수 85張(禪宗永嘉集序 張次 第1-3張 / 卷上: 張次 第4-25 / 卷下: 張次 第1-29 / 釋音 및 중국본 후기: 張次 第30張 / 南明泉頌永嘉證道歌序: 張次 第1 / 永嘉眞覺禪師證道歌 張次 第1-34) 광곽형태 上下單邊 左右雙邊 광곽종류 半郭 광곽크기 17.2cm×12.2cm 계선 有界 행자수 9行20字 주표기 註雙行 / 音釋雙行 어미 上下向黑魚尾 책크기 25.1cm×16.5cm 서문 禪宗永嘉集序 唐慶州刺史魏靜 述 宋石壁沙門行靖 注 간기 冊末: 熙寧九年(1076)七月十日括蒼祝 況 後序 / 刊記 훼손

이 문헌에 기입된 구결은 음독을 위한 구결이 세필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필체로 기입되어 있다. 변란 밖이나 경문의 빈 공간에 과문 및 내용 주석을 위한 목서가 구결과 다른 필체로 기입되어 있다. 과문의 시작 부분에 목서 권점이 찍혀 있다. 한글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⁸⁾ 구결자는 주로 약체 구결자가 기입되었으며 언해와 종결 형식이 다른 ‘1 ㄱ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형태가 나타난다.

3.1.5. 보물 제1297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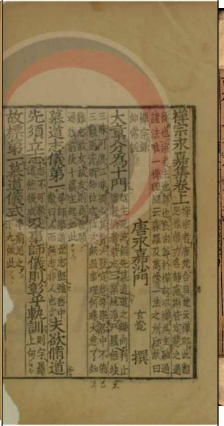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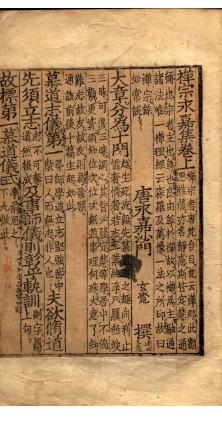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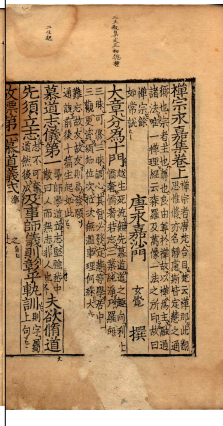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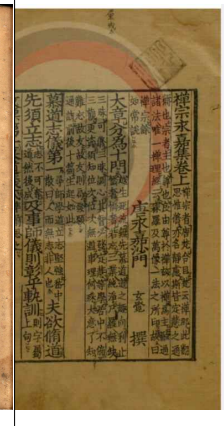
이 판본은 충주 청룡사에서 고려 때 판각된 목판에서 1472년에 다시 찍어 낸 판본이다. 조선 성종 3년(1472)에 인수대비에 의해 찍어 낸 200부 가운데 하나이다. 권말에 김수온이 쓴 인경발문이 갑인소자로 찍혀 있다. 이 문헌에는 인경발문 앞에 무상대사행장이 합철되어 있다.

국가문화유산포털 원문검색 캡처	보물 제1297호 서지 사항
	권수제 禪宗永嘉集卷上 표제 永嘉集乾坤 서제 禪宗永嘉集序 판심제 永嘉集上 / 永嘉集下 저역자 玄覺(唐) 撰 ; 魏靜(唐) 述 ; 行靖(宋) 注 판종 木板本 / 跋文; 印經木活字 발행지 발행자 王室(仁粹大妃) 발행년 1472년(성종 3년) 장정 線裝 권사항 卷上下 장수 71張(禪宗永嘉集序 張次 第1-3張 / 卷上: 張次 第4-25 / 卷下: 張次 第1-29 / 釋音 중국본 후기: 張次 第30張 / 合綴: 無相大師行狀 張次 第1-10/ 고려판 간행 사실: 張次 第1-2張 / 인경 발문 張次 第1-4張) 광곽형태 上下單邊 左右雙邊 광곽종류 半郭 광곽크기 16.7cm×12.6cm 계선 有界 행자수 9行20字 주표기 註雙行 / 音釋雙行 어미 上下向黑魚尾 책크기 21.7cm×18.8cm 서문 禪宗永嘉集序 唐慶州刺史魏靜 述 宋石壁沙門行靖 注 간기 成化八年夏六月初吉純誠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永山府院君臣 金守溫 謹跋

8) 그러나 합철된 證道歌 부분은 음독을 위한 세필 구결이 좌우에 서로 다른 형태로 기입되는 등 2층 위가 있다. 음독구결과 다른 필체의 한글과 약체 구결이 석독과 관련하여 기입되어 있다.

이 문헌에 음독 구결이 동일한 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입되어 있다. 난상과 변란 밖에는 묵서로 과문, 내용 주석, 한글 연해 등이 쓰여 있다. ‘열운사로사’와 같이 한글과 구결이 함께 기입된 것이 있다. 구결자는 약체 구결자와 ‘底, 里, 時, 哀, 五’ 등이 함께 쓰였다. 변란 밖에 기입된 주석 등에 쓰인 한글은 문헌의 간행 시기가 『禪宗永嘉集諺解』 이후이므로 연해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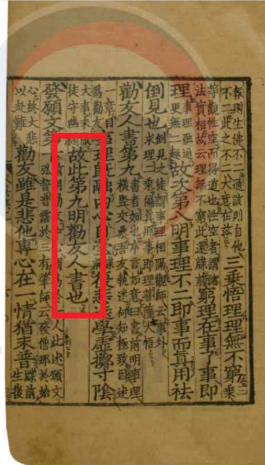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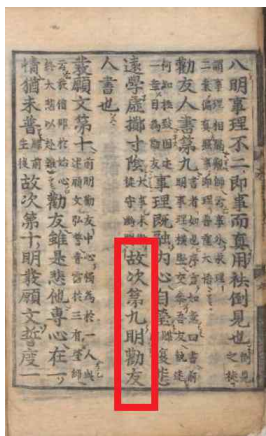
다음은 앞에서 다룬 5종의 문헌의 원문이 시작되는 4개 부분의 사진을 모아서 배열한 것이다. 동일한 판식과 서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아단문고	불갑사 불복장	개인 소장 가	개인 소장 나	서울역사박물관
				

3.1.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木板本 燕山君7(1501) 간행 『禪宗永嘉集』

고려판 『禪宗永嘉集』과 관련하여 그 저본과 계통이 다른 중국본에 대한 것을 다음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99년 간행 합천 석수암 간행본은 청룡사판의 복각본이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禪宗永嘉集』은 1501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그 저본이 홍무 25년 중국본 중간본으로 청룡사판과 행자수 등 판식이 다르고 문자 이동이 있다.

- 9) 남권희(2002:669-670)의 구결 자료 『禪宗永嘉集』에는 “이 책은 五針眼의 單卷 線裝 方冊本(上,下)으로 25.2×14.7cm의 크기이며 그 版式註記는 上單邊, 左右雙邊에 界線이 있는 9行20字, 註雙行이다. 版心은 上下向黑魚尾에 ‘永嘉集’이란 版心題를 가진다. 내용의 구성체제는 下卷뒤에 釋音과 중국에서의 간행내력이 있고 뒤에 高麗의 覺演 李邦直이 쓴 誌文이 있으며 마지막에 楊億이 쓴 9장의 ‘無相大師行狀’과 중국의 간행처가 기록되어 있다. 이 판본은 寶物641號과 같은 것이나 판의 마모를 비교하면 본 자료가 더 원형에 가까우며 指定本은 李邦直의 誌文까지밖에 없는 缺張本이지만 공통적으로 口訣이 적혀있다. 이 책은 처음 永嘉 玄覺禪師가 著述하고 宋의 行靖이 註解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의 著述은 永嘉大師가 維摩經으로 발심하고 曹溪에서의 하루밤을 통하여 正覺을 얻어 十門의 綱要를 모으고 五敎의 淵源을 궁구하여 정리하였다. 간행 후 舊板은 草堂寺에 있었으나 오랜 세월이 마멸되어 다시 간행한 것이 高麗에 전해지고 그것을 1375년 봄에 이 책의 誌를 쓴 李邦直에게 懶翁和尚이 檜巖寺에서 보여주었으나 바로 읽고 돌려드렸다. 懶翁이 죽은 후 다시 열람코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다가 그 제자 照峯 田禪人이 책을 가져와 重刊하여 流布하기를 청하므로 1381년 봄에 忠州의 靑龍寺에서 淡如, 覺訥, 李仁隣 등이 板刻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문헌은 무상대사행장이 합철된 본이다. 보물 제641호 아단문고본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문헌도 무상대사행장이 합철되어 있어 조선 초 청룡사판 재간행 시의 저본과 동일본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고려판에도 무상대사행장 등이 다른 내용이 합철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권미 간행 기록 홍치14년신유6월 간행 기록(권하 간기 시주질)	홍무25년 중간 기록 및 함허당찬송병서(권하:36ㄱ)
	
文字 異同	
故此第九	故次第九
	
보물 1297호(청룡사관 4종 동일)	장서각본

3.2. 5종 청룡사관 『禪宗永嘉集』형태서지 비교

앞에서 살펴본 청룡사관 『禪宗永嘉集』의 형태서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아단본	불갑사본	개인 가본	개인 나본	역박본	장서각본
소장처	(재)아단문고	영광 불갑사	개인	개인	서울 역사박물관	한중연 디지털 장서각
지정번호/청구번호	보물 제641호	보물 제1470호	-	-	보물 제1297호	청구번호: C4-28E MF번호: MF16/1372 PC4-28E_001_禪宗永嘉集_선종영가집_007
서명	禪宗永嘉集	禪宗永嘉集	禪宗永嘉集	禪宗永嘉集	禪宗永嘉集	禪宗永嘉集
板本	木板本	木板本	木板本	木板本	木板本	木板本
分卷	1冊	1冊	1冊	1冊	1冊	不分卷1冊
四周	上下單邊 左右雙邊	上下單邊 左右雙邊	上下單邊 左右雙邊	上下單邊 左右雙邊	上下單邊 左右雙邊	單邊

半郭	16.8cm ×12.0cm	17.0cm ×12.0cm	16.8cm ×12.0cm	17.2cm ×12.2cm	16.7cm ×12.6cm,	24.9cm ×17.6cm
長廣	26.7cm ×16.7cm	26.7cm ×15.6cm	23.3cm ×14.9cm	25.1cm ×16.5cm	21.7cm ×18.8cm	32.4cm ×21cm
界線	有界	有界	有界	有界	有界	無界
行字數	半葉 9行20字 註 小字雙行	半葉 9行20字 註 小字雙行	半葉 9行20字 註 小字雙行	半葉 9行20字 註 小字雙行	半葉 9行20字 註 小字雙行	半葉 9行17字 註 小字雙行
刊行年	蒼龍辛酉春 1381	(蒼龍辛酉春) (1381)	蒼龍辛酉春 1381	(蒼龍辛酉春) (1381)	成宗3 1472	燕山君7 1501
魚尾	上下向黑魚尾	上下向黑魚尾	上下向黑魚尾	上下向黑魚尾	上下向黑魚尾	上下向黑魚尾
版心題	永嘉集上/永嘉 集下	永嘉集上/永嘉 集下/永嘉集下	永嘉集上/永嘉 集下	永嘉集上/永嘉 集下	永嘉集上/永嘉 集下	永
합철	없음	없음	없음	영가진각전사 중도가	무상대사행장	함허당찬송병서 함허당설의
기타			사주절단 배접	배접		

5종 문헌의 반곽의 크기, 간기, 합철 여부, 글씨체 등을 살펴볼 때 1472년 개간본 이외 4종은 동일한 판본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후에 복각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문헌들에 기입된 구결은 간행 1381년을 상한으로 하는 고려 말 조선 초에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 문헌에 기입된 구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구결의 특성을 각 문헌별로 비교하고 이를 1464년에 간행된 『禪宗永嘉集諺解』의 구결과 비교해 보면 여말 선초 능엄경 음독구결 자료와 함께 구결의 계통과 언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토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고려판 『禪宗永嘉集』5종에 기입 구결 비교 예시

앞에서 각 문헌별로 기입된 구결 등 목서의 특징은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고려판 『禪宗永嘉集』 5종의 문헌에 기입된 구결을 구문별로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이에 해당하는 『禪宗永嘉集諺解』의 구결과 언해 부분을 덧붙여 구문별로 제시한 것이다. 서 부분은 개인 소장 나본의 훼손이 많아 상권 시작 부분의 4장 앞면과 4장 뒷면의 일부에 해당하는 20단락에 기입된 구결을 문헌별로 모아 다음에 제시한다.¹⁰⁾

①

<아단 주석47:1-3> 禪宗者1 唐梵^ㄷ 合目^ㄷ 梵云禪那1 此翻思惟修^ㄱ 亦名靜慮^ㄷ 斯皆定慧(좌토^ㄹ)之通(좌토^ㄷ) 稱也^ㄴ 宗者1 主也^ㄱ 尊^ㄷ也^ㄷ 良又由尊(좌토^ㄷ)於禪(좌토^ㄷ)故又 以禪又 爲主^ㄷ 融通諸法(좌토^ㄷ) 唯一禪理^ㄷ 經云^ㄴ 森羅^ㄷ及萬像(좌토^ㄷ) 一法(좌토^ㄹ)之所印^ㄴ 故(좌-그리)又曰禪宗^ㄷ 餘^ㄷ如常說(좌-옴)^ㄷ

<불갑 주석47:1-3> 禪宗者1 唐梵^ㄷ 合目^ㄷ 梵云禪那1 此翻思惟修^ㄱ 亦名靜慮^ㄷ 斯皆定慧之通稱也^ㄴ 宗者1 主也^ㄱ 尊也^ㄷ 良由尊於禪故又 以禪又 爲主^ㄷ 融通諸法^ㄴ 唯一禪理^ㄷ 經云森羅及萬像^ㄴ 一法之所印^ㄷ 故曰禪宗^ㄷ 餘如常說^ㄷ

<개인1 주석47:1-3> 禪宗者1 唐梵^ㄷ 合目^ㄷ 梵云禪那^ㄱ 此翻思惟修^ㄱ 亦名靜慮^ㄷ 斯皆定慧之通稱也^ㄴ 宗者1 主也^ㄱ 尊也^ㄷ 良由尊於禪故又 以禪又 爲主^ㄷ 融通諸法^ㄴ 唯一禪理^ㄷ 經云森羅及萬像^ㄴ 一法之所印^ㄷ 故曰禪宗^ㄷ 餘如常說^ㄷ

10) 개인 소장 가본은 ‘개인1’로 개인 소장 나본은 ‘개인2’로 간략히 하였다.

<개인2 주석4ㄱ:1-3> 禪宗者 唐梵乙 合目ッヒ 梵云禪那 此翻思惟修 亦名靜慮 斯皆定慧之通稱也 宗者 主也 尊也 良由尊於禪故 以禪 爲主ッヒ 融通諸法ッヒ 唯一禪理 經云森羅及萬像 一法之所印 故曰禪宗 餘如常說 ㄱ

<역박 주석4ㄱ:1-3> 禪宗者 唐梵乙 合目ッヒ 梵云禪那 此翻思惟修 亦名靜慮 斯皆定慧之通稱也 宗者 主也 尊也 良由尊於禪故 以禪 爲主ッヒ 融通諸法 唯一禪理 經云ッハム 森羅及萬像 一法之所印ニヒス 故曰 曰禪宗 餘如常說ッヒス

<언해구결 永嘉上1ㄱ> 禪宗者 唐梵을 합目 니 梵云禪那 此翻思惟修 亦名靜慮 니 斯皆定慧之通稱也 라 宗者 主也 尊也 니 良由尊於禪故로 以禪으로 爲主 니라 融通諸法이 唯一禪理니 經에 云 샤 森羅及萬像이 一法之所印이라 시니 故로 曰禪宗이니 餘如常說 니라

<언해 永嘉上1ㄱ-1ㄴ> 禪宗은 唐梵을 모도아 일흥하니 梵에 닐온 禪那는 예서 翻譯엔 스랑하야 닛고 미며 또 일후미 慮 靜호미니이다 定慧의 通한 닐우미라 宗은 웃드미며 尊홀씨니 實로 禪을 尊하는 전초로 禪으로 웃듬 사므니라 諸法을 노겨 通호미 오직 한 禪理니 經에 니르샤디 森羅와 萬像과 한 法의 印흔 거시라 하시니 그럴씨 닐오디 禪宗이니 나므닌 상네 닐옴 곧히니라

②

<아단 본문4ㄱ:3> 唐永嘉沙門 玄覺 撰

<불갑 본문4ㄱ:3> 唐永嘉沙門 玄覺 撰

<개인1 본문4ㄱ:3> 唐永嘉沙門 玄覺 撰

<개인2 본문4ㄱ:3> 唐永嘉沙門 玄覺 撰

<역박 본문4ㄱ:3> 唐永嘉沙門 玄覺 撰

<언해구결 永嘉上2ㄱ> 唐永嘉沙門 玄覺 撰/宋石壁沙門 行靖 註/晉水沙門 淨源 修定科

<언해 永嘉上2ㄱ>

③

<아단 본문4ㄱ:3> 大章乙 分爲十門(좌토 ㄴ, ㄴ, ㄴ) ㄴ, ㄴ,

<불갑 본문4ㄱ:3> 大章乙 分爲十門 ㄴ, ㄴ,

<개인1 본문4ㄱ:3> 大章乙 分爲十門 ㄴ, ㄴ,

<개인2 본문4ㄱ:3> 大章乙 分爲十門 ㄴ, ㄴ,

<역박 본문4ㄱ:3> 大章乙 分爲十門 ㄴ, ㄴ,

<언해구결 永嘉上2ㄱ> 大章을 分爲十門 노라

<언해 永嘉上2ㄱ> 大章을 讞화 열 門에 밍 ㄱ노라

④

<아단 주석4ㄱ:4-6> 越生死流 無先慕道 道之趣向 利止橋奢 橋奢 若忘 三業 純淨 尸羅 無缺 三昧 可修 三昧 調心 其智 必發 定慧 等學 居中不偏 三觀 更資 須知位次 位次 無濫 事理 何殊 大意 了知 難忘故友 故友 則局 發願 通該 前後十篇 生起 如此

<불갑 주석4ㄱ:4-6> 越生死流 無先慕道 道之趣向 利止橋奢 橋奢 若忘 三業 純淨 尸羅 無缺 三昧 可修 三昧 調心 其智 必發 定慧 等學 居中不偏 三觀 更資 須知位次 位次 無濫 事理 何殊 大意 了知 難忘故友 故友 則局 發願 通該 前後十篇 生起 如此

<개인1 주석4ㄱ:4-6> 越生死流 無先慕道 道之趣向 利止橋奢 橋奢 若忘 三業 純淨 尸羅 無缺 三昧 可修 三昧 調心 其智 必發 定慧 等學 居中不偏 三觀 更資 須知位次 位次 無濫 事理 何殊 大意 了知 難忘故友 故友 則局 發願 通該 前後十篇 生起 如此

<개인2 주석4ㄱ:4-6> 越生死流 無先慕道 道之趣向 利止橋奢 橋奢 若忘 三業 純淨 尸羅 無(缺)三昧 可修 三昧 調心 其智 必發 定慧 等學

テ 居中(不偏)三觀、更資ロカ 須知位次ヒ、位次無濫、ト大 事理何殊リキ 大(意了知)難忘故友
ヒ 故友ト 則局トヒハ 發願ッヲ 通該ッヒ 前後十篇生起、如此ッヒ、

<역박 주석4ㄱ:4-6> 越生死流ト 無先慕道キ 道之趣向ト 利止橋奢キ 橋奢ヒ 若忘ッテ 三業、純淨ッ
ロ 尸羅、無缺ッテ 三昧ヒ 可修キ 三昧ヌ 調心ッテ 其智、必發ッロ 定慧ヒ 等學ッテ 居中不
偏ッロ 三觀ヒ 更資古カ 須知位次ヒ 位次無濫ッヲ 事理、何殊里五 大意ヒ 了知ッヲ 難忘故
友ヒ 故友ト 則局ハヒト 發願シ 通該ッヒ 前後十篇セ 生起、如此ッヒハ

<언해구결 永嘉上2ㄱ-2ㄴ> 越生死流 無先慕道 | 오 道之趣向은 利止橋奢 | 오 橋奢 若忘 면 三業
이 純淨 고 尸羅 | 無缺 면 三昧 可修 | 오 三昧로 調心 면 其智 | 必發 고 定慧를 等學
면 居中不偏 고 三觀을 更資코도 須知位次 | 니 位次 | 無濫 나 事理 | 何殊 | 리오 大意 了
知 안 難忘故友 | 니 故友 則局거니와 發願이 通該 니 前後十篇入 生起 | 如此 니라

<언해 永嘉上2ㄴ-3ㄱ> 生死流 건나몬 慕道만 문제니 업고 道이 가몬 橋奢 그추미 리코 橋奢를 니즈
면 三業이 純히 조코 尸羅 | 이주미 업스면 【尸羅는 예서 닐오매 戒라】 三昧를 어루 닛 ㄱ리오 三
昧로 ㅁㅁㅁ 고티면 그 智 반ㄱ기 發호고 定慧를 훈가지로 비호면 中에 이서 기우디 아니호고 三
觀을 서르 돕고도 모로매 位次를 아로리니 位次 | 너뭇 업스나 事理 엇데 다르리오 큰 ㅅ들 ㅅ뭇
아란 故友 니주미 어려우니 故友는 좁거니와 發願이샤 通히 ㄱ즈니 前後 十篇入 니러나미 이 곧
호니라

⑤

<아단 본문4ㄱ:7> 慕道志儀第一、、

<불갑 본문4ㄱ:7> 慕道志儀第一、ハ

<개인1 본문4ㄱ:7> 慕道志儀(좌토ㄱ)第一

<개인2 본문4ㄱ:7> 慕道志儀第一

<역박 본문4ㄱ:7> 慕道志儀第一ハ

<언해구결 永嘉上3ㄱ> 慕道志儀第一이라

<언해 永嘉上3ㄱ> 道思 慕嚮 志와 儀와 第一이라

⑥

<아단 주석4ㄱ:7> 尋師學道ト 立志堅強、ヒ 嵒中散、曰ノム 人(좌토ㄱ)而無志、非人也、ッヒ、

<불갑 주석4ㄱ:7> 尋師學道ト 立志堅、ヒ 強嵒中散、曰ノム 人而無志、非人也ハッヒ、

<개인1 주석4ㄱ:7> 尋師學道大ト 立志堅強ノリヒ 嵒中散曰人キ 而無志大ト 非人也ッヒ、

<개인2 주석4ㄱ:7> 尋師學道ノヒハ 立志、堅強シッリ、 嵒中散、曰人而無志テ 非人也ヲセ |

<역박 주석4ㄱ:7> 尋師學道ト 立志堅強ヒ 嵒中散、曰ノム 人而無志、非人也ハ

<언해 구결 永嘉上3ㄱ> 尋師學道 立志堅強이니 嵒中散이 曰호 人而無志 | 非人也 | 라 니라

<언해 永嘉上3ㄱ> 스승을 求호야 道 호몬 立志 구들띠니 嵒中散이 닐오디 사르미오 志 업스니 사름
아니라 호니라

⑦

<아단 주석4ㄱ:7-8> 夫欲修道、ト大ト 先須立志ヒ

<불갑 주석4ㄱ:7-8> 夫欲修道、カト 先須立志ヒ

<개인1 주석4ㄱ:7-8> 夫欲修道 先須立志ノリヒ

<개인2 주석4ㄱ:7-8> 夫欲修道大 先須立志ノリヒ

<역박 주석4ㄱ:7-8> 夫欲修道ト大 先須立志ヒ

<언해구결 永嘉上3ㄱ> 夫欲修道 덴 先須立志 | 니

<언해 永嘉上3ㄱ> 도를 닛고져 홀뎌덴 몬져 모로매 志를 세울띠니

⑧

<아단 주석4ㄱ:8> 志(좌토ㄱ) 不(モ)可奪、ハシ 道、然後オシ 成ッリ、

<불갑 주석4ㄱ:8> 志不可奪、シ 道、然後ハシ 成ッ、

<개인1 주석4ㄱ:8> 志不可奪シ 道然後成オヒ |

<개인2 주석4ㄱ:8> 志不可奪、ハシ 道然後ヲ 成ッリオ |

<역박 주석4ㄱ:8> 志不可奪々 道 然後 成ッ 里々

<언해구결 永嘉上3ㄴ> 志不可奪이라 道然後成 리라

<언해 永嘉上3ㄴ> 志를 앓디 못 하야사 道 | 그런 後에사 일리라

⑨

<아단 본문4ㄱ:8> 及事師儀則 彰乎軌訓(좌토ッヒ)ッリ、

<불갑 본문4ㄱ:8> 及事師儀則 彰乎軌訓ッヒ

<개인1 본문4ㄱ:8> 及事師儀則 彰乎軌訓ッヒ

<개인2 본문4ㄱ:8> 及事師儀則 彰乎軌訓ッヒ、

<역박 본문4ㄱ:8> 及事師儀則 彰乎軌訓ッヒ

<언해구결 永嘉上3ㄴ> 及事師儀則은 彰乎軌訓 니

<언해 永嘉上3ㄴ> 또 스승 섬골 法은 軌訓에 나뉜니【軌는 法이오 訓은 ㄱㄹ치실씨라

⑩

<아단 주석4ㄱ:8> 則字 屬上句ッヒ、

<불갑 주석4ㄱ:8> 則字 屬上句ッヒ스

<개인1 주석4ㄱ:8> 則字 屬上句ッヒ、

<개인2 주석4ㄱ:8> 則字 屬上句ッヒ、

<역박 주석4ㄱ:8> 則字 屬上句ッヒ、

<언해구결 永嘉上3ㄴ> 則字 | 屬上句 니라

<언해 永嘉上3ㄴ> 卽字 | 웃 句에 브트니라

⑪

<아단 본문4ㄱ:9> 故標第一オ 慕道儀式ッス

<불갑 본문4ㄱ:9> 故標第一オ 慕道儀式ッス、

<개인1 본문4ㄱ:9> 故標第一 慕道儀式ッ?ヒ、

<개인2 본문4ㄱ:9> 故標第一 慕道儀式

<역박 본문4ㄱ:9> 故ス 標第一 慕道儀式ッスヒ、

<언해구결 永嘉上3ㄴ> 故로 標第一에 慕道儀式 노라

<언해 永嘉上3ㄴ> 그럴씨 第一에 道思 慕홀 法을 標호노라【標는 나돌씨라】

⑫

<아단 주석4ㄱ:9> 準前思之ッ、 下九倣此ッヒ、

<불갑 주석4ㄱ:9> 準前思之ッ、 下九倣此ッヒ、

<개인1 주석4ㄱ:9> 準前思之ノリヒ 下九倣此ノリヒ

<개인2 주석4ㄱ:9> 準(前思)之ノリヒ (下九倣)此ッヒ、

<역박 주석4ㄱ:9> 準前思之ノリヒ 下九倣此ノリヒ

<언해구결 永嘉上3ㄴ> 準前思之 라 下九 | 倣此 니라

<언해 永嘉上3ㄴ-4ㄱ> 알폴 마초아 스랑하라 아랫 아호비 이를 브트니라

⑬

<아단 본문4ㄴ:1> 戒橋奢意第二스

<불갑 본문4ㄴ:1> 戒橋奢意第二

<개인1 본문4ㄴ:1> 戒橋奢意第二

<개인2 본문4ㄴ:1> 戒橋奢意第二、

<역박 본문4ㄴ:1> 戒橋奢意第二스

<언해구결 永嘉上4ㄱ> 戒橋奢意第二라

<언해 永嘉上4ㄱ> 橋慢호며 奢侈호 罷 警戒호 第二라

⑭

<아단 주석4ㄴ:1> 前明慕道 而 而已親仁ッ 更若橋奢ッ 道 何(좌토ヒ) 由辦 〆リキ 劉子 云
ノム 奢心 易動 儉志 難倣 〆、ッヒ、(음주-全)

제59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불갑 주석4ㄴ:1> 前明慕道ㄴ 而已親仁(更若)橋奢ㄴ까1 道乙 何由辦ㄴ히키 劉子云ノム 奢心1 易動
キ 儉志1 難俊ㄴ、ッヒ、

<개인1 주석4ㄴ:1> 前1 明慕道而已ヒ 親仁ッリ 更若橋奢ッテ 道何由辦リキ 劉子云奢心1 易動オヒ
ト 儉志難俊、ッカ1 (**구결자를 피하여 ‘俊’의 音註 ‘音全改’가 쓰여 있음**)

<개인2 주석4ㄴ:1> 前(明慕道)而已ヒ 親仁ロカ 更若橋奢ッテ 道何由辦リキ 劉(子云)奢心1 易動オヒ
ト 儉志1 難俊、ッカ1

<역박 주석4ㄴ:1> 前明慕道ㄴ、 而已親仁ッリ 更若橋奢ッテ 道何由辦里五 劉子、云ノム 奢心1 易動
オヒト 儉志難俊、ッカ1 (‘카’의 세로획이 ‘ㅣ’와 한 획처럼 길게 그어져 있음)

<언해구결 永嘉上4ㄱ> 前明慕道애 而已親仁 나 更若橋奢 면 道何由辦이리오 劉子ㅣ 云호 奢心은
易動이오 儉志 難俊이라 니라

<언해 永嘉上4ㄱ> 알피 慕道 불기샤매 헉마 仁을 親헉나 쏘 헉다가 橋奢헉면 道를 어딜브터 일우리오
劉子ㅣ 널오디 奢心은 뭐유미 쉽고 儉志는 고토티 어려우니라 헉니라

⑮

<아단 본문4ㄴ:2> 初雖立志乙 修ㄴ 道ㄴ 善識軌儀ㄴヲ

<불갑 본문4ㄴ:2> 初雖立志修道ㄴ 善識軌儀ㄴヲ

<개인1 본문4ㄴ:2> 初雖立志修道ㄴ 善識軌儀ㄴヲ

<개인2 본문4ㄴ:2> 初雖立志修道ㄴ 善識軌儀

<역박 본문4ㄴ:2> 初雖立志修道ㄴ 善識軌儀ㄴヲ

<언해구결 永嘉上4ㄱ> 初雖立志修道 야 善識軌儀 나

<언해 永嘉上4ㄱ-4ㄴ> 처삼 비록 道 닳고매 志를 세여 軌儀를 이대 아나

⑯

<아단 주석4ㄴ:2> 牒前ッニヒ、

<불갑 주석4ㄴ:2> 牒前

<개인1 주석4ㄴ:2> 牒前

<개인2 주석4ㄴ:2> 牒前

<역박 주석4ㄴ:2> 牒前

<언해구결 永嘉上4ㄴ> 牒前 시니라

<언해 永嘉上4ㄴ> 알폴 牒헉시니라

⑰

<아단 본문4ㄴ:2-3> 若三業ㄴ 橋奢ッテ 妄心ㄴ 擾動ッリオヒ 何能得定(좌토ノ乙)ㄴリキ

<불갑 본문4ㄴ:2-3> 若三業ㄴ 橋奢ㄴ까1 妄心ㄴ 擾動ッヒオヒ 何能得定ㄴ히키

<개인1 본문4ㄴ:2-3> 若三業橋奢ッテ 妄心ㄴ 擾動何能得定リキ

<개인2 본문4ㄴ:2-3> 若三業ㄴ 橋奢ッテ 妄心ㄴ 擾動ッリオヒ 何能得定リキ

<역박 본문4ㄴ:2-3> 若三業ㄴ 橋奢ッテ 妄心ㄴ 擾動ッ里オヒ 何能得定里五

<언해구결 永嘉上4ㄴ> 若三業이 橋奢 면 妄心이 擾動 리어니 何能得定이리오

<언해 永嘉上4ㄴ> 헉다가 三業이 橋奢헉면 妄心이 어즈러이 뭐리어니 엇데 能히 定호몰 得헉리오

⑱

<아단 주석4ㄴ:3> 定1 謂無(좌토乙) 一定(좌토ッ1)之志ヒ 經ㄴ 云ッハム 心志不(ㄱ)定ㄴ 意行ㄴ
穢惡ッテ 雖復出家ㄴヲ 故是賤人ㄴ、ッニヒ、

<불갑 주석4ㄴ:3> 定1 謂無一定之志ヒ 經云心志不定ㄴ 意行ㄴ 穢惡ㄴ까1 雖復出家ッヲ 故是賤人
、ッカ1

<개인1 주석4ㄴ:3> 定1 謂無一定之志ヒ 經云心志不定意行ㄴ 穢惡ㄴ까(좌토ッテ) 雖復出家ㄴヲ 故是
賤(賊 주목 교정) 人、ッカ1

<개인2 주석4ㄴ:3> 定1 謂無一定之志ヒ、 經云心志不定ㄴ 意行穢惡ッテ 雖復出家ㄴヲ 故是賤人
(?)ㄴ

<역박 주석4ㄴ:3> 定1 謂無一定之志ヒ 經ㄴ 云ッハム 心志不定ㄴ 意行ㄴ 穢惡ッテ 雖復出家ㄴヲ

故是賤人、ッニヒ、

<언해구결 永嘉上4ㄴ> 定은 謂無一定之志니 經에 云 샤 心志不定 야 意行이 穢惡 면 雖復出家 나 故是賤人이라 시니라

<언해 永嘉上4ㄴ-5ㄱ> 定은 一定흔 뜯 업수몰 니르시니 經에 니르샤디 心志 一定티 아니흐야 意行이 더러우면 비록 出家흐나 이 賤人이라 흐시니라

⑱

<아단 본문 4ㄴ:3-4> 故次第二ニ、明戒乙 橋奢意也ッヌ、

<불갑 본문 4ㄴ:3-4> 故次第二ニ、明戒橋奢意也ッヌ、

<개인 1본문 4ㄴ:3-4> 故次第二明戒橋奢意也ッヌ、

<개인2 본문 4ㄴ:3-4> 故次第二ニ、明戒橋奢意也ッヌ、

<역박 본문 4ㄴ:3-4> 故次第二ニ、明戒橋奢意也ッヌ、

<언해구결 永嘉上5ㄱ> 故次第二예 明戒橋奢意也 노라

<언해 永嘉上5ㄱ> 그럴씨 버거 第二예 橋奢意 警戒호몰 불기노라

⑲

<아단 본문 4ㄴ:5> 淨脩三業第三ニ、

<불갑 본문 4ㄴ:5> 淨脩三業第三ニ、

<개인 1본문 4ㄴ:5> 淨脩三業第三

<개인2 본문 4ㄴ:5> 淨脩三業第三、

<역박 본문 4ㄴ:5> 淨脩三業第三

<언해구결 永嘉上5ㄱ> 淨脩三業第三이라

<언해 永嘉上5ㄱ> 三業 조히 닷곰 第三이라

①~⑲은 5종 문헌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의 원문과 주석을 언해의 분절에 따라 나누고, 각 문헌에 기입된 구결을 옮겨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문헌별 특성과 차이점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특성은 이 문헌 전체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결어미가 결합하는 부분과 문장이 종결되는 곳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언해의 구결이 ‘시니라’인 구문에서 종결 부분이 ‘ㄹㄷㅅㅅ’, ‘ㄱㅅㅅ’인 ‘다’로 종결하는 종류와 ‘ㄷㅅㅅ’로 언해와 유사한 ‘라’로 끝맺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존대를 나타내는 ‘ㄷ, ㅅ, ㅅ’의 기입 여부와 객체 존대와 관련한 ‘ㄷ, ㅅㅅ’의 기입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ㄷ’와 ‘오’가 결합된 ‘ㄷ’가 다르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어와 경어법 관련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큰 차이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체적인 계통을 설정할 수준 정도의 분량을 모으는 토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생략

참고 사이트

경북대학교 도서관(<https://kudos.knu.ac.kr>)

고려대학교 도서관(<https://library.korea.ac.kr>)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http://lib.dongguk.edu>)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재)아단문고(<http://adanmungo.org>)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https://library.yonsei.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http://jsg.aks.ac.kr>)

참고문헌

- 김성수·남권희·서병패·옥영정·윤용현(2013), 『朝鮮時代 記錄文化 研究』| 목판인쇄 기록물 |, 청주고인쇄박물관.
- 南權熙(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古印刷博物館.
- 남권희(2009),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敎 書籍에 관한 연구」, 2009 조선왕실 주조 금속 활자 복원사업 학술대회 논문집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청주고인쇄박물관. 247-320.
- 안병희(1979), 「중세어의 한글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규장각』 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09-147.
- 이인혜(1989), 「기화의 『선종영가집과주설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장영길 편역(2007), 『역주 선종영가집언해』 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장영길 편역(2007), 『역주 선종영가집언해』 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전준모(2015), 「得通 己和의 회통론 연구」, 『한국불교사연구』 7,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 연구소, 155-180.
- 최동호·전경옥·이창희(1996), 『禪宗永嘉集』, 도서출판 세계사.
- 한자경(2016), 『선종영가집 강해』, 불광출판사.